

2024년도 국정감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록

국 회 사 무 처

피감사기관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그 소속기관,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일 시 2024년10월24일(목)

장 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10시07분 감사개시)

○위원장 전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유산청 그리고 각각의 소속기관, 공공기관과 유관기관 등 61개 기관에 대하여 2024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이번 국정감사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동안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유산청 소관 분야에 대한 감사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지적했던 사항과 대책 마련을 요구했던 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시 한번 확인하는 종합감사일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위원회의 국정감사가 내실 있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장관님을 비롯한 각 기관장님들께서도 그동안 감사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 등에 대해 명확한 소명과 실질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시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국정감사장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가유산청장 등 총 61개 기관의 기관장을 비롯한 기관증인 대다수가 출석하여 있습니다. 다만 공간 제약으로 인하여 좌석배치도에 명시된 인원 외의 기관증인은 국정감사장 외부에서 대기 중이므로 국정감사장 외부에 대기 중인 증인에게 신문하실 위원님은 미리 신문 대상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관증인 선서 순서입니다.

오늘 출석한 기관증인은 총 백스물세 분입니다.

이기홍 대한체육회 회장은 남원 유소년 스포츠 콤플렉스 입지 관련 업무협약 및 주요 현안 논의 등을 사유로, 정진완 대한장애인체육회 회장은 2025 IPC 총회 유치로 인한 4개국 대표단 회의 개최를 사유로, 전기범 대한체육회 훈련기획부장은 건강상의 사유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출석한 기관증인의 선서는 각 기관별 국정감사에서 이미 실시하였고 그 선서가 종합감사에도 유효한 것으로 공지하였으므로 전체 증인에 대하여 선서서만 받고 선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종합감사 때까지 보고 또는 제출할

것을 요구한 사항 등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유산청의 후속조치 현황은 배부되어 있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그 밖의 피감기관들의 후속조치 현황은 위원님들의 노트북 단말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의사진행발언이지요?

이기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현 위원** 이기현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저희가 이번 국감 때 문체위에서 가장 이슈가 됐던 사건이 KTV의 황제관람 건이었습니다. 김건희 여사를 위한 황제관람 건이 언론의 많은 조명을 받았고 또 김건희 여사의 황제관람이 국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건과 관련돼서 가장 핵심 중인이 최재혁 대통령실 홍보기획관입니다. 저희가 두 번 증인 요청을 했었는데 이분이 두 번 다 불출석사유서를 내고 지금 병원인지 대통령비서실인지 모르는 곳에 숨어 있습니다. 저는 이분을 그냥 놔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꼭 동행명령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15일 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했고 저희의 행정직원들이 동행명령장을 가지고 갔을 때 병원을 통해서 내가 입원해 있는지 여부, 어느 병실인지 여부에 대해서 알려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해서 병원장이 똑같은 태도로, 저희들이 동행명령장을 집행하지 못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은 꼭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그리고 최재혁 방송기획관에게 전달해서 이분이 꼭 오늘 국감장에 출석해서 그날 있었던 사건의 진실을 명약관화하게 밝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오늘도 동행명령장 수령을 거부한다고 하면 명백한 국회증감법 위반입니다. 이분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동행명령장을 신속하게 발부해 주시고, 저희 행정관들이 바로 가서 최재혁 방송기획관을 데려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전재수** 박정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하 위원** 국정감사 오늘 종합감사 마지막 날인데 마지막 날까지 우리 문체위를 잘 이끌어 주신 위원장님 그다음에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불미스럽게도 바로 엊그제 저희가 감사를 했던 대한체육회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기홍 대한체육회장이 어제 불현듯 갑자기, 그저께 나와서 출석을 하고 저하고도 여러 가지 오늘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지켜지지 않은 가운데 불출석통보서를 제출했습니다. 그것도 여당 간사인 저하고는 전혀 협의도 없었고 저희 보좌진에게도 얘기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불출석을 했습니다. 이것은 국회 그다음에 저희 문체위를 너무나 모독을 한 행위라고밖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저희 법에 보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보면 출석 요구일 3일 전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요. 요청했던 오늘 10월 24일을 위해서 저희가 9월 24일 날 의결을 했습니다만 이 이후 10월 첫째 주에 가서 오늘 명분으로 평계를 댄 남원 관련한 행사를 그제서야 타진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일부러 국회에 출

석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행사를 만들었던 거라고밖에 볼 수 없고, 정말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면 그저께 있었던 저희 문체위의 대한체육회 국감에서 얘기를 하고 우리 위원님들 양해를 구했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국회를 여러 차례 이렇게 무시한 대한체육회 이기홍 회장에 대한 동행명령을 즉각 발부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 그리고 의결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전재수 다음은 강유정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유정 위원 자료 허위 제출과 증인 불출석 관련 의사진행발언이고요.

영진위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비상임위원에 대한 정계권한과 관련해 법률자문 의견서 요청했습니다. 외부 자문 의견서 하나만 제출했는데 이후에 계속 독촉을 했더니 하나 더 제출했습니다만 숨기고 제출하지 않는 건 하나 더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하나 더 있고요.

더 심각한 것은 그 제출하지 않고 숨기는 의견서에는 지금의 영진위 주장과 정반대인, 180도로 다른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의도적으로 숨기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감 피감기관이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취사선택을 하고 의도적으로 배제해서 자료를 선택적으로 제출한 것 자체가 국회증언·감정법에 정면으로 위반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첫 번째, 주질의시간 전까지 영진위원회, 영진위가 법무법인별로 의뢰한 상세 내역 전부, 비용 지급현황 자료 제출해 줄 것을 요청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허위로 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않는다면 상임위 차원에서의 고발을 요청드립니다.

두 번째로 18일 감사에서 제가 말씀드린 적 있는데 남규홍 PD, 발언 이후에 언론 보도가 크게 나자 해외 출장이라는 불출석사유서를 뒤늦게 보냈습니다. 출국 날짜를 보니까 이미 채택 사실 인지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옛새 뒤에 출국하면서 사유서 내용도 신뢰하기 매우 어려운, 촬영이 아닌 신규 프로그램 준비라는 이유를 대서 검증할 길도 없습니다. 행정실 연락도 피할 필요가 없었지요. 이에 대해서 사실상 증인 출석을 피하기 위한 도피성 출국이라고 보고 남규홍 증인을 위원회 차원에서 고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요.

1건 더 있습니다.

축구협회가 문체부 고위공직자를 전관예우로 영입하는 관행이 있다 해서 이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 요구했습니다. 어떻게 요청했느냐면 축구협회에 임원 명단 제출을 요구하면서 문체부 출신 임원은 별도 표기해 달라라고 했으나 문체부 전 차관이었던 김정배 현 상근부회장밖에 없다라는 거짓 답변을 해 왔습니다. 김기홍 전 문체부 국장은 아예 근무경력을 빼 버리거나 곽영진 전 차관 같은 경우는 임원 명단에서 누락하는 방식을 선택했는데요.

의원실로부터 자료제출을 요구받았지만 허위 자료를 작성한 축구협회 그리고 영터리 자료를 확인하고도 별도의 설명 없이 제출한 문체부 둘 다 저는 국회를 기망한 것이라고 봅니다.

동료 위원들이 다 경험하셨고 국민께서도 이미 알고 계시다시피 축구협회의 허위 자료

제출, 허위 공시가 한두 번이 아니라 매우 상습적입니다. 이에 국회증언·감정법 제4조의2에 따라서 계속 국회에 허위 자료를 제출한 축구협회 그리고 그 전달 경로로써 문체부 관계자가 제대로 역할을 못 하고 있음에 대해서 징계 요구를 안건으로 상정해 주시고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전재수 김승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수 위원 앞서 박정하 간사께서 이기홍 대한체육회장의 불출석 관련해서 동행명령을 요청했습니다만 이 불출석사유가 얼마나 엉터리인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출석을 위해 가지고 오늘 남원 유소년 스포츠 콤플렉스 건립 사업의 업무협약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21일 날 부랴부랴 대한체육회에서 출장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남원시에서 22일 날 그 공문을 대한체육회로 보낸 겁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오늘 남원시장, 대한체육회 회장 그리고 전북도지사가 참석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전북도지사는 참석조차 않는다는 겁니다. 애초에는 남원시장의 일정 계획도 없는 행사가 갑자기 대한체육회의 요청으로 급조되어서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이게 얼마나 국회를 참 우습게 보고 행동을 하면 이렇게 이런 사유로 행사까지 임의로 만들어서 불출석사유를 내겠습니까? 엄격하게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이기홍 회장은 몇 번의 문체위 출석 과정에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위증을 한 것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4일 문체위 현안질의 시 해단식과 관련해 가지고 준비를 보고하는 직원에게 ‘장차관이 해단식에 오면 무슨 일을 당할지 나는 책임 못 진다’, 또 체육회 직원한테는 ‘장관이 해단식에 오면 당신을 인사조치하겠다’ 이렇게 폭언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니까 바로 이기홍 회장은 ‘직원한테 그런 얘기를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부정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문체부 체육협력관한테 다시 확인하니까 분명히 체육협력관이 들었다고 또 한 번 확인했습니다. 옆에 증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렇게 당당하게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해단식을 안 한 이유에 대해서 수차 변명을 하면서 굉장히 이동 거리가 길고 또 짐들을 다 옮겨야 되기 때문에 선수들이 불편해서 그렇게, 선수 편의를 위해서 해단식을 안 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동 거리는 불과 80m밖에 안 되고 당초 해단식 계획, 대한체육회에서 만든 공문을 보면 짐을 가지고 해단식 장소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고 짐들은 전부 다 게이트 앞에 그대로 놔두고 대한체육회 직원들이 그것을 지키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명백하게 거짓 증언이고.

저번 국정감사 질의에서 워크숍 관련해서 물으니까 본인이 몇 차로 해서 나눠서 했다고 그러는데 지난해 워크숍은 딱 한 차례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차례 거짓 증언을 한 것이 확인되는 만큼 국회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지고 위증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발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별한, 여기에 대해서 합당한 소명이 없을 경우에 고발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회 차원에서 고발 여부를 검토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전재수 의사진행발언하실 위원님들이 더 계시기 때문에 잠시만 제가 그동안 나왔던 의사진행발언 중간 정리를 좀 하고 위원님들의 의사진행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재혁 중인과 이기홍 중인의 불출석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야 간사 위원님들 간에 논의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진행발언이 끝나는 대로 잠시 상임위를 속개해서 후속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유정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해서는, 영화진흥위원장님 나와 계시지요?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예.

○위원장 전재수 조금 전에 강유정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들으셨지요?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예.

○위원장 전재수 주질의 전에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축구협회의 부실·허위 자료 제출과 관련해서 문체부장관님, 이 부분은 체육국장으로 하여금 해서 허위·부실 자료 말고 정확한 자료를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여기까지 중간 정리하고.

조계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원 위원 10월 18일 국정감사 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병국 위원장의 위증과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18일 국정감사에서 정병국 위원장은 한국문화진흥 이상철 대표에 대한 낙하산 인사를 지적하는 저의 질의에 대해서 사실을 왜곡했을 뿐만 아니라 심각한 거짓 진술로 일관했습니다. 심지어 직전 대표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형사상 구속되었다고 했던 본인의 진술이 거짓이었다는 사실까지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은커녕 또 다른 거짓말을 반복하며 위증한 것입니다.

첫째로 정병국 위원장은 한국문화진흥 이상철 대표가 취임한 이후 뉴서울CC 골프장 경영 상태가 좋아졌고 과거에 비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했는데 저희는 실제로 뉴서울CC 홈페이지에 공개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경영 및 재정 상태가 악화된 것들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뉴서울CC의 이용객 평가도 모든 측면에서 하락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 문화예술발전기금이 5년 동안 매년 25억 원 딱딱 맞춰 들어왔고 2022년에는 25억 원이었는데 2023년에는 30억 원으로 늘렸다고 진술한 것 또한 사실이 아닙니다. 한국문화진흥은 골프장 경영으로 발생하는 순이익을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편입하고 있는데 2023년도 기금 이관액은 28억 원으로 전년도에 냈던 32억 5000만 원보다 오히려 4억 5000만 원이나 줄었는데 계속해서 거짓 답변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최근 5년간 기금 이관액도 25억 원씩이 아니라 2019년에는 53억 원, 2020년에는 51억 4800만 원, 2022년에 25억 원, 딱 한 해 2022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매년 25억 씩 이관됐다는 거짓말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2021년부터 2023년도까지 적립해 오던 특별회원 소각대금을 전년도 대비 7억 8700만 원 더 적게 적립했는데도 그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줄어든 기금 이관금액 4억 5000만 원과 소각대금 적립 감소액 7억 8700만 원을 감안한다면 사실상 기금 이관금액은 전년 대비 12억 3700만 원이 줄어든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정병국 위원장은 과거 대표이사들도 골프장 경영 경험이 없는 인사들을 임명했다고 계속해서 주장했는데 이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정병국 위원장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취임했던 2011년부터 그 이후로 선임된 전임 대표들의 이력을 다 확인해 봤습니다.

한번 화면 띠워 주십시오.

그랬더니 정병국 위원장이 장관 시절 그리고 현직 위원장으로 임명했거나 재직했던 대표들만 골프장 경영 경험이 없었습니다.

한번 화면 띠워 주실래요?

그러니까 제10대 회장 임동혁 회장은 정병국 위원장이 장관 시절에 임명했던 분이고 이분은 골프 경력이 전무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제14대 이상철 회장 이분도 골프 경영이 없었고. 오히려 그 전에 있었던 제11대·12대·13대 회장들은 전부 골프 경영 경험이 있는 회장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명백한 위증이고요.

저는 국감 당시에 정병국 위원장에게 전임, 직전 대표이사의 골프장 경영 이력을 일일이 나열하며 거짓 진술을 시정할 기회를 줬는데도 정 위원장은 끝끝내 시정하지 않고 진실이 아닌 거짓으로 일관했습니다.

정병국 위원장은 5선 국회의원을 지냈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 역임했습니다. 누구보다 국회에서의 위증 책임이 무겁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시정 기회를 무시하고 거짓말과 함께 위증으로 일관했습니다. 이는 명백히 국정감사를 무력화하고 국회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방해한 것입니다. 위원장님을 포함한 우리 상임위를 무시하고 국회의 권위를 심각하게 떨어뜨렸습니다. 정병국 위원장의 위증이 결코 가볍지 않은 것입니다.

위원장님, 무너진 국회의 권위와 우리 상임위의 자존심을 이대로 내팽개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병국 위원장을 반드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위증 등의 죄)에 따라 고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재수** 정병국 위원장님 나와 계시지요?

○**한국문화예술위원장 정병국** 예.

○**위원장 전재수** 조계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을 잘 들으셨을 텐데요, 위증에 따른 고발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 내용과 관련해서 조계원 위원님 질의 전까지 자료를 소상하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조계원 위원님 말씀대로 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장 정병국**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민형배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형배 위원** 위원장님, 지난 10일 국가유산청 국감에서 청장이 두 가지 위증을 했습니다.

첫째는 보스턴 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우리 사리, 사리구 분리 반환에 반대하지 않았다라는 거짓말인데요. 보셨겠지만 지난 18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정감사 때 정병국 위원장이 ‘문화재청에서 반대해서 사리 반환이 안 됐다. 불교계는 강력한 요구가 있었다’ 이렇게 답을 했고 이분은 문체부장관까지 역임한 당사자입니다, 증언입니다. 청장의 답변

과 180도 다릅니다. 지난 10일 국정감사에서 제가 유산청장에게 여러 번 확인했는데 거듭해서 분리 반환 반대를 부인했습니다.

두 번째, 2013년 협상 결렬 이후에도 협상을 준비해 왔다라고 하는 것도 역시 위증입니다. 최 청장께서는 ‘2013년 협상 결렬 이후에 2023년 4월 김건희 여사가 보스턴 미술관에 방문하기 전까지 접촉이 있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저희들은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제게 답변을 했습니다. 사실관계가 전혀 다릅니다. 유산청이 18일 저희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답변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2013년 반환 협상이 최종 중단된 이후에 공식적으로 국가유산청과 보스턴 미술관이 사리와 사리구 반환에 관해 접촉한 바는 없습니다’.

조계종 반환 측구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고 답변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은 구두로 서로 한 것일 뿐이고 구체적인 활동 내역이 없습니다. 2013년 이후에 단 한 차례의 공식적인 접촉이 없었는데도, 즉 반환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으면서도 우리 정부가 계속해서 반환을 위해 노력한 것처럼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

이런 거짓 증언의 본질은 명확합니다. 김건희 여사가 지시하자 협의를 재개했고 김건희 여사를 띄우려고 일괄 반환이라고 하는 환수 원칙을 깼습니다. 요즘 건사형통이라는 말이 됩니다. 김건희 여사가 한마디하니까 정부 정책이 바뀌는 사례가 많다는 뜻입니다. 2023년 9월 13일 보스턴 미술관에 보낸 서한에 임대 의향마저 내비칩니다. 법적 지위가 없는 김건희 여사가 지금 국정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런 게 바로 국정농단입니다.

국가유산청장은 우선 본인의 거짓 증언에 사과부터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걸 바로 잡지 않으면 증감법 14조 위증에 해당됩니다.

또 지난 4월의 상춘재 정책간담회에 대해서도 계획서가 없고 장소 신청도 대통령실에서 했고 진행도 대통령 비서진이 했다, 그러니 이게 대통령실 행사가 아니냐라고 했는데 자신들이 주체라고 계속 위증을 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응당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재수 국가유산청장님, 저희 위원회로 하여금 고발이라는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오늘 하루종일 국정감사가 열리니까 조금 전에 민형배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한 이 내용과 관련해서 자료를 소상하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산청장 최용천 자료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제출한 것에 대해서 약간, 진행되지 못한 것에 대한 말씀을 주셔서 제가 그것은 미처 확인을 못 했던 걸 인정을 하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조계종과 이런 구체적인 협상이 있었다는 거를 구두로만 받아 놓은 걸 아마 제가 그걸 진행 상황으로 봤던 것 같고요.

두 번째, 정병국 위원님이 반환 지시한 사항과 그 날짜가 안 맞아서, 이사장님이 장관으로 취임하신 시점이 2011년 1월인데 이미 미술관 측에서 사리와 사리구는 모두 반환 불가하다는 입장을 저희한테 2009년 12월 9일 날 송부했기 때문에 그거하고 별도로 아마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거는 또 시점이 안 맞으면서 그것도 수정 정정토록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춘재 간담회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또 답변드리겠습니다만 그때 정확한 자료를 보지 못하면서 제가 설명하는 과정에서 아마 이렇게 부분적으로 좀 약간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거는 역시 또 기회가 되면 제가 다시 정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조금 전에……

○민형배 위원 위원장님, 위증 내용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사과를……

○위원장 전재수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청장님 말씀하신 그 내용을 서면으로 민형배 위원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신동욱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 위원 그저께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택규 배드민턴 협회장 위증 혐의 관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일 김택규 회장은 2023년도 요넥스와의 후원 계약이 수의계약, 왜 수의계약을 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과거 예전에 해 왔던 관행과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그러면 수의계약이 관행입니까’라고 질문했더니 ‘예, 빅터사하고 예전에 계약할 때도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답변한 것이 저희 속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17년 빅터사와 후원 계약을 할 때도 공개 입찰을 통해서 후원 계약을 체결한 내용이 2017년 2월 9일 배드민턴협회 후원업체 선정위원회 회의록에 그대로 남아 있고, 당시 요넥스는 330만 불, 빅터사는 361만 불을 제시해서 최고가 응찰방식이라는 분명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김택규 회장님의 기억에 오류가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제가 보기에도. 이것은 의도적으로 본인의 잘못을 가리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것이다, 저희 위원회를 속인 것뿐 아니라 국민을 속인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해석의 문제라든지 착오에 의한 실수로 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14조에 의해서 위원회 차원에 고발을 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위원장 전재수 잘 알겠습니다.

다음 박수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현 위원 자료 요구니까 의사진행발언 다 들으시고……

○위원장 전재수 아, 그럴까요.

진종오 위원님 먼저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오 위원 지난 22일 국감장에서 이기홍 회장의 위증 발언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선거를 위해서 급조해서 만든 사단법인 서담에 대한 지적에서 답변을 회피하셨고요. 그리고 국가기관에서 발급한 등기서류에 적힌 부인의 세금 체납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 체납 사실이 없다고 위증을 했습니다.

또한 상고를 취하해서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고 회피하셨으며 대한체육회가 제출한 공식 일정에 올라와 있지도 않은 일정을 공식 일정이라고 위증을 하셨습니다.

또 오늘 국정감사에 불출석하겠다며 불출석사유서를 제출도 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이기홍 회장의 위증에 대해서 우리 국회 차원에서 강력하게 조치를 내려 주시기를 바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잘 알겠습니다.

다음 박수현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현 위원** 국가유산청장님께 자료 요청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진작 이걸 드리지 못하고 종합국감 당일 날 이렇게 바쁘신데 자료 요구를 요청하게 돼서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리고요.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했다거나 하는 질책이 아니고 오늘 자료 요청을 드리는데, 제가 볼 때는 크게 복잡한 서류가 아니어서 이따 저녁 때까지라도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 국감 기간 중에 우리 위원회가 현장시찰을 가는 중에 영릉을 갔었잖아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박수현 위원** 그때 유산청장님께서 안내도 잘해 주시고 많은 설명을 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그때 저는 영릉에 있던 아주 수려한 소나무를 보고 걱정이 들었어요. 이 소나무에 치명적인 병인 재선충병이 여기에 생기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것은 아마 제가 우리 충남 지역 태안의 금강송, 아주 단지가 있는데 거기에 재선충병이 퍼져서 그 아까운 소나무들이 다 넘어지는 것을 제가 봐서 그런 걱정이 생겼는데, 그래서 우리 국가유산청이 국가유산보호구역 또는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 등 관할지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지역의 최근 5년간, 19년부터 24년까지 소나무재선충 피해가 얼마나 있었는가 그 자료하고요 그다음에 동 기간 중에 재선충병을 방제하기 위해서 추진한 현황 그리고 내년도의 재선충병 방제계획 이 세 가지 자료를, 크게 복잡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니 죄송하지만 오늘 중으로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자료는 저희가 아마 계속 보완하고 또 축적돼 있을 겁니다.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다음은 양문석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석 위원**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장 김병철 증인을 고발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박정하 위원이 ‘개인적으로 축구협회장 4연임, 대한체육회장 3연임 하는 정관을 개정하는 것이 옳다 그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물음에 김병철은 ‘그것은 옳다 그르다의 답변하기 죄송하다. 그렇게 하기는 어렵다. 그것은 지방체육의 정책적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지방체육이 무너지고 있다라는 절박한 부분을 체육회 실무자들이 와서 정책적 제안을 했다’, 이에 박정하 위원이 재차 ‘정관 개정, 개인으로는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다 아니다 대답해 주시면 돼요’라고 물었을 때 김병철은 ‘정관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정책적 사안이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김병철 증인에게 ‘지방체육의 위기가 뭐냐’고 묻자 지방의 종목단체에서 회장과 임원을 선출하는데 하겠다는 사람이 없어서 인재를 구하기 어려운 상태라며 이기홍 회장의 3선, 정몽규 회장의 4선 도전을 정당화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직전 대한체육회 회장선거의 경우 이기홍, 강신우, 이종걸, 유준상, 4명의 후보가 출마를 했고요.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이 2013년 1월 52대 회장선거에 당선될 때만 하더라도 4명의 후보가 있었습니다. 김병철 증인이 이야기한 지방체육의 위기가 결국은 회장과 임원을 하겠다라는 인재가 없다는 것인데 이에 대해 대한체육회에서는 각 종목단체별, 지방체육회별 회장선거를 전수조사할 것을 요청하고, 후보군이 없어서 연임이

불가피한 것처럼 발언한 김병철 증인에 대해서는 국회증언·감정법 제14조 위반으로 고발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 **위원장 전재수** 고발 문제와 관련해서는 좀 이따가 의사진행발언이 끝난 뒤에 일괄해서 제가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정하 위원** 자료 요구……

○ **위원장 전재수** 예, 자료제출 요구입니다.

○ **박정하 위원** 지난번 대한체육회 감사 시에 세 가지 자료를 요청드렸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는 건건이 천천히 자료를 제출하고 있습니다만 유독 2018년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당시에 참관단 운영을 했던 명단과 예산 관련 내역이 전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당시 대한체육회장은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당일 중으로 제출한다고는 했습니다만 지금 며칠이 지난 오늘까지도 관련 자료가 전혀 제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종합감사 끝나기 전까지 꼭 이 건에 대해서 대한체육회에서 자료제출이 있을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강력히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전재수** 대한체육회 사무총장님 나와 계십니까?

○ **대한체육회사무총장 윤성욱** 예.

○ **위원장 전재수** 들으셨지요?

○ **대한체육회사무총장 윤성욱** 예.

○ **위원장 전재수** 자료를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마지막 순서인 것 같습니다.

임오경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오경 위원** 저는 증인 관련 의사진행발언하고 신상발언을 요청드립니다.

증인 관련 의사진행발언 먼저 하겠습니다.

국민의 명령이자 국회의 요구인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석연치 않은 이유들로 회피하고 있는 증인들의 행태에 대해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7일에 이어 오늘도 청와대재단의 윤병세 이사장이 불출석사유서를 냈습니다. 지난 국감에는 건강상의 사유로 못 나온다더니 이번에는 아예 청와대재단 이사장직을 사임했다며 못 나오겠다고 합니다. 기관증인이 아닌 일반증인 신분임에도 사임의 이유를 들어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연 300억 원을 운용하는 청와대재단은 이번 국정감사의 정식 피감기관으로 들어왔어야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당과 논의해서 일반증인으로 바꿨음에도 이 국정감사장을 회피하기 위해 이사장직까지 내놓는 불쌍사나운 행태를 보이는 겁니다. 이를 두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윤병세 이사장에 대한 고발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불출석한 증인 1명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선택 증인은 그간 칙복싱협회의 횡령, 유용, 가짜 회장 선출 등 모든 비위의 핵심에 있는 사람이고 김종민, 강신준 증인 모두에게 피해를 준 장본인임에도 석연치 않은 교통

사고 평계를 대며 오늘 불출석했습니다. 국회의원과 국민을 기망하여 국감장을 엉망으로 만들고 체육계에 큰 파장을 일으킨 공선택 중인 또한 위원회 차원에서 고발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상발언 이어 가겠습니다.

지난 22일 진종오 위원이 출석시킨 강신준 참고인의 허위 발언으로 인해 저는 이루 말 할 수 없는 모욕과 명예훼손을 당했고 우리 문체위는 너무나 큰 국회 기망행위를 당한 것에 대해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강신준 참고인의 당일 발언에 대해 이틀간 대한체육회, 당시 취재했던 언론사인 MBN, 킥복싱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면밀히 조사해 본 결과 강신준 참고인의 발언들은 명백한 허위였음으로 드러났습니다.

첫 번째로 강신준 참고인은 당시 증인으로 출석했던 김종민 전 대한킥복싱협회장이 ‘임오경 의원이 말만 하면 죄 없는 사람 뒤집어씌워 합법적으로 감방 보내는 건 일도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거짓으로 진술하여 저를 모욕했고 국회의원이라는 직업 자체를 모독하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물론 저는 그런 말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런 일이 가당한 일입니까?

두 번째로 제가 작년 국감에서 질의했던 MBN 뉴스 보도 녹취파일 목소리가 본인이 아닌 다른 관장의 목소리라며 위증했습니다. 또한 강신준 참고인은 작년 뉴스 보도 이후 회원들에게 공문을 보내서 서초구 모 관장의 목소리를 짜깁기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전 국회에서도 그랬고요.

그러나 취재 언론사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강신준 목소리가 맞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강신준 참고인은 뉴스 보도 이후 언론사로 직접 본인의 보도 내용에 대해 정정보도 해 줄 것을 요청한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관련된 녹취영상은 오후 증인 신문 때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결국 본인의 불법행위를 감추기 위해 거짓말로 다른 사람을 불법행위를 하다가 녹취를 당한 사람으로 몰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저의 질의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뻔뻔하게 거짓 주장했습니다. 극단적 선택은 제 질의 때문이 아님을 명백히 밝히고 강신준 참고인의 발언은 심각한 사자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음을 밝힙니다.

세 번째로 강신준 참고인은 본인이 공식적인 선거로 당선된 회장이라고 발언했지만 대한체육회가 의원실에 제출한 대한킥복싱협회 관련 경과보고자료에 따르면 강신준은 인준을 받지 않아 협회의 적법한 대표자로 볼 수 없다라는 법원 판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가짜 회장임이 명백히 드러난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자료는 대한체육회에서 위원님들 테이블 위에 배부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으니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듯 강신준 참고인은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국회의원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했으며 신성한 국정감사장을 혼란스럽게 함으로써 우리 문체위를 모독하고 상임위의 권위를 실추시켰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가짜 회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진짜 회장을 가짜로 몰아가고 또한 그 참고인으로 하여금 저를 모욕하고 허위 사실을 발언하도록 질의한 진종오 위원에게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우리 국회가 언제부터 공적 조직을 사칭해서 불법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옹호해 주는 국회가 된 것입니까?

위원장님, 최소한 우리 문체위만큼은 앞으로는 증인이나 참고인을 요청할 때는 정확한 사전조사를 하고 명확한 질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분들을 증인·참고인으로 요청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명확한 검증을 거치지 않고 참고인을 요청하여 허위 사실로 제 이름을 거명토록 한 진종오 위원에 대해서는 사과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재수 임오경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과 관련해서는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자면 엊그제 22일 날 국정감사에서 대한킥복싱협회 분쟁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가 긴급으로 관련 증인들을 의결한 만큼 대한체육회로 하여금 경과보고 관련 자료를 작성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아마 우리 위원님들 좌석에 유인물이 놓여져 있을 텐데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이 내용과 관련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종오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오 위원 방금 존경하는 임오경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강신준을 참고인으로 불렀는데 저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신다고 하시는데 질의하는 과정에서 참고인의 발언까지 제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보자가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이런 불법에 대해서 한 것에 대해서 저는 당연히 제보자를 부른다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또한 김종민 증인이 이기홍 대한체육회장후보 시절 선거운동을 한 사실도 발견된 상황에서, 이런 제보를 받은 상황에서 저는 참고인을 불렀고요. 그렇게 해서 저는 임오경 위원의 사과 발언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임오경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오경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희 국회가 언제부터 현장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 약자를 보호하는 국회의원의 역할들을, 이번 국감에서는 참고인으로 인해서 저희가 지금 반대 입장을 옹호해 주는 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제보를 받을 때도 양쪽 얘기를 정확하게 들어 보고 그것에 걸맞게 참고인을 요청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진종오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셨지만 진종오 위원은 이 자리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위원님들 테이블 위에 분쟁 관련 경과보고 요약본도 있습니다. 이 부분만 하나라도 확인하고 나오셔서 말씀을 하셨으면 이러한 일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확인하지 못하고 참고인을 불러서 참고인이 킥복싱협회를 사칭한 사조직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부분을 감시하고 그것에 대해서 바로 세워야 될 국회의원의 역할을 저는 지금 침범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정확하게 검증하지 않고, 진상 규명하지 않고 참고인으로 불러서 국회를 기망한 부분에 있어서 저는 진종오 위원님에 대해서 사과를 들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 위원장 전재수 진종오 위원님.

○ 진종오 위원 방금 임오경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보자의 검증되지 않은 자료라고 하셨는데 검증이 된 자료를 바탕으로 저는 말씀드렸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수 위원장인 제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킥복싱협회와 관련해서는 대한체육회로 하여금 경과보고자료를 작성하도록 요청을 했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 좌석에 이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 내용을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오후에 중인과 참고인에 대한 신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문제가 되고 있는 킸복싱협회와 관련된 이 두 분에 대한 중인 신문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신문 과정을 저희들이 좀 지켜보고 임오경 위원님의 신상발언에 대해서 판단을 하도록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리고……

진종오 위원님,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 진종오 위원 한 말씀만 짧게, 짧게 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수 그렇게 하시렵니까? 예.

○ 진종오 위원 테이블 위에, 우리 위원님들에게 다 돌렸다는 경과보고 요약 내용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수 일단 참고를 하시고요. 오후에 중인 신문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중인 신문 경과를 좀 보고서 위원장인 제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출석 중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위한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위해서 잠시 국정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국정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감사중지)

(10시54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전재수 국정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되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7분으로 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정연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연욱 위원 부산 수영구 국회의원 정연욱입니다.

유인촌 장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가 스포츠 역량을 키우고 대한 생활체육의 저변을 확대한다는 이 흐름은 시대적 추세라서 어차피 거스를 수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 많이 보도 되고 알려졌지만 대한체육회와 산하 종목단체에 대한 국정감사를 거치면서 아마 여야 위원 모두 낡은 관행의 심각한 피해를 절감했다고 생각합니다. 4000억 원이 넘는 국고를 지원받으면서도 정작 자율성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서 온갖 불법, 편법, 위법이 만연한 현실에 아마 많은 국민들이 깊이 절망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배드민턴 금메달리스트 안세영 선수의 용기 있는 목소리가 없었다면 과연 이런 병폐가 만천하에 드러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저 역시 작년 연말쯤 취임하면서 이런 문제를 절감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적도 많이 하게 되고 또 이 관행을 좀 고쳐 달라는 주문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만 사실 그런 문제로 지금까지 이렇게 일이 커지기까지 거의 한 1년 정도 걸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래의 우리 대한민국의 체육을 위해서는 이런 낡은 관행이나 그동안 해 왔던 이런 일들은 이번 기회에 새롭게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좀 고쳐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연욱 위원** 장관님도 이번 국정감사를 지켜보시면서 대한체육회 그리고 축구협회, 배드민턴협회, 각종 종목단체협회의 독단적 운영과 그 병폐를 아마 지켜보셨을 겁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렇습니다.

○**정연욱 위원** 지금 이 자리에서 그것 일일이 거론하기가 벅찰 정도입니다. 많은 보도가 이루어졌고요. 협회 전체에 대한 철저한 전수조사가 과연, 체육회 차원인지 문체부 차원인지는 모르겠지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현재로서는 사실 이런 문제는 우리 체육단체나 체육인들 사이에서 계속 자정해 달라는 그런 요구도 많고 또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제도적으로 그동안에 저희들이 과거에 승인해 준 많은 부분들도 있고 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생긴 폐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 부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반성도 하고 뉘우쳐야 하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연욱 위원** 아마 체육회나 산하단체들은 과거의 문체부는 다 승인을 했는데 왜 지금 와서 문제를 삼느냐 이런 지적을 많이 합니다. 그렇다면 과거에 승인했던 여러 가지, 지난 정부의 일이든 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나 분명한 대책이 있어야 되겠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아마 그런 부분이 잘 이용되고 오히려 공정하게 잘 시행이 됐으면 사실 이렇게까지 커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런 부분이 너무 부작용이 많아서 지적을 하게 되는 거지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 서로 잘 합의해서 고쳐 가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고치기를 지금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우는 어쨌든 저희 부처 입장에서는 이런 잘못된 관행은 끝까지 고쳐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주문도 하고 의논을 할 생각입니다.

○**정연욱 위원**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했지만 이기홍 대한체육회장의 증인 불출석 문제도 지금 논란이 될 수밖에 없고, 동행명령장 발부가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이번 기회에 이기홍 체육회장의 오만한 태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체육계 대통령이라고 나온 말이 그냥 빙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런 견제도 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이 되어 버렸습니다.

지난 17일 날 105회 전국체육대회가 열린 경남 김해에서 이기홍 회장이 기자회견을 하셨습니다. 내용은 아시겠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알고 있습니다.

○**정연욱 위원** 그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먼저 가장 핵심적인 게 본인의 3연임 문제도 걸려 있고 축구협회 정몽규 회장의 4연임 문제도 걸려 있는 모든 걸 결정하는 스

포츠공정위원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제 마음대로 한다고 문체부가 주장하지만 그것은 사실과 다르다. 이미 스포츠공정위원회 구성 절차가 시작돼서 21일부터 당사자에게 통보가 가게 되어 있다. 이를 바꾸려면 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바꾸거나 다음번 제도개선을 통해 바꿔야지 지금 변경한다는 건 있을 수 없다’.

사실상 문체부가 운영 개선을 권고한 상태에서 아예 대놓고 거부한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런데 이 근래에 와서 얘기한 것은 아니고요. 이미 오래 전부터 이런 주문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동안에 결국은 아무런 시정할 생각을 안하고 있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은 이제는 시정명령도 내리고 또 공정위원회 위원들이 아마 충분히 그런 역할을 좀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계속 이렇게 인정하고 넘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하여간 여러 가지 조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연욱 위원 이 부분에 또 이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서 최근 이런 논란에 대해서 문의를 했고 IOC가 면밀하게 이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결국 이렇게 대한체육회가 정치적 간섭을 받게 되면 문제가 된다는 사실상 우회적인 압박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IOC의 정치적 간섭 우려에 대한, 체육회는 문체부의 이런 간섭이 사실상 그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저희들은 예상했던 순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축구협회가 FIFA를 얘기한 거나 체육회가 IOC를 거론하는 것은 결국은 분명히 마지막에는 이런 얘기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고요.

그렇지만 그렇게까지, 그동안 과거의 전례를 보면 이런 정도의, 그러니까 내부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사업 집행이나 이런 문제의 지적에 대해서 IOC가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의, 우리가 회장을 어떻게 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스스로 체육인들 사이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언을 할 생각입니다.

○정연욱 위원 마지막으로 이게 결국은 이기홍 회장의 3연임 도전 문제가 아마 스포츠공정위원회나 가장 핵심적인 쟁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정몽규 축구협회장의 4연임 문제도 결국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결정하면 끝이다 하는 투인데요. 본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도 후보자가 되려면 절차를 밟으면 된다. 못하게 막혀 있는 상황이 아니고 심의를 받으면 된다’.

그러면 본인은 사실상 3연임 도전을 공식화하고 밝힌 겁니다. 절차대로 가면 끝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렇게 되더라도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승인 안 할 수도 있고요. 또 그런 게 문제가 되면 행정소송도 필요하게 될 수도 있지요.

○정연욱 위원 그러면 사실상 이게 3연임을 선언한 것인데 여기에 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체육인들이나 국민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여론을 생각했을 때는 저는 그냥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본인이 계속 밀고

나간다면 글쎄요,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예측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 **정연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원 위원** 황성운 기획조정실장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앞으로 나와 주세요.

실장, 지난해 10월 31일 KTV 청와대 국악공연 김건희 씨 황제관람 당시 현장 참석하셨지요?

○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장 황성운** 예, 참석했습니다.

○ **김재원 위원** 해당 공연에 몇 시쯤 도착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장 황성운** 제 기억으로는 한 5시 반 정도……

○ **김재원 위원** PPT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면)

국악공연 당일 황성운 당시 문체비서관, 정용석·신수진 선임행정관 등과 같이 사전에 오셨지요?

○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장 황성운** 그러니까 6시 공연이었는데 한 30분 전에 도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재원 위원** 이날 공연에 김건희 여사 온다는 얘기 언제 처음 들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장 황성운**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직전에, 오시기 직전에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 **김재원 위원** 실장, KTV 청와대 국악공연에 김건희 씨가 올 것을 전제로 KTV와 용역회사 직원 등 관계자들과 논의한 적 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장 황성운** 사전에 오실 것을 전제로 상정하고 준비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30일 날 참석하지 못한다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 **김재원 위원** 지난주 18일 이 자리에서 정용석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사장 발언에 따르면 행사를 열흘 넘게 앞둔 10월 18일 용역업체 관계자 박종현 PD와 KTV 조대익을 만났습니다. 만난 이유는 당시에 황성운 문체비서관의 지시로 만났다고 했습니다.

실장, KTV 국악공연에 대통령 내외가 온다고 실장에게 연락했던 사람이 누구인지요?

○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장 황성운** KTV의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검토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 **김재원 위원** KTV의 누굽니까? 누구로부터 연락받았습니까, 최초에?

○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장 황성운** 제가 기억하기로는 하종대 사장으로부터 요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 **김재원 위원** 정용석 선임행정관에게 청와대 행사를 담당하라고 지시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장 황성운** 그러니까 18일 만났으니까 그전에, 그전 주에 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 **김재원 위원** 정용석 선임행정관이 10월 18일 조대익 PD, 박종현 PD 등과 미팅 후에 비서관에게 보고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장 황성운** 예.

○김재원 위원 어떤 내용의 보고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 황성운 준비하고 있는 내용, 국악 이런 정도로 준비하고 있다 그런 내용을 보고받은 것 같습니다.

○김재원 위원 10월 31일 공연 김건희 씨에게 보고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 황성운 저희가 자료를 해서 일정 회의에 올리고 해서 아마 공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부속실에 공유가 됐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재원 위원 10월 26일 정용석 행정관은 케이터링 업체와 다시 청와대를 찾았습니다. 만찬 준비가 취소된 시점 언제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 황성운 최종적으로는 30일 날 취소된, 다 준비하다가 검토를 하다가 최종적으로는 아마 30일 날 통보를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김재원 위원 10월 27일 국악공연 보고를 김건희 씨에게 한 적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 황성운 제가 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재원 위원 누가 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 황성운 보통은 저희는 자료만 전달하고 따로 보고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원 위원 파일 재생 좀 해 주십시오.

(녹음자료 재생)

정용석 선임행정관이 지난 10월 24일 날 현장 미팅에서 발언한 내용입니다. 이미 다 보고됐고 비공개로 진행한다고 답을 했습니다. 24일 이전에 김건희 씨한테 보고했지요?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 황성운 그러니까 자료는 공유를 했습니다. 저희가 직접 보고를, 제가 직접 보고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행사 기획을 하면 사전에 일정 이런 거는 회의 자료를 제출하고 하기 때문에……

○김재원 위원 24일 이전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 황성운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재원 위원 최재혁 방송기획관과 공연 관련해서 미팅한 최초 날짜 언제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 황성운 저는 한 적이 없습니다.

○김재원 위원 그러면 국악공연 관련해서 연락한 최초 시점은 언제입니까, 최재혁 방송기획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 황성운 정용석 사장이 18일 미팅 관련해서 했으니까 아마 그전이지 않을까 짐작이 됩니다.

○김재원 위원 최재혁 방송기획관 업무 협의 위해서 만난 사실 없다고요?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 황성운 저는 없습니다. 그런데 정용석 사장은 아마 만난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원 위원 정용석 사장한테 일임해서 정용석 사장이 만나고 미팅하고 다 한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 황성운 예, 그래서 보고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재원 위원 행사 보고를 위해서 만난 사실 있지요?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 황성운 예?

○김재원 위원 최재혁 방송기획관과 행사 보고를 위해서 만난 사실.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 황성운 저는 31일 행사장에서 만났습니다만 사전에 만난

적은 없습니다.

○ **김재원 위원** 행사장에서 처음 만났습니까?

○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장 황성운** 예.

○ **김재원 위원** 최종적으로 김건희 씨한테 국악공연 행사 보고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장 황성운** 그러니까 그전에 행사 내용으로 해서 자료가 부속실에 아마 전달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재원 위원** 최종보고가요?

○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장 황성운** 그러니까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 **김재원 위원** 대략 언제쯤입니까? 공연은 10월 31일이잖아요?

○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장 황성운** 그러니까요, 24일에서 30일 사이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 **김재원 위원** 보고한 사실 정말 없습니까?

○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장 황성운** 자료는 전달, 공유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보고드린 적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재원 위원** 재생해 주십시오.

(녹음자료 재생)

실무적으로 다 컨펌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27일에 실무적으로 다 컨펌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장 황성운** 그렇지요. 자료를 공유해서 내용을 공유하고……

○ **김재원 위원** 27일 날 해외순방 마치고 돌아온 김건희 씨한테 최종 보고를 했으니까 최재혁 방송기획관 그날 용산에 최종 보고 위해서 출장계 내고 상경을 했고 같은 날 하종대 원장도 30일에서 31일, 1박 2일 출장계획을 문체부에 보고한 거 아닙니까?

○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장 황성운** 그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 **김재원 위원** 존경하는 전재수 위원장님, 지금도 보시겠지만 KTV 황제관람 문제가 이번 국감에서 면회서는 안 되겠습니다. 청문회를 반드시 열어야겠는데요, 증인들을 한자리에 모아서 진실을 밝히는 청문회를 여는 것이 이제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청문회를 통해서 밝혀지는 사실들을 이번 국감에서 드러난 사실들과 함께 향후 특검 수사 대상으로 반드시 삼아서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2차관님, 그때 하종대 원장 출장 전결해 준 적 있지요?

○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장미란** 예.

○ **김재원 위원** 이 내용에 관련해서라는 거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장미란** 내용에 관련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 **김재원 위원** 알지 못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청문회 개최라든지 현안질의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추후에 여야 간사 위원님들 간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종오 위원 유인촌 장관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장관님, 한참 화제가 되었던 피프티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 간의 전속계약 분쟁 사태 잘 알고 계시지요?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그렇습니다.

○ 진종오 위원 이 사건 보면 중소기획사에서 성공적으로 데뷔한 이 신인그룹을 거대 자본을 통해서 소속사와 계약을 위반하는 사태까지 발전했고 또 이런, 탬퍼링 문제라고 하지요, 탬퍼링 문제는 중소기획사들이 아티스트와 관계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이 문제는 케이팝산업 전체적으로 건전한 발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사실은 업계에서 이건 굉장히 자정노력을 많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법으로 뭘 규정해서 하기는 참 어려운 문제고요. 사실은 이런 문제가 똑같지는 않지만 지금 뉴진스도 결국은 그것의 연장선이라고 보고요.

○ 진종오 위원 맞습니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제가 물론 그때는 장관에 취임하기 전이었지만 실제로 매니지먼트 쪽이나 아니면 관계자들하고 얘기도 많이 했고 그러면서 그 당시에 FA 제도 도입해 보는 방법도 저희들이 연구를 해 봤고, 그래서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현장에 많은 노력을 했지만 지금 아직 이것이 딱 어떤 제도적으로 정비된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끊임없이 교육하고 실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업계가 자정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종오 위원 그리고 또 탬퍼링 배후로 지목됐던 더기버스의 안 모 씨 그리고 워너뮤직 진 모 씨 정황도 드러났고요. 녹취록에는 지난해 5월 전 멤버랑 부모님들을 만나서 가처분 인용, 워너뮤직 레이블행 등을 제시한 내용이 있는데 녹취록 한번 듣고 가겠습니다.

(녹음자료 재생)

녹취록 들어 보셨지요?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 진종오 위원 보면 피의자인 더기버스의 안 모 씨 그리고 워너뮤직의 진 모 씨는 본인 혐의 아직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그 또한 정관이나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렇습니다.

○ 진종오 위원 그리고 또 이런 탬퍼링 문제가, 이뿐만이 아니라 중소기획사들이 더 이상 안정적인 환경에서 아티스트들을 육성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고요. 또 지난번 국감 때 이미 장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탬퍼링 방지 위해서 자유계약제도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하셨고요.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 진종오 위원 그리고 표준전속계약서 개선 필요성을 언급하셨는데 이 개정이 올해 6월 3일 고시 개정 완료가 되었지요, 장관님?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그렇습니다.

○ 진종오 위원 그리고 또한 문체부에서는 이 탬페링 관련해서 연구 실시, 간담회, 의견 수렴 등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그렇습니다. 많이 했습니다.

○ 진종오 위원 과정과 결과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지금 어쨌든 표준계약서 자체를 좀 더 섬세하게 저희들이 그 내용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애초에, 그러니까 기획사와 연예인들 간에 계약 시작할 때의 조건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저희들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잘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진종오 위원 장관님이 문화예술 쪽에 관심이 더 많으신 만큼 이 부분만큼은 좀 확실하게 챙겨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알겠습니다.

○ 진종오 위원 그리고 유산진흥원장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 보시고 하겠습니다.

최근 진흥원에서 개최한 공모전 결선 진출작으로 뽑힌 작품입니다.

원장님, 해당 작품 제출한 참가자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 국가유산진흥원장 최영창 예, 알고 있습니다.

○ 진종오 위원 누구일까요, 이게?

○ 국가유산진흥원장 최영창 손창현 씨로 알고 있습니다.

○ 진종오 위원 그렇지요. 표절 논란으로 떠들썩했지요, 손창현 씨가?

○ 국가유산진흥원장 최영창 예.

○ 진종오 위원 3년 전에는 표절작으로 문학상 5관왕에도 올랐고 또 공모전 수십 개를 휩쓸 아주 논란이 많은 인물이지요.

방금 자료 보여 드린 것처럼 이 제출 작품이 표절인 걸로 드러났고요 또 손 모 씨 작품이 예선심사 통과를 하고 결선에서 8위까지 들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실 확인했지요? 사실 확인하시고 나서 보니……

해피캠퍼스라는 것 들어 보셨지요?

○ 국가유산진흥원장 최영창 예, 들어 봤습니다.

○ 진종오 위원 거기 리포트 등을 판매하고, 플랫폼에 똑같은 파일이 올라와 있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 국가유산진흥원장 최영창 예.

○ 진종오 위원 원장님, 손 모 씨에게 표절 입증하라고 요구한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 국가유산진흥원장 최영창 예, 저희들이 해피캠퍼스 자료하고 동일한 내용을 제출한 걸 확인한 다음에 두 차례에 걸쳐 소명을 요구했습니다. 이를 거부하고 결선에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 진종오 위원 그렇지요. 결선에 나타나지 않아서 자동 탈락했지요.

그래서 저희 의원실이 원작자를 찾아서 문의해 본 결과 공모전에 아이디어를 출품한 적이 없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별도 법적 조치 생각 있으십니까?

○ 국가유산진흥원장 최영창 관련해서 유사 사례 재발방지를 위해서 저희들이 법률 자문을 받는 등 가능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진종오 위원 그리고 또한 2022년에 손 모 씨가 유산진흥원의 대학생 서포터즈, 위조 학력 적발로 해촉이 된 이력도 알고 계시지요?

○ 국가유산진흥원장 최영창 예, 알고 있습니다.

○ 진종오 위원 결국에는 기관에서 동일하게 두 번이나 당한 거지요. 그렇지요?

○ 국가유산진흥원장 최영창 예.

○ 진종오 위원 당했는데 예선심사 과정에 파악조차 안 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국가유산진흥원장 최영창 아무래도 예선심사 과정이 내용 위주로 흐르다 보니까 약간 표절에 미흡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 진종오 위원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표절 검증 자체가 약간 좀 허술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다시 한번 제도적으로 바꿔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국가유산진흥원장 최영창 예, 관련해서 저희들이 보완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진종오 위원 들어가시고요.

문체부장관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님, 2009년도에 저작권위원회에 표절위원회 등을 출범시키셨지요?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그렇습니다.

○ 진종오 위원 그리고 표절에 대해서 심각하다라는 거 인지하시고요?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렇습니다.

○ 진종오 위원 모두가 다 인지할 거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표절이라는 거는 일단은 타인의 아이디어, 지적재산을…… 뭐라고 해야 될까, 도둑질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그렇습니다.

○ 진종오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래의 후손들, 청년들에게도 공정한 기회의 장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범죄행위가 더욱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그리고 또 행정기관 주관 공모전의 표절을 막기 위한 대책을 발표하셨는데 아직까지도 좀 허술한 부분이 있습니다, 장관님. 그래서 장관님께서 이런 부분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유관기관하고 협업하셔 가지고, 이미 투아웃인데 쓰리아웃 제도 같은 거를 마련해서 표절 방지에 한 번만 더 신경 써 주시길 바랍니다, 장관님.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저작권 문제는 미래를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엄정하게 세세하게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진종오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계원 위원 유인촌 장관님, 최웅천 국가유산청장님께 묻겠습니다.

화면 좀 띄워 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면)

김건희 여사는 공식적 신분이 어떻게 됩니까? 민간인입니까, 아니면……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대통령의 영부인이시니까요.

○ 조계원 위원 정책 결정자입니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물론 그런 역할은 안 돼 있지요.

○ 조계원 위원 정책을 결정할 수는 없겠지요?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 조계원 위원 지금 세간에, 아까 민형배 위원님께서는 건사형통이라고 표현하셨는데 '만사건통 김건희'라는 말이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 조계원 위원 모든 일은 김건희 여사를 통하여 해결이 된다 이런 맥락의 참 웃지 못 할 사자성어가 돼 버렸는데요.

김건희 여사가 보스턴 미술관을 방문했을 때 사리와 사리구 반환 문제 그리고 국립현대미술관 교류 제안을 한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방문하셔서 이런 얘기를 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고요.

○ 조계원 위원 브리핑까지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 조계원 위원 '김건희 여사 브리핑' 해 보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요. 유감스럽게도 우리 문화체육부와 그다음에 국가유산청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그만큼 김건희 여사가 이런 분야까지도 정책에 관여하고 있다 이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데요.

이때 당시에…… 지금까지는 사리구와, 그러니까 사리 반환 문제로 초점을 맞췄었는데 이때 당시 국립현대미술관 교류 제안도 했더라고요.

유산청장님, 알고 계십니까?

○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현대미술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이라 제가 알지 못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아마 그 방문 이후에 보스턴 미술관에서 국립현대미술관으로 연락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류를 좀 확대하자고. 그런데 그 이전부터도 아마 전시교환은 협의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조계원 위원 당시 김건희 여사가 '조만간 한국을 직접 방문해 우리 국립현대미술관과 미술소장품 교류와 협력전시 관련 논의가 이루어지기 바란다' 이 말을 하셨어요. 이 말을 하니까 보스턴 총영사관 이기호 영사가 국립현대미술관의 송수정 과장에게 이메일로 소통을 시작해서 관련해서 협의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당시 보스턴 미술관의 크리스티나 유유라는 분이 이번 5월에 한국을 방문하겠다, 작년에 그렇게 해서 실제로 한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다음 화면을 띄워 주실래요?

그리고 5월 2일 날 서울을 방문했고 그다음에…… 화면 다시 부탁합니다. 국립현대미술관의 소장품 세 점을 보스턴 미술관에 대여해 가지고 전시에 활용을 하게 됩니다.

이것 명백한 정책적 관여 아닙니까, 문체부의 소관 업무에 대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글쎄요, 저는 뭐 정책적 관여라기보다는 아마 문화적인 교류에 대한 도움을 주신 것 아닌가 싶거든요. 왜냐하면 어차피, 물론 이런 교류전시는 굉장히 많이 있는 거고요. 또 이런 전시를 통해서 아마 보스턴 미술관하고 우리 국립현대미술관이 지속적인 소통이 잘된다면 더 좋은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은 되는데요. 뭐 정책을 바꿔서 그렇게 했다고는 생각 안 하고요.

○ 조계원 위원 이런 사례가 딱 한 건이다 그랬으면 이해가 되는데요. 이후에도 제가 계

속 말씀을 드릴 텐데요. 또 다른 사안을 보기로 하지요.

다음 화면 부탁합니다.

그리고 유산청장님, 지난번에도 지적했다시피 사리와 사리구 반환 관련해서는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사리는 반환할 수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꼭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사리와 사리구 반환을 처음에 사리만 한다고 그랬다가 나중에는 그 입장을 완전히 변복을 해서, 사리·사리구 자료가 저희한테 다 있습니다.

○**조계원 위원** 아까 민형배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위증의 문제가 없도록 사려 깊게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그건 정확한 날짜와 그걸로 갖다가 말씀드립니다.

○**조계원 위원** 그리고 회암사에서 사리구 이운행사 있었을 때 김건희 여사를 수행하셨습니까?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저는 별도로 참석하고 전혀 몰랐습니다.

○**조계원 위원** 회암사로부터 공식적인 초대를 받으셨습니까?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회암사로, 그러니까 불교계로부터 공식적으로 참여에 대한 요청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날 오후에 축사가 하나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여를 했습니다.

○**조계원 위원** 그리고 이날 행사에서 회암사 주지스님이나 모든 분들이 사리 반환은 김건희 여사의 공로이다 이렇게 말하셨지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그건 들었습니다.

○**조계원 위원** 사리 반환이 김건희 여사의 공로입니까?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모든 정부의 노력이고요, 많은 국민들의 염원 중의 하나였습니다.

○**조계원 위원** 김건희 여사의 공을 만들어 준 것에 국가유산청이 기여한 것 아닙니까?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저희보다는 불교계가 더 많은 노력을 했지요. 그리고 사리와 사리구를 반드시 찾아오는 게, 저희의 지금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조계원 위원** 아니, 사리만 먼저 반환하게 됨으로써 사리구 반환이 지장을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동시 반환이 안 됨으로 해서?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그것은 지장이라기보다는 저는 조금 시차를 두고 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했고, 그날 협상 테이블에서 ‘사리만 줄 테니까 사리구는 반환하지 않는다는 걸 조건으로 걸어라’ 그래서 제가 ‘그건 절대 못 한다. 우리는 동시 반환이 안 되면 안 된다’ 했다가 일단 시차를 두고 사리라도 먼저 돌려주고 그다음에 사리구를 하는 것이 순차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협상에 나섰던 겁니다.

○**조계원 위원** 보스턴 미술관 측하고도 그렇게 협상을 했습니까?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그렇습니다.

○**조계원 위원** 지금 사리구 반환은 어떻게 추진하고 계십니까?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사리구 반환은 절대 불가라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러면 우리가 교류라도 먼저 해서 사리구를 어떻게든지 국내에 들어오게 해서 전시를 하든가 이런 대여를 통해서 국민적인 호응을 얻어 내고, 예를 들자면 나중에는 안 되면

그것이……

○조계원 위원 그러니까 사리로 통 치고 사리구는 반환할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국가유산청장 최승천 아시다시피 사리는 저희한테 들어와도 큰, 저희들이 큰 의미는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사리보다는 사리구가 저희한테 주 목적……

○조계원 위원 유산 가치는 사리구가 훨씬 높잖아요?

○국가유산청장 최승천 당연합니다.

○조계원 위원 그런데 오히려 사리만 반환을 먼저 받음으로 해서 사리구 반환이 지장이 왔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국가유산청장 최승천 예, 그렇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일괄적으로 사리와 사리구를 반환하지 않겠다 했다가 사리만 돌려주겠다는, 계속 왔다 갔다 여러 가지 그런 설이 있었고요. 처음에는 아마 사리를 먼저 받겠다는 것은 우리 쪽에서 요구를 했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조계원 위원 다음 화면 부탁합니다.

김건희 여사가 또 장애인들에게 문화예술 공연장 건립을 약속하셨고, 이것도 브리핑을 통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용의 핵심은 장애예술인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의 장을 우선적으로 마련하고 누구나 문화예술에 쉽게 접근하고 가슴 벅차게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 아주 정책을 본인이 다 그냥 결정권자처럼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 말이 실현이 되더라고요.

다음 화면 부탁합니다.

이 말이 있은 후에 2023년 10월 24일 모두예술극장이 개관하게 되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그렇습니다. 제가 개관식에 갔었습니다.

○조계원 위원 이것도 김건희 여사의 공로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아니, 이건 이미 오래전부터 다 계획된 일이지요.

○조계원 위원 그러면 이 사실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가 알고 말을 한 건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아마 여사의 입장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그런 도움……

○조계원 위원 기획실장님, 김건희 여사에게 이런 정보가 갔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 황성운 ……

○조계원 위원 어디 있었어요?

김건희 여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아니면 통지를 한 사실이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 황성운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사전에 알고 계셨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다음 화면 부탁합니다, 상춘재.

그다음에 또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민원을 또 김건희 여사가 나서서 해결하더라고요.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의 필수조건으로 필요한 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데 그게 2년간 답보 상태에 있었어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가 상춘재에서 국악공연 관람을 하고 그 오찬 행사 이후 4개월 만에 법이 개정됐고 결국에는 이명희 명인이 내놨던, 이영희 명인인가요?

다음 화면 띄워 보세요.

○ **국가유산청장 최승천** 이영희 보유자 맞습니다.

○ **조계원 위원** 예, 결국 해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민원을 국가유산청이 나서서 해결을 했더라고요. 맞지요?

○ **국가유산청장 최승천** 지난번에도, 10월 10일 날 국감 때 말씀드렸지만 2022년 5월경부터 지속적으로 저희가 요구를 해 왔던 거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조계원 위원**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나서서 말하니까 국가유산청이 전면적으로 나선 것 아닙니까?

○ **국가유산청장 최승천** 저희들은 안 나설 수가 없지요, 저희들이 당연히 해결해야 될 문제니까. 그런데 다만……

○ **조계원 위원** 김건희 여사가 나서면 국가유산청이 나서야 되는 법이 있습니까?

○ **국가유산청장 최승천** 그게 아니라 전수교육관을 짓기 위해서는 저희가 꾸준히 요구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 **조계원 위원** 김건희 여사가 나서니까 불과 4개월 만에 해결된 것 아닙니까?

○ **국가유산청장 최승천** 그건 국토부에서 결정한 사항이니까 저희들이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국토부에서……

○ **조계원 위원** 최승천 청장님, 문체부장관이 누구입니까? 김건희 여사입니까?

○ **국가유산청장 최승천** 아니지요. 그게 아니라 전수교육관 건립은 땅이 있어도 저희가 건립할 수 없는 상황을 꾸준히 말씀드렸고 그것이 전수교육관뿐이 아니라, 다른 것은 다 해결이 됐었어요.

○ **조계원 위원**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개입이 되지 않고 장관 추진으로 됐으면 말을 안 해요. 아무리 지지부진했던 것도 김건희 여사가 나서니까 그때서야 국가유산청이 발벗고 나서서 민원을 해결한 것 아닙니까?

○ **국가유산청장 최승천** 저희가 발벗고 나선 건 아니고요, 전부터 계속 한 겁니다.

○ **위원장 전재수** 조계원 위원님, 이쯤 정리해 주시고 보충질의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유정 위원** 유인촌 장관님, 축구협회 감사 진행 중이지요?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그렇습니다.

○ **강유정 위원** 그리고 10월 말에 원래 발표가 있기도 했는데 조금 늦춰진 듯합니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지금 아마 최종, 정몽규 회장 면담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 끝나는 대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 **강유정 위원** 그런데 문체부와 축구협회의 관계가 깔끔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좀 있습니다. 감사를 하려면 그래도 관계가 깔끔해야 할 텐데, 이런 소문도 있어요. 축구협회가 문체부 위에 있다, 그러니까 감사 대상인데 되려 축구협회가 위에 있는 것 아니냐. 왜냐하면 문체부 고위공직자 출신들이 전관예우로 축구협회의 임원진으로 가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았던 겁니다.

일단 단적인 예로 지금 축구협회 김정배 상근부회장, 어떤 출신이시지요? 알고 계시지요, 이것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알고 있습니다.

○강유정 위원 문체부 2차관 출신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도 했대요. ‘강유정 위원이 중인으로 요청한 22일에 출석하지 않게 조치하겠다. 어떤 질의를 할지도 문체부 후배 통해서 내가 좀 파악해 놓겠다’라고 김정배 상근부회장이 말했다는 제보도 제가 받았습니다. 이런 말이 오갈 정도예요. 이럴 정도면 한 몸이 아니라는 것을 문체부가 증명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감사 주체인데 감사 대상과 이렇게 깊은 연루가 있으면 안 될 텐데……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문체부의 정보가, 감사를 하고 있는 정보가 되려 축구협회로 흘러가는 건 아닐까라는 의심을 하는 게 나름 합리적이지요.

지금까지 회장님, 그러니까 정몽규 회장님 취임한 이후에 10년간 축구협회 임원들 명단, 그중에서 문체부 출신들 표시해서 달라고 문체부에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PPT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면)

열흘 끝에, 자료를 잘 주지도 않아서…… 저렇게 파란색, 김정배 문체부 2차관만 있다라고 허위 자료 주셨어요. 이것 잘못된 거거든요. 1명뿐이 아니었잖아요. 알고 계셨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전에 제가 있을 때는 우리 문체부에서 축구협회에 나간 사람이 없었는데요. 이번에 아마……

○강유정 위원 제가 물어본 것도 2013년 이후부터예요, 왜냐하면 정몽규 회장 다음부터니까. 그것은 조금 대답이 안 될 것 같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러니까 이런 사실은 저는 잘 모르고 있었는데 이번에 와서 김정배 회장 얘기를 들었습니다.

○강유정 위원 이렇게 허위 자료 줘 가지고 저희 방에서 일일이 다 하나씩 체크해 봤습니다.

다음 명단 보여 주세요.

이게 빨간색, 조현재 누락, 곽영진 누락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러니까요 52대 2013년, 17년, 21년, 24년 이 4대째 집행부 안에 전부 다 문체부 전관이 있었던 거예요. 의도적으로 숨긴 거라고 볼 만하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글쎄요, 이것 정확하게 다시 정리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유정 위원 이것 저희가 한 거라니까요. 이것 주신 게 아니라 저희가 파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문체부 출신인데, 저는 이 정도 되면 문체부와 축협도 카르텔이 아닌가, 저는 축피아라고 부르고 싶어요. 오히려 축구 마피아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인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계신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저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시정하겠습니다.

○강유정 위원 제가 왜 말씀을 계속 드리냐 하면 아직 감사결과 나오기 전이고 그런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연루가 되어 있고, 문체부와 한 몸 같다라는 의혹에서 자유롭지 않다면 감사결과에 대한 신뢰도도 매우 떨어질 수 있는데 자료라도 제대로 제출하셨으면 의혹이 좀 줄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딱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분들이 계속 임원으로 있었고, 제가 노조 측에서 받은 정보에 의하면 연봉도 한 2억 5000 원이라고 하시고요.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비상임인데도 이렇게 연봉을 주나요?

○강유정 위원 예, 노조 측에서 그렇게, 이것 정확한 건 아니지만 노조 측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지금 현재는 상근이고 그전에 있던 사람들은 비상임인가 보네요.

○강유정 위원 아니요, 하여튼 그런 제보가 있었습니다, 그건 여부를 좀 더 확인해 봐야겠지만.

FIFA 규정 얘기하면서 축구협회가 늘 정치적 중립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저희가 확인해서 다시 다 정확하게 드리겠습니다.

○강유정 위원 제가 질의가 안 끝났습니다.

정치적 중립을 얘기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렇게 주무부처인 문체부 소속 고위공직자들을 10년 넘게 축협이 곁에 둔 건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 이유는 제가 가진 의혹뿐만 아니라 매우 상식적인 분들이라면 모두가 다 가질 의혹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문체부를 채근하고 싶은 것은 이 자료 요구한 거 축구협회가 아니라 문체부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소관의 임원들 그리고 혹은 국장을 지냈던 분들, 문체부 이력을 가진 분들이 축구협회 어디 갔느냐고 물어봤는데 제대로 체크 안 하고 숨기고 보낸 거고, 이것은 저희가 체크 안 하고 확인 못 하면 넘어갈 문제로 생각한 거 아닌가, 국회 기망한 거 아닌가라고 굉장히 의혹이 될 만한 자료 제출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축구협회의 허위 자료에 대한 단순한, 게다가 문체부 출신 이력이 있는 분들 체크도 안 될 거면 감사에 대해서 되게 의심스럽다, 제가 일단 의심을 갖고요. 제대로 하셔서 필요한 조치도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이 축협이 끊어 낼 방법은 없는지에 대한 그 부분도 좀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강유정 위원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ISO 국제표준 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말씀해 주십시오. 잘……

○강유정 위원 이것은 그냥, ISO 많이 들어 보셨을 거예요. 지금 당황하셔서 모르신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현재 중국이 ISO에 제출한 이스포츠 용어 국제표준화 제안서 초안이 통과된 거 알고 계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강유정 위원 모르시면 안 돼요. 그런데 이게 저희 의원실에서 지적을 하기 전까지 아예 문체부에서 모르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기술표준원에 등록한 전문가, 지금 우리 쪽 전문가 누군지 알고 계신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아직 보고를 못 받았는데요.

○**강유정 위원** 위영광이라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중국 쪽 최대 이스포츠 회사 자회사의 한국 지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회사의…… 국적만 한국인, 무늬만 한국인이지 월급 받는 데가 중국인데 이분이 우리 쪽 전문가로 등록이 돼 있어요. 게다가 스스로 본인이 전문가로 등록을 했어요. 문체부는 지금도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고 저희 쪽에서 오히려 알려 드렸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그리고 기술표준화 주도로 올린 대응 회의에서 이런 발언도 했대요. 자료 화면 좀 보여 주세요.

이것 딱 보셔도 중국 편 드는 건가요, 한국 편 드는 건가요? ‘중국이 어떤 의미를 둔 건지 생각해 보자. 중국이 이런 걸 한 건 좀 파악을 해 봐야 된다’라고 제가 보기에는 말만 한국어 하고 있지 중국 편 들고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오죽하면 표준원에서 우리 쪽 전문가 좀 더 달라고, 더 등록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문체부에서 추천한 인사가 없답니다. 한마디로 문체부에서 지금 무대책인 거예요.

ISO가 뭐 그렇게 대단하냐라는 생각도 들 수도 있지만 이것 기축통화 비슷한 거 아닙니까. 국제대회가 열리면 이 표준안을 삼아서 모든 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우리도 ISO에 독자적인 국제표준안을 만들어야 돼요. 지금 빨리 만들어야 병합심사라도 된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알겠습니다.

○**강유정 위원** 그런데 이걸 아직도 파악도 못 하고 계시고, 아시안게임이나 EWC 같은 그런 국제대회에서 이걸 따라서 룰도 대회 운영도 선수 관리도 다 주도하게 되는데 그냥 눈 뜨고 코 베이는 꼴이고요. 문체부에서 벌써 4년 전부터 신경 쓰겠다고 약속했던 일인데 아직 아무 대책도 없고 누가 들어가 있는지도 모르고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전혀 몰라서 향후 대응 계획 아주 구체적으로 짜서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지적을 정말 잘해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 물론 저도 아직 구체적으로 보고를 받지 못해서요 확실하게 다시 정리를 해서……

○**강유정 위원** 저희 방에서 알려 드렸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정리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수 위원** 장관님, 대한체육회 국정감사에서 체육회의 회계관리, 예산을 5000억 가까이 쓰는 그런 큰 기관에서 회계관리가 동네 계모임보다 못하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특히 보면 가장 기본적인 인건비와 같은 경상적 경비조차도 터무니없고 엉터리인데, 보십시오.

자체 예산에서 인건비에 투입되던 예산이 이기홍 회장 취임 전에는 통상적으로 25억, 26억 정도였었는데, 이게 어떤 때는 26억까지 자체 예산에서 인건비로 지급을 하다가 어떤 때는 자체 예산에서 9억 정도만 지급을 하고 엉뚱한 데 씁니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자체 예산 사용하는 방법을 지금 조금 부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지요. 왜냐하면 여기는 저희들이 감사를 안 하거든요.

○ 김승수 위원 그러니까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준 기금은 엄연히 다른 쪽에 용도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사업에 사용하도록?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 김승수 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사용을 하지 않고 인건비에 쓰여지던 자기를 돈을, 그러니까 10억 이상을 엉뚱한 테다 빼돌려서 썼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맞습니다.

○ 김승수 위원 그런 것들을 다 보면, 또 이기홍 체육회장 답변은 문체부에서 승인을 받고 썼다는 겁니다. 이런 걸 일일이 다 승인을 해 줬습니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아마 자체 예산 경우는 승인을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 김승수 위원 하여튼 그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 김승수 위원 기본적인 인건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회계관리가 엉망인데 사업비는 오죽하겠습니까?

체육회 사무총장님, 지금 대한체육회에서 종목별 단체하고 또 시도 체육회 다 예산을 일정 부분씩 분배하고 있지요?

○ 대한체육회사무총장 윤성욱 예, 그렇습니다.

○ 김승수 위원 그러면 매년 종목단체별로 대한체육회에서 총액이 얼마 지원됐는지 통계가 바로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 대한체육회사무총장 윤성욱 예.

○ 김승수 위원 준 돈이니까 당연히 기록이 있어야지요?

○ 대한체육회사무총장 윤성욱 예.

○ 김승수 위원 그런데 저는 국감 시작 몇 달 전부터 최근 몇 년 동안 대한체육회에서 종목별 단체에 지원한 총액이 얼마인지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까지도 자료를 못 받고 있습니다, 어느 종목단체에 얼마를 줬는지 또 그 준 것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줬는지.

가장 기본적인 자료 아니겠습니까? 그 자료를 아직 못 받고 있습니다. 오후까지 줄 수 있습니까, 그것을?

○ 대한체육회사무총장 윤성욱 예, 최대한 준비해 보겠습니다.

○ 김승수 위원 최근 5년간 대한체육회에서 종목별 단체에 지급한, 지원한 돈의 세부 내역, 총액이 얼마인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줬는지 오후까지 그러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이렇게, 지금도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대한체육회에서 경기력지원금하고 범인화 기금이라고 그래 가지고 93년, 94년도부터 죽 지원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통계 자료를 받아 보면 연도별 종목단체별 이 돈이 최초 지원 금액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주먹구구식입니다.

지금 총액 파악된 게 한 1393억 정도 됩니다마는 여기의 세부 내역을 보면 그냥 공란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경기력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24개 단체가 지금 확인이 불가하고 법인화기금도 분명히 지급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그런 기관이 5개가 없습니다. 그리고 액수 조차도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 예산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받을 때마다 통계가 다르고.

특히 경기력지원비 같은 경우에는 종목별 단체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매년 지원된 금액의 35%를 무조건 적립하도록 그렇게 의무화돼 있습니다. 그리고 최초 원금 같은 경우에는, 법인화기금 같은 경우에는 다 은행에 질권을 설정해 두고 원금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이자 가지고 운영비에 보태도록 돼 있는데 지금 몇 개 단체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몇 년 동안의 회계 자료가 완전히 없거나 중복으로 기재됐거나, 지금 하나의 예만 들어 놓은 건데 훨씬 더 많은 단체가 주먹구구식으로 엉터리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93년, 94년도만 하더라도 그 당시 2개 기금의 지원비가 거의 1000억 가까운 돈인데 그렇게 많은 돈을 국가에서 지원하도록 했었으면 분명히 이것은 장관 결재는 기본이고 대통령 결재까지 있었을 그런 서류임에도 불구하고 대한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문체부, 어느 곳에서도 관련 자료를 지금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금들이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한두 개 단체의 예를 들어 봐도,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력지원비 적립금, 35%는 무조건 적립하도록 돼 있는데 소프트볼협회하고 스쿼시협회만 보더라도 전체 지원된 금액이 지금 확인이 안 돼서…… 2005년, 2006년 지원 금액만 딱 따져 봐도 추정 적립액이 35%만 적립했으면 1억 2000, 9000만 원인데 현재 남아 있는 돈은 7000만 원, 13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2개 연도의 35% 적립한 금액에도 수천만 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많은 돈이 엉뚱한 데로 새고 또 낭비되고 관리가 안 되고 있는지를 지금 확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철저하게 감사 또 회계조사 이거 해야 됩니다. 해 가지고 말 그대로 부실 관리해서 기금을 완전히 손실 입게 한 책임자들에 대해서는 엄하게 책임을 묻고 또 손실 금액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 말씀을 좀 해 주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동안에 얼마나 체육회 관리감독이 잘 안 됐고, 주로 자율성을 얘기하면서 이런 결과가 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대한체육회 사무총장을 지금 벌써 몇 대째 기재부 출신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예산 문제, 회계 문제에 대해서는 더 명확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도 이런 지경이면 저희들이 앞으로 관리감독을 정말 강화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것에 대한 조치도 나중에 위원님들께 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수 위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초 서류, 93년·94년도의 법인화기금하고 경기력 지원금 된 그게 분명히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아니면 국가기록원에라도 있어야 되는데, 있어야 되는 것이 또 당연하고요. 그 자료를 확인해서, 실제 그 당시부터 시작해서 최근 까지 지원받은 종목별 단체 중에서 완전히 지금 누락돼 있는 단체들 그런 단체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책임자에 대해서는 엄벌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윤덕 위원 전주시갑 김윤덕 위원님입니다.

장관님, 내년 25년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일제에서 독립한 80주년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맞습니다.

○ 김윤덕 위원 그리고 한일 국교 정상화된 지가 60주년입니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그렇습니다.

○ 김윤덕 위원 그런데 화면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면)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광복 80주년 그리고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기념전을 여는데요, 그 예산 총사업비 17억 5000만 원을 비교해 보니까 한일 수교 예산은 14억 5000이고 광복 80주년 예산은 고작 3억입니다. 한일 수교 60주년을 기념하고 싶은데 하필 80주년이 끼니까 뭔가 이렇게 명목상으로 좀 넣어 준 느낌인데, 어떤가요?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명목상으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물론 박물관 그간 기관의 예산이니까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광복 80년을 지금 대대적으로 준비하고 있고요. 또 한일 수교 60년은 미래의 한일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이런 쪽의 준비를 하고 있어서요, 지금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계획이 다 정리가 되면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김윤덕 위원 장관님, 중앙박물관은 양반이에요. 국립지방박물관은 내년에 8억을 들여서 한일 수교 60주년을 합니다. 그런데 광복 80주년은 제로입니다. 국립극장은 한일 수교 60주년에 5억 원 예산을 들여서 한일 수교 60주년 음악극을 준비합니다. 80주년 광복은 제로입니다. 국립국악원에서는 3억을 들여서 한일 수교 60주년 교류 공연을 준비합니다. 광복은 제로입니다. 국립지방국악원에서는 한일 수교 60주년 한류 공연을 준비하는 데 4억입니다. 광복 80주년은 제로입니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저희들이 내년 광복 80주년으로 지금 한 53억 정도를 편성하고 반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 김윤덕 위원 장관님, 전에 70주년 해 가지고 KTV에서 10억 준비한 거, 저희 데이터 가지고 있어요. 그다음에 매체 활용 정책 홍보에서 12억, 그렇지요? 이런 거 다 합치면 48억이 돼요.

그런데 저희가 광복 80주년 비교해 보니까 죽 보고를 하는데 관광기금에서 20억 쓴 건 뺏더라고요. 그걸 다 합치면 63억 원이 넘습니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 김윤덕 위원 제가 볼 때 장관님, 국립극장이나 국악원에서 광복 80주년 기념 공연 준비할 수 있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그럼요.

○ 김윤덕 위원 국악원은 당연히 할 수 있겠지요?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 **김윤덕 위원** 윤석열 정부가 친일 정부라고 하는, 대체 일본 가서 말 한마디 못 하는 이 정부가 실제 한 군데에서 유별나게 한일 수교를 준비했다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문체부 산하기관들 전체가 다 한일 수교 60주년에 대해서는 예산을 투입해서 준비하고 있고 광복 80주년을 준비한다는 건 외면하고 있다면 저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걱정되시지 않도록 저희들이 다시 조율을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광복 80주년은 문체부에서 직접 지금 여러 가지로 안을 준비하고 있어서요. 하여간 걱정되시지 않도록 정리하겠습니다.

○ **김윤덕 위원** 장관님……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기관은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어떻게 해서 이런 예산을 짰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것 확인을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 **김윤덕 위원** 장관님께서 확인하셔 가지고 한일 수교 60주년, 광복 80주년…… 광복 80주년 분명하게, 이 정부에서 문체부장관이 책임지고 예산 조정해서 준비를 제대로 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확인 부탁드리고 이번 예산심사에서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알겠습니다.

○ **김윤덕 위원** 장관님, 콘텐츠진흥원에서 글로벌 혁신부문장이라고 하는 직책을 만들어서 일을 진행했어요. 그런데 콘진원 회의록을 보니까 사업비에서 인건비로 전용하는 것에 대해서 주무부처와 협의 완료하였고 인건비 예산은 사업비에 편성했다 이렇게 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제가 국장하고 과장에게 확인해 본 결과 문체부에서 저한테 서류로 보낸 건 인건비를 사업비에서 전용해서 쓴 사례, 일용직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고 그 사례를 가져오라고 하니까 저번 국감장에서는 사례가 있다고 말을 했는데 저희한테 서류로 보내온 것 보니까 그런 사례가 없다고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장관님께서 이 내용 알고 계세요?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 자료는 잘, 제가 보고는 못 받았는데요. 원래는 사업비에서 인건비를 쓸 수는 없지요, 사실은. 그런데 아마 기재부하고 인원 의논을 해서 승인을 받으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아마 콘텐츠진흥원이 해외 지사도 더 많이 늘어나고 사업 자체가 확장이 되면서 이 글로벌 부문을, 또 옛날에는 부원장이 둘이었다가 지금은 없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생긴 일인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내년부터는 정식으로 직제에 편입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겠지요.

○ **김윤덕 위원** 아니, 장관님 직원들이 사내 게시판에 글을 올려요. 예언을 합니다, 예언. ‘임금피크제 대상자 임금을 상승시키기 위해 사업비를 활용하여 계약직으로 편법 고용했다는 외부 지적, 그런 지적에 대해서 방비책은 마련해 두었겠지. 콘진원이 사업비로 임금피크제 대상자를 편법 고용하려 한다’, 그리고 퇴사한 지 2년이 안 지났고 올해 임금피크 대상자, 사업비로 편법 고용한 그 사람이 그 부문장에 임명이 됩니다.

우리 콘진원 직원들의 예언 능력 어떻게 생각하세요?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글쎄요, 이 부분은 어쨌든 나름대로 기재부에 허가도 받고 이렇게 해서……

○ **김윤덕 위원** 기재부에서 허가받은 내용은 구두로 결론이 왔다고 합니다.

구두로 이런 문제가 협의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아마 유선상으로 통화를 한 것 같거든요.

○ 김윤덕 위원 그러니까 문체부 내에서 사업비에서 인건비로 전용한 사례가 한 번도 없는데 이 사례는 콘진원에서 기재부에 요청을 하니 문서로 보내니까 구두로 답변을 했다, 문체부에서는 이걸 사업비에서 쓰라고 말은 안 했고 인건비를 마련하면 써라, 그렇게 해라 했는데 5개월 치 중에서 3개월은 인건비가 사업비에서 확보가 되고 2개월은 안 되어 있는데 오케이가 된 겁니다.

제가 볼 때는요 이것 장관님은 책임 전혀 없어요. 그런데 정말로 궁금한 것은 이번 기회에, 어차피 문체부에서 관리도 안 되고 콘진원 마음대로 하고 문체부는 파악도 안 되어 있고 더 높은 데서 탁탁 떨어지면 착착 해내니 이번 기회에 문체부에서 독립시키면 어떻겠습니까? 차라리 용산 제2부속실 직할로 해서 콘진원 수천억 되니까 마음대로 나눠줘 버리고, 사람들 필요하면 그냥 탁탁 쓰고…… 뭐 복잡하게 문체부, 위원들한테 이런 소리 들으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장관님?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만 원칙대로 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저는 그런 것을 편법적으로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이건 제대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정리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 김윤덕 위원 그 정리된 내용에 대해서 국감 끝나고 나서 장관님이 정리해서, 그런 오명 듣기 쉽으시면 제대로 정리해서 결과 보고해 주십시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알겠습니다.

○ 김윤덕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현진 위원 대한체육회 사무총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국민의힘 배현진입니다.

장관님, 사진 하나 보여 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면)

이 사진 알고 계세요, 어떤 사진인지?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알고 있습니다.

○ 배현진 위원 뭐지요?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손기정 선수……

○ 배현진 위원 맞습니다.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우리 손기정 선수가 마라톤대회에서 영광스러운 금메달을 수상하고도 일장기를 본인이 가릴 수가 없어서 저렇게 들고 있는, 월계수라고 하나요? 그것으로 가리고 있다가 또 동아일보에서 일장기를 지우고 보도했다가 폐간되는 일도 있었고, 그 역사를 담고 있는 사진이지요?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 배현진 위원 그런데요 손기정 선수 왼쪽에 한 분이 더 보여요. 혹시 이분 누구인지 아세요?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남승룡 선수인 것 같습니다.

○ 배현진 위원 잘 알고 계시네요. 역시 우리 조선인인 남승룡 선수입니다. 당시 같은

올림픽, 같은 대회에서 아시다시피 동메달을 목에 건 영광스러운 그런 순간에 이 두 분께서 고개를 떨구고 이렇게 비통한 심정으로 시상대에 올랐습니다. 두 선수는 모두 외신기자들과 선수들에게 당시에도 ‘미 코리안, 낫 재페니즈(Me Korean, not Japanese)’라고 얘기하면서 본인들은 일본인이 아니라고 계속해서 강변하셨어요. 이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전재수 위원장, 박정하 간사와 사회교대)

○ 배현진 위원 그런데 현재 IOC의 공식 홈페이지에 역대 전 세계 메달리스트들을 기념하기 위해 만든 그 자료란을 찾아가 보면 두 분 어떻게 이름이 쓰여 있느냐, 손기정 선수는 일본식 표기로 ‘키테이 손(KITEI SON)’, 남승룡 선수는 ‘난 쇼류(SHORYU NAN)’라고 써 있습니다.

장관님, 이것 혹시 본 적 있으십니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것은 처음 봅니다.

○ 배현진 위원 이 두 분뿐만 아니라 본 위원이 직접 선수조사를 해 보니까 IOC 공식 홈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총 11명의 당시 조선인, 우리 선수들이 일본의 국적과 일본 이름으로 여전히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문체부, 대한체육회 두 군데 모두에 이 사실관계를 파악해 봤더니 손기정 선수 외에 열 분이 더 이렇게 이름이 잘못 기재되어 있고 여전히 일본인으로 남아 있다라는 사실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하셨어요. 장관님,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게 아마 예전에 한 세 차례 정도 IOC에 항의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 배현진 위원 세 차례는 아니고요. 이 11명의 선수들은 우리 대한민국 스포츠의 초석을 닦은 진짜 영웅들인데 우리 정부가 2016년에 ‘손기정 선수 대한민국 국적 및 한글 이름 표기 촉구’라는 이름으로 국회에서 결의안을 내니까 그때 IOC에 한 번 송부한 이후에 여지까지, 여태까지 아무 조치 없이 손을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외에 이름 병기도 안 해 주냐, 국적, 태극기를 똑같이 병기를 해 줄 수 있지 않느냐라고 IOC에 문의를 했던 내역을 확인하니 메달을 획득할 당시의 기준으로 정보를 기입하기 때문에 입장장을 바꿀 수 없다라는 IOC의 답변이 있었다고 저희에게 확인을 해주었습니다.

대한민국 스포츠 영웅, 물론 당시 조선인이었지만 이분들께서 그렇게 비통한 심정으로 시상대에 오르셨는데 우리 정부가 아무 노력을 하지 않고 일본인으로 여전히, 앞으로도 영원히 역사에 남게 해 둔다면 정말 안 될 일 아니겠습니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건 고쳐야 되겠지요.

○ 배현진 위원 제가 그래서 보다 못해 지난 9월에 IOC에 직접 서한을 보냈습니다. 내용은 잊힌 11명 선수들의 국적과 이름을 우리 대한민국의 표기 방식대로 변경하고 국기도 같이 병기를 하고 당시 왜 일본 국적으로 출전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역사적 배경을 선수들 밑에 서술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IOC가 응답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 문체부와 대한체육회에 계속해서 IOC 측에 이 답변에 대한 서한 아니면 우리 정부의 입장장을 밝혀 달라고, 그것을 촉구하라고 했는데 대한체육회 사무총장님, 노

력하셨습니까?

○ **대한체육회사무총장 윤성욱** 예, 저희가 위원님 레터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도 답을 계속 재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아직 답변은 오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실무선에서는 계속 연락을 해서 좀……

○ **배현진 위원** 오늘 이기홍 대한체육회장께서 국감을 회피하시느라고 사무총장이 지금 대신 자리에 나오셨는데……

이기홍 회장께서 본인은 체육대통령이라는 말씀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IOC 위원으로서의 자긍심, 자부심도 가지시고. 그러면 이 정도의 일은 IOC 위원으로서 해결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 **대한체육회사무총장 윤성욱** 예, 회장께서도 IOC 위원 만나고 IOC 바흐 위원장 만날 때도 얘기를, 기회가 될 때마다 말씀은 나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배현진 위원** 장관님, 아마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 국감장에서 손기정·남승룡 선수를 비롯한 잊혀진 11명의 선수들의 성함을 거론한 이후에 또 누가 이 말씀을 챙길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국감장에서 한번 스쳐 가고 잊혀지는 선수들이 또다시 되지 않도록 장관님께서 이 문제는 각별히 좀 챙겨서 IOC에 우리 선수들의 한국 이름을 되찾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실제로 IOC가 정부 쪽에서 뭔가 의견을 내거나 접촉을 하면 굉장히 문전박대합니다, 대답도 안 하고. IOC 자체가 자율성을 굉장히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도 끊임없이 이 문제,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그동안에 기록상으로 보면 한 네 차례 정도 하고 결국은 답변을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 들었거든요.

○ **배현진 위원** 알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래서 이것은 실제로는 IOC 위원들이 역할을 훨씬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배현진 위원** 대한체육회도 손 놓고 넋 놓고 있지 말고 우리 잊힌 스포츠 영웅들의 명예를 되찾아 오셔야겠지요?

○ **대한체육회사무총장 윤성욱**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배현진 위원** 분주하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대한체육회사무총장 윤성욱** 알겠습니다.

○ **배현진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오후에 참고인으로 직접 모시고 싶었는데 연세가 고령이신지라 다리가 좀 불편해 나오기가 힘들다 하셔서 돌아가신 남승룡 선수의 셋째 따님의 영상을 직접 찾아뵙고 담아왔습니다. 이분의 목소리를 마지막으로 오전 질의를 정리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 **위원장대리 박정하** 배현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형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민형배 위원** 30초만 준비하겠습니다.

윤성욱 총장님하고 박지영 이사장님도 답변 준비를 좀 해 주시고요.

됐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면)

제가 한번 읽어 볼게요. 이게 그동안 여러 곳에서 인용되고 논란이 됐던 안세영 선수의 열세 쪽짜리 견의서입니다.

보겠습니다.

'선수들은 이기는 법만 배우고 있고 다치거나 힘들 때는 누군가에게 어떻게 관리받아야 하는지 체계가 잡혀 있지 않다. 선수들은 서로 경쟁하듯 끌어내리는 시스템이 아니라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해 갈 수 있는 성장시켜 주는 시스템에서 성공할 수 있을 거다. 하루살이처럼 오늘 회복해서 내일은 버티는 일정으로 견뎌야 했다. 선수들 입장에서 경기력에 도움이 되는 일들을 찾아 주는 체육문화가 됐으면 좋겠다. 다들 저보고 '책임질 수 있어?'라고 하시는 그 책임을 왜 선수가 지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한 이상 선수로서 최선을 다해 책임감 있게 행동하겠습니다. 저희 시대를 살아가는 선수들이 지도자가 될 때쯤이면 적어도 생각도 대우도 달라져 있는 세상에서 활동하면서 선수들의 케어를 우선시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적어 봅니다. 가끔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방법을 찾을 때 더 좋은 방안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와 다른 생각 존중합니다만 저도 상처받을 수 있으니 저도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렵게 어렵게 이 전문을 처음부터 꼼꼼히 읽어 봤습니다. 13쪽짜리, 아마 9포인트나 10포인트 정도로 작성됐는데 여기에 우리 체육문화의 불공정과 비리, 인권침해, 부당한 규정 이런 것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장관님, 혹시 읽어 보셨습니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아니요, 지금 처음 봤습니다.

○ 민형배 위원 못 보셨지요?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 민형배 위원 윤성욱 사무총장님, 혹시 보셨습니까? 못 보셨지요?

○ 대한체육회사무총장 윤성욱 예, 저도 보지는 못했습니다.

○ 민형배 위원 박지영 이사장님도……

저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 이렇게 굉장히 정확한 진단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가 마치 무슨 반항 같은 걸 하는 걸로 잘못 알려지고 오해가 돼서.

저는 이것을 반드시 장관님을 비롯해서 체육계가 다 읽어 보고 여기에 담겨 있는, 지금 제가 저렇게 말씀드린 건 구체적인 내용은 다 빼고 거기서 전달하려는 메시지만 담은 거거든요. 혁신안을 꼭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체육계의 문화는 이런 문화 하나하고 그다음에 불공정이나 비리나 부당한 처사나 인권침해 같은 게 있었을 때 이거를 제어하고 개선하는 시스템의 부재 이 두 가지가 얹혀 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 같거든요.

한번 봐 볼게요.

스포츠윤리센터의 박지영 이사장님, 제가 사례를 쭉 모아 봤어요.

좀 보시겠습니다.

강제추행, 음행 강요, 성희롱 등 인권침해 피해가 있었다. 그런데 이거 문체부장관에게

중징계하도록 요구했는데 징계가 없었습니다. 폭언 및 경기판정 불공정 의혹 있었는데 이것도 없었습니다. 인권침해, 생리주기를 조정할 수 있느냐라는 식의 이런 성희롱을, 심각하게 인권침해하는 것도 징계를 안 했습니다. 또 다른, 선배의 인권침해, 공개적인 폭언·폭행.

제가 5개 사례만 들고 나왔는데요 여기 내용에 보면 도대체…… 제가 여기서 2차 가해가 될 수밖에 없어서 입에 담을 수 없는, 여기서 공개할 수 없는 내용들이 무수히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제가 지금 제시한 이 모든 내용의 접수된 사건들, 박지영 이사장님 이거 다 알고 계시는 사건이지요?

○**스포츠윤리센터이사장 박지영** 예, 알고 있습니다.

○**민형배 위원** 사건이 경미해 보입니까?

○**스포츠윤리센터이사장 박지영** 아닙니다.

○**민형배 위원** 심각하지요?

○**스포츠윤리센터이사장 박지영** 예, 심각합니다. 저희가 징계 요청을 해도 한 40% 정도만 이행하고 있습니다.

○**민형배 위원**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윤성욱 사무총장님, 체육회가 이걸 너무 가볍게 보는 것 같아요. 이게 센터에서 요청을 하면 장관께 가고 장관께서 체육회 쪽의 공정위원회에, 가서 이걸 처리를 하는데 한번 봄게요.

이 5개 모두에 대해서, 저것 봐 보십시오, 모두 징계 처분이 없음이 됐어요, 하나 둘 셋 넷. 그런데 정말 이것 진짜 2차 피해가 갈까 봐서, 2차 가해가 될까 봐서 공개를 할 수 없다니까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내부의 시스템이 무너졌을까. 제어 시스템, 개선 시스템이 무너졌을까.

장관님, 스포츠윤리센터 문체부 감독 산하기관 맞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맞습니다.

○**민형배 위원** 문체부에서 이런 상황을 그냥 두고 보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큰 이유는 없습니다.

○**민형배 위원** 350건 징계 요청을 했는데 체육회에서 회신조차 안 한 게 44건이고 징계 요구한 것 중에 44%가 징계가 안 됐어요.

윤성욱 총장님, 어떻게 된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게 법적인 어떤 그런 제재가 없기 때문에 아마 이런 일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민형배 위원** 그러면 이것을 그냥 두고 보면 안 되겠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아닙니다, 바꿔야 됩니다.

○**민형배 위원** 제가 지금 안세영 선수의 건의서와 윤리센터의 내용, 징계의 상황을 쭉 말씀드렸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앞서 말씀드린 체육문화의 문제하고 이걸 제어하고 개선하는 시스템이 없는 이 두 가지를 신속하게 손보지 않으면 지금 같은 상황이 계속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맞습니다.

○**민형배 위원** 장관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국감이 끝나고도 반드시 마련

하셔야 됩니다.

제가 예를 몇 개만 들었지만 저는 진짜 이거 두 개의 문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상황이 됐는데 이게 정리가 안 될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저는 하여간 정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고요. 또 체육인들 스스로도 자정능력을 굉장히 많이 길러야 하고요.

○민형배 위원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거는 체육회장께 꼭 문체부에서 말씀을 하셔야 되고요.

체육회장님 오늘 안 나오셔서 그런데 사무총장님 이 상황을 꼭 짚어 보십시오.

장관님, 파리올림픽 코리아하우스의 조직도를 한번 봐 보시겠습니다. 예술감독이 갑자기 등장했어요. 이게 올해 4월까지 없던 자리인데 4월에 갑자기 생겼어요. 답변을 제가 문체부에서 들어 봤더니 지금까지 이번에 말고는 예술감독 선임 사유가 없었다고 하고 그리고 장관 주재 실국장 회의 때 총감독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가 돼서 양 모 감독을 선임을 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민형배 위원 지금 저것 봐 보시면, 그런데 이분이…… 지난번 청문회 때도 제가 잠깐 그걸 했었는데 이분이 장관님하고 장관님 자체분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는 분이시더라고요. 제가 이것 그냥 표로만 저렇게 해 놨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무슨 내용인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알고 있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런데 임용 과정 어디에 서류도 없고 근거도 없고 수당을 지급한, 보수를 지급한 규정도 없고 근거도 없어요. 그런데 보니까 여섯 달 동안 한 달에 500만 원씩 플러스 거기 출장비며 이런 것 다 지원을 하셨더라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아마 두 사람이 간 거고요. 거기에 아마……

○민형배 위원 1분만 더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박정하 예.

○민형배 위원 이 감독이 왜 선임이 됐으며 가서…… 좀 봐 보세요. 서류가 하나도 없는데, 저렇게 공간을 자기 마음대로 다 바꿔 놨어요, 그동안에 있었던 것을.

띄워 주세요.

저렇게 바꿔 놓고 또 저렇게 바꿔 놓고 저렇게 바꿔 놓고 다 바꿔 놨어요. 예술감독이 권한이 없는데 갑자기 등장해서 고액의 수당을 받으면서 그것도 특수관계에 있는, 장관님과 특수관계에 있는 분이 갑자기 등장해요. 이게 꼭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하고 비슷해요. 어떤 근거도 없고 면접을 한 적도 없고 채용 과정도 없었고, 그런데 가서 자신이 실세예요. 전체적으로 다 상황을 바꿔 놔요. 어떻게 된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런데 저거는 특수관계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이미 저분은 2018……

○민형배 위원 아니아니, 제가 역량이 있고 없고를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올림픽과 그 외에……

○민형배 위원 아니,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고요. 왜 절차의 정당성이 1도 없느냐는 말씀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거는 이게 정확하게 무슨 급료를 주는 직책은 아니고

요. 이거 자문으로 해서, 왜냐하면 특히……

○민형배 위원 자문위원이 가 가지고 저렇게, 저분 때문에 추가로 들어간 비용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잘 모르겠습니다.

○민형배 위원 2억이에요. 어떻게 그걸 모르세요?

대한체육회여서 모르시는 거지요?

저분이 가서 뜯어고치는 바람에 추가로 2억이 더 들어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분한테만 3억 이상이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성과가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있지도 않은 직책을 만드셨어요, 억지로, 그것도 아무런 근거가 없이. 법적 규정도 없고 면접……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아니, 직책이 아니고 이건 자문입니다, 자문.

○민형배 위원 그런데 자문이 가 가지고 저렇게 다 뜯어고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럴 수 있지요. 왜냐하면 그건 우리가……

○민형배 위원 아니, 법적 근거가 없는 자문에 불과한 분이 가서 이래라 저래라 해서 다 뜯어고쳐 놔요? 그때 불만이 얼마나 많았는지 못 들으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콘텐츠 관련 업체들이……

○민형배 위원 장관님이 보낸 사람이기 때문에 아예 말도 제대로 못 붙인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글쎄요, 저는 그렇게까지 했다고 생각을 안 하는데요. 이거는 해외에서 오신 분들이 우리 문화를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전시나 공연이나 이런 부분을 조율해 달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체육회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민형배 위원 그러면 제대로 채용해서 하시면 되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아니, 채용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고요, 이것은. 왜냐하면 며칠 가서 그것을 정리하고 오는 거기 때문에……

○민형배 위원 뒤에 관계되는 분들한테 다 물어보십시오, 얼마나 불편하고 저분이 와서 얼마나 당신 마음대로 했는지. 제가 개인적인 정보 때문에 다 공개하지 않은 거예요.

○위원장대리 박정하 민형배 위원님 질문 취지……

○민형배 위원 저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정하 질문 취지는 충분히 전달이 된 것 같은데, 더 정리하실 거면 드리고 아니면 오후 보충질의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신동욱 위원 서울 서초을의 신동욱입니다.

국정감사 받으시느라고 모든 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먼저 유인촌 장관님께, 이 질의는 사실 하면서도 굉장히 안타까운 질의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전직 대통령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과거에 언론사에 있으면서 미국에서 특파원으로 3년 동안 근무를 했는데 가장 부러웠던 것이 전직 대통령들이 그 사회에서 어떤 존중을 받는가 하는 점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흔히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게 있는데 우리 사회 지도층으로 활동하면서 그 이후에 도덕적 의무를 얼마나 다하느냐, 이게 가장 정점에 있는 사람은 저는 전직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직에 있을 때는 여러 가지 정치적 논란에 시달리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러나 퇴임을 하고 나면 본인은 물론이고 그 가족들의 처신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지 않게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질의를 제가 계속 준비를 해야 되나 하는 고민도 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문다혜 씨 문제입니다.

화면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면)

지금 이건 다 알려진 2022년 문다혜 씨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송기인 신부로부터 3억 8000만 원을 주고 매입한 것으로 알려진 제주도의 이른바 별장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뒤에 언론 보도들을 기반으로 해서 조금 찾아봤더니 그냥 시골의 농막이 아니고 굉장히 뷰가 좋고 여행 가는 분들에게는 정말 가고 싶은 이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에어비앤비, 공유숙박업소에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했다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펜션을 2022년도 7월 7일에 매수를 하고 8월 8일에 영업을 시작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오는데, 굉장히 경치가 좋지요. 여기에서 묵었다는 후기가 지난 2년 동안 130건이 달렸습니다. 그래서 130건이면 적어도, 후기를 다 쓰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만 썼을 테고 이틀이나 사흘을 묵었어도 후기는 한 번만 쓰는 것니까 아주 최소한만 잡아도, 저희가 숙박업소의 시세를 봤을 때 정말 정말 적게 잡아도 하룻밤에 30만 원 정도는 충분히 잘 만한, 바다가 바로 칠랑찰랑 보이는 곳인데 130건에 30만 원이면 일단 39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거보다 훨씬 큰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법영업을 그냥 계속해 왔다는 것에 대해 좀 경악스럽습니다. 다 알려지는 않았지만 송기인 신부께서 이 별장을 1993년도에 매수를 했는데 그 당시에 후원자들의 후원금으로 매수를 했다고 본인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카톨릭 정관에 신부는 부동산을 못 가진다는 부분도 동시에 고백을 하셨어요, 이분이. 그런데 왜 갑자기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하자마자 당시 시가 10억 원짜리를 3억 8000만 원에, 그것도 본인이 아니라 그 자녀에게 팔았을까 이런 부분의 의혹은 지금 지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체부에 등록된 부산교구, 그러니까 송기인 신부가 소속된 부산교구 부동산 중에 제주도에 있는 것이 파악된 것이 있느냐 했더니 없다고 합니다, 1972년부터 2024년 현재까지. 그래서 일단 의혹은 이 별장을 송기인 신부가 어떻게 가지게 됐느냐 그것도 의혹이고 이것을 왜 30년이나 지난 이 시점에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하고 난 다음에 그 따님에게 매우 헐값에 팔았느냐 이것도 사실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숙박업소와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문체부도 좀 관심을 기울여야 되고.

하나만 더 보시지요.

최근에 언론에 보도된 것 중에 영등포 오피스텔 여기도 불법으로 공유숙박을 했다는 의혹이 며칠 전 보도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문다혜 씨가 2021년 6월 6억 7000만 원에 매입을 하는데 대출이 4억 2000만 원입니다. 부동산 규제가 굉장히 심했던 그 시기에 6억 7000만 원짜리를 사면서 그 당시 소득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진 문다혜 씨가 4억 2000만 원 대출을 받은 경위, 이 돈들은 2021년 2월에 문다혜 씨의 양평동 다세대주택을 팔고 9억 원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보시지요. 2021년 6월 영등포 오피스텔 6억 7000만 원, 서대문구 주택전세자금 4억 8000만 원, 제주도 별장 3억 8000만 원, 이 돈의 행방도 사실은 조금 의혹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11억 1000만 원어치의 부동산을 매입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출 4억 2000만 원 제외하고 순 들어간 돈이 11억 1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문다혜 씨는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수입이 거의 없어서 돌봐 줬다라고 표현하는 걸 보면 그 돈이, 양평동 주택을 매도한 수입 9억 원 외에 별도의 큰 수익이 생겼을 거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대출 제외하고 2억 1000만 원의 자금 출처가 불분명합니다. 그렇게 해서 조성된 집들이 전부 다 불법 공유숙박에 활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지적했듯이 문재인 전 대통령 '운명' 디자인비 2억 5000만 원 이 것도 지금 매우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과정들, 이 가운데 문제부에서 들여다볼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다라고 질의를 드린 바가 있는데 혹시 그 사이에 보고받으신 게 있는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보고로는 아마 이런 디자인비에 대한, 저희들이 조사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은 없는 걸로 보고를 받았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디자인한 것을 따졌을 때는 과다하게 계산된 것은 맞다 이런 식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신동욱 위원 그래서 그 당시에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께서 일부는 인세를 대신 받은 것이고 또 나머지는,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 합니다만 돈을 빌린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런 모든 과정들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저희가 수사를 해서 다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 적어도 이 부분이 불법 중이나 탈세나 이런 부분에 활용된 정황이 있다면 이것은 당연히 관계기관에서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그 말씀을 드리는 취지는 이분들이 전직 대통령으로서 우리 사회에 누구보다 모범적인 삶을 살아서 우리 국민들에게 전직 대통령이란 이렇게 사는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한 것이라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다 성장한 딸의 일이기 때문에 나는 모른다'라고 할 수 없는 정황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송기인 신부의 제주도 별장을, 당시 시가 10억 원짜리를 왜 따님에게 3억 8000만 원에 팔았는지, 이것이 과연 불법 중여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지…… 예를 들면 10억에, 이를테면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예전에 잘 아시던 분으로부터 시가 10억이면 적어도 8억 정도에 내가 별장으로 쓰려고 샀다 그러면 그것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따님에게 시가의 3분의 1에 판 것이 정당한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숙박업소에 얼마나 이용되어서 얼마만큼의 수익이 전직 대통령의 가족으로 흘러들어 가고 세금을 얼마나 냈는지……

관광 부분은 우리 문제부에서 관장을 하시지요?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그렇습니다.

○ 신동욱 위원 그 부분 혹시 조사해 보고 싶으신 생각은 없으신가요?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아마 지금 수사 의뢰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신동욱 위원 아마 제주도에서 조사를 하고 있지요?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일단 공유숙박은 전체적으로 다 불법으로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제주도도 물론이고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숙박허가 자체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문제는 조사해서 발표……

○ 신동욱 위원 조사 끝나면 후속조치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정하 신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이기현 위원 잠깐 의사진행발언, 자료제출 요청해도 될까요?

○ 위원장대리 박정하 예, 말씀하세요.

○ 이기현 위원 문체부에 자료제출 요청 하나 드리겠습니다.

참 답답한데요. 국정감사 자리에서 정쟁을 유발할 수 있는, 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 정당은 정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얘기를 해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 질의에 대해서 문체부장관께서 지금 답변하신 내용은 근거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문다혜 씨와 관련된 2억 5000의, 출판사와의 거래와 관련돼서 지금 어디에도, 어떤 보도에도…… 이것이 세 가지 구성요소로 개인 간의 부채 그다음에 인세 그다음에 디자인을 포함한 프로젝트비, 참여비 정도로만 두리뭉실하게 2억 5000이 규정돼 있습니다.

(박정하 간사, 전재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런데 문체부장관께 어떤 국장이 어떤 과장이 보고했는지 모르겠는데 디자인비가 평상적으로 보는 기준에 비해서 과도하다라고 보고한 국장이 있다고 하면 그 국장이 낸 검토 자료 오늘 오후까지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 위원장 전재수 가능하시겠습니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수 다음은 박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수현 위원 박수현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PPT 보이시지요?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 박수현 위원 존경하는 배현진 위원님께서 잠시 전에 올리셨던 것과 같은 사진입니다. 배현진 위원님께서는 잊혀진 11명의 선수들 이름을 찾아야 한다, 아주 감동적인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는 이름을 찾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잊어 버린 메달도 찾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7월 31일 파리올림픽에서 반효진 선수인가요, 사격에서 금메달을 따서 우리가 백 번째 금메달이다라고 굉장히 자랑스러워했고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날 제가 한 방송에 나가서 인터뷰를 하면서 바로 저 얘기를 했어요. 손기정 선수의 잊어 버린 금메달을 우리가 되찾는 노력을 반드시 해야 되고 그렇다면 반효진 선

수가 딴 메달은 대한민국 백한 번째 금메달이다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그리고 아까 남승룡 선수 말씀을 하셨는데 남승룡 선수가 저 사진을 찍고 나서 했다는 말이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금메달을 딴 손기정 선수는 부상으로 저 묘목을 받아 가지고 저것으로 일장기를 가리고 있는데 그러지 못한 남승룡 선수가 했다는 말은 ‘기정이가 금메달을 땠다는 것이 부럽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부상으로 받은 묘목으로 일장기를 가릴 수 있다는 것이 더 부러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존경하는 배현진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우리 선수들의 이름을 되찾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선수들이 땠던 메달도 대한민국의 메달로 국적을 찾아야 한다 이런 노력을 함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알겠습니다.

○ 박수현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우리 한반도의 도자기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떤 도자기들이 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청자도 있고 백자도 있고……

○ 박수현 위원 그렇지요?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 박수현 위원 고려청자와 조선백자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맞아요. 장관님께서도 두 가지 도자기를 생각하시는지, 분청사기 아시지요?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압니다.

○ 박수현 위원 그런데 이렇게 여쭤보면 기억을 하는데 도자기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고려청자와 조선백자만 이야기하지 그 사이에 있었던 이 분청사기 역사는 쉽게 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분청사기는 14세기 말부터 16세기까지, 다시 말해서 고려청자가 쇠퇴하면서 조선백자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전에 14세기, 15세기, 16세기, 한 200년 정도 됩니다. 200년 정도를 우리 한반도에서 도자기 역사를 훌륭하게 메웠던, 메웠다기보다 자기 자신의 독특한 작품성을 가지고 우리 도자기 역사의 맥을 200년 동안이나 이어 왔던 훌륭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분청사기 200년의 짚어 버린 역사를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자랑스러운 도자기 역사의 한 장으로 그렇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분청사기는 분장회청사기의 줄임말이라고 하는데 이게 회색 흙으로 먼저 굽고 나서 그 위에 백토로 표면을 분장한 조선 초기 도자기입니다. 분청사기는 고려 말기 청자의 변천과 발전 과정에서 탄생하여 조선 초기 도자문화를 선도했습니다. 15세기에서 16세기, 약 200년간 제작되며 세금을 대신해서 나라에 공납하는 공납자기로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도자기 전쟁이라는 설이 있을 정도로 조선의 많은 도공들을 일본으로 포로로 잡아간 임진왜란 이후에 분청사기의 제작이 급격히 줄었고 이후 조선백자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면서 분청사기 발전도 멈춰 섰습니다.

고려청자와 조선백자보다 자유롭고 독창적인 표현을 담고 있는 분청사기는 그 예술사적 가치도 매우 뛰어난데요. 특히 다른 도자기보다 매우 뚜렷한 지역성을 가지고 있으며 200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에도 제작 지역과 시기에 따라 다양한 기법과 문양을

선보였습니다. 인화기법, 상감기법, 철화기법, 박지기법, 조화기법 등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문청사기는 국내적으로 인정받는 이런 입지가 미약함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으로는 굉장히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현대도예의 거장으로 인정받는 베나드 리치는 현대도예가 나아갈 길은 문청사기가 이미 제시했고 그것을 목표로 해서 나아가야 한다라고 극찬했고요. 2014년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방한하셨을 당시에 문청사기를 교황께 선물로 드렸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연평균 관람객 80만 명을 상회하는 미국 텐버 미술관에 이 문청사기 특별전시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한번 여쭤봤어요. 국립중앙박물관과 국가유산청에 문청사기 관련 한 연구나 이런 걸 여쭤보니까 국립중앙박물관은 총 3건 정도 연구를 했더라고요. 국가유산청은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를 통해서 2013년부터 전국 문청사기 관련 유적 현장 조사를 목표로 하고는 있습니다만 관련 예산 및 인원의 부족으로 약 9년 동안 전라도 지역에 있는 유적만 조사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도자기는 단순한 예술품을 넘어서 그 시대와 지역의 고유한 특성과 생활 방식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문청사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의 특성을 가장 잘 반영한 도자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청사기가 학술적 가치를 넘어서 관광자원으로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와 문화체육관광부의 2024년 업무계획을 살펴보면 지역소멸과 문화를 연결 지은 과제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목표와도 굉장히 부합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과제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도……

문청사기가 유명한 고흥, 여기는 덤벙기법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공주, 철화기법으로 아주 유명하지요. 이 지역 특색을 살린 문청사기 이것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잘 연구를 해서 고려청자와 조선백자 사이에 사라진 200년의 한반도 도자기 역사를 되살려 낼 뿐만이 아니라 문청사기 전시관, 제작체험장 등 소규모 관광단지를 조성해서 문화로 지역을 살리는 방안을 우리가 연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중앙정부 차원이 아주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위대한 역사를 밝은 빛으로 다시 세워 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의 이런 질문과 제안에 대해서 장관님 그리고 유산청장님의 답변을 간략하게 요청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살려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또 앞으로 해야 할 일이라서 이런 부분 충분히 유념해서 저희들 안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국가유산청장 최승천 위원님 말씀하신 그 학봉리 요지는 사적으로 이미 1990년에 지정이 되었고, 아까 그 표에 보이는 대로 국립박물관에서 계룡산 문청이랑 요지를 다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에는 사실은 강진군, 해남군, 부안군과 같은 고려청자 요지가 잠정목록으로 준비돼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문청사기를 따로 이렇게 준비는 못 하고 있어서 이참에 말씀하신 대로 문청사기도 그런 잠정목록에 등재될 수 있도록 저희가 자료를 더 보완하고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현 위원 황성운 기조실장님, 잠깐 나오실래요.

실장님, 7일 날 첫 국감 때 저랑 대화 나눈 것 다 기억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장 황성운 예.

○이기현 위원 기조실장님 연기력이 되게 뛰어나신 것 같아요. 그때 문체부는 청와대 관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것처럼 얘기하셨어요, 대통령비서실은. 그다음에 본인……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장 황성운 당일 날……

○이기현 위원 아니, 비서관이신데 그날 저랑 나눈 대화를 보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KTV 측에서 대통령 모시려고 한 행사였고, 그리고 내가 왜 갔냐고 계속 물었더니 혹시 올지도 모른다, KTV 측에서 계속 와 달라는 요청도 있어서 그리고 제가 청와대를 관리하는 문화체육부의 담당하는 비서관이었기 때문에 그냥 갔다 이 정도로 얘기하셨어요.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장 황성운 예.

○이기현 위원 그런데 그 뒤에 저희 국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18일 날 본인의 지시에 의해서 선임행정관이 KTV와 업체의 사전 미팅도 있었고 그 내용을 청와대 내부에 보고도 했었고 또 참석자에 대해서 검토도 했었고, 24일 날 선임행정관을 행사 장소에 보내서 사전 답사도 하셨어요.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장 황성운 예, 그렇습니다.

○이기현 위원 이렇게 연기하셔도 됩니까, 모르는 것인 양?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장 황성운 아니, 당일 날 상황에 대해서, 당일 날은 제가……

○이기현 위원 아니, 당일 날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날 연기는 전혀 모르고 있었던 행사가 벌어진 것이고 문체부를 담당하고 있는 비서관으로서 KTV에서 하종대 원장이 자꾸 와 달라고 해서 그냥 간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제 얘기가 틀립니까?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장 황성운 오해의 소지는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위원님께서 당일 날 참석 여부만 물어보셨기에 그것에 대해서만 제가 답했습니다.

○이기현 위원 그러면 당시 비서관이었고 기조실장이시면 저희가 이렇게 이렇게 검토했는데, 이렇게 이렇게 실무관 보내서 현장 검토도 했는데 저희들이 최종 판단은 안 가시는 걸로 해서 보고드렸습니다라고 얘기해야지요. 그런데 청와대에서 첫 행사라고 하니 제가 혹시 몰라서 가 봤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다 생략하고 본인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는데 하종대 원장이 와 달라고 하니까 그냥 마지 못해서 선임행정관 태리고 가신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제 얘기가 틀려요?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장 황성운 충분히 말씀드리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이기현 위원 충분히 말씀드리지 못했다? 국정감사장을 기망하는 행위입니다, 고위공직자께서.

그날 모든 언론의, 모두의 관심이었어요. 그런데 본인은 연기하듯이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사진 나오고 선임행정관의 진술 나오고 업체 진술 나오고, 어제 JTBC 보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장 황성운 예.

○이기현 위원 문체부의 장관님, 장관님 지휘하에 있는 기조실장이 저렇게 연기하면서 국민들을 기망하고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글쎄요, 저는…… 오늘 아까 얘기한 것은 거의 다 사실대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 이기현 위원 7일 날 그렇게 얘기하셨어야지요. 7일 날 그렇게 얘기하셨어야지요. 그 날 전직·현직 문체비서관, 지금 장관님 휘하에 있는 두 실장 1급들이 그 자리에 갔는데 장관님은 모르셨다고 하셨어요. 모를 수 없는 일입니다.

대통령비서실에서 직접 챙겼어요. 섭외자까지 나눠서 연락했어요. 나눈 것 보면 저는 정말…… 연락을 누가 하냐면 대통령비서실과 KTV가 외주를 준 용역업체의 PD가 나눠서 섭외를 합니다, 여사님 오는 행사를.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놓고도 모르는 척했어요. 내 일 아니고 나는 KTV가 불러서 그냥 간 것처럼 연기를 했어요. 그런 두 분의 1급들이 있는 것입니다.

문체부가 낸 보도자료 봅시다.

(영상자료를 보면)

저게 10월 4일 날 낸 보도자료지요? 이거 보면 정말 문체부가 공범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KTV가 거짓말 해명하는 것에 대해서 문체부의 담당 과장이 전결로 해서 저 보도자료 냈어요.

장관님, 그날 뭐라고 하셨어요? 왜 냈는지 모르겠다, 장관님 결재도 안 받고. 저 보도자료를 낸 국민소통실장이 전직 비서관이었어요. 그 당시에 문체부에 1급으로 있었고요.

장관님, 이 두 사람 책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저는 그 보도자료도 사실은 KTV가 내야 맞는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그날 처음에 VIP가 오시는 걸로 계획들을 했다가 안 오신다고 하니까…… 저는 사실은 그냥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날 어떤 일을 하는지. 그런데 어쨌든……

○ 이기현 위원 장관님이 알고 계셨다는 얘기네요?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물론 얘기는 들었지요.

○ 이기현 위원 모르셨다면서요?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아니요, 얘기를 들었지요. 그러니까 VIP가 안 온다니까 저는 관심을 끊은 거지요, 사실은. 아니면 제가 영접을 갔겠지요. 그런데 어쨌든 당시에 예술실장은 본인이 청와대 관리 책임이 있으니까 갔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비서관이니까 VIP가 안 오면, 오히려 이분들이 자주 나가니까 저는 그 이상 별로 생각을 안 했거든요.

○ 이기현 위원 이 행사 기획했던 초창기 자료들을 보면 대통령 내외가 참석한다니까…… 화면 띄워 보십시오.

어제 JTBC 보도 내용인데요. ‘여사님 쪽 컨펌을 받아야 되는데, 여사님께 새로 한 것 다 보고를 했는데’, 이건 KTV가 정말 사기 친 겁니다. 대통령은 안중에 없었어요. 이 행사는 최재혁 현 홍보기획비서관이 오로지 문체부를 손에 쥐고 그리고 KTV에 본인이 있으면서 본인이 여사에게 상납한 행사예요.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됩니다.

여기에 문체부 놀아난 거고요, 유병채 실장 그리고 황성운 기조실장은 그 행사의 공범이에요. 여사에게 국고 8600만 원 현납하는 행사를 갖다 바치는 것을 방관하고 방조한

공범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장관님께서 책임을 물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국정감사 과정에서 밝혀진 것들인데, 이은우 KTV 사장은 앰뷸런스 안 몰랐다고 얘기했고……

황 실장님, 서 계세요. 어딜 들어가요, 지금.

그리고 정용석 선임행정관은 의전인력 없었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결재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다 결재가 됐어요. 예산 이렇게 써도 되는 겁니까? 오지도 않은 앰뷸런스 값, 오지도 않은 의전인력에 대해서 비용 다 지불됐습니다. 이 문제를 이렇게 방치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해 주시고요. 그리고 할 수 있는 모든 감사 다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러니까 앰뷸런스가 안 왔는데 돈이 결재가 됐다 이런 얘기인가요?

○이기현 위원 그럼요. 의전인력도 안 왔다고 당시 선임행정관이 진술을 했습니다, 정용석 사장이. 그런데 지금 비용은 다 지출이 된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건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기현 위원 그리고 장관님, 지난번 국정감사에서는 장관님께서는 여사가 오는 행사 몰랐다고 하셨어요. 사후에 알았다라고 하셨어요, 지난번 국감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아니, 그러니까 여사가 안 오는 걸로 얘기를 들어서 저는 그다음은 신경을 안 썼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날 밤에 왔다 가셨다고 전화를 받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기현 위원 속기록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기억하고 있고요. 장관님께서는 전혀 모르는 내용이었고, 취임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서울에 와 계셨는데 그날 저녁 늦게 전화를 받아서 여사가 왔었다고 알게 됐다라고 진술하셨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러니까 여사 왔다 갔었다는 전화를 받은 거고요. 그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VIP가 오는 걸로 계획을 했다가 안 온다고 그래서 저는 관심이 없었다고.

○이기현 위원 그런 얘기는 안 하셨어요. 속기록 보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한번 확인을 해 보지요.

○임오경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임오경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오경 위원 이기현 위원님께서 장관님에게 답변을 듣는 과정에서 저 또한 질의를 했던 위원입니다.

10월 2일 날 임명되시고 KTV 행사와 관련돼서 몰랐었고, 처음에는 오후라고 하셨고 나중 답변에서는 저녁쯤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사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저녁때쯤 보고를 받았다, 이 행사에 관련돼서는 몰랐다라고 답변을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에서는 이 행사에 관련돼서 알고 계셨고 대통령과 여사가 오시지 않으니 관심을 끼다…… 그러면 대통령과 여사가 참석하는 행사는 관심을 갖고 그리고 이러한 오시지

않는 행사에 있어서는 관심 자체도 없으신 걸로 지금 저에게는 그렇게 들렸습니다.

위원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것은 지금 장관님께서 위증을 하고 계십니다. 10월 7일 날 있었던 속기록 다시 한번 행정실에서 정확하게 프린트해서 바로 장관님에게 갖다 드리고, 지금 장관님의 답변에 있어서 이것은 사과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장관님, 이 부분 속기록을 갖다 드릴 테니까 좀 확인을 하셔 가지고 명확한 입장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분명히……

○위원장 전재수 아니 장관님, 그러니까 말씀으로 하지 마시고 속기록 확인해서 명확한 입장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다음은 양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석 위원 장관님, 언제부터 KTV가 이렇게 논란의 대상이 됐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글쎄요, 저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은데요?

○양문석 위원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양문석 위원 KTV가 황제관람을 제외하고도 저작권 위반 운운하며 국민들의 입을 틀어막으려고 하는 행태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제가 지적을 해 왔단 말이에요.

이 사건을 다시 한 번 더 간단하게 정리하면요 KTV가 창사 이후에 전례 없이 김건희 관련 동영상 38건을 유튜브에 요청해서 삭제를 했고 윤석열 대통령 관련 동영상 9건을 유튜브를 통해서 삭제 요청을 했었습니다. 이건 전형적인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침해했던 반현법적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KTV가 계속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터져 나오고 했을까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글쎄요, KTV 자체는 정책방송이니까요, 유튜브 자체가 너무 과도해서 아마 그런 요구를 하지 않았나 싶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양문석 위원 장관님, 과도한 부분에 대한 판단 기준은 누가 하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아니, 그러니까 본인들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을 했겠지요, 아무래도.

○양문석 위원 제가 또 저작권법을 읽어 드리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국가 또는 지자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지적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26조 ‘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 안에서 복제·배포·공연 또는 공중송신 할 수 있다’, 28조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판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가 저작권법의 기본입니다.

이은우 원장 앞으로 좀 나와 주세요.

원장 취임 언제 하셨지요?

○한국정책방송원장 이은우 5월 20일 날 취임했습니다.

○양문석 위원 총선 끝나고 나서 하셨지요?

○한국정책방송원장 이은우 예, 그렇습니다.

○양문석 위원 그렇지요?

이은우 원장 오시고 나서 김건희 관련 동영상 삭제 요청, 고소고발한 적 있나요?

○**한국정책방송원장 이은우** 없습니다.

○**양문석 위원** 없지요?

○**한국정책방송원장 이은우** 예.

○**양문석 위원** 그런데 왜 하종대 전 원장 시절에 이러한 일들이 수십 건 발생하고, 정책방송인데 왜 대통령은 겨우 9건 삭제 요청하고 김건희 것은 38건을 삭제 요청했을까요?

○**한국정책방송원장 이은우**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기에 좀 적절치 않고요. 그 당시 하종대 원장께서……

○**양문석 위원** 됐어요. 적절치 않은 이야기 하지 마세요, 그러면.

국정감사에서 김건희의 변호사 최지우가 건진사이다가 인용한 콘텐츠는 풀단의 영상물로 공공저작물이 아니라고 주장했는데 여기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한국정책방송원장 이은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저는 이 사안의……

○**양문석 위원** 아니 동의하시냐, 안 하시냐고요?

○**한국정책방송원장 이은우** 제가 말씀을 좀……

○**양문석 위원** 아니, 동의하시냐고요? 지난번에도 충분히 말씀하셨으니까 제 질의에 대답을 해 주세요. 동의하세요, 안 하세요?

○**한국정책방송원장 이은우** 동의하고 안 하고의 그것을 다시 한번 말씀……

○**양문석 위원** 아니, 동의하시냐고요?

○**한국정책방송원장 이은우**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동의하시냐고……

○**양문석 위원** 제가 방금 물어봤잖아요. 건진사이다가 인용한 콘텐츠는 풀단의 영상물로 공공저작물이 아니라고 주장을 했는데 동의하시냐고요?

○**한국정책방송원장 이은우** 공공저작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양문석 위원** 공공저작물이 아니다?

○**한국정책방송원장 이은우** 공동저작물인 거지요. 공공이 아니라 공동저작물이다 이거지요.

○**양문석 위원** PPT 한번 봅시다.

(영상자료를 보면)

여기에서, 김건희의 변호사 최지우가 작성한 고소장 내의 범죄일람표입니다. 원장이 보기에 이 표에 적시됐던 저작물 중 공공저작물에 해당하는 게 몇 개나 되는지 한번 말해보세요.

○**한국정책방송원장 이은우** 저 중에 공공저작물이 글쎄요, 한 두세 개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양문석 위원** 공동취재단이라는 것은 법이나 규정에 의한 게 아니에요. 그냥 서로 말과 관행에 따라서 공동취재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저작권법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이고 범죄일람표에 있는 저작물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저작권법 24조의2 1항 ‘국가 또는 지자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 이게 공공저작물이거든요. 이게 범죄일람표에 나왔던 공공저작물들입니다.

백번 양보해서 풀단 아리랑TV, 풀단 KBS 이렇게 명시된 저작물은 공동취재단끼리

암묵적으로 저작권을 해당 방송사에 있다고 합의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지 않은 전 속, KTV 중계 이렇게 표기된 저작물은 공공저작물로 보는 게 법조계의 기본적인 판단입니다.

가수 백자TV 역시 대통령실에서 제작하고 KTV가 공표한 저작물로 공공저작물에 해당됩니다. 그렇지요?

○**한국정책방송원장 이은우**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 사안의 쟁점입니다. 쟁점이라 그런 부분들이 아마 기소가 되거나 그러면 법정에서 다뤄져야 될 부분이겠지요.

○**양문석 위원** 대통령실에서 제작하고 KTV가 공표했는데 이게 공공저작물이 아니라고요? 다시 읽어 드릴까요, 법안?

○**한국정책방송원장 이은우** 아니,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양문석 위원** 잠깐만요, 제가 방금 법안을 읽어 드렸잖아요. 저작권법 24조의2 1항 ‘국가 또는 지자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 이러한 저작물은 허가 없이 이용할 수 있다’.

○**한국정책방송원장 이은우** 허가 없이 이용은 할 수 있지만 저작권법이나 저작권 관리 및 이용지침은 준수를 해야 되겠지요.

○**양문석 위원** 이용지침에 뭐가 문제가 되나요?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정보입니까,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입니까, 안 그러면 다른 법률에 따라서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를 포함한 경우입니까?

○**한국정책방송원장 이은우** 변형, 왜곡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양문석 위원** 변형, 왜곡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것은 비평의 영역을…… 28조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에 사용할 수 있다고? 그게 28조예요.

○**한국정책방송원장 이은우** 위원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양문석 위원** 넘어갑시다.

기본적으로 이은우 원장도 사실상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에 저촉되는 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화면 한번 봅시다, 두 번째 화면.

저기 보세요. 한번 읽어 보실래요?

○**한국정책방송원장 이은우** ‘모든 영상 콘텐츠를 국민에게 돌려 드리겠다’ 이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양문석 위원** 그렇지요. 그것도 있고……

○**한국정책방송원장 이은우** 그건 전 원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전 전 원장께서.

○**양문석 위원** 그다음에 노란색으로 형광펜 칠해진 것 있지요?

○**한국정책방송원장 이은우** 예.

○**양문석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KTV가 콘텐츠의 공개, 확장, 활용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훨씬 더 많이 열어 놨던 게 기본적인 KTV의 정책적 방향이었지요?

○**한국정책방송원장 이은우**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그것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문석 위원** 지금도 그리고 있는데, 이은우 원장이 들어온 이후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 앞에 하종대 원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콘텐츠를 삭제 요청하고 고소고발했던 부분이 지금 문제라는 말이에요. 이은우 원장은 이 부분에서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 앞에 싸질러 놨던 오물들을 왜 이은우 원장이 그걸 치우고 뒤집어쓰려고 그래요? 그 오물에 몸을 던져요?

○ **한국정책방송원장 이은우** 그것은 당연히 후임 원장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서 있었던 소송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수행을 해야지요.

○ **양문석 위원** ‘모든 영상 콘텐츠를 국민에게 돌려 드리겠다. KTV의 공공저작물은 모든 국민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 개방하겠다’ 이렇게 해 놨는데 오로지 김건희를 위해서 이 논란의 중심에 서고 있는 거예요.

동영상 하나 봅시다.

(영상자료 상영)

또 이야기를 합니다. 정치 풍자는 당연한 권리이며 표현의 자유를 강력하게, 권리라고 강력하게 공언을 했어요. 그렇지요?

○ **한국정책방송원장 이은우** 예.

○ **양문석 위원** 그런데 풍자를 변형, 왜곡이라고 이야기하셨나요, 원장님은?

○ **한국정책방송원장 이은우** 저는 풍자를 하더라도 저작권법을 준수하면서 풍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양문석 위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작권에 대해서 일절 문제가 없었어요. 하종대 원장이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저작권 남용을 일삼았고 KTV 최초로 이제까지 전례 없이 국민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하며 직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립니다. 이는 직권남용에 해당하며 관련 직원들 또한 공직선거법 위반 문제에 직면하고요. 공무원의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10년으로 진실이 밝혀질 것이며 관련자들은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패소 가능성이 높은 소송을 김건희의 여론 방어를 위해서, 신병 호위를 위해서 KTV가 김건희의 변호사 최지우에게 변호사비를 지급한 것은 김건희를 대신해서 KTV가 변호사비를 대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뇌물죄에 해당하는 거예요.

○ **한국정책방송원장 이은우** 저는 그 부분에 동의를 못 합니다.

○ **양문석 위원** 이는 대통령과 배우자의 관계를 고려했었을 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KTV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실상 뇌물을 제공한 것이라고요. 특히 김건희의 변호사 최지우는 대통령에 의해서 임명이 됐던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이고요. 더욱 대통령과의 관계를 부인할 수 없는 위치였다는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하자고 하는 거예요. 왜 이은우 원장이 이 부분까지 뒤집어쓰려고 하고 그 범죄를 계승하려고 하냐고요.

○ **한국정책방송원장 이은우** 아닙니다. 저는 전임 원장께서 하신 일을……

○ **양문석 위원** 문화를 개선하자는 논의를 하면서도……

○ **한국정책방송원장 이은우** 마무리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현직 원장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양문석 위원** 보세요. 잘못된 것은 끊고 시정하는 게 현재 원장의 기본적인 역할이고. 그리고 훨씬 더 개방하겠다고, 그리고 국민의 권리라고 대통령께서도 이야기를 했던 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게 현재 원장이 전임 원장의 일을 계승하는 거예요?

○ **위원장 전재수** 양문석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부분은 보충질의를 통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문석 위원** 딱 한 가지만 물어보고 끝내겠습니다.

이은우 원장.

○ **한국정책방송원장 이은우** 예.

○ **양문석 위원** 무리하게 진행된 소송들이 패소했을 경우에 KTV는 법적 비용을 그대로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로 인해서 KTV에 손해를 끼친 하종대 전 원장을 배임죄로 고소할 의향은 있나요?

○ **한국정책방송원장 이은우** 그 부분이 배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겠지요.

○ **양문석 위원** 패소했었을 때?

○ **위원장 전재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정책방송원장 이은우** 예, 그건 배임에 해당이 안 될 거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양문석 위원** 제가 그렇게 안 물어봤잖아요. 가정을 했잖아요. 패소했었을 때 하종대를 배임죄로 묻겠냐고요?

○ **한국정책방송원장 이은우** 그것은 판단을 해 봐야 되겠지요, 그것이 배임에 해당되는지.

○ **위원장 전재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부분은 보충질의를 통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들어가시고요.

다음은 박정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정하 위원** 원주갑 출신의 국민의힘 박정하입니다.

이기홍 회장이 출석을 안 하고 회피하고 있어서 사실은 정상적인 질의가 진행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장관님,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요. 내용을 아실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저께 보니까 대한체육회가, 이기홍 회장 측이 금년도 예산 다 받고 나서도 또 문체부가 무슨 10억 원 추가로 주기로 되어 있는데 그걸 주지 않아서 좀 곤란하다라는 취지로 답변한 게 있더라고요, 노조하고 간담회 하는 과정에.

그래서 이게 그동안 회장님께서 특보니 아니면 여기저기 사람들 운영하기 위해서 쓴 인건비냐 그랬더니 인건비는 아니고 운영비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어서 거기까지는 제가 인정합니다만 혹시 이게 어떤 용도로 예산을 요구하고, 막대한 예산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그런 부족분이 왜 생겼는지 장관님 혹시 아시는 게 있으신지요?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건 운영비가 맞고요. 지금 아직은 교부를 안 한 상태에 있습니다.

○박정하 위원 왜 교부 안 하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동안에 위낙 회계 관련 이런 부분들이 다 부정확하고, 그런 부분을 좀 더 확실하게 파악하고 이것을 줘야 될지 안 줘야 될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지금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박정하 위원 그전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나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없었지요.

○박정하 위원 그전에는 없었고 이번에, 금년도에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그렇습니다.

○박정하 위원 확실히 분명하게 쟁여서 꼭 필요한 경우만 교부가 될 수 있도록 좀 쟁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그렇습니다.

○박정하 위원 제 질의 남은 시간은 오후에 이기홍 회장이 오시면 그때 쓰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전 주질의 마지막 순서로 임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오경 위원 경기도 광명갑 임오경 위원입니다.

장관님, 김건희 여사가 대표로 재직하던 코바나컨텐츠 잘 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임오경 위원 국립현대미술관과 까르띠에 양자 공동 주최로 열었던 까르띠에 소장품 전에 자신들이 참여했다고 이력을 도용했었습니다. 이 허위 이력으로 예술의전당까지 대여했었고요. 이것 범죄 아닐까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것 연제적 얘기인가요?

○임오경 위원 기사 안 보셨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임오경 위원 제가 이것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문서위조, 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까지 있다고 제가 국감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자료 나오지요?

당시 국립현대미술관은 문체부에 별도 보고를 하지 않고 뭉갰습니다. 문체부는 후원 명칭 사용 승인서도 확인하지 않았고요. 이것 직무유기 아닐까요, 장관님? 장관님이 지금 보신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글쎄요, 제가 지금 이 내용만 갖고는 좀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까르띠에전 외에 반 고흐전, 앤디 워홀전, 샤갈전, 고갱전 등 모두 5전에 달하는 허위 이력을 밝혀냈습니다. 지금 내용 보시지요, 서울시립미술관부터 시작해서 이 허위 이력으로 다 제출을 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러니까 이런 전시를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 임오경 위원 예, 하지 않았는데 허위 이력으로 예술의전당까지 대여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문서위조, 표시광고법 위반까지 소지가 있었습니다.

잘 나가는 검사 부인의 특정 업체가 정부와 국립문화예술시설의 이름을 팔았습니다. 피해보상과 공식적인 사과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김건희 여사가 코바나컨텐츠 대표로 취임하고 윤석열 검사와의 결혼 후인 2013년부터 기본적으로 10개 이상의 협찬사를 끼고 전시를 진행했습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코바나컨텐츠에서 주최하는 전시회에는 당시 수사를 받고 있던 많은 기업들도 협찬을 한 의혹이 있습니다. 그 협찬사들을 보면 2012년 도이치 모터스, 도이치모터스, 도이치모터스, 도이치모터스, 도이치모터스가 다 들어가 있지요. 여기에 협찬을 가장 많이 했던 기업이 도이치모터스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모두가 아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잘 알고 계시지요, 장관님?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 임오경 위원 코바나컨텐츠 후원사인 희림은 윤 대통령 취임 후 117억 원의 용역을 수주하고 대통령 관저 공사에 8개 법률 25개 조항을 위반한 의혹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직권남용과 대가성 의혹특성이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지금 장관님께 드리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글쎄요.

○ 임오경 위원 허위 전시 이력은 문체부와 국립현대미술관이 손 놓고 있었고 코바나컨텐츠 대기업 협찬 의혹은 검찰이 2년 5개월 만인, 윤석열 정부 들어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최근 중앙지검의 요상한 수사의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내용도 안 보셨습니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못 봤습니다.

○ 임오경 위원 안 보셨어요?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 임오경 위원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영장이 기각됐다고 했었는데 사실은 청구도 안 한 게 드러났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던 건 2020년 코바나컨텐츠 사건 하나였습니다. 코바나컨텐츠와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묶어서 수사하면서 두 가지 피의사실을 같이 쓰기도 하고 어떤 때는 단독으로 넣기도 했다는데 정작 압수수색영장은 코바나컨텐츠 것만 넣으니 법원이 인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코바나컨텐츠 관련 사실을 교묘히 도이치모터스와 뒤섞었습니다.

코바나 사건에 대한 영장마저도 검찰 설명과 달리 김 여사 주거지는 청구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는 게 이번에 법사위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에서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제 영장을 청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도이치모터스는 물론 코바나컨텐츠도 건도 법원에 넘길 생각이 없었다는 게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장관님, 최근 갤럽조사 결과 윤 대통령 지지율은 22%입니다. 국민의 63%가 김건희 여사 의혹 특검 도입에 찬성하고 있어요. 또한 김건희 여사 건에 관련돼서는 국민 67%가 공개활동 여부를 줄여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민주당은 이 국민의 요구에 의해서 김

전희 여사의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킬 겁니다.

장관님,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잘 알고 계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어떤 분야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희 문체부 쪽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임오경 위원 예, 그렇습니다.

장관님 입으로는 말하시기 힘들 것 같으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성남FC 광고비 가지고 난리법석을 떨었습니다. 특혜라고 몰아가 제1야당 대표의 압수수색을 밥 먹듯이 하며 범죄자로 몰아갔습니다. 장안의 화제였던 윤석열차 웹툰 어떻게 했나요? 두 번의 보도·해명자료 내고 한국만화진흥원에 엄중 경고하고 당일 바로 현장 방문하고 학생에게는 해서는 안 될 상처를 주고 얼마나 호들갑들을 떨었습니까? 이제는 대한체육회, 축구 협회의 허점을 파고들어 특정감사는 물론 회장 연임 부분까지 공개적으로 개입도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계를 유린하고 어지럽힌 김건희 여사 코바나컨텐츠 의혹은 왜 문체부가 나서지 않고 있었을까요? 문화예술계를 유린하고 어지럽힌 김건희 여사 코바나컨텐츠 의혹, 문체부에서는 다시 감사할 의사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게 벌써 오래전 일 같은데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바가 없고요.

○임오경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글쎄요, 말씀을 했어도 이게……

○임오경 위원 서울중앙지검 법사위 국감에서 드러났는데 압수수색을 한 줄 알았더니 압수수색이 없었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글쎄요.

○임오경 위원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조사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이것에 관련돼서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은 반드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저희 민주당에서는 끝까지 맞서 싸우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박정하 위원 임오경 위원님, 여기 문체위예요.

○임오경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문체위인 거 알고 있습니다.

KTV의 국악공연 건에 대해 장관님, 문체부가 감사할 의사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KTV 이번 공연했다는 것에 대해서요?

○임오경 위원 예.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정말 의혹이 그렇게, 아니 저는 정말 단순한 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여기에 대해, 정말 KTV가 자체적으로 뭔가를 해 보려고 하다가 VIP가 안 오니까 관계자들만 놓고 공연하고 이랬다는 거 외에 저는 더 깊은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임오경 위원 그런데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하여간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걸 다 종합해 보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아직도 결정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감사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지금 장관님의 말씀은. 이거 혈세 8600만 원이 소요된 겁니다. 김건희 여사 단한 사람만을 위한 공연을 했고, 지금 예산을 쓴 내역도 제대로 맞는 부분이 없습니다.

어제 보도를 통해서 이 국악공연에 초청한 문화계 인사들을 사실상 대통령실에서 직접 챙겼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그런데도 이 공연이 시청자들을 위한 공연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시청률은 나왔듯이 0.0001%입니다.

장관님, 이 사안은 문체부가 KTV를 감사를 할 사안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KTV, 문체부, 대통령실이 함께 감사를 받아야 하는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대체 왜 8600만 원이라는 혈세를 들여서 이런 국악공연을 준비했어야만 했는지, 누가 이를 주도했는지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히 밝혀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장관님이 나서서 감사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프레스센터 구축 관련돼서 5억 9000만 원 가량을 물어냈고 경제사절단 위약금 등을 포함하면 총 8억 6000만 원 이상으로 보고되고 있지요? 이거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순방 취소된 것.

○임오경 위원 대통령이 독일과 덴마크 순방을 갑자기 연기했습니다. 이유가 명태군 씨 조언 때문일까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진짜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장관님, 장관님 돈이라면 이렇게 날리시지는 않겠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임오경 위원 2023년과 24년에 대통령이 국내는 뒷전이고 해외로만 다니시는 통에 문체부가 프레스센터 만든다고 집행한 예비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전체 액수는……

○임오경 위원 23년에 76억이고요 24년에 19억, 합해서 100억 원에 가까운 돈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조금 말씀드리면 코로나 이후에 수교행사가 없다가 그 이후에 활발해진 거고요. 그다음에 대한민국 국력이 그만큼 높아져서 요청이 많고 정상 간에 일이 굉장히 많아졌다는데……

○임오경 위원 그 부분 장관님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활발해진 거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5일 전에 독일, 덴마크 순방을 취소하면서 이거에 대한 위약금 5억 9000만 원은 누가 책임져 줍니까?

얼마 전에 있었지요. 대한체육회 2000만 원 피해 보상, 그걸 가지고 우리는 난리법석을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우리 정부에서 이렇게 5억 9000만 원, 총 8억 6000만 원 이런 위약금들은 어떻게 배상해 줄 겁니까?

그리고 장관님이 생각하시기에 윤석열 대통령의 내세울 만한 외교 성과가 있었습니까, 이렇게 활발하게 다니셨는데?

1분만 마지막 쓰겠습니다.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조문 무산, 바이든-날리면, 친일 페루기 외교,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 등등 나갔다 하면 국격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비비를 일각에서는 국

가비상금이라고 합니다. 예산편성을 기다릴 수 없을 때 시급하게 쓸 돈인데 국민 혈세 100억 원이 툭 하면 나가는 대통령 해외 일정에 쌈짓돈처럼 사용되어 왔습니다.

문체부 예비비 사용, 철저히 관리감독하면서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앞으로 순방 프레스센터 설치 이런 문제는 정말 잘 아껴 가면서 그렇게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임오경 위원 저는 그렇게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피감기관들에게 이러한 부분이 발생했을 때 그리고 나서 이거에 대한 질책을 하시고 신문하시고 하셔야 되는데 문체부는, 정부는 마음대로 가지고 국민의 혈세를 쓰시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피감기관을 그렇게 괴롭히고 힘들게 합니까? 이게 맞지 않잖아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기관이, 정부기관이 먼저 를 모델로서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그렇게 하겠는데요. 우리 체육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저희 문체부가 나서서 이렇게 된 일은 아니고요. 체육인들 자체에서부터 이미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이렇게까지 됐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임오경 위원 거기에는 문체부도 방관하고 있었던 것 책임이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책임 있습니다.

○ 임오경 위원 예, 있어요.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 부분은 그래서 제가 그걸 느꼈기 때문에 바로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 임오경 위원 현장에 있던 장미란 2차관까지 모셔 왔으면 그 현장에 직접 가서 다 해결하게 할 수 있도록 했어야지요.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전에 이미……

○ 임오경 위원 그런데 저는 하지 않은 문체부의 역할이 크다라고 봅니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 이전에 왜 그렇게 많은 걸 허락해 주고 승인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요. 하지만 그 결과가 너무나 안 좋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정말 어떻게든지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일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 위원장 전재수 부족한 부분은 보충질의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주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국정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5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12분 감사중지)

(15시38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전재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진종오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오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금일 오전 임오경 위원이 본 위원이 요청해 참석한 참고인의 발언을 두고 사과를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동료 위원에 대한 비하 발언을 한 임오경 위원의 사과를 요구합니다. 임오경 위원의 발언은 김종민 중인의 일방적인 입장만을 대변하고 있어 사실규명을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도 명확히 밝히는 바입니다.

저는 지금 국정감사에서 김종민 중인에 대해 대한바이애슬론연맹 회장까지 한 사람이 아무 연고도 없는 대한킥복싱협회 회장으로 당선되는 과정에서 불법성이 있었고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인준해 준 대한체육회의 잘못을 중인과 참고인을 통해서 지적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김종민 중인이 이기홍 대한체육회장후보 시절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발견되었고 현재는 최근 대한체육회장에 출마 선언을 한 유승민 전 IOC 위원을 위해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김종민 중인은 공공연하게 유승민이 당선되면 본인이 대한체육회 부회장이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다니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결국 대한킥복싱협회와 관련 없는 사람이 회장에 당선될 수 있었던 이유, 이기홍 선거운동을 했던 사람이 왜 지금은 유승민 전 위원의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지 등 중요한 사실들을 본 위원의 질의를 통해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문제점이 촉발된 참고인의 발언은 본 위원의 질의를 마무리하는 상황에서 참고인이 개인의 소신에 의해 발언한 부분입니다. 참고인은 본인의 책임에 따라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에 따라 발언했습니다.

임오경 위원은 말 맞춘 중인과 참고인만 국감장에 데려와야 된다는 말입니까?

저는 당시 참고인이 발언하는 중간에 이게 만약 위증이면 처벌받을 수 있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경고까지 했고 참고인 입장은 절대 두둔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자기 모순이며 어불성설입니다.

또한 제가 중인에게 질의하면서 사용한 자료는 대한체육회 공문과 법원 판결문 등 객관적인 증거만을 사용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어떤 근거로, 무슨 근거로 검증하지 않고 진상규명하지 않고 참고인을 불렀다고 자신만만 발언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오히려 임오경 위원이 알고 있는 정보가 김종민 중인의 일방적인 입장만을 수용한 것은 아닌지 본인 스스로 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동료 위원에게 아무런 근거 없이 모욕적으로 발언한 부분에 대해 저는 심히 유감을 표하고 임오경 위원의 사과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위원장 전재수** 다음은 임오경 위원님 의사……

민형배 위원님.

○**민형배 위원** 먼저 하시지요.

○**임오경 위원** 아니에요.

○**위원장 전재수** 아니요, 민형배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민형배 위원** 통상 저희는 자료 요청을 하기 위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그러는데요, 이번에는 제가 자료를 드리기 위해서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배드민턴의 안세영 선수가 지난 20일 덴마크에서 열린 덴마크 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1위 탈환했습니다. 8월 올림픽 금메달 이후 두 달 만에 복귀한 첫 국제대회에서 그런 성적을 거뒀다는 걸 잘 아실 겁니다.

아침에 제가 잠깐 인용을 해 드렸는데 그 자료를 아예 장관님께 제가 전달하려고 합니다. 안세영 선수는 이 13쪽짜리 건의서 마지막 장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온전히 재활하고 복귀해서 꿈을 이룬 모습을 보여 드리고 싶은데도 저도 이런 부상이 처음이고 이런 상황이 당황스러워 혼란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공교롭게 이런 시기에 이런 문제들이 함께 터짐으로써 제 멘탈이 온전히 견뎌 낼 수 있을까 겁나기도 하는데 그래도 마음 다잡고 가 볼 생각입니다’. 이때가 1월, 2월이거든요, 연초. 그러니까 올림픽 출전하기 전입니다.

‘때로는 버겁고 때로는 힘들고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이 생길 때마다 선수로서의 본분을 잊지 않고 목표 달성을 해내고자 미루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국가대표가 되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들은 이제 감추지 않고 하나씩 바뀌어 가길 바라는 심정으로 계속 두드려 볼 생각입니다’

마치 지금 임은정 검사가 검찰의 부조리에 끊임없이 저항하면서 ‘계속 가보겠습니다’라는 책을 낼 때의 심정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당초 안세영 선수 측은 빨래, 집합, 보고 등 선수촌 문화가 알려지면 다른 선수들에게 피해가 갈까 걱정돼서 그동안 건의서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부만 악의적으로 발췌해서 공개하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건 누군가—아마 배드민턴협회 쪽으로 보이는데—안세영 선수를 매도하고 또 정작 풀어야 될 문제를 가리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건의서를 공개하려고 합니다.

‘생각 주머니 안세영’이라는 이렇게 된 13쪽짜리 건의서인데요. 이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보면 안 선수의 진단이 얼마나 정확하고 진중하게 쓰여 있는지 아실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건의서 작성 실력도 국가대표급입니다. 아주 정확하게 진단하고 따뜻한 시선으로 주옥 같은 제안을 담담하게 쓰고 있습니다. 이 전문을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전문 체육정책 수립은 물론이고 대표팀 육성관리에도 꼭 필요한 여러 가지 조언들, 잠언들이 담겨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안세영 선수 쪽에서는 동료 선수에게 피해를 주거나 협회와 싸우려는 것이 아님을 수없이 밝혔습니다.

이틀 전 국정감사장에서 대한배드민턴협회와 안세영 선수가 소통한 적이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확인한 바 있습니다. 협회는 안세영 선수의 건의서를 읽었음에도 마치 개인적인 이익이 목적이었거나 개인적인 불만을 표출하려는 그런 프레임을 써우려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제출한 때가 지난 2월, 협회 관계자에게 이렇게 프린트한 것으로 직접 전달했고 이 보도가 이루어진 것은 파리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직후에 특정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 요청을 할 때는 이게 개인적인 의견이 담겨 있어서 선수 측이 원치 않는다고 하면서 저한테 주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언론에는 흘렸습니다.

저는요 체육회와 배드민턴협회의 만행이 정말 화가 납니다. 반드시 국가대표 안세영 선수의 명예훼손에 대해서 협회와 필요하시다면 장관님께서도 사과를 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당장 선수들과의 소통은 물론이고 관리운영시스템을 바꾸기 바랍니다.

안세영 선수 측은 이 건의서가 부조리했던 체육회의 관행을 타파하고 변화의 토대를 만들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선수들이 마음껏 운동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체육회가 되어 달라는 그런 선수의 간절함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장관님께 드릴 테니까요 관련된 분들이 다 보시고, 또 저희 문체위 위원님들께도 드리겠습니다. 꼭 한번 읽어 보시고 함께 체육계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장관님, 아마 민형배 위원께서 안세영 선수의 레터를 전달해 드릴 텐데요. 잘 보시고 전반적으로 내용을 살펴보시고 대책도 좀 강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위원장님, 안세영 선수뿐만 아니라 모든 선수들이 지금 이 편지에 쓴 것처럼 자유롭게 다시 운동하고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방법을 통해서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좋습니다.

다음 임오경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오경 위원 위원장님, 저는 말 맞춘 사실이 없고요. 국정감사는 위원들과의 정쟁의 장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감정을 떠나서 참고인으로서 말을 할 수는 있지만 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습니다. 그것에 관련돼서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들으셨더라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어떻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의원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했으며 신성한 국정감사를 혼란스럽게 하고 문체위를 모독하고 상임위의 권위를 실추시켰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답할 가치도 의미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재수 좀 전에 진종오 위원님과 임오경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었는데요. 지금 강신준 중인과 김종민 중인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곧 중인 또 참고인분들에 대한 신문이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을 거치고 난 뒤에…… 서로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 신문 과정을 끝내고 난 뒤에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협의를 해 보는 그런 절차를 거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형배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민형배 위원 예, 그 관련한 의사진행인데요. 지금 저희들이 중인 신문을 하게 되는데 저는 두 분이 먼저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마는, 순서가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기보다는. 그러니까 진종오 위원님과 다른 위원님들이 팬찮으시다면 임오경 위원님이 먼저 하시고…… 저도 중인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래야 좀 차분하게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게 계속 얹혀서 이것 하다가 또 저렇게 하다가 이렇게 가면 좀 그럴 것 같아서 진행을 그렇게 해 주시면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장관님께 전달해 드린 열세 쪽짜리 문서는 분명하게 말씀해 드

리는데 안세영 선수 쪽에서 나온 문건이 아닙니다. 그러나 저 문건에는 쪽수만 제가 붙였고, 원래 전달된 건 쪽수가 없었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원본 그대로임을 알려 드립니다.

○위원장 전재수 잘 들었습니다.

이기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현 위원 아침에 동행명령장이 집행된 최재혁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에 대한 동행명령장 집행을 하러 갔다 왔습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좀 보고를 드리고자 의사진행 발언을 시작했고요.

강남에 있는 모 병원에, 본인이 신고한 병원에 방문해서 동행명령장을 전달했고 동행명령을 요구했으나 본인이 오늘 시술을 받았다고 누워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동행명령에 응할 수 없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고요. 제가 위원회를 대표해서 동행명령에 응하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려고 했더니 본인이 심장이 뛰어서 오늘은 질문을 받을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다음 우리 문체위에서 준비하는 현안질의라든지 청문회 자리에서 다시 보자라고 하고 돌아왔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지적하는 건 저희 국감이 시작된 지난 14일 그분께서 입원을 하셨어요. 국감 시작되기 전날 입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수술도 아닌 시술을 열흘씩 병원에 누워 계시다가 종감인 오늘 시술에 들어갔습니다. 그 시술의 내용은 아시다시피 요통, 협착에 의한 고통 이런 것들이었는데 열흘씩 사전 입원을 하고 있다가 시술할 병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의학적 전문지식은 갖고 있지 않지만 상식적으로 이해되지는 않습니다. 고의적으로 국회의 중인 채택을 회피하려고 하는 본인의 노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요.

이 문제 관련해서는 대한민국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1급 공직자로서 본인이 취해야 할 공직자의 태도가 절대 아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최근에 한동훈 대표가 적시한 김건희 라인의 1명으로 유력하게 지금 대통령실에서 김건희 라인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 중의 한 분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동행명령장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만 우리 국감이 끝나고 다음 현안질의라든지 청문회의 절차를 가지고 반드시 최재혁 중인을 저희 문체위에서 중언대에 세워야 된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전재수 의사진행발언 잘 들었습니다.

일단은 중인·참고인들이 지금 출석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강신준 중인, 김종민 중인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중인·참고인 신문이 끝이 나고 난 뒤에 추후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일반중인 및 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정감사에 출석한 일반중인은 김성현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관장, 김풍년 대한축구협회 행정지원팀장, 김태호 하이브 최고운영책임자,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 조연상 한국프로축구연맹 사무총장, 하종대 전 KTV 원장, 곽영진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이사장, 김종민 대한킥복싱협회장, 강신준 전 대한킥복싱협회장, 양우영 대한체육회 종목육성부장 등 총 열 분으로 우리 위원회가 채택한 중인 중 윤병세 전 청와대재단 이사장, 김영수 디지털조선 대표이사, 남규홍 연출가 외주사 대표, 최재혁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공선택 전 대한체육회 사무처장 등 다섯 분은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참고인은 박기태 반크 대표, 김성회 유튜버, 전성준 여행사 대표 등 총 세 분으로 서천 범 한국골프소비자원 원장은 건강상의 사유로 불출석했습니다.

일반증인 및 참고인의 명단과 출석현황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위원회 직원으로 하여금 오늘 출석한 증인 및 참고인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으므로 간단한 본인 확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및 참고인께서는 이름을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라고 대답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재원 위원께서 신청하신 김성현 증인 나오셨습니까?

○**증인 김성현** 예.

○**위원장 전재수**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배현진 위원께서 신청하신 김풍년 증인 나오셨습니까?

○**증인 김풍년** 예.

○**위원장 전재수**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형배 위원께서 신청하신 김태호 증인 나오셨습니까?

○**증인 김태호** 예.

○**위원장 전재수**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배현진 위원께서 신청하신 정몽규 증인 나오셨습니까?

○**증인 정몽규** 예.

○**위원장 전재수**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연욱 위원께서 신청하신 조연상 증인 나오셨습니까?

○**증인 조연상** 예.

○**위원장 전재수**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재원 위원, 이기현 위원, 임오경 위원께서 신청하신 하종대 증인 나오셨습니까?

○**증인 하종대** 예.

○**위원장 전재수**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재원 위원께서 신청하신 곽영진 증인 나오셨습니까?

○**증인 곽영진** 예.

○**위원장 전재수**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임오경 위원께서 신청하신 김종민 증인 나오셨습니까?

○**증인 김종민** 예.

○**위원장 전재수**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임오경 위원께서 신청하신 강신준 증인 나오셨습니까?

○**증인 강신준** 예.

○**위원장 전재수**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임오경 위원께서 신청하신 양우영 증인 나오셨습니까?

○**대한체육회종목육성부장 양우영** 예.

○**위원장 전재수**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승수 위원께서 신청하신 박기태 참고인 나오셨습니까?

○참고인 박기태 예, 나왔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진종오 위원께서 신청하신 김성회 참고인 나오셨습니까?

○참고인 김성회 예.

○위원장 전재수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승수 위원께서 신청하신 전성준 참고인 나오셨습니까?

○참고인 전성준 예.

○위원장 전재수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증인 및 참고인의 출결을 확인했습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때 또는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로 강신준 증인께서 선서를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전해 왔습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본인이나 친족 등이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선서를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증인은 선서를 거부하는 이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그러면 선서를 거부한 강신준 증인,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선서를 거부한 증인에 대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강신준 증인, 가급적이면 축약해서 본인의 의사만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강신준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저는 오늘 증언은 하되 증인 선서는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현재 다른 증인들을 고소한 상태인 것도 있고 제가 피의자 신분으로 수원지방검찰청에 계류 중인 사건도 있습니다. 그런 사건에서 수사기관에서 어떤 그릇된 사실관계와 공소제기 당할 위험성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법률상 증인 선서를 거부할, 거부권을 행사하겠습니다.

다만 증인은 대한민국 체육의 특정 인물이 아니라 우리나라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언론사까지 뻗친 카르텔을 폭로하고 대한민국 체육 발전과 진실을 위해서 성실히 증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재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임오경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임오경 위원 예, 증인 선서 거부에 관련돼서 적법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증인으로 요청한 것은 강신준 증인에 대한 피의자 신분 형사소송 공소제기와 관련된 사안을 질의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이를 전 참고인으로 출석하셔서 발언한

부분에 대해 본 위원에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것이기에 증감법 제3조에 따른 선서 거부에 해당될 수 없고, 증인에 대한 정상적인 절차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그래도 거부한다면 국회증감법 제13조에 따라 국회모욕죄로 고발조치를 취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를 전에 참고인으로 참석하셔서…… 본 위원에 대한 신상발언에 관련된 진상규명을 듣고 싶은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장님, 받아 주시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재수 강신준 증인, 다시 한번 발언대로 잠시만 나와 주십시오.

○증인 강신준 나왔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조금 전에 임오경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 잘 들으셨지요?

○증인 강신준 예,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그러니까 법상으로 증인께서는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명백하게 증인 선서를 거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은 들었는데, 오늘 증인으로 채택이 돼서 증인으로 참석을 하셨는데 질의응답 내용이 이를 전 이 자리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을 하셔 가지고 임오경 위원과 관련된 내용,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실제 형사소추라든지 공소제기가 될 수 있다라고 염려되는 그런 부분의 내용과는 상관이 없다 이런 취지의 임오경 위원 말씀이거든요.

그렇다면 증인께서 판단을 하셔서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와 관련된 내용이 손톱만큼이라도 있으면, 그 부분은 바로바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한 질의는 막겠습니다. 그 외에 이를 전에 나오셔서 국감 위원과 관련된 내용들 이 부분에 대한 질의이기 때문에 증인 선서를 해 주시는 것이 어떠냐, 이것이 위원장의 판단입니다. 어떻습니까?

○증인 강신준 제가 지금 현재 고소를 하고 고소를 당하고 또 수원지방검찰청에 공소제기 당할 염려가 있는 사건들도 있고 그 사건을 수사하는 수사관들도 이 사건을 보고 있고, 이것 관련된 연관성이 전혀 없다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전재수 잠시만 좀 서 계시고요.

임오경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오경 위원 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장님께서 중재를 해 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강신준 증인에 대한 모든 부분, 사안들에 관련돼서는, 지금도 염려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질의가 들어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를 전에 참고인으로 나오셔서 저에게 신상발언을 하신 것에 관련돼서 저는 오늘 강신준 증인에게 질의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그 외적인 질의는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전재수 강신준 증인, 그래도 증인 선서를 거부하시겠습니까?

○증인 강신준 예, 거부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좋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증언은 하되 증인 선서를 거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이 자리에서 위증을 하거나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한다고 그래서 면책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강신준 증인

께 제가 명백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증인 선서를 거부하시기는 했지만 이 자리에서 증언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있는 사실 그대로 양심에 따라서 증언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지요?

○**증인 강신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좋습니다.

○**임오경 위원** 마지막으로 의사진행발언 한 번만 더 주십시오.

○**위원장 전재수** 제가 정리하고 넘어가면 안 될까요?

○**임오경 위원** 아니요,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위원장 전재수** 예.

○**임오경 위원** 그렇다면 국회증감법 제13조에 따라서 국회모욕죄로 고발 조치를 위원장님,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재수** 오늘 오전부터 여러 고소고발 건 이런 말씀들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국감이 끝나고 난 뒤에 여러 건, 그동안 제기됐던 많은 건들은 여야 간사 위원님들과 잘 협의를 해서 결론을 내리는 그런 절차와 과정을 밟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일괄하여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김성현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인들께서는 선서가 필요 없기 때문에 자리에 앉아 계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성현 증인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김성현** “선서,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같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4년 10월 24일

증인 김성현

증인 김풍년

증인 김태호

증인 정몽규

증인 조연상

증인 하종대

증인 곽영진

증인 김종민

대한체육회

종목육성부장 양우영

○**위원장 전재수**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및 참고인 신문 순서는 증인과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신 위원님들의 신문을 모두 마친 후 그 밖에 신문을 희망하시는 위원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5분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정연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욱 위원** 부산 수영구 국회의원 정연욱입니다.

조연상 프로축구연맹 사무총장님, 잠깐 증언석에 나오시지요.

우리가 흔히 축구 경기를 하다 보면 비디오판독 심판이 있지요, VAR이라고 하지요?

○**증인 조연상** 예.

○**정연욱 위원** 이게 아마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기금을 받고, 이 운영 사업도 이 기금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공단에 관련 보고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증인 조연상** 예, 그렇습니다.

○**정연욱 위원** 그런데 이 비디오판독 과정의, 실무 담당자에게 결과보고서 제출을 요청하니 담당자는 결과보고서 한 번도 제출한 적이 없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증인 조연상** 그렇지 않습니다.

○**정연욱 위원** 이건 실무자의 착오입니까?

○**증인 조연상** 항상 사업 결과보고서는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정연욱 위원** 예, 별도로 저희가 보니까 보고서는 받았고.

그래서 이 해당 담당자는 아마 자료제출이 불성실해서 결국 교체가 됐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연맹이 비디오판독 사업한 지가 벌써 8년 차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문서를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비디오판독 준비 상태는 매우 미흡하고, 이게 프로축구심판협의회에서 공식으로 보낸 공문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요약하면 준비 상태가 매우 미흡하고 관련 인력들의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았으니 교육이 시급하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여러 가지 운영업체 바뀐 것도 있지만.

관련 보도에 따르면 지난 3월 K리그 2부 개막전 경기에서 비디오판독 신호가 7분이나 늦게 들어온 바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증인 조연상** 장비에 좀 오류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당시에.....

○**정연욱 위원** 장비 오류에 그친 겁니까?

○**증인 조연상** 예, 그렇습니다.

○**정연욱 위원** 실무 인력의 운영 능력이 미비하거나 이런 건 아닙니까?

○**증인 조연상** RO의 운영 능력이 미비한 걸로는 저희가 파악하지 않았고요, 시스템에 대한 문제는 좀 있었던 것은 확인했습니다.

○**정연욱 위원** 그래서 저희가 이 비디오판독 기록지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시면 1라운드 기록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아예 없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저희한테.

애초에 작성 안 한 겁니까, 아니면 아예 그냥 잊어버리신 겁니까?

○**증인 조연상** VAR 기록지라는 것은 프로축구연맹이 작성하는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

다, 저건 심판 영역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 기록지라는 게 어떤 성격의 문서인지를 제가 정확히 지금 확인을 못 했는데요.

○정연욱 위원 여기 나오시면서 아직 확인도 못하신 겁니까?

○증인 조연상 프로축구연맹이 제출한 자료는 아닌 걸로 제가 지금 보입니다.

○정연욱 위원 두 번째 보겠습니다.

기록지 누락은 그렇게 일상이 됐다고 그러시는 거고, 경기 날짜를 아예 잘못 입력하거나 관련 세부 내용을 아예 적지 않은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정몽규 회장님 계신 데서 한번, 그냥 앉은 자리에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잠시 마이크를 잡아 주시면……

비디오판독은 축구협회가 FIFA의 인준을 받아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증인 정몽규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연욱 위원 비디오판독하고 소위 RO(Reply Operator) 인력 교육도 축구협회 심판 위원회의 역할이지요?

○증인 정몽규 예.

○정연욱 위원 맞습니까, 이게 실제로?

○증인 정몽규 예, 맞습니다.

○정연욱 위원 그렇다면 축구협회도 프로연맹하고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비디오판독 관련해서 준비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 어느 쪽에, 책임 문제를 따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증인 정몽규 기계 계약 문제에 있어서는 프로연맹이 계약하는 것 같고요, 심판 운영에 관해서는 축구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연욱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누구 탓하는 걸 떠나서, 이게 결국은 서로가 양쪽에 떠넘기는 식으로 가서는 안 될 문제 아닙니까?

○증인 정몽규 두 협회나 연맹이 잘 협의해서 풀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연욱 위원 축구협회도 이 부분에서 마냥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것만 좀 명심해 주십시오.

○증인 정몽규 예, 알고 있습니다.

○정연욱 위원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문제는 지금 대행사에 위탁 운영을 하는데 입찰경쟁으로 매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증인 조연상 예, 그렇습니다.

○정연욱 위원 이게 작년 기준으로 체육진흥공단에서 한 26억 원을 지원받았고 이 중에서 운영비로만 운영 대행업체에 22억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다시 보겠습니다.

입찰경쟁을 했더니만 U 사와 S 사, 실명은 안 하겠습니다, 19억을 제시한 U 사가 선정됐습니다. 그런데 계약은 두 군데하고 했습니다. 입찰경쟁은 한 군데가 됐는데 두 군데 업체와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증인 조연상 그러니까 수주한 업체가 VAR를 운영하려면 FIFA의 승인을 받은 장비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 장비업체한테 사용료를 내고 사용권한을 획득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년에는 그 업체끼리 그냥 직거래로 그렇게 계약을 했는데 이번에는 양사가 합의하에 장비 사용료에 대한 부분은 발주처인 프로축구연맹이 좀 직접 결제를 해 달라는 요청이 와서 합의하에 계약을 나눠서 지급처를……

○정연욱 위원 정상적으로 경쟁입찰이란 대원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증인 조연상 예.

○정연욱 위원 그런데 이런 식의 입찰 자체가 정상적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증인 조연상 예.

○정연욱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관행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되면 언제든지 편법으로 가능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증인 조연상 예, 그런 지적 인정하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욱 위원 그러면 애초에 2개 업체로 정확하게 분류를 해서 제대로 했으면 문제가 없는 건데 이런 식으로 경쟁입찰을 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증인 조연상 분류는 돼 있었는데 그런 착오는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연욱 위원 단순한 착오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별도로 관련 보고는, 문체부나 체육진흥공단은 전혀 보고받은 바가 없다고 저희한테 얘기를 하는 거 보니 그냥 알아서 하신 것 같습니다.

○증인 조연상 정산 시점에 보고는 드렸습니다.

○정연욱 위원 이게 결과보고서도 보니까…… 결국은 프로축구연맹이 체육진흥공단에 제출한 결과보고서에는 15억이지요?

○증인 조연상 운영비 15억……

○정연욱 위원 15억만 하신 거고?

○증인 조연상 예.

○정연욱 위원 6억 5000만 원, 나머지 부분들은 결과보고서가 없는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증인 조연상 그건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연욱 위원 어떻게, 명색이 국가기관 아닙니까?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관리하면……

비디오판독이라는 게 우리가 민감한, 골로 인정할 건지 말 건지, 페널티킥을 인정할 건지 말 건지 이런 민감한 순간에 소위 VAR을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증인 조연상 그렇습니다.

○정연욱 위원 하나하나가……

그러니까 지금 RO의 인력 자체 교육훈련도 미비하다고 그러면 이 심판결과를 어떻게 믿겠습니까?

○증인 조연상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욱 위원 앞으로 모든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을 좀 세워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증인 조연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형배 위원 김태호 대표님 증인으로 나오셨는데요, 이쪽으로 좀 나오시겠어요?

○증인 김태호 예.

○민형배 위원 시간 내서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증인께서는 대중문화산업법이라는 법을 알고 계시지요? 거기에 신의성실의무가 있다는 거 아시지요?

○증인 김태호 예, 알고 있습니다.

○민형배 위원 하이브에 신의성실의무가 있지요? 잘 지키고 있습니까?

○증인 김태호 잘 지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민형배 위원 하이브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보니까 인권경영을 천명하고 있던데 이것도 잘하고 계십니까?

○증인 김태호 예, 알고 있습니다.

○민형배 위원 아니, 잘하고 계시냐고?

○증인 김태호 저희가 대외적으로 발표한 메시지들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많은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민형배 위원 저기 한번 보실게요. 저희가 입수한……

PT 좀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위클리 음악산업리포트, 이것 회사에서 사용하는 공적 문서지요, 보고서지요?

○증인 김태호 예, 저희 회사에서……

○민형배 위원 저거 보이시지요? 저거 보고 계시지요? 저런 걸 보고, 매주 열람해서 논의하는 이유가 뭡니까?

○증인 김태호 저희는 케이팝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회사로써 저희 팬들과 업계가 하이브에 소속되어 있는 아티스트 및 케이팝 전반에 대해서 어떤 여론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매주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의 여러 가지 과정 중에, 지금 보여 주신 문서는 그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민형배 위원 여러 개를 제가 편집해 놨습니다, 아주 여러 개를. 그런데 저기 보면 정말 정보들이 원색적이고 노골적인 비방, 외모평가 이런 게 가득 담겨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멤버들이 한창 못생길 나이에 우루루 데뷔시켜 놔서, 누구도 아이돌의 이목구비가 아닌데다가’, ‘외모나 섹스어필에 관련되어 드러나는 경향이 두드러짐’, ‘좀 놀랍게도 아무도 안 예쁨’, ‘땡땡 그룹 데뷔할 때도 외모로 다들 충격받았다’, ‘다른 멤버들은 놀랄 만큼 못생겼다’, 다 보신 적이 있으시지요?

○증인 김태호 지금 말씀해 주신 저 문서 내용을 제가 기억하고 있지는 못하는데요.

○민형배 위원 내부 보고서 맞는데요?

○증인 김태호 저희가 저런 모니터링 자료들을 많이 만들고 있고 많이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민형배 위원 이게 다, 이 임원용 보고서의 지금 이것들이 다 미성년자로 구성된 그룹에 대한 거라는 건 알고 계신가요?

○**증인 김태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것은 저희 하이브의 의견이거나 하이브의 공식적인 판단은 아닙니다. 온라인상에 들어와 있었던 많은 글들을 저희가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모으고 그런 것들을 종합한 내용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민형배 위원** 아니아니, 그걸 모니터해서 위클리 음악산업리포트라고 하는 것을 작성하셨잖아요, 회사에서?

○**증인 김태호** 예, 저희 회사의……

○**민형배 위원** 그런데 왜 다른 사람들 거라고 하세요, 자기들이 모아서 보고하는 건데? 자신들이 작성한 건데?

○**증인 김태호**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보여 주신 저 내용들이 저희 회사의 판단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민형배 위원** 아니, 그 보고서에 들어 있는 내용이라니까요. 그 보고서에 들어 있는 내용을 제가 읽어 드린 거예요. 외모평가, 이른바 질 낮은 이런 표현들. 그런데 저게 문제는 미성년자들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돌에 대한 비인격적인 이런 인식과 태도가 저 보고서에 가득 담겨 있어서 그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하이브만 이렇습니까?

○**증인 김태호** 제가 다른 회사의 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

○**민형배 위원** 이게 지금 대중문화산업법 신의성실의무를 위반한 겁니다. 혹시 알고 계세요?

○**증인 김태호**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래요?

그러면 다음 PPT를 한번 볼게요.

문체부장관님, 지난 3월에 콘텐츠 제작 현장 아동·청소년 권리보호 가이드라인 이런 것 배포하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그렇습니다.

○**민형배 위원** 여기에 아동·청소년에게 폭언과 욕설, 체벌은 물론 외모 등을 평가하는 언행도 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는 것 맞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그렇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보여 드린 보고서하고 이 가이드라인하고 도대체 안 맞는데 왜 이렇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글쎄요, 지금 말하는 걸로 봐서는 밖에서 다른 사람이 쓴 걸 모아 놓은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민형배 위원** 아니, 자신들의 보고서입니다, 내부 보고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표현이 좀 심한 거지요, 이런 것은.

○**민형배 위원**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그런 표현을 자기 안에 있는, 어떻게 보면 직원들이나 가족들이라고 봐야 할 텐데 과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렇지요? 저희가 저기 다 가렸습니다. 개인정보를 다 가렸지만 예민한 분들은 저 표현만 보고도 금방 알 거예요, 금방. 저희들이 하여튼 가리고 가려서 조심스럽게 한 게 저것인데요.

좋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을 잘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요.

음반 밀어내기라고 하는 것 아시지요?

○증인 김태호 예, 어떤 개념으로 말씀하시는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민형배 위원 저것 한번 봐 보세요. 하이브에서 초동 판매량 높이려고 음반 밀어내기 하는 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왼쪽의 앨범을 반품조건부로 판매하는 경우 또 하나는 팬 사인회나 럭키드로우 등 이벤트 응모를 미끼로 음반을 처분하는 경우. 하고 계시지요, 지금?

○증인 김태호 저희가 반품 조건부로 음반을 밀어내거나 판매한 적은 없고요. 올 연초에 안 그래도 이것과 관련된 문제 제기가 일부 있어서 저희가 내부에서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저희가 2023년에 판매했던 앨범의 영점 몇 퍼센트 정도의 수량만 반품이 일어나도록 계약이 되어 있었고, 가능했던 그런 구조로 판매가 됐었던 걸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반품조건부로 음반을 판매한 적은 없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러면 제가 내부 자료 하나 더 보여 드릴게요.

띄워 주세요.

2024년 1월 4일 자 이메일입니다. 여기 보면 반품 진행 예정 프로젝트라고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증인 김태호 지금 말씀해 주셨던 이 내용이 바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저희가 한 2건 있었던 내용입니다.

○민형배 위원 2023년이라면서요.

○증인 김태호 2023년에 판매된 앨범에 대한 그 반품이 2024년 초에 이루어졌고 이 내용을 저희가 보고 앞으로는 이런 방식의 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내부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민형배 위원 그러면 하나 더 보여 드릴게요.

PPT 한번 올려 주세요.

이것은 반품조건 추가 물량이 최소 앨범 7만 장, 최대 20만 장 정도 되는 건데 이것은 뭡니까?

○증인 김태호 저희가 이런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셨던 이 내용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민형배 위원 전에는 했는데 지금은 안 하고 계신다 그 말씀인가요?

○증인 김태호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회사의 방침이 아닌 실무자들의 판단으로 일부 반품이 이루어진 것으로 저희가 확인했고요. 그래서 회사의 규정으로 다시는 이런 형태의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정했습니다.

○민형배 위원 앞으로는 전혀 없는 겁니까?

○증인 김태호 예, 없습니다.

○민형배 위원 지속가능경영, 인권경영 이런 것하고 좀 안 맞잖아요, 제가 지금 두 가지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증인 김태호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려하시는 바는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그런 부분들, 걱정하시는 것 일어나지 않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민형배 위원 이것 시장 교란행위가 되는 거잖아요?

○증인 김태호 실제로 밀어내기가 있었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시장을 교란한 바는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민형배 위원 아니, 있다는 걸 보여 드리는 데도 없었다고 그러시면 어떻게 합니까?

○증인 김태호 저희가 반품조건부로 음반을 판매한 물량이 전체 시장을 교란하거나 저희 판매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수량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민형배 위원 장관님, 지금 보면 초동 물량 부풀려 가지고 차트 순위 홍보하는 것 공정한 유통 아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렇습니다.

○민형배 위원 지난 7일 국감 때 이런 음반 밀어내기 제보가 있을 경우에 조사할 것이다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 보시기에는 괜찮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아마 제가 볼 때 하이브 같은 회사는 이미 국내 회사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민형배 위원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국제적인 회사고 사실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회사인데……

○민형배 위원 그래서 더 걱정인 겁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런 짓을 하면 안 되지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형배 위원 이것 문체부에서 꼼꼼하게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알겠습니다.

○민형배 위원 K-콘텐츠의 국제경쟁력을 생각해서라도 이런 일종의 조작 같은 게 생기면 굉장히 불리해질 거거든요. 하이브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 국내 케이팝, K-콘텐츠 문제기 때문에 문체부에서 정확하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 사항을 철저하게 잘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형배 위원 김태호 대표님, 한 가지만 더요.

이런 데는 저희들이 끼어들지 않는 게 좋기는 한데 빌리프랩이 뉴진스를 표절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김태호 사실이 아닙니다.

○민형배 위원 저것 봐 보세요. 지금 저렇게 증거를 제시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던데?

○증인 김태호 이 건에 대해서는 빌리프랩 대표로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이 건을 제기한 민희진 전 대표를 대상으로 저희가 지금 민사·형사상의 소송을 제기해 놓고 고소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법부의 판단을 저희는 기다리고 있고요. 관련된 절차를 잘 준수하면서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료나 근거들을 법원을 통해서 밝히고자 합니다. 이 점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형배 위원 어떤 경우에도 이런 논쟁이 벌어지고 논란이 되고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것 자체가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는데요?

○증인 김태호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제가 정말로 너무나도 송구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니다, 올해 일어났었던 일련의 일들 때문에 저희가 많은 분들께 많은 피로감을 드리고 있어서요. 이런 문제들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고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형배 위원 제가 세 가지 문제 제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팬들이나 국민들께 드릴 말씀 없으세요?

○증인 김태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큰 피로감을 드린 점에 대해서는 정말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엔터테인먼트기업의 기본적인 사명이 사실 저희 팬들과 국민들을 즐겁게 해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올해 저희가 아쉬운 점이 많았던 것 분명히 사실이고요. 오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들 포함해서 저희가 앞으로 이런 일들이 더 이상 피로감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형배 위원 시간 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정몽규 회장님.

○증인 정몽규 예.

○민형배 위원 그냥 거기서 말씀 주세요.

이임생 이사 사의 표명한 지 한 달 지났는데요, 사실 제출했습니까?

○증인 정몽규 9월 24일 이후에 바로 정신적인 쇼크를 받아서 입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퇴원한 걸로 알고 있고, 본인은 사의 의사를 표명했고 조만간 사퇴에 대한 토의를 할 예정입니다.

○민형배 위원 국회 현안질의 때문에 쇼크를 받았다고요?

○증인 정몽규 본인이 굉장히 쇼크를 받아 가지고 우울증이 생겼다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입원을 했었습니다.

○민형배 위원 다른 분들은 국회에 와서 그런 경우가 없었던 데 왜 그분은 그러시지요?

○증인 정몽규 마음이 상당히 여린 것 같습니다.

○민형배 위원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렇게 마음이 여린 분이 절차에 없는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게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좋습니다.

얼마 전에 여자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하셨지요?

○증인 정몽규 예.

○민형배 위원 제가 지난번에 축구 대표팀 감독하고 여자축구 대표팀 감독하고 선임 과정을 표로 만들어 놨거든요. 한번 봐 보시지요.

크게 네 가지 비교가 가능한데 첫째, 전력강화위원회 구성이 됐지요?

○증인 정몽규 예.

○민형배 위원 왼쪽이 홍명보 감독, 오른쪽이 신상우 감독, 그러니까 왼쪽이 축구 감독, 오른쪽이 여자축구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이거든요.

위원회 구성, 왼쪽 홍명보 감독 때는 위원 5명으로 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은 상태로 됐고요. 이번에는 위원장도 참석하고 위원 7명의 정족수를 충족했습니다. 다르지요?

○증인 정몽규 여러 가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얘기한 첫 번째……

자료를 한번 다시 좀……

○민형배 위원 띄워 봐 주세요.

○증인 정몽규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마지막 10차 이후의 그걸 말씀하신 것 같고요.

○민형배 위원 예, 그렇습니다.

○증인 정몽규 그리고 두 번째의 후보 면접 과정은 10차 전력강화위원회 이후에 사실상 추천이 끝났고 이임생 이사가 계약을 위한 절차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관적 평가는 전력강화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를 했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민형배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왼쪽의 홍명보 감독 때하고 오른쪽의 신상우 감독 때가, 오른쪽의 신상우 감독은 저희들이 현안질의한 다음에 이루어진 거예요, 국회에서 한 다음에. 아주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잖아요.

○증인 정몽규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그때 국회에서 지적해 주셔 가지고 내정 후에 이 사회 결의를 하고서 그렇게 진행했었습니다.

○민형배 위원 회장님, 홍명보 감독을 선임할 때는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오른쪽의 그 이후에 한 것처럼 저렇게 제대로 할 수 있는데 안 한 겁니까, 아니면 일부러 안 하신 겁니까?

○증인 정몽규 전력강화위원회가 5개월 동안 계속해 가지고 감독후보를 제대로 못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9월 달 A매치를 앞두고서 거의 한 달 반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진행이 됐다 이렇게……

○민형배 위원 회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현안질의하고 국정감사 하니까 감독 선임이 오른쪽처럼 공정하게 제대로 됐어요, 그전에는 저렇게 엉망이었는데.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걸 할 수 있는데 안 하신 건지 그냥 의도적으로 저렇게 하신 건지.

○증인 정몽규 두 번째 남자 A대표팀 감독 저것은 조금 본질과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민형배 위원 잠깐만요, 그 표 다시 한번 올려 주십시오.

왼쪽은 홍명보 감독 때, 오른쪽은 신상우 감독 때인데 국정감사, 현안질의 이후가 오른쪽, 그전이 왼쪽이에요. 왼쪽에 문제가 있습니까? 저희가 정리해 놓은 것에 잘못된 게 있습니까?

○증인 정몽규 왼쪽, 오른쪽 중에 마지막 이사회 의결 이것만 차이 있고 나머지는 다 제대로 절차를 밟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형배 위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평가 제대로 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감독……

○증인 정몽규 전력강화위원회에서 10차에 걸쳐서 많은 토론을 했습니다.

○민형배 위원 저기는 체계적으로 정량평가를 했어요. 그런데 홍명보 감독 때는 주관적 으로 주먹구구식으로 했어요, 서류도 제대로 제출 안 했고. 제가 여쭙는 건 왜 저렇게 현안질의하고 국정감사 하고 나니까 제대로 할 수 있는데 그전에는 안 하셨습니까라고 여쭙는 겁니다.

○증인 정몽규 여러 가지 지적을 받아서 더 발전적으로 진행했다고 생각합니다.

○민형배 위원 그러니까 그전에는 잘못한 것 맞네요?

○증인 정몽규 약간의, 완벽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민형배 위원 다음 PT 한번 보여 줘 보세요.

‘감독의 선임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은 회장이 진다. 아니, 협회의 주요 정책과 결정에 대한 최종 책임은 모두 회장에게 있다’

저렇게 달라진, 그러니까 이전의 잘못된 선택·결정과 제대로 된 결정 사이에서, 저희가

궁금한 건 왜 홍명보 감독 때는 절차와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책임을 지실 겁니까라고 여쭙는 거예요.

○**증인 정몽규** 첫 번째 홍명보 감독 선임하고 그랬을 때는 전력강화위원회가 벌써 5개 월째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공전하고 있었고요. 제대로 된 남자 감독을 찾지 못하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고 있고. 또 외국인 감독을 하고자 했지만 그분들이 다른 나라 감독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한국 감독을 못 맡겠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형배 위원** 그러니까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 문제가 없었고 저는 국민들이나 축구 팬들에게 따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 뜻인가요?

○**증인 정몽규** 완벽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미흡한 점도 있고, 그 과정에서 제가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전력강화위원회에서 후보를 정할 때 후보가 다 언론에 유출된 게 감독 선임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만든 원인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형배 위원** 다시 여쭙겠습니다.

현안질의하고 국정감사 하니까 감독 선임의 공정성이 회복이 됐습니다. 그전에는 그게 안 됐습니다. 어떻게 책임지시겠고 팬들에게 국민들에게 뭐라고 말씀 주시겠습니까?

○**증인 정몽규** 저희가 완벽하게 모든 거를 다 잘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 규정에 따라서 열심히 잘했고, 지금까지 30여 년 동안 대한민국 남자 대표팀 감독 선임에 있어서는 항상 문제가 있고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정몽규 회장님, 혹시 이임생 이사님은 언제 쇼크로 입원을 하신 겁니까?

○**증인 정몽규** 바로 그다음 날에 했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국회 문체위 현안질의 이후에 그다음 날 바로?

○**증인 정몽규** 예,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무슨 일로 쇼크를 받으셨나요?

○**증인 정몽규** 평생 받아 보지 못한 그런 스트레스를 받으셨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그러면 우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안질의가 이임생 이사로 하여금 쇼크에 빠질 정도로 문체위가 무슨 부당한 질의를 했거나 또는 강요를 했거나 또는 문체위가 해서는 안 되는 그런 행위를 했다는 뜻은 아니지요?

○**증인 정몽규**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본인이 여기서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무겁게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그러니까 듣기에 따라서는 문체위가 마치 쇼크를 받을 정도로 했다 이렇게 오해해서 들릴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위원장인 제가 판단을 하기에는 오히려 이임생 이사가 문체위 현안질의 과정에서 홍명보 감독의 선임 절차와 과정에서 그동안 국민들께 알려지지 않았던 내용들, 문제가 있었다는 내용들이 드러나니까 오히려 쇼크를 받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것이 그 현안질의 끝나고 난 뒤에 대다수 국민들이 느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치 국회 문체위의 현안질의 때문에 마음이 여린 분이 그 충격으로 쇼크로 병원에 입원했다, 지금 이렇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말씀을 회장님께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 아니지요?

○**증인 정몽규** 예,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국회 증언대에 서게 되면 다 무겁게 받아들이고 부담스러운 거는 사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전재수** 앉아 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진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오 위원** 김성회 참고인, 앞으로 좀 나와 주시겠어요? 불편하면 거기 계시고요. 본인 소개 좀 짧게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인 김성회** 안녕하십니까? 게임정보채널 G식백과의 김성회입니다.

게임 검열 철폐 헌법소원 21만 751명 청구인의 청구인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진종오 위원** 21만 명의 서명과 함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 2호에 대해서 헌법소원 청구하셨지요? 그 취지와 해당 조항 좀 말씀해 주십시오.

○**참고인 김성회** ‘범죄, 폭력, 선정성을 지나치게 묘사하여 모방범죄가 우려되면 차단할 수 있다’, 그러니까 범조항 자체는 되게 간단한데요. ‘지나치게’라는 문구가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해석되고 있고 지나치게 모호하기 때문에 지나치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2년간 어린이게임, 성인게임 약 500여 종이 장르를 불문하고 한국에서만 차단을 당했습니다. 그 차단 근거는 다 한 줄이었습니다, 모방범죄 우려. 그런데 제가 그 검열기관의 고위 간부님한테 여쭤봤어요. 도대체 기준이 뭐냐 그랬더니 누가 봐도 딱 봐도 문제될 만한 것들을 차단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누가 봐도 딱 봐도의 그 누가가 누구냐? 2년 전 바로 이 자리에 그 검열기관의 수장님이 여기 국정감사 소환돼서 나오셨어요. 하시는 말씀이 게이머분들은 나를 원망할 것이다, 하지만 그 역겨운 게임을 그냥 좌시할 수 없다, 차단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큰 비극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일국의 문화 콘텐츠의 허용 범위가 그저 한 개인의 취향에 의해서 지금 규격화되고 좌지우지되고 있는 거예요.

거기 검열위원들은 녹음기가 켜져 있는 공식 검열 회의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이 바뀌면 원칙이 어떻든, 규정이 어떻든 간에 그것은 그저 참고사항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스스로 그것이 기분에 따라 이루어지는 원님재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게임제작자들은 검열 회의 때 제발 그 깐깐한 검열위원님이 몸살 걸려서 출근하지 않게 해 주세요라고 비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랜덤 복불복이고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화 ‘악마를 보았다’ 보시면 차단된 게임들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잔혹하고 업기적인 범행 장면이 계속 나오는데요. 영화 시청 중에 울렁거려서 나가시는 분도 꽤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 영화감독이 감옥 갔습니까? 법으로 금지됐습니까? 아니잖아요.

영화 ‘독전’은요 마약 투여 반응, 마약 제조 과정, 마약상들끼리의 고문 장면까지 다 나오는데 15세 관람가입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은요 K-콘텐츠의 패거라고 말해지는데 그것과 비슷한 내용 그리고 수위는 좀 더 낮은 진짜 게임은 성인도 이용 불가능한 전체이용불가 판정을 받습니다. 만약에 오징어 게임의 PD가 게임제작자였다면 그는 아마 에미상이 아니라 수갑을 채울 겁니다. 왜냐하면 모방범죄가 우려되는 게임을 유통시키면 최대 징역 2년의 범죄자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1996년에 영화와 음반은 이미 국가사전검열의 위헌 판결을 받았거든요. 게임

만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그 28년의 격차를 1년이라도 좁혀 보기 위해서 형평성의 문제 그리고 명확성의 문제를 들어서 21만 751명의 게이머분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진종오 위원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참고인 김성회 초현법적인 검열기관이라는 것 그 자체가 문제입니다. 2006년에 바다 이야기 사태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한국의 게임산업법이 만들어졌고 그것의 부산물이 바로 게임물관리위원회입니다. 그러니까 태생 자체가 규제를 할 수밖에 없고, 바다이야기 성인 도박물이랑 마인크래프트 같은 건전 게임들을 한 그물로 싸잡아서 규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 진종오 위원 그러면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업계나 이용자들 의견 잘 수렴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참고인 김성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발각된 검열 회의록을 보면은요 그들은 한국 게임이용자들을 모방범죄, 사이코패스, 폐락 살인에 취약한 계층으로 보고 있고 게임에 대한 적개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의견수렴이 아니고요, 밤을 새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사례 딱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 진종오 위원 예, 한 가지만 말씀하십시오.

○ 참고인 김성회 그런데 시간이 많이 부족합니까, 위원님? 좀 많이 드릴 말씀이 있는데……

○ 진종오 위원 다른 증인들도 있으니까, 본인 의견만 다 들을 수는 없으니까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 참고인 김성회 사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2019년에 주전자닷컴 사태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게임 사전검열을 받으려면 많게는 수십만 원까지 검열비를 내야 되는데 초등학생들의 비영리 습작 자작 게임들 6만 종이 국가사전검열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방에 삭제가 됐습니다. 사실 이거 웹툰으로 비유하자면은요 연습장에 초등학생이 만화를 그려 갖고 학급 블로그에 올렸는데 그것을 국가사전검열 받지 않았다고 전국의 학급 블로그 6만 개가 동시에 삭제된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이게 국가사전검열이 게임에만 남아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데요.

그런데 게관위는 이런 검열의 칼을 법대로 휘두른다고 얘기하지만 그렇지도 않습니다. 되게 선택적이에요. 인기 게임과 무명 게임에 대한 검열 기준이 판이하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욕먹을 만한 거, 인기 게임은 상당히 너그럽고 그렇지 않은 게임들에 대해서 검열, 차단을 하면서 검열 실적을 채우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아주 지극히 행정 보신주의적인 그런 행태의 극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진종오 위원 게임물관리위원회…… 국정감사 참고인 채택 기사가 나온 이후에 김성회 씨에 대한, 사회적인 유해를 끼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여러 커뮤니티에 올라온 거 아닙니까?

○ 참고인 김성회 예, 관련한 내용들이 많이 올라왔었지요.

○ 진종오 위원 살펴보셨고요? 이 얘기가 돌아다니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 참고인 김성회 조금 개인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게관위원회, 게임물관리

위원회하고 평생에 악연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 과거에 위원장 하셨던 분이, 제가 개인적으로 상당히 큰 거짓 음해를 장기간 동안 당해서 좀 위험한 적이 있었는데……

○진종오 위원 그런데 개인적인 얘기를 하러 나온 건 아니니까……

○참고인 김성회 그분들과 연루되었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저 한 명의 게이머로서…… 지금 사우디와 카타르, 쿠웨이트 같은 성적으로 엄격한 이슬람 국가에서도 살 수 있는 게임들을 오직 한국에서만 살 수 없게 만드는 그 근본적인 원인이 규제 일변도의 게임산업법이고 그 칼을 휘두르는 게임물관리위원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좋은 감정을 가질 수 없고, 그것에 대해서 공감해 주시는 21만 명의 게이머 분들이 같이 현법소원에 참여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사실 저희 게이머들이 게임셨다운제 비롯해서 게임 질병화 시도 비롯해 갖고 사실 국회로부터 그동안 많이 시달리고 살았거든요. 항상 법 만드실 때 누구 부르셨습니까? 의사, 목사 그리고 학부모단체만 부르셨잖아요. 정작 당사자인 저희들은 뒷전에 빠져서 그저 계도와 계몽의 대상이었습니다.

게임이 산업으로, 전자오락에서 산업으로 바뀐 다음에 지금 저희가 이용자로서 이 자리에 서기까지 20년이 넘는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겨우 기회를 마련했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금방 끝나는 게 저희는 너무 억울해요. 20년 기다렸는데 2분이라도 시간 좀 더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신동욱 위원 진 위원님, 절제 좀 시키세요.

○진종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2분까지 제가 드릴 수는 없고 한 말씀만 더 하세요, 짧게.

○참고인 김성회 그러면 마지막 한 말씀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얼마 전에 노벨문학상 한국에서 나왔잖아요. 한강, BTS, 봉준호 같은 세계적인 예술인들이 나오고 있는데 대중문화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1996년 영화·음반에 대한 사전검열이 폐지된 이후 그것을 시발점으로 해서 한국 콘텐츠의 부흥이 시작되었다, 그러니까 이번 게임도 게임에만 있는 사전검열 폐지되어서 그것을 시발점으로 돈만 많이 버는 게임사 사장님들 말고 존경받는 그런 게임제작자들도 많이 탄생하기를 기원해 봅니다.

게임정보채널 G식백과의 김성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종오 위원 너무 본인 자랑하고 가시는 것 같은데, 다음부터는 그런 발언 조심해 주십시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진 위원 정몽규 회장님 일어서 주십시오.

일단 귀국일을 앞당겨서 국회에 출석하시기로 하신 것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임생 위원처럼 쇼크받으시지 않게 오늘 제가 편안하게 질문을 드릴 테니까요, 지금 많이 긴장하고 있지는 않으시지요?

○증인 정몽규 긴장되고 있습니다.

○ 배현진 위원 쇼크나 우울증을 제가 염려해야 되는 바는 아니지요?

○ 증인 정몽규 안 그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배현진 위원 지난 22일에 출석을 하지 않으셔서 제가 문체부 국장과 함께 축협과 현대산업개발의 관계에 대해서 좀 팩트 체크를 여러 가지 했습니다. 보고받으셨습니까, 귀국해서?

○ 증인 정몽규 예.

○ 배현진 위원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지난 청문회 때부터 지금까지 논란 가운데 가장 궁금한 게 있습니다. 11년 동안 축구협회 회장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 증인 정몽규 예.

○ 배현진 위원 강산이 한 번 바뀐다는 10년을 한 턴을 돌았는데 회장을 계속하고 싶은 이유가 대체 뭘까요, 회장님?

○ 증인 정몽규 저 임기가 아직 내년 1월 달까지이기 때문에 임기를 잘 마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배현진 위원 그 이후에 또다시 도전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 증인 정몽규 제가 그런 말을 한 번도 어디서 한 적도 없고 누구한테도 부탁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 배현진 위원 그러면 회장직에 다시 도전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 증인 정몽규 아직, 여러 가지 고려해서 판단하겠습니다.

○ 배현진 위원 정확하게 말씀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증인 정몽규 저한테……

○ 배현진 위원 지금 많은 국내외 축구 팬들이 지켜보고 있거든요.

○ 증인 정몽규 제가 여러 각도로 판단해 가지고 잘 검토해서 결정하겠습니다.

○ 배현진 위원 혹시 회장님 아니면, 정몽규 증인 아니면 절대 대한축구협회는 이끌어갈 수 없다, 나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생각 혹시 있으세요?

○ 증인 정몽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 배현진 위원 그렇지는 않으시지요?

○ 증인 정몽규 예.

○ 배현진 위원 22일 국정감사에서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들을 이제 당사자가 나오셨으니 팩트 체크를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2022년 11월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은 직접 HDC현대산업개발의 대표이사와 천안 축구종합센터 건설사업 관리자문 용역계약서라는 용역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계약 지금 본인 이름 그다음에 HDC의 대표이사 최익훈 씨의 명의로 간인까지 다 돼 있는데 간인 부분은 제가 잘랐고요. 이렇게 직인이 찍혔는데 이거 알고 계십니까?

○ 증인 정몽규 계약한다는 거는 들었는데……

○ 배현진 위원 본인께서 직인 이거 허가하셨던 거 아니에요? 그냥 갖다가 찍은 겁니까, 축구협회에서?

○ 증인 정몽규 축구협회 실무자와 현대산업의 사장과 이렇게 계약……

○ 배현진 위원 그러니까 회장 모르시는데 이 계약을 맺었냐고요?

○ 증인 정몽규 제 입장에서는 대한축구협회에서 1250억의 많은 건축비를 들여 가지고 그 스타디움을 짓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최대한도로 잘 도와주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 배현진 위원 축구협회에서 ‘구두로 자문한 적은 있지만 계약을 맺은 적은 없다’라고 본 의원실에 아예 문서로 답변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 계약서가 확인이 된 거예요. 축구협회 회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위보고에 대해서?

○ 증인 정몽규 허위 보고라면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설계 단계에 계약을, 설계 자문했을 때 계약을 안 했다는 얘기……

○ 배현진 위원 허위 보고에 대한 책임 물어도 되겠습니까?

○ 증인 정몽규 아마 설계 단계에 그렇게 생각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배현진 위원 설계 단계라는 게 무슨 말씀이시지요?

○ 증인 정몽규 그러니까 설계 과정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 배현진 위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9월 24일에 정몽규 증인께 청문회에서 천안축구센터의 시공사가 동부건설인데 거기 현장소장이 있는데 왜 현대산업개발에서 관리자문현장소장이라는 직책으로 상급자를 내보냈느냐라고 했을 때 본인께서 그런 취지의 답을 주셨던 것 같아요. 축구협회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 보냈다, 맞습니까?

○ 증인 정몽규 축구협회에는 건설 전문인력이 없기 때문에 건설관리계약을 할 경우, 예를 들어서 1200억 사업이면……

○ 배현진 위원 시공사, 동부건설은 건설회사 아닌가요?

○ 증인 정몽규 건설관리 그러니까 건축주 입장에서, 건축주는 축협이고요. 건설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동부건설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자문계약을 했습니다.

○ 배현진 위원 그래서 본 위원한테 그렇게 대답하셨지요? 건설 전반에 관여하지는 않고 그냥 그것을 잘하도록 도우려고 보조적인 역할을 한다는 취지로 얘기하셨었지요, 그렇지요?

○ 증인 정몽규 축협을 대신해 가지고 잘 관리하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 배현진 위원 그런데 보고받으셨을 텐데 조금 전에 정몽규 증인의 직인으로 찍힌 이 내용 안에 보면 죽, 보셨어요? 안에 설계 공정, 인허가 제반 비롯해서 자재까지 전부 다 현대산업개발의 관리자문현장소장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자재 하나까지.

○ 증인 정몽규 건설관리계약은 우리 건설업계에서 CM……

○ 배현진 위원 이게 문제없다고 생각하세요?

○ 증인 정몽규 CM 계약이라고 합니다. 컨스트럭션 매니지먼트 계약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외부의 현대, 그러니까 축협에서 외부에다 용역을 줄 경우에 보통 건설비의 3%, 4%를 줘야 됩니다. 3%, 4%라고 그러면 한 30억, 40억이 드는데 이것을 저희 현대산업개발의 직원 한 사람이 현대산업의 노하우를 많이 전달해 가지고 동부건설이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 배현진 위원 그러면 시공사인 동부건설은 현장소장을 냄 필요가 없잖아요?

○ 증인 정몽규 거기는 시공을 하는 거고요, 건축주 입장에서……

○ 배현진 위원 제가 지금 질문드리는 거는요 정몽규 증인, 보조적인 역할뿐만 아니라 이 용역계약 범위 안의 설계 공정, 예산 관리, 인허가 관리, 입찰서류 검토, 기자재 검토, 건설 공정·설계 검토, 천안축구센터의 건설 전반을 다 그분이 좌지우지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 증인 정몽규 개념을 잘못 이해하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건설관리가……

○ 배현진 위원 제가 물을 때만 대답하세요.

○ 증인 정몽규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 배현진 위원 쇼크받으시면 안 되잖아요.

이분이 계다가 현장소장으로 파견을 정몽규 회장으로부터 받으셔 가지고 외부자문료 등 각종 수당을 받으셨어요. 이게 지금 축구협회노조에서 난리가 났거든요.

그런데 9월 24일에 정몽규 증인이 출석하셨을 때 현대산업개발이 축구협회 관련해서 하나의 이득 본 것 이런 것 절대 없다라고 맹세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셨는데요. 현대산업개발은 시공사인 동부건설의 상급 관리자인 관리자문현장소장이라는 형태로 전체 건설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면서 유무형, 계다가 축구센터 건설에 관한 민감한 정보까지 모두 포함해서 유무형의 이익을 명백히 취한 정황이 있습니다.

제가 국회증언·감정법을 얘기하고 싶지는 않았는데, 정몽규 증인을 위증 고발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말씀 정정하실 의향 있습니까?

○ 증인 정몽규 위원님께서 건설 CM 계약에 대한 역할을……

○ 배현진 위원 저한테 지금 교수 하시라는 게 아니라 국민적인 의혹을 풀기 위해서 지금……

○ 증인 정몽규 그런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정할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 배현진 위원 정정할 게 없습니다?

○ 증인 정몽규 예, 그렇습니다.

○ 배현진 위원 잠깐 앉으세요.

옆의 김풍년 증인 일어나세요.

PPT 하나 띄워 주세요.

경영지원 업무수행을 위한 자문계약서, 이것 본인 파견계약서 맞습니까?

○ 증인 김풍년 예, 맞습니다.

○ 배현진 위원 자문료, 교통비, 업추비, 통신비 등등 하계휴가비, 귀향비, 격려금 다 받은 것 맞습니까, 수당? 월급 현대산업개발에서 지금까지 받아 왔지요?

○ 증인 김풍년 예.

○ 배현진 위원 소속 현대산업개발이지요?

○ 증인 김풍년 예, 맞습니다.

○ 배현진 위원 이것 파견계약서지요? 그런데 4조에 겸직할 수 없다라고 돼 있는데 본인, 현대산업개발 월급 받으면서 여기서 각종 수당 다 받으셨어요. 맞아요? 제가 지금 확인하는 겁니다. ‘예, 아니요’만 대답하세요.

- 증인 김풍년** 위원님, 그 부분은 좀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 배현진 위원** 아니요, ‘예, 아니요’만 대답하십시오.
- 증인 김풍년** 현대산업개발에서 지원한 것과……
- 배현진 위원** 설명은 정몽규 증인에게 들을 테니까 ‘예, 아니요’ 대답하세요. 받은 것 맞냐고요.
- 증인 김풍년** 그 부분은 설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배현진 위원** 월급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 증인 김풍년** 현대산업개발에서 월급 받았습니다.
- 배현진 위원** 11년간 얼마 받았습니까?
- 증인 김풍년** 그건 워낙 오래된 거라서……
- 배현진 위원** 다음 PPT 띄워 주세요.
- 증인 김풍년** 기본급에 대해서만 제가 지금 받았습니다.
- 배현진 위원** 두 번 승진한 사실 맞습니까?
- 증인 김풍년** 예, 맞습니다.
- 배현진 위원** 본 의원실에 와서 ‘나는 한 것 없는데’라고 하셨던 말씀 기억하지요?
- 증인 김풍년** 그런 취지로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 배현진 위원** 그 말을 하기는 했지요?
- 증인 김풍년** 아닙니다.
- 배현진 위원** 안 했습니까?
- 증인 김풍년** 제가 현산의 인사위원회……
- 배현진 위원** 증인, 여기서 제가 지금……
- 우리 준비를 그냥 하자는 않아요. 다 기록을 해 놓고 있어요. 위증하시면 국회의 증언·감정법이라는 것은 굉장히 엄한 처벌을 합니다. 다시 한번 기회 드릴게요.
- 증인 김풍년** 그 당시 제가 의원님 실에 찾아가서……
- 배현진 위원** 회장님이 챙겨 준 것 같다고 말씀하셨지요?
- 증인 김풍년** 그런 취지는 아니었습니다.
- 배현진 위원** 취지는 아니었어요?
- 증인 김풍년** 예.
- 배현진 위원** 어쨌든 그 말 했지요?
- 증인 김풍년** 정확하게 그 부분을 기억하지 못하고요.
- 배현진 위원** 앉으세요.
- 증인 김풍년** 제가 보좌관님께 인사위원회……
- 배현진 위원** 앉으세요. 알겠습니다.
- 증인 김풍년** 죄송합니다.
- 배현진 위원** 위원장님, 질의가 조금 늘어져서 죄송하지만 저는 한 번에 끝내고 싶은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3분을 당겨서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전재수** 예, 그렇게 하십시오.
- 배현진 위원** 다시 정몽규 증인 일어서 주십시오.
- 이제 진실 혹은…… 거짓말 그만하고 제가 간략하게 넘어가겠습니다.

대한축구협회 행정지원팀장으로 정몽규 회장이 계약한, 대한축구협회 회장이 계약한, 파견 보낸 그리고 현대산업개발 소속의 김풍년 현대산업개발 상무, 맞습니까? 짧게 ‘예, 아니요’로 대답해 주십시오.

○증인 정몽규 예.

○배현진 위원 김풍년 회장이 정몽규 회장의 최측근으로 2011년 축구연맹 때부터 같이 활동한 사실이 맞습니까?

○증인 정몽규 최측근이라고 말씀……

○배현진 위원 ‘예, 아니요’로 대답해 주십시오.

○증인 정몽규 최측근은 아니고요, 팀장 10명 중의 1명입니다.

○배현진 위원 최측근은 아니고 같이 해 오신 건 맞습니까?

○증인 정몽규 예?

○배현진 위원 같이 함께 일해 온 것 맞습니까?

○증인 정몽규 예.

○배현진 위원 형법 제355조 2항을 보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를 배임죄로 규정하고 있어요. 이것 기업인이니까 잘 아시지요, 배임에 관한 것?

○증인 정몽규 전반적인 개념은 알지만 자세한 것은 잘 모릅니다.

○배현진 위원 제가 지금 정몽규 증인께서 받을 수 있는 사법상의 협의에 대해서 전부 변호사 자문을 받고 가져온 거예요.

○증인 정몽규 예, 감사합니다.

○배현진 위원 두 번째,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1항 2호, 배임죄를 범한 사람의 재산상 이익 가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것 아시지요?

○증인 정몽규 지금 읽어서 알았습니다.

○배현진 위원 현대산업개발의 주주나 그 회사 임직원 입장에서는 현대산업개발 업무를 전혀 하지 않으면서도 11년간 월급을 지급받고 특급승진까지 해 온 김풍년 증인에 관한 건은 배임의 소지가 다분하고 그 받아 온 11년간의 금액으로 봤을 때는 특정법상 가중처벌 대상에 아마 해당할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증인 정몽규 사회공헌 차원에서 축구협회……

○배현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회장직 연임 문제가 아니라 정 증인이 수사 대상이 되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오늘이 그리고 국정감사가, 이 자리에 서는 게 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청문회가 계속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감안해서 앞으로도 다른 위원님들 질의에 잘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세요.

장관님께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2024년 1월 1일 자로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됐습니다. 맞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그렇습니다.

○배현진 위원 제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보니까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상임,

비상임에 상관없이 모두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 대상이지요?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렇습니다.

○ 배현진 위원 지금 함께 보시는 많은 분들도 제가 띄워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도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 대상이 맞는 거지요?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권익위에서.

○ 배현진 위원 그래서 지난 22일 제가 이 건에 관해서 문체부가 바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유권해석을 검토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이 사실상 본인의 소유 기업과 용역계약을 스스로 체결해서 유무형의 이득을 챙기고 거기에서 현대산업개발의 직원을 또한 11년간 축구협회 요직으로 파견해서 인사, 총무, 회계, 자금 등 사실상 모든 실무를 관장하면서 그 안에 축구협회가, 매년 300억씩 국가예산이 들어가는 축구협회가 정몽규의 사조직처럼 되는 데 일관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아마 이 부분은 지금 저희 특정감사 사안에 다 있기는 합니다만 축구협회하고 현대산업개발의 관계나 이런 의혹에 대한 것은 실제로는 포함되지 않아서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좀 결정을 해 주시면 이 부분은 별도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배현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문체부 감사로 끝날 사안이 아니라, 게다가 그 대의원 명단에 건설시공사 관련된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었거든요. 11년 동안 깊은 커넥션이나 그것들이 있는지 살살이 살펴보려면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관께도 저희가 다시 한번 문의를 할 텐데요.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의 사유화 및 현대산업개발과의 유착 의혹에 대해서 문체부에서 다루기 어렵다면 감사원 감사로 일임 토록 의견을 주시고 이후에 수사가 필요하다면 즉각 고발해서 대한민국의 많은 축구팬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 해소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알겠습니다.

○ 배현진 위원 이상입니다.

양해해 주신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김승수 위원님 순서입니다.

김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승수 위원 대구 북구을의 김승수입니다.

정몽규 회장님, 저번에 3선 연임이 결정된 이후에 2021년 1월 3선 연임을 승인해 준 김병철 스포츠공정위원장하고 오크밸리에서 골프 치셨다고 그때 확인을 하셨었지요?

○ 증인 정몽규 예.

○ 김승수 위원 김병철 위원장도 엊그제 국정감사에서 쳤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때 비용은 누가 댔습니까?

○ 증인 정몽규 제가 그때 비용을 누가 냈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나고요. 제가 대한체육회 부회장입니다. 그래서 대한체육회 행사였고요. 거기서 각종 협회, 지방협회장……

○ 김승수 위원 아니, 작년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3선 연임 결정 나서 2021

년 그때……

○**증인 정몽규** 3선 연임, 저는 부회장으로서 거기 참석을 했고요. 대한체육회 부회장으로서 참석을 했고요.

○**김승수 위원** 대한체육회 부회장이 왜 스포츠공정위원장 불러 가지고 골프 칡니까?

○**증인 정몽규** 거기에는 모든 위원장들이 다 계셨고요. 그리고, 모든 위원장은 아니지만 많은 위원장님들이 계셨고……

○**김승수 위원**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때는 축구협회 간부 또 민주당 쪽의 정치권 인사 이렇게 해 가지고 한 3개 팀 정도 친 겁니다. 그리고 김병철 스포츠공정위원장은 분명히 본인이 돈을 안 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크밸리에 불러 가지고 그러면 돈 낼 사람이 정몽규 회장밖에 더 있습니까?

○**증인 정몽규** 그때 체육회, 그러니까 대한체육회 부회장으로서 체육회 행사에 참석했던 것입니다.

○**김승수 위원** 지금 위증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작년 4월 달에 또 체육 행사 있었지요?

○**증인 정몽규**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승수 위원** 지금 그것하고 헷갈리시는 거예요.

작년 4월 달의 체육회 행사는 누가 먼저 제안한 겁니까?

○**증인 정몽규** 대한체육회 주관으로 했었습니다.

○**김승수 위원**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어제 이기홍 회장 와서 정몽규 회장이 먼저 제안했다고 그렇게 여기서 증언했어요. 왜 자꾸 거짓말하십니까?

○**증인 정몽규** 저는 거짓말할 이유가 없고요. 대한체육회 부회장으로서 각종 위원회 위원장, 시도협회장, 가맹단체장끼리 정보 교류나 하자고 해서 대한체육회에서 주관해 가지고, 저희가 오크밸리 골프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게 되었습니다.

○**김승수 위원** 정몽규 회장이 초청을 했다고 분명히 이기홍 회장이 10월 8일 국감에서 그렇게 증언했고요.

이렇게 단합 행사처럼 하려고 하다 보니 모양이 이상하니까 급조해서 대한체육회 워크숍 행사를 만든 겁니다. 행사 계획도 그렇고 행사 결과를 보더라도 그날, 하루 전날 5시에 모여 가지고 이기홍 회장 인사말씀한 이 외에 체육과 관련된 논의를 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저녁 먹고 아침 먹고 골프 친 것밖에 없어요. 이게 무슨 워크숍입니까?

그리고 오크밸리에서 그날 골프 치신 분들 또 그날 숙박하신 분들 회원권 가지고 있는 사람 누구입니까? 누구 있습니까?

○**증인 정몽규**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정확히 누가 쳤는지도 잘 기억이 안 나고요.

○**김승수 위원** 자료는 다 있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 회원가를 적용했어요.

그런데 숙박비만 보더라도 50만~75만 원 하는 객실 하나를 14만 원 정도에 사용을 합니다. 그런피도 회원가 적용해서 할인을 받았고요. 무려 한 1000만 원 이상 금품상의 혜택을 받은 겁니다. 회원가 적용하는 것 자체가 엄연히 청탁금지법 위반입니다.

앞서 배현진 위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미 축구협회, 대한체육회는 공직유관단체 이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대상이고 이기홍 회장이나 정몽규 회장이나 두 분 다 청탁금지법

위반이고, 이미 그건 대법원 판례에서도 회원가 적용을 하는 것은 명백히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장관님, 이건 분명히 지금 판례도 있는 것, 청탁금지법 위반이고요. 정몽규 회장도 그렇습니다마는 김병철 스포츠공정위원장은 스포츠공정위원장으로서 자격을 상실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기가 3선 연임 허가해 주고 허가해 준 회장하고 바로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골프를 쳤다는 것은 명백히 대가성, 사후뇌물성 그런 골프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스포츠공정위원장이 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대한축구협회의 홍명보 감독 선임과 관련해서 국민도 홍명보 감독이 역량이 있다 없다가 아닙니다. 그 선임 과정이 명백히 규정을 위반했고 절차를 위배했다는 겁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고.

이런 절차 위반이 그 이전에도 있습니다. 정종선 언남고 축구감독이 있었습니다. 2019년도에 이분이 비리로 인해서 영구 제명처분을 당합니다. 그런데 당시 정종선 감독은 당연직 대의원입니다, 고등축구연맹 회장이었기 때문에. 고등축구연맹 회장은 징계할 경우에 이사회를 거쳐서 하도록 돼 있는데 이사회도 거치지 않고 그냥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그대로 영구 제명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 가지고, 정몽규 회장이 3선 할 때 경쟁 대상이 차범근 감독이 유력하다고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종선 감독이 차범근 감독하고 가깝고 또 축구노조를 만드는 데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규정된 이사회 절차도 거치지 않고 제명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 외에도 밝혀지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정몽규 회장님께서 3선을 하면서 독단적으로, 규정은 전혀 지키지 않고 이렇게 전횡을 하기 때문에 더 이상 4선 연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여론이 축구팬과 우리 국민들의 여론인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깊이 생각하시고 책임 있는 자세를 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증인 정몽규** 예, 감사합니다.

○**김승수 위원** 박기태 참고인, 마이크 앞에……

○**참고인 박기태** 안녕하세요?

○**김승수 위원** 반갑습니다.

박기태 반크 대표님, 먼저 본인 소개 간단히 좀 해 주시지요.

○**참고인 박기태** 한국의 청소년·청년들이, 외교부가 양성한 외교관은 아니지만 전 세계에 한국을 알리고 있는 민간단체의 대표입니다.

○**김승수 위원** 그동안 한 20년 동안 반크의 박기태 대표께서는 우리나라의 역사왜곡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발견해 가지고 수정하는 데 큰 역할을 하셨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것 또 최근에 왜곡 사례 수정한 것, 정정한 것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참고인 박기태** 하버드 경영대학원이지요, 거기서 전 세계 CEO들이 보고 있는 교재에 독도가 빠져 있거나 또 우리 역사가 잘못된 부분이 있었는데 반크 대학생 청년이 하버드 교수에 편지를 보내서 시정하겠다는 답변이 왔고 또 시정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외교관은 아니지만 또 정부 직원은 아니지만 저희 단체에 속하고 있는 초중고, 대학생, 청년들이 수천만 권을 발행하는 교과서 출판사한테 또는 지도회사·출판사들한테 답변을 받고 시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김승수 위원**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왜곡 시정 사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좀 개선이 되고 있습니까?

○ **참고인 박기태** 말한 것처럼 저희가 민간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관련 전문 지식이 있는 문체부 직원이라든지 또는 관련된 협조가 필요한데 좀 그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이런 역사왜곡 사례는 오류가 나오면 문제가 크게 이슈화되어서 정부가 비판받기도 하다 보니까 이것을 책임지고 같이 협력을 하면서 시정하고자 하는 의지는 솔직히 많이 못 봤습니다, 피하려고만 하는 부분이 있어서요.

○ **김승수 위원**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왜곡 사례가 갈수록 더 교묘해지고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대표적으로 보면 우리의 대표적인 애국 시인, 윤동주 시인이 중국 인터넷에서는 국적이 중국으로 나와 있습니다. 삼계탕, 대표적인 우리 한식이 광동요리로 돼 있습니다. 보면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중국의 인터넷 상품 사이트에 보면 중국옷을 한복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인터넷 사이트에는 경복궁을 이씨조선의 최초 왕궁이라고 이렇게 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씨조선의 최초 왕궁 뭐가 이상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이씨조선은 조선왕조를 낮춰 부르는 그런 겁니다.

문제는 이런 것들이 전혀 시정이, 지적을 여러 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정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정정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다 더 큰 문제는……

정정률을 한번 보십시오. 매년 수천 건씩 이렇게 정정 신고가 옵니다마는 시정률이 20% 내외에 머물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정률이 5%밖에 안 됩니다.

보면 더 기가 찬 것은 지금 중국에서는, 특히 X입니다. 옛 트위터에 보면 한국전쟁을 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220만 팔로우를 보유한 굉장히 유명 인사인데 6·25 전쟁도 한국이 먼저 북침을 했고 결과적으로는 중국이 개입을 해서 미국을 완전히…… 전쟁에서 승리했다, 그런 식의 전체적으로 왜곡된 영상이 지금 버젓이 떠돌고 있는 겁니다. 이 영상을 본 조회수만 하더라도 지금 700만 횟수가 넘는다고 합니다.

6·25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청소년들이 대부분일 텐데, 이런 영상을 보면 완전히 잘못된 역사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 **참고인 박기태** 예, 정말 큰 문제고요. 과거에는 중국 정부 위주로 몰래 했는데 지금은 중국 정부가 민간의 참여를 좀 많이 동원해서 전 세계적으로 홍보하고 있고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제가 지금 보여 드리고 있는 각 나라 중국 홍보 관광책자에도 노골적으로 고구려 유적이 중국 유적으로 바뀌어 있고 또 그런 부분이 대표적으로 침해되고 있습니다.

○ **김승수 위원** 더 큰 문제는 세종학당 교재 한번 보십시오.

지금 한류 때문에 한국어 배우는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은데 외국인들을 가르치는 세종학당 교재에 독도가 없습니다. 울릉도, 독도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저도 3분 당겨 쓰겠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외국에서의 역사왜곡 이런 것들도 바로바로 신속하게 수정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한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들을 가르치는 교재조차도 독도가 없는 이런 지도들이 있다는 것 자체는 심각한 것 아니겠습니까, 장관님?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맞습니다. 글쎄, 왜 자꾸 이런 지도에서 울릉도, 독도를 빼먹는지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은데 이건 세심하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반크가 역할이 크고, 민관이 잘 합쳐져서 이런 문제가 더 적극적으로, 오류가 고쳐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 김승수 위원 박기태 대표님, 반크 활동을 하시면서 왜 이렇게 역사왜곡 시정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지 또 정부부처에서의 지원은 어떤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 참고인 박기태 아무래도 이게 한류처럼 뭔가 사람들에게 화려하게 인기 있는 게 아니라 역사왜곡이 터지면 욕먹는 쪽이다 보니까 정부기관 쪽에서 좀 회피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고 또 예산이나 사람 이런 부분에 좀 힘이 안 실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안타까운 것은 저희도 이것을 그냥 시정하는 걸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와 함께 진정성 있게 싸울 의지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 안타깝고요.

또 일본, 중국 역사왜곡이 유치원, 초중고, 대학교, 관광출판물, 미술관, 대학원, 복합적인데 우리나라 정부기관은 부처별로, 관광공사는 관광책만 교육부는 교과서만 또 문체부는 해외 문서 쪽만 해서 포괄적으로, 역사왜곡은 일괄적인데 대처하는 건 분산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책임 의지가 있는 곳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 김승수 위원 지금 해외의 우리나라 역사에 대한 왜곡이나 이런 것들이 전 분야에 걸쳐서 굉장히 광범위하게 나오기 나오고 있기 때문에 문체부의 힘만으로서는 역부족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민간단체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제가 박기태 대표와 유관 부처를 모아서 몇 년 전에 같이 공동 노력하겠다는 그런 협의를 하기도 했습니다마는 제대로 이행이 안 되고 있어요. 특히 문체부가 그래도 주도적으로 해서 유관 기관들을 끌고 가야 되는데 그런 적극적인 역할의 자세를 안 보이고 있다는 거지요. 장관님께서 특히 이 부분에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알겠습니다.

○ 김승수 위원 박기태 대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 참고인 박기태 지금 말한 것처럼 이게 해외 학생들이 보고 있는 교과서인데, 갈수록 역사왜곡이 노골화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고구려 역사를 통째로 중국 걸로 하고 있거나 또 관광출판물에 적극적으로 쓰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외국인들이 오면 한류로만 소비하려고 하고 있지 2억 명의 한류 팬들이 가장 먼저 보고 있는 교과서, 세계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를 책임지고 바꾸자는 의지가 없는 것 같아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문체부가 전 세계 2억 한류 팬 시대에, 그 한류 팬들이 다른 나라가 만들어 놓은 역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홍보할 수 있도록 협조가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 김승수 위원 고맙습니다.

다음은 전성준 Ehoo LTS 여행사 대표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지금 코로나 이전 대비해서 외국인 관광객이 거의 한 90% 넘게 회복률을 보이고 있습

니다마는 특히 중국, 일본, 동남아 근거리 여행객들 숫자는 아주 회복률이 더디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 참고인 전성준 중국 정부 자체가 코로나 이전부터 중국몽이 심했습니다, 관광객 숫자가 많다 보니.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는 동남아시아 국가 관광객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지금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할 것 없이 관광객이 줄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비자 정책 때문에 그렇습니다.

○ 김승수 위원 K-ETA 이게 지금 우리가 전면 도입돼서 하고 있고 한시적으로 한 60여 개국에 대해서는 면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올 연말에 이것도 면제가 만료되는 그런 예정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 참고인 전성준 저희 업계에서는 차라리 예전같이 외교부에서 관광비자를 내줬으면 좋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 김승수 위원 왜 그렇습니까?

○ 참고인 전성준 비자 리젝트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 김승수 위원 특히 지금 태국 같은 경우에는 그것 때문에 한국에 대해서 반감이 굉장히 높다고 하는데요?

○ 참고인 전성준 예, 지금 태국뿐만이 아니라 동남아 국가들의 혐한 분위기가 점차 확산되고 있는 중입니다.

○ 김승수 위원 그렇다고 해서 또 관광비자를 받도록 하게 되면 상호주의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가는 것도 더 힘들어질 수도 있고, 여행이 더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 참고인 전성준 그런데 K-ETA 해서 오히려 지금 더 역효과가 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를 해서 예전의 이탈률하고 K-ETA 실시를 해서 이탈률을 보면 이탈률 비율이 줄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불체자들이 서류를 위조해서 하는 건 더 통과가 되고 순수 관광객들은 전부 다 비자가 거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승수 위원 지금 관광객들 수요가 완전히 회복을 못 한 것도 있지만 관광 트렌드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옛날의 단체관광이나 이런 데서 개별관광이라든지 이렇게 소규모 여행객이 주를 이루다 보니까 또 예약도 플랫폼이나 이런 쪽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 여행사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특히 중소 여행사 같은 경우에는 폐업하는 것이 한 해에 1000개, 2000개씩 업체들이 폐업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 참고인 전성준 예, 그게 아웃바운드들이고요. 제가 하고 있는 업종은 인바운드 업종으로 외국인 관광객을 한국으로 유치하는 그런 업종을 전문으로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사실 코로나 이전의 관광 기반 인프라가 한 60% 정도밖에 안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코로나 때 관광 인프라에 대한 어떤 인큐베이팅이 전혀 안 돼 있다 보니까 지금 관광산업 자체가 관광객은 밀려와도 수용할 수 있는 태세가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 김승수 위원 관광업계에서 볼 때 정부 쪽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지금 관광 트렌드 변화에 따라 가지고 해 줘야 될 부분, 지원해 줘야 될 부분 이런 것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참고인 전성준 제일 큰 게 비자 문제입니다. 지금 동남아 국가 관광객들은 관광 목적이

한 50%, 60%고 나머지가 쇼핑입니다. 그러면 이 쇼핑으로 인해서 한국의 기반산업들이, 관련 산업들이 고용 증대나 세수 증대가 많이 될 텐데 지금 비자 리젝트율이 너무 높다 보니까 혐한 분위기까지 이어지고 주변 국가 중국이나 일본은 노비자로 풀다 보니까 전부 다 그쪽으로 상품이 팔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 **김승수 위원** 장관님, 지금 여행업계의 K-ETA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 번 제기됐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장관님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사실은 저희가 관광회의 할 때마다 법무부나 외교부에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있고요. 그런데 대답은 늘 불체자 문제 때문에 또는 범죄자 이런 얘기가 계속 답으로 돌아오고 있고.

그래도 하여간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특히 동남 아시아의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중국 관광객을 무비자로 받고 있기 때문에 중국서도 우리한테 오는 것보다는 차라리 무비자 있는 나라로 가고 있어서 사실은 좀 어려운 환경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생각을 바꾸기 전에는 이 비자 문제가 단시간에 금방 해소될 것 같지 않아서 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 **김승수 위원** 이게 통계에서 보시는 것처럼 방일 해외 관광객이 방한 관광객의 2배 이상이 됩니다. 2019년도에 1700만 했던 것이 아직 그 수준도 회복을 못하고 있고 장관님께서 말씀, 약속하신 2000만 해외 관광객도 지금 굉장히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관광 트렌드에 맞춰 가지고 좀 더 전반적인 서비스 개선이라든지 제도개선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 대표님, 마지막으로 한번 우리 정부나 또 관광공사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인 전성준** 사실 인바운드업이 서비스업, 소비산업으로 분류되다 보니까 정책에서 제외되고 소외되는 입장입니다. 그 이유가 아웃바운드 국내 여행업이랑 섞여 있다 보니까 인바운드업에 대한 육성책이 쉽게 얘기해서 장기적인 육성책이 없다 보니까 저희 인바운드업 업종들이 많이 소외되다 보니까 국제경쟁력도 많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정부에서 조금 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살펴봐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승수 위원** 감사합니다.

장관님, 지금 인바운드나 아웃바운드나 관광 트렌드가 완전히 변화되고 있고 그 변화되는 속도에 우리가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소멸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는 지방소멸의 가장 효과성 있는 그런 대책이 어떻게 보면 지방관광, 지역관광을 활성화하는 부분인데, 이번 국감에서도 지적이 나왔습니다만 관광특구 이런 것들도 보면 오히려 해외 관광객이 더 줄어들고 있고 제 역할을 못 하는 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역관광도 최근의 여행 트렌드에 맞게 쇼핑을 하거나 맛집을 찾거나 이런 쪽에 맞는 쪽에, 외국인들이 왔을 때도 좀 원활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인프라, 하여튼 트렌드에 맞춘 그런 관광 인프라 구축에 좀 적극적으로 나서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지금 열심히 개선하고, 전국의 우리 책임되는 각 지자체 공무원들하고도 계속 의견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저희 한중일 관광장관

회의 때도 결국 이 지역관광에 대해서는 세 나라가 지금 다 똑같은 조건을 갖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일 먼저 해결하자라는 쪽으로 의견 교환을 해서 공항도 좀 더 열고 직접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삼국 간에는 의견을 계속 나누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승수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참고인 전성준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현 위원 일산의 이기현 위원입니다.

하종대 원장님 잠깐 앞으로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증인은 지난 15일 국감에서 신동욱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식사는 글쎄요, 저희가 한 적은 없기 때문에 준비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맞습니까?

○ 증인 하종대 준비…… 예.

○ 이기현 위원 황성운 실장님은 오전 질의에 전날, 30일 날 여사가 못 간다는 걸 통보했고, 그리고 JTBC 보도를 보면 6만 원짜리 도시락 수십 개를 준비한 정황이 나왔습니다. 준비하지 않으셨어요? 위증 아닙니까?

○ 증인 하종대 제가요 더 이상, 대통령 내외가 오시지 않을 것 같다고 한 다음부터는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게 실무적으로 어디까지 뭐가 어떻게 준비되어 있고 그런 것까지는 보고를 안 받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 하지 말라고 한 상태에서 실무자가 어디까지 준비하고 안 하고까지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 이기현 위원 준비를 하지 않으셨다고 했는데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전날까지.

○ 증인 하종대 그게 거의 마지막 날, 그러니까 31일 날 공연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0일 정도에는 우리가 진짜 못 오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 그 날까지는 준비를 했을 수 있습니다.

○ 이기현 위원 그런데 왜 준비를 안 하셨다고 얘기하셨어요?

○ 증인 하종대 왜냐하면 마지막에 우리가 거기에 직접 음식을 가져왔다든가 그런 적이 전혀 없으니까요.

○ 이기현 위원 준비를 하신 거잖아요.

○ 증인 하종대 기획 단계에서 하는 준비하고 실제로 먹는 것을 준비했느냐 이 질문하고 서로 다르지요. 제가 느끼는 건 그날 식사할 준비가 되어 있었느냐 그렇게……

○ 이기현 위원 속기록을 보시면 명백한 위증입니다.

○ 증인 하종대 저는 그렇게 듣지 않았기 때문에 위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이기현 위원 최재혁 방송기획관, 지금 혼보기획비서관이지요, 순방 관련돼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증인이 대통령실에 특별한 요청을 해서 미국 순방 가게 됐다라고 증언하셨어요. 맞지요?

○ 증인 하종대 예.

○ 이기현 위원 그 당시에 제가 대통령실의 누구에게 요청했냐고 물어봤더니 본인이 기억나지 않는데 찾아보고 답변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입니까?

○**증인 하종대** 그런데 제가 기억을 더듬어 봤는데요, 누구하고 했는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이기현 위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누구에게 요청하셨습니까?

○**증인 하종대** 아니요, 지금 제가…… 사실은 그때 누구하고 했는지 한번, 혹시 저하고 그때 그것 통화했느냐고 좀 알아봤었는데 제가 그분하고 진짜로 했는지……

○**이기현 위원** 그게 누구예요? ‘그분하고’가, 지금 말씀한 그분이 누구예요?

○**증인 하종대** 아니요, 그 안에서는 혹시 자기하고 통화하지 않았느냐고 했었는데 제가 기억이 아닌 것 같은데……

○**이기현 위원** 그 자기가 누구냐고요, 지금.

○**증인 하종대** 그건 정용석 선임행정관입니다.

○**이기현 위원** 그러면 정용석 선임행정관, 문체비서관실의 선임행정관에게 본인이 데리고 있었던 최재혁 방송기획관이 여사님과 대통령이 가는 해외순방에 따라가게 해 달라고 본인이 요청을 하셨다 이 얘기인가요?

○**증인 하종대** 아니요, 저는 좀…… 제 기억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기현 위원** 아니에요? 왜 말이……

○**증인 하종대** 왜냐하면…… 어쨌든 제가 좀 알아본 바로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 기억에는 그러지 않아서, 제가 정확지 않아서……

○**이기현 위원** 최재혁 방송기획관은 기자가 아님에도 순방단에 포함이 됐어요. 그리고 전용기 타고 모든 일정에 동행을 합니다. 그리고 관용여권을 발급받았어요. 저는 관용여권에 주목하는데 관용여권을 발급할 수 있는 추천, 외교부에 관용여권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은 본인이 일하던 KTV든지 아니면 속해 있는 문체부든지 아니면 한 달 후에 가게 될 대통령실이 3개 중 하나입니다. KTV도 문체부도 관용여권을 외교부에 신청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누가 관용여권을 줬다고 생각하세요?

○**증인 하종대** 이기현 위원님께서 아마 비서관을 하셔 가지고 잘 아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그런 여권을 어떻게 신청하고 그런 것까지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이기현 위원** 화면 좀 띠워 주실래요?

김건희 여사 관련된, 다음 페이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실명이 언급된 김 여사 라인들이 있습니다. 최재혁 비서관이 그 한 가운데에 있어요. 채널A의 보도입니다. 8명이기도 하고 9명이기도 하고 칠상시라고 7명으로 지칭하기도 합니다. 전직들을 빼면 7명이 맞겠지요. 최재혁 방송기획관이 이 행사가 끝나고 열흘 후에 ‘대통령실 홍보기획관으로 내정, 유력’ 이런 보도가 됩니다.

제가 검증 한번 해 봤는데 1급 비서관들의 검증에는 최하 20일에서 한 달이 소요됩니다. 최재혁 방송기획관은 이미 홍보기획관으로 내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본인이 검증 동의를 하고 검증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저 공연을 만들었고 갖다 바친 겁니다. 원장님은 모르셨다고 하면 방송기획관에게 놀아난 겁니다.

○**증인 하종대** 지금 그 내정 사실을 알았느냐고 물으시는 겁니까?

○**이기현 위원** 묻지 않았어요.

김건희 여사의 7간신 얘기가 자꾸 나옵니다.

한번 화면 띄워 주시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도 명태균이라는 자가 요새 나와서 세상 국민들을 어지럽게 만들고 있는데 이 양반이 음지의 책사였다면 최재혁 지금 홍보비서관은 김건희 여사 지근거리에서 활동하고 모시고 있는 양지의 책사 같아 보입니다. 국민의 혈세 8600만 원이 KTV를 통해서 그들이 자신의 입신양명을 위해 김건희 여사에게 상납한 공연이 되는 것입니다.

사건이 터지고 수습하는 과정에서 지금 대통령실에 앉아 있는 김건희 여사 라인으로 통칭되고 있는 최재혁 방송기획관의 지시에 따라서 문체부도 KTV도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동원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장관은 유병채, 황성운 두 실장을 보호하려고 거짓말을 하고 계신 겁니다, 제가 보기에도.

부당한 공연에 국고 8600만 원이 낭비된 사건입니다. 저는 최재혁 방송기획관에 의해서, 지금 현 홍보기획비서관에 의해서 황성운 실장과 유병채 실장을 비롯한 문체부가 이 놀음에 동원됐다 내지는 방조했다, 저는 공범이라고 판단합니다. 유인촌 장관께서는 정말로 눈 크게 뜨시고 이분들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존경하는 이기현 위원님, 문체부는 KTV가 이런 공연을 하는지 녹화를 하는지 전혀 여기 관여한 바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마지막에 VIP께서 오신다, 안 오신다 이런 것 때문에 얘기를 들었고 안 오신다고 해서 저도 안 간 거고, 사실은 크게 다 관심을 안 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뭘 같이 동조를 해서 했다 이런 개념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고요.

KTV는 기본적으로 엑스포를 하기 위해서 만든 국악공연이다 이렇게 시작을 한 거니까 아마 본인들이 그냥 그 공연을 진행시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실제적으로 여기에 더도 말고 할 게 없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기현 위원 이미 이번 국감 기간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실들이 확인됐고 문체부와 그리고 KTV가 대통령실의 지시하에서 이 사건의 진실을 은폐하려고 했던 시도들이 여러 군데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체부도 KTV가 보내 준 사실만 믿고 황급하게 보도자료를 낸 것이 그 방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절대 자유로울 수 없다. 그리고 이 이후에 있을 청문회든 현안질의에서 이 문제는 다시 한번, 이 하나 안을 가지고 다시 다룰 수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들어가십시오.

○증인 하종대 위원님, 저도 한 말씀 좀 드려도 되나요?

○이기현 위원 들어가세요.

저도 3분 당겨서 같이 쓰겠습니다.

정몽규 회장님, 잠깐만 일어나 주시지요.

지난 9월에 있었던 현안질의에서 홍명보 감독 선정의 불공정성에 대한 많은 위원들의 질타가 있었고 국민적 분노가 표현된 현안질의였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클린스만 감독, 홍명보 감독 앞에 있었던 클린스만 감독의 선정에 있어서도 대한축구협회가 대단히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라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 드리고.

10월 2일 문체부에서 발표한 축구협회에 대한 중간결과 발표를 한번 띄워 주시지요.

회장님께서 직접 클린스만 감독에 대해서 2차 온라인 면접 진행하셨지요?

○증인 정몽규 면접이라기보다는 협상의 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기현 위원** 문체부의 이 감사 중간 브리핑을 보면 클린스만 감독 선임에 있어서 전력강화위원회를 완전히 무력화시켰고 정몽규 회장님께서 2차 면접 당시에 1·2순위 후보를 직접 온라인으로 면접했고 관련된 서류는 일체 남아 있지 않다라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이사회 선임 절차도 누락되어 있습니다. 이건 그다음에 이어지는 홍명보 감독의 선임 절차에서도 회장님의 이런 전횡들이 다 녹아서 나타난 것입니다.

홍명보 감독 선임 관련돼서 저희들이 그 질타를 했을 때 그 뒤에 대한축구협회가 냈던 보도자료가 있습니다. 대한축구협회 입장이라고 그러는데 ‘만남의 방식은 다를 수 있으며 따라서 특혜라고 부를 수 없다’, ‘불공정한 것이 아니다’, 홍명보 감독의 뺑집 면접에 대해서는 이렇게 평가를 하셨습니다.

인사의 핵심은 공정한 절차입니다. 그것이 핵심인 것입니다. 뺑집 면접을 어느 누구도 공정한 면접으로 볼 수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인 정몽규** 외국 두 감독의 경우에는 현재 현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만나든 어떻게 만나든 그것은 아무, 본인의 이해와 큰 상관이 없을 것 같고, 홍명보 감독은 울산 현대에서 좋은, 리그 1위를 하는 등 좋은 팬들의 성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현직에 있는 감독과 직업이 없는 감독의 면접 방법은 당연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기현 위원** 홍명보 감독의 면접의 상황은 위증 혐의로 지금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고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대한축구협회가 홍명보 감독을 찾아가서 25억 이상의 연봉을 제공하고 이것을 줄 테니 제발 맡아 달라고 읍소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이 아닙니까?

○**증인 정몽규** 말씀하신 액수에 대해서도 정확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기현 위원** 정확하게 알려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제가 모릅니다. 언론에 나온 금액이 약 20억 정도로 추산된다고 하고 있지요.

○**증인 정몽규** 이번 감독 선임에 관해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감독 선임 과정이 다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알려지지 않아야 할 후보 명단이나 계약 조건이 외부에 알려지게 되고 이것이 앞으로 추후 국내외 감독 선임에 커다란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 알려지지 않아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계약서상에서도 그게 밖으로 알려지지 않게 돼 있습니다.

○**이기현 위원** 회장님, 회장님의 책임을 지금 전가시키시는 거예요. 클린스만 감독 선임, 홍명보 감독 선임에 있어서 전력강화위원회를 무력화하고 회장님이 꾹한 두 사람을 무리하게 뭘러 위원장을 통해서, 정해성 위원장을 통해서, 이임생 이사를 통해서 집행하신 겁니다. 그렇게 공정한 절차들이 무시되고 회장님의 뜻을 받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민주적 절차들이 다 깡그리 채 무시됐기 때문에 앞으로 좋은 감독을 모시기 어려워진 겁니다. 왜 본인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시고 외부에 책임을 돌리십니까?

○**증인 정몽규** 잘못 알고 계신다고 생각이 듭니다. 전력강화위원회에서 추천한 감독을 제가 취임한 이후에 한 번도 안 뽑은 적이 없습니다. 전력강화위원회에서 1순위로 후보를 추천했을 경우에 저희가 협회에서 당연히 네고 과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협회의 예산은 공적인 부분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아껴 써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항상 네고는 했지만 전력강화위원회를 무력화했다, 제 의견을 미리 얘기했다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건 자신합니다.

○**이기현 위원** 제가 회장님과 이런 질의를 두 번째 하게 되는데요.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느낌입니다. 분명히 근거가 있고 그리고 이런 절차에 의한 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장님은 이러한 절차들이 다 절차에 따른 민주적인 집행이었다라고 주장하시는 데 어느 누구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국민들은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축구를 사랑하는 모든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데 회장님만 그렇게 주장하시면 안 됩니다.

○**증인 정몽규** 저희가 하는 게 100%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항상 그 규정에 맞춰서 잘하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기현 위원** 대한축구협회의 정몽규 회장님을 비롯한 현대가 31년째 지금 협회를 장악하고 계시고 또 4선 가시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습니다. 세간에서는 어떤 얘기가 도냐면 몽 자 돌림의 협회장 끝나고 나면 선 자 돌림으로 내려서 40년 이상 축구 협회를 장악하려고 한다는 그러한 세간의 이야기들이 돌아다닙니다. 정말 참담합니다. 저는 이런 의혹을 받는 그리고 대한축구협회를 사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현대가의 이런 행태 이제 끝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선시대 임금의 평균 임기, 재임 기간이 18년이었습니다. 몽 자 돌림에서 34년, 35년 그리고 선 자 돌림까지 간다는 얘기가 세간에 나오고 있는데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지금 대한민국 대명천지에 축구협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회장님, ‘축구의 시대’ 마지막 페이지에 회장님께서 뭐라고 쓰셨느냐면 ‘내가 앞으로 어떤 자리에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내 인생에 큰 가르침과 기쁨을 주었던 축구에 대한 고마움을 항상 갚아 나가려고 한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저는 그 고마움을 갚는 것은 지금 회장님께서 결단하시고 축구협회를 떠나셔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제 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정몽규** 계속 현대, 현대 말씀하시는 데 경제적으로 다 계열 분리되어 있습니다. 굳이 말씀드리자면 남녀 프로팀 4개 이상을 운영하고 있고 연령별 대표팀도 10개 이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내 축구계에 매년 1500억 이상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국정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오후 5시 45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감사중지)

(17시49분 감사계속)

○**위원장 전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서 김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위원** 하종대 증인, KTV 국악공연 김건희 씨 오는 거 기왕에 알고 있었지요?

○**증인 하종대** 언제 알고……

○**김재원 위원** 기왕에 알고 있었지요?

○**증인 하종대** 이왕에 알고 있었냐고요? 이왕이 무슨 말씀이신지……

○**김재원 위원** 기왕에.

- 증인 하종대** 기왕에요, 기왕에를 언제를 말씀하시는……
- 김재원 위원** 기획 단계에서부터 끝날 때까지 알고 있었지요?
- 증인 하종대** 오시는 걸 알고 있었냐고요?
- 김재원 위원** 예.
- 증인 하종대** 그렇지 않습니다.
- 김재원 위원** 몰랐다면 알게 된 시점 언제입니까?
- 증인 하종대** 격려 방문 오신 거요?
- 김재원 위원** 예.
- 증인 하종대** 저는 오실 때까지도 몰랐습니다.
- 김재원 위원** 황성운 문체비서관은 원래 서로 아는 사이에요?
- 증인 하종대** 예.
- 김재원 위원** 직접 전화하신 거예요, 그러면?
- 증인 하종대** 어떤 것에 대해서요?
- 김재원 위원** 이것 공연 관련해서요.
- 증인 하종대** 국악공연 관련해서요?
- 김재원 위원** 예.
- 증인 하종대** 문체비서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원래 업무를 협의할 때 기본적으로 업무 협의하는 라인 중의 하나입니다.
- 김재원 위원** 알겠습니다.

하종대 증인 들어가세요.

황성운 기획조정실장, 실장 오전 질의에서 김건희 씨에게 공연 관련 보고한 사실 있느냐는 본 위원 질문에 부속실에 문서 공유했다고 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 황성운** 예.

- 김재원 위원** 누가 보고했습니까? 직접 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 황성운** 보통 행정관이 보고하거나 아니면 그때 제 기억에 일정 회의에도 올린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공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재원 위원** 그때 당시에 KTV하고 황제관람 논의하고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전달했는지 전달한 사람 누군지 부속실로 공유한 과정과 경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보세요.

-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 황성운**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일정 회의를 했으니까 그걸로 공유됐고요. 중간 사항은 중간중간에 아마 매일이나, 부속실에도 담당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일부 상황을 공유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재원 위원** 그 매일 내용과 문서 제출해 주세요.

-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 황성운** 그것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 김재원 위원** 그것 찾아내세요.

-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 황성운** 못 찾습니다, 위원님. 그것 할 수가 없습니다.

- 김재원 위원** 그때 당시에 했었던 사람 누굽니까? 그거라도 찾아서 얘기해 주세요.

-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 황성운** 확인해 보겠습니다.

- 김재원 위원** 아까 공연 자료 공유한, 저한테 부속실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부속실이

도대체 뭐니까?

○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장 황성운 대통령과 여사님 관련 지원 업무를 하는 팀을 부속실이라고 부릅니다.

○ 김재원 위원 정용석 당시 문체비서실 행정관이 27일 여사 컨펌받았다는 녹취방송 보도가 있었습니다. 여사에게 컨펌받은 내용 뭐니까?

○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장 황성운 그거는 그 목소리가 정용석 행정관 목소리 아닌 것 같던데요. 하여튼 어쨌든 저희가 구체적으로 그런 상황을 공유하고 있다 그런 취지로 이야기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 김재원 위원 컨펌받았다는 내용이 뭐냐고요?

○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장 황성운 컨펌받아야 된다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 김재원 위원 컨펌받았다고 내용이 나왔습니다.

○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장 황성운 저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 김재원 위원 녹취 들어 보면, PPT 녹취 하나 들어 보시지요.

(녹음자료 재생)

녹취 들어 보면 대통령실 차원에서 행사 준비하는 단위도 여러 곳이 참여를 해서 업무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보도에서 언급했듯이 여사한테 보고하는 라인도 여러 곳 있다는 정황도 이미 공개됐습니다.

보고하는 조직 대상이 부속실이라는 겁니까?

○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장 황성운 예?

○ 김재원 위원 보고하는 대상이 부속실이라는 거냐고요? 아까 대답한 것처럼, 아까 오전에 얘기한 것처럼.

○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장 황성운 어떤 내용 말씀입니까?

○ 김재원 위원 보고를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장 황성운 공유를 하고 그렇게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 김재원 위원 공유하고 보고하고 뭐가 달라요?

○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장 황성운 보고는 직접 가서 보고했냐고 그러시길래 그렇게는 하지……

○ 김재원 위원 아니요, 아까 문서로 공유했다고 얘기했지요?

○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장 황성운 예.

○ 김재원 위원 문서로 보고했냐고 제가 물어보니까 문서로 공유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대상이 부속실이냐고요?

○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장 황성운 부속실도 포함되어 있지요.

○ 김재원 위원 현재 김건희 씨 담당하는 제2부속실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실장이 이야기한 부속실은 제1부속실이지요?

○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장 황성운 부속실이 통합되어 있고요. 그 안에 여사님 담당하는 행정관들이 있습니다.

○ 김재원 위원 업무보고를 하는 게 사실은 문체비서관의 역할인가요?

○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장 황성운 그러니까 KTV에서 문화 관련 행사를 저희에게 요청을 해 왔기 때문에 검토해서 당연히 공유하고 그 행사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알려

드리고 하는 게 저희 역할이지요.

○ **김재원 위원** 공식적인 여사 부속실이 없는데, 공식적인 부속실이 없고 여사는 그냥 의전하고 경호만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업무보고를 해요? 업무자료를 공유해요?

○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장 황성운** 정보를 공유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 **김재원 위원** 그러니까 공유를 왜 해 줘야 되는 거지요? 대통령실 문체비서관이잖아요?

○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장 황성운** 예.

○ **김재원 위원** 여사는 그냥 계신 것 아닙니까? 대외활동 안 하시는 분이잖아요, 원래?

○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장 황성운** 아니, 하실 때도 계셨지요, 그때는.

○ **김재원 위원** 그쪽이 공식적인 제2부속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쪽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겁니다.

다음, PPT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면)

그 부속실에 속해 있는 인물들 누구입니까?

○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장 황성운** 예?

○ **김재원 위원** 그 부속실에 속해 있는 인물들이 누구예요?

○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장 황성운** 무슨 말씀이십니까?

행정관들 이름은 정확하게 제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 **김재원 위원** 몇 명 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장 황성운** 예?

○ **김재원 위원** 몇 명이예요?

○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장 황성운**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몇 명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재원 위원** 다음 사진 주세요.

이 사람 아시지요?

○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장 황성운** 총무 쪽이 아닌가 싶은데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 **김재원 위원** 이분 역할이 뭐니까? 모르겠어요?

○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장 황성운** 예, 제가 실무자들까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 **김재원 위원** 이 사람이 누군데 사전 논의 장소에 정용석 사장하고 같이 있었습니까? 모릅니까?

○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장 황성운** 정확하게 무슨 역할을 하시는 분인지는 제가……

○ **김재원 위원** 이 사람 누구인지 확인해서 오늘 국감 종료 전에 본 위원한테 신원과 역할 그리고 사전 답사에 동행한 사유 얘기해 주십시오.

○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장 황성운** 확인해 보겠습니다.

○ **김재원 위원** 본인이 모른다고 그러시니까, 정용석 행정관하고 함께 있었으니까 물어봐서라도 확인해서 답변하십시오.

곽영진 이사장 나와 주십시오.

증인은 지난 17일 국정감사에 불출석사유서 제출하고 출석 거부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국회법 조치에 오늘 증인의 답변 태도가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에만 답변하십시오.

증인, 문저협이 쌓아 둔 미분배 보상금 105억 원, 적당한 수준이라고 보십니까?

○증인 곽영진 아닙니다.

○김재원 위원 어느 규모가 적정하다고 보나요?

○증인 곽영진 규모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또 불가피한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도 처음 업무보고 받으면서 이게 너무 액수가 많다. 왜냐하면 보상금은 저작자들한테 당연히 돌려줘야 되는데 들어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어서 그 부분은 최대한 줄이도록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원 위원 증인, 문저협, 한강 작가에게 저작권사용료 단 한 번도, 단 한 편도 지급하지 않았지요?

○증인 곽영진 결과적으로 지급한 게 없습니다.

○김재원 위원 노벨문학상 수상한 작가도 안 가는데 이름 덜 알려진 작가들은 얼마나 많은 분들이 못 받겠습니까?

○증인 곽영진 그것은 사실하고 다릅니다.

○김재원 위원 PPT 보시지요.

○증인 곽영진 유명, 무명을 떠나서 교과서에 수록된……

○김재원 위원 질문에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증인 곽영진 아닙니다. 그 말씀은 드려야지요.

○김재원 위원 그럼 보시지요.

심지어 한강 작가 저작권을 가진 출판사에 거짓 자료도 보냈지요? 결과적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했습니다. 문저협, 2023년 1월, 같은 해 3월, 2024년 6월, 최근 총 3회에 걸쳐서 한강 작가 대리하는 출판사에 화면과 같은 권리관계확인서 엑셀파일을 발송했습니다. 저작권사용료 신청 기준입니다. 즉 이 명단에 포함되지 않으면 신청할 사용료가 없다는 문저협의 안내자료입니다. 총 34건 전부 누락했고요. 2년 동안 3회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허위 자료를 발송한 겁니다. 결국 해당 출판사는 사용료 신청 못 했고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 편도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증인, 허위 자료를 보내서 사용료 신청 못 한 한강 작가와 출판사에 문저협의 단체장으로서 사과하겠습니까?

○증인 곽영진 조금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보여 주신 그 자료는 한강 작가의 발행사가 저작재산권을 100% 가지고 있는 경우만 보낸 경우고요. 보통은 우리 출판 관행을 조사해 보면 저자와 출판사가 저작재산권을 반반 갖는 경우가 한 40% 정도 나오는 것 같고, 하여튼 비율에 따라서 전부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지난번에 위원님이 지적하실 때도 몇몇 작가들이 저자가 왜 거꾸로 신청해서 받아야 하느냐 그런 보도가 있어서 저희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마는 권리관계를 확인해야만 되는 상황이라서, 저희는 한강 작가한테 접촉하려고 애를 썼는데 유감스럽게도 출판사를 통해서 했던 부분이나 마지막까지 결국은 못 했습니다.

○ **김재원 위원** 자, 그만하세요.

○ **증인 곽영진** 마지막에 해서 지금은 접촉 중이지만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 **김재원 위원** 질문에만 답변하시라고 얘기했습니다.

저작권자들, 문저협 보상금 수령 단체로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이 자료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자료예요.

지난 국감 이후에 문체부, 본 위원에게 개선방안을 제출했는데 개선방안 핵심이 오는 11월 내에 회계감사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연내 보상금 수령 단체 적격 여부를 심사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저협이 저작권자 이익을 대변하지 않고 불성실하게 업무를 해태해서 곳간에 105억 원이라는 돈을 쌓았다는 증거가 찾을 때마다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문저협은 저작권자에게 연락할 방법이 없다라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고 있는데 장관, 문체부 회계감사로 지금 말씀드린 저작권자를 속이는 허위 권리관계확인서 발송, 이에 따른 미지급 발생 문제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문저협 그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 **김재원 위원** 문체부가 일단 보상금 수령 단체 업무를 정지시키고 본격적으로 문저협의 보상금 업무 전반을 조사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조사결과에 따라서 협회의 책임 있는 임원에게 책임을 묻고 저작권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단체로 거듭나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권리자의 연락처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작료는 따박따박 받아먹습니까? 그리고 쌓아 둡니까? 5년 있으면 그것 다 여기 문저협 돈이 되는데요.

○ **증인 곽영진** 위원님, 그 부분은 분명히 사실하고 너무 다르기 때문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길게 말씀……

○ **김재원 위원** 질문에만 답변하시라고 했습니다. 장관 답변하실 차례예요.

○ **증인 곽영진** 사실을 말씀드려야지요. 그러면 이따 기회를 주십시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제 답변보다는 직접 들어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 **증인 곽영진** 왜냐하면 지금 제일 근본적으로 달리 생각하시는 게 미분배 보상금이 쌓인다고 문저협의 사업비가 늘어나는 게 전혀 아닙니다. 분배를 해야만 그중의 일부 수수료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거기 직원들이 저작자를 찾아서 보상금을 주는 게 기본 임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걸 의도적으로 5년간 쌓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겁니까? 지난번에도 말씀하신 것 중에……

○ **김재원 위원** 그런데 105억씩이나 쌓여요?

○ **증인 곽영진** 심각한 말씀이 전산시스템을 다 바꿨는데, 더 찾기 좋게 성능을 17억 7000인가 들여서 3년간에 걸쳐서 바꿨는데 아직도 완전하지는 않습니다만 누구나 다 검색해서 빨리 찾아가도록 하는 게 저희 임무고, 또 이번에 사실은 위원님 지적 덕분에 저희가 미비한 부분은 질책을 받지만 저자들이 빨리 저희한테 접촉을 해서 보상금을 받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위원님께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 **김재원 위원**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신탁 단체에 관해서는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 변명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증인** **곽영진** 변명이 아니고 사실입니다.

○**김재원 위원** 장관, 일단 보상금 수령 단체 업무 정지시키고 문저협 보상금 업무 전반 조사하고 점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일단 저도 이번에 문저협의 내용은 처음 알게 됐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여기는 민간 협회 단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관여는 안 했거든요, 그동안에. 그 내용을 이번에 좀 확실히 알아보고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증인과 참고인 신청을 하신 위원님 중 마지막 질의 순서로 임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오경 위원** 위원장님, 시간 잠깐 꺼 주시고.

이틀 전에 국감 칙복싱 관련해서 경과보고 요청을, 대한체육회에서 양우영 증인이 나와서 경과보고를 해 주기로 했는데 안 들으시겠습니까?

○**위원장** **전재수** 그 자료는 우리 위원님들 책상 위에 다 배포를 해 드렸기 때문에 그걸로 갈음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위원님들 책상 위에 다 배포를 해 드렸습니다.

○**임오경 위원** 오늘 증인이 선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먼저 말씀드리지만 제가 오늘 질의하는 데 있어서 증인에게는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질의에 앞서 우리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최보근 국장님 나와 계세요? 나와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이정우** 바깥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임오경 위원** 대한체육회 이기홍 회장님이 안 나오셨는데 제가 작년,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감사를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 이정우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어요? 감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이정우** 제가 듣기로는 대한체육회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오경 위원** 제가 지난해 문체부와 그리고 대한체육회 회장에게, 두 군데에 요청을 드렸습니다. 이것 관리감독 누구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이정우** 그런데 협회 인준에 관련된 사항은 사실 대한체육회 전권사항이어서 저희 작년도에……

○**임오경 위원** 이렇게 또 말씀 들으면 방관하고, 그렇게 중요한 사안을 관리감독하셔서 보고를 받으셔서 저희 의원실에 보고를 해 주셨어야지요. 지금 이럴 때는 대한체육회에다가 또 넘기고, 보고를 받으셨어야지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이정우** 제가 듣기로는 작년에 대한체육회에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렸다고 들었습니다.

○**임오경 위원**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앉으세요.

작년 국감에서 했던 칙복싱 단증 부정발급 관련 제 질의영상을 먼저 좀 보시겠습니다.

영상 좀 틀어 주세요.

(영상자료 상영)

잘 들으셨지요? 그런데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장관님, 제가 지난해 국감 때 현장에 문제가 많아서 이것 감사를 좀 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오늘에 이르게 된 것 같습니다.

강신준 증인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증인 강신준 나왔습니다.

○임오경 위원 이를 전 증인은 작년 제가 질의한 단증 부정발급 실태 영상에 대해 ‘그 녹취록은 모두 조작된 겁니다. 저 목소리는 제가 아닙니다. 그 질문으로 인해 다른 분이 괴로워하다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라고 발언했습니다. 맞습니까?

○증인 강신준 맞습니다.

○임오경 위원 지금 화면에 나오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증인 강신준 MBN 방송 아닙니까?

○임오경 위원 예, 맞아요.

○증인 강신준 그것은 위원님께서 녹취록을 틀었던 그 관장이 아닙니다. 그때 그 체육관 관장은 서초동에 있는 킥복싱체육관 관장이 맞습니다.

○임오경 위원 증인, 지금 이것은 작년 국감에서 제가 듣는 겁니다. 제가 지난해 국감에서 했던 것을 지금 보여 드린 겁니다.

○증인 강신준 지금 저것은 MBN 방송하고 짜깁기한 겁니다. 임오경 위원께서 국감에서 틀었던 그 녹취록은 그게 맞고요. 원하시면 제가 녹취록을 그대로 들려 드릴 수 있습니다. 1분 내외인데 한번 들어 보겠습니까?

○임오경 위원 아니오.

그려면 지금 이 녹취파일을 MBN이 짜깁기해서 올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증인 강신준 아니요, 저것은 MBN이고요. 그때 위원님께서 하신 것은 그 체육관 관장이 맞습니다.

○임오경 위원 증인, 제가 지난해 국감 때 틀었던 영상을 지금 보여 드린 겁니다.

○증인 강신준 아닙니다.

○김윤덕 위원 아니, 팩트를 말하는데 지금 태도가 뭐야.

○증인 강신준 어떤 태도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윤덕 위원 나한테 물어봤어요?

○증인 강신준 저한테 태도를 말씀하시길래 제가 물어봤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자, 증인……

○김윤덕 위원 저번 국정감사에 듣 영상이라고 하면 맞는 것 아니야. 당신 작년 국감 봤어요, 와서?

○증인 강신준 예, 봤습니다.

○임오경 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제가 이를 전에 증인에게 속기록까지 전달을 해 줬습니다. 그렇지요? 작년, 지난해에 있었던 속기록까지 전달을 해 드렸어요, 그래서 이것 한번 보시고 나오라고. 그래

서 오늘 답변을……

○증인 강신준 이틀 전에 저 자고 있는데 위원님이 데려가서……

○임오경 위원 잠깐만요, 제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증인 강신준 강제로 저 이끌고 가서 저 협박하셨지요?

○임오경 위원 다시 말해요. 오늘 다시 증인으로 나오니 지난해에 있었던 속기록을 제가 직접 프린트해서 드리고, 그날 있었던 것 프린트해서 드려서 이것을 잘 정리해서 나와 주십시오 요청드렸지요?

○증인 강신준 그래서 킥복싱 단증 없앤다고 그리고……

○임오경 위원 제가 그렇게 요청드렸지요?

○증인 강신준 어떤 걸요? 죄송한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임오경 위원 제가 2023년 국정감사 속기록 프린트해서, 이를 전에 있었던 속기록까지 제가 정리해서 그것 드렸지요? 국회에서 받은 겁니다, 행정실에서.

○증인 강신준 예.

○임오경 위원 그래서 그것을 읽고 오늘 정리해서 나와 주십시오라고 부탁드렸지요?

○증인 강신준 예.

○임오경 위원 그겁니다, 지금 보여 드린 것.

○증인 강신준 제대로 얘기 안 하시면 다른 방법을 취하신다고 그러셨지요? 그래서 그것 제가 협박이라고 말씀드렸지요.

○임오경 위원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그렇게 배려를 해 드렸습니다. 저는 협박한 적 없습니다. 배려를 해 드린 겁니다. 배려를 협박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지금 모욕입니다. 위증이고요.

○증인 강신준 지금 영상은 MBN 영상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MBN 영상이라고 찍혀 있잖아요.

○임오경 위원 묻는 말에 답변하세요.

여기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고 방송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국감 것을 틀었는데 이게 가짜라고 짜깁기했다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증인 강신준 가짜라고, 짜깁기……

○임오경 위원 그래서 선서를 안 했습니까?

○증인 강신준 아니요……

○임오경 위원 들어 주십시오.

다음 넘어가요.

이것 작년 10월 강신준 증인의 수원 소재 체육관에서 녹음된 파일입니다. 제가 한 게 아니고요 MBN에서 한 겁니다. 본인 목소리가 아니라고 지금 짜깁기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언론사에서도 강신준 증인이 맞다고 확인해 줬습니다. 확인 다 받았고요.

그리고 여기 사진 속의 사람 본인 맞지요? 맞습니다. 짜깁기한 거 아닙니다.

그리고 작년 MBN 보도 내용의 목소리가 본인이 맞음에도 본인이 회원들에게 보낸 공문에 따르면 서초구 모 관장의 목소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전 국회에서도 그랬고요. 결국 본인이 거짓말을 하기 위해 엉뚱한 관장을 피해자로 몰아가고 국회를 기망하고 본 위원을 모욕하고 명예훼손까지 했습니다.

- 지금 인정 안 하고 싶으신 거예요?
- 증인 강신준** 존경하는 임오경 위원님……
- 임오경 위원** 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세요. 오늘 선서를 하지 않으셨어요.
- 증인 강신준** 아니, 존경하는 임오경 위원님……
- 임오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존경이라는 말 빼시고 묻는 말에 답변해 주시라고 했어요. 저는 이를 전에 있었던 말을 하는 겁니다.
- 증인 강신준** 지금 MBN 방송이 찍혀 있잖아요. 그건 MBN 방송 거고 위원님께서 현장에서 녹취록 튼 것은 강남 서초구에 있는 체육관 관장의 목소리가 맞습니다. 그때 PT 비용도 얘기를 했고요. 그때 그 비용에 대해서 뭐 속성으로 딸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던 것도 맞고요. 다만 그때 그것은 특별심사를 얘기했던 거고요. 거기에는 제 목소리가 아닙니다.
- 임오경 위원** 그러니까 원본인데 MBN이 짜깁기했다, 지금 나온 게?
- 증인 강신준** MBN이……
- 임오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인은 맞잖아요?
- 증인 강신준** 제가 그렇게 말했나요?
- 임오경 위원** 그러니까 본인은 맞잖아요?
- 증인 강신준** 저기 내용은 제가 맞습니다.
- 임오경 위원** 그러니까 맞잖아요?
- 증인 강신준** 예.
- 임오경 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2023년 국정감사 때 나왔던 방송입니다. 그래서 제가 속기록까지 드린 거예요, 확인 한번만 해 주시라고. 그런데 본인이 아니라고 지금 위증을 하고 있어요.
- 증인 강신준** 예, 저 속기록 봤고요. 저도 집에 가서 다시 찾아봤고 동영상을 다시 다운로드 받아 가지고 계속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임오경 위원** 국정감사 때 틀은 게 원본이라고요.
- 증인 강신준** 그런데 지금 저 영상은 그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왜 제가……
- 임오경 위원** 아니, 이게 지난 국정감사 때 나왔던, 제가 국정감사 때 했던 질의라고요.
- 증인 강신준** 제가 그러면 그 당시에 통화했던 해당 관장, 1분밖에 안 되는데 그 녹취록을 한번 틀어도 되겠습니까?
- 임오경 위원** 그러면 지금 그 자리에서 선서하십시오.
- 증인 강신준** 어떤 선서요?
- 임오경 위원** 증인 선서요. 그러면 제가 그 녹취록 틀게 해 드리겠습니다.
- 증인 강신준** 어떤 선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 임오경 위원** 오늘 선서를 안 하셨잖아요?
- 증인 강신준** 아니,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영상을……
- 임오경 위원** 아니 틀고 싶다라는 것, 녹취를 틀고 싶으면 지금 그 자리에서 선서를

하십시오.

○증인 강신준 그 녹취록에 나왔던 그 관장이 맞다고 하면 제가 선서하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아니, 선서를 먼저 하시고 녹취를 틀으시라고요. 선서를 안 하신 분이 왜 이렇게 요청사항이 많으십니까?

○증인 강신준 그 내용이 맞는 건지 얘기를 해 줘야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포괄적인 걸 하게 되면 지금 수원지방법원이라든가 제가 고소한 사건들에 대해서 제가 피해를 볼 수가 있어요.

○임오경 위원 이것은 증인이 이틀 전에……

○증인 강신준 제가 이기홍 회장도 고소를 해 놓은 상태인데 지금 이게 전반적으로……

○임오경 위원 제가 묻는 말에만 답하세요. 오늘 선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틀 전에 참고인으로 나와서 본인이 저에게 어떤 말을 했습니까? 말씀 다시 한번 해 보세요.

○증인 강신준 어떤……

○임오경 위원 저에게 했던 말 다시 한번 해 보세요.

○증인 강신준 김종민 씨가……

○임오경 위원 아니요, 그거 말고요, 이 영상에 관련돼서.

○증인 강신준 이 영상에 관련돼서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니, 그 관장이 맞는 거라고 한다고 하면 제가 선서를 하고 녹취록 틀겠습니다. 1분이면 됩니다.

○임오경 위원 다시 말씀드려요. 지난 국감에서 제가 했던 영상이 그대로 있습니다. 선서하시고 하십시오, 그러면.

○증인 강신준 예.

○임오경 위원 선서하세요.

○증인 강신준 포괄적으로 하지 마시고……

○임오경 위원 잠깐만요.

○조계원 위원 선서부터 하세요.

○임오경 위원 선서하시고 하시라고요.

위원장님.

○증인 강신준 포괄적으로 하지 마시고 거기에 대한 걸 말씀해 주시면 제가 선서하고 하겠습니다.

○김윤덕 위원 아니, 선서하면 되지 뭐 이렇게 말이 많아.

○임오경 위원 선서를 하세요. 먼저 선서를……

○김윤덕 위원 그렇게 자신 있으면 선서해. 보니까 똑똑하고만, 잘났고. 선서해 보라고.

○위원장 전재수 잠시만요, 잠시만요.

○김윤덕 위원 그러면 될 것을 뭘 어렵게 생각해.

○위원장 전재수 자, 강신준 증인.

○증인 강신준 예.

○김윤덕 위원 미소 짓지 마요, 괜히 정들어.

○증인 강신준 왜 그러십니까?

○ 위원장 전재수 증인, 강신준 증인!

○ 증인 강신준 예.

○ 위원장 전재수 여기 위원님들하고 말 주고받고 하지 마세요. 말 그냥 하고 싶다고 막 섞는 자리가 아닙니다.

○ 증인 강신준 죄송합니다.

○ 위원장 전재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까 임오경 위원님하고, 증인 선서 전에 제가 증재를 해서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형사소추 당하거나 공소제기 당할 우려가 없는 질문만 하겠다고 했을 때도 증인 선서를 거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 가지고 이것을 틀게 해 주면 증인 선서를 하겠다…… 여기는 증인께서 와 가지고 상황 변화에 따라 가지고 막 입장 바꾸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 자세와 태도는 좀 조심해 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리고.

○ 증인 강신준 조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수 이 질의응답은 답변시간이 질의시간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하셔야 될 말씀은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임오경 위원님의 질의에 충분히 듣고 핵심적으로 말씀해야 될 부분만 답변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증인께서 하셔야 될 이야기는 충분히 하실 수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 증인 강신준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전재수 임오경 위원님 계속 진행해 주십시오.

○ 임오경 위원 다시 한번 물을게요.

제가 앞서 영상을 보여 드렸는데 그게 지난해 국감 때 제가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그 영상에 나오는 사람 본인 맞지요?

○ 증인 강신준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요.

○ 임오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인 맞지요?

○ 증인 강신준 아니,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요.

○ 임오경 위원 그러니까 본인 맞지요?

○ 증인 강신준 아니, 그러니까 저기 MBN은 제가 맞는데……

○ 임오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인 맞지요? 묻는 말에만 좀 답변해……

○ 증인 강신준 그 당시에 위원님께서 하셨던 것은 다른 체육관 관장이 맞습니다.

○ 임오경 위원 그러니까 제가 작년, 지난해 국감 때 했던 질의인데 저기 영상에 나오는 사람 본인 맞지요?

○ 증인 강신준 그러니까 저 영상에 대해서는 지금 다르잖아요.

○ 임오경 위원 그러니까 맞지요? 다시 한번 묻는 거예요.

○ 증인 강신준 MBN 영상은 제가 맞다고 말씀드리잖아요.

○ 임오경 위원 왜 이렇게 어렵게 답합니까?

○ 증인 강신준 뭐가 어렵지요?

○ 임오경 위원 지금 다시 물어요. 맞지요?

○ 증인 강신준 MBN 영상은 제가 맞다고 말씀드렸지요.

○ 임오경 위원 맞지요?

○증인 강신준 그런데 국감 때 나왔던 건 다른 관장이라고 말씀드렸지요.

○임오경 위원 거기까지만 하세요.

참 착각을 많이 하시네. 이것 다시 말하지만 작년, 지난해 국감 때 나왔던 영상을 그대로 보여 준 겁니다. 참 올해는 국감장이 진짜 국회를 기망하고…… 국회의원들이 있는데, 진짜 치욕스럽고 모욕스럽습니다. 답변 잘해 주십시오.

작년, 지난해 2023년 10월에 있었던 임오경이 했던 국감 자료를 그대로 제가 보여 드린 겁니다. 본인 맞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과는 받지 않겠습니다. 나는 오늘 증인에게 사과를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사실을 규명하고 싶은 것뿐입니다.

또 한 가지, 강신준 증인이 이를 전에 김종민 증인이 이런 말을 하고 다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에게 언제든지 죄 없는 사람도 죄 뒤집어 가지고 합법적으로 감방에 보내는 건 일도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증인 강신준 아니요, 정확히 말하면 ‘임오경 의원에게 말하면 없는 죄도 만들어서 감방도 보낸다’ 이런 취지였습니다.

○임오경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증인이 말한 속기록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저희가 다 속기록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하면 죄 없는 사람에게 죄 뒤집어 가지고 합법적으로 감방 보내는 건 일도 아니랍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껄껄껄 웃으면서’. 그래서 제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라고 말을 했지요?

○증인 강신준 예, 위원님.

○임오경 위원 저한테 육성으로……

○증인 강신준 전반적인 이런 내용 아닙니까?

○임오경 위원 다시 한번 제가 물을게요.

이틀 전에 했던 말 저에게, 육성으로 직접 저한테 들은 적 있습니까?

○증인 강신준 없습니다.

○임오경 위원 없지요?

○증인 강신준 제가 그런 적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당시에도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임오경 위원 잠깐만요.

김종민 증인, 잠깐만 나오세요.

김종민 증인이 이런 말을 하고 다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김종민 증인, 이런 말을 한 적 있습니까?

○증인 김종민 없습니다.

○임오경 위원 만약에 증인도 허위 진술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물어요. 이런 말 한 적 있습니까?

○증인 김종민 없습니다.

○임오경 위원 그런데 왜 강신준 증인은 이런 말을 하고 있지요?

○증인 김종민 저희가 원래 협회를, 3년 동안 싸우다가 돌아올 때 저희 사무실 직원들부터 모든 시도협회 회원들이 믿지를 못하겠다고 그래서 강신준에 대해서 많은 테스트도

했었습니다. 그중에 판사 누구를 안다, 그래서 저희가 수원지방법원에 있는 예전에 대통령님을 뭐 했던 판사 이름을 다 적어 가지고, 강신준이 수원에 있으니까 그런 말들을 하면서 했었는데 강신준은 그걸 다 녹음을 해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솔직히 저희는 임오경 위원님이 감방을 보낸다 이런 말을 한 적은 전혀 없습니다.

○임오경 위원 강신준 증인, 또 다시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위원장 전재수 임오경 위원님, 질의응답이 길어지는데요, 보충질의시간까지 할애를 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예.

강신준 증인, 김종민 증인에게 이런 말 들은 적 있습니까?

○증인 강신준 어떤 말이오? 어떤 말을 제가……

○임오경 위원 지금 상황을…… 여기 장난하려 나왔어요?

○증인 강신준 아니, 제가 어떤 말을……

○임오경 위원 내가 이를 전에 당신이 나한테 한 말 모욕죄에 있어서 지금 불쾌감을 다 참아 가면서 질의하고 있는데 귀담아 안 듣고 있습니까? 여기가 지금 증인의 안방이에요? 장난하는 자리입니까?

김종민 증인한테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증인 강신준 아까 그 임오경 의원한테 얘기를 하면 죄 없는 사람도 감방에 보낸다?

○임오경 위원 예.

○증인 강신준 들었습니다.

○임오경 위원 증거 내 놓으세요.

○증인 강신준 어떤 증거를 내 놓지요?

○임오경 위원 김종민 증인이 했던 증거를 좀 내 놓으라고요.

○증인 강신준 제가 증인입니다. 제가 들었습니다.

○임오경 위원 여기 모든 분들에게, 계시는 분들에게 지금 강신준 증인이 하는 말을 어떤 사람이 믿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증거 자료를 내 놓고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증인 강신준 수원지방법원 판사 그런 식으로 얘기를 지어내는 것 그것도 얘기를 지어내는 것 그건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수원지방법원의 최연소 판사와 친구라는 걸 어떻게 제가 알겠습니까?

○임오경 위원 그러면 참고인으로 나왔으면, 국회에 참고인으로 나왔으면 위원을 지칭하면서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닙니다.

○증인 강신준 위원님 수석보좌관하고 지금 바이애슬론 협회에서 같이 일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임오경 위원 그 얘기는 저한테 하실 게 아니라 두 분이서 하세요.

○증인 강신준 제가 항상 전화하고 얘기해 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것 아니에요?

○임오경 위원 그것은 저에게 할 말이 아닙니다. 나는 지금 이를 전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증인 강신준 왜 아니지요? 항상 전화 통화하고 이러는 거 알고 있는데요.

○임오경 위원 저에게 모욕감을 준 것에 대해서만 답변하세요.

○증인 강신준 어떤 모욕감을 드렸지요? 저는 있는 사실을 얘기해서, 국정감사에 나와서 있는 사실을……

○임오경 위원 다시 말해요.

제 육성으로 직접 들었습니까?

○증인 강신준 아니오.

○임오경 위원 그랬으면, 저에게 직접 듣지 않고 타인을 통해서 전달받아서, 그 말은 그 사람하고 따지셔야지 어디 국회에 나와서 그런 말을 감히 하십니까?

이것 또한 사과는 받지 않겠습니다. 제가 사과를 받을 상대가 아닌 것 같아서 안 받겠습니다.

○증인 강신준 국정감사에서 진실을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임오경 위원 예, 진실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증인 강신준 제가 들은 진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전재수 잠시만요. 임오경 위원님, 잠시만요.

강신준 증인, 그러니까 이를 전에 강신준 증인께서 ‘임오경 의원이 말만 하면 죄 없는 사람에게 죄 뒤집어 가지고 합법적으로 감방 보내는 건 일도 아니랍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껄껄껄, 법치주의에서’,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임오경 위원이 한 이야기가 아니지요?

○증인 강신준 아닙니다.

○위원장 전재수 그렇지요? 전해 들은 이야기지요?

○증인 강신준 예, 혹시라도 그 부분을 곤혹하신 부분이 있다면 사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그러니까요. 이 부분은 지금 국회 속기록 그대로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임오경 위원이 감방 보낼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임오경 위원이 한 이야기가 아니고 강신준 증인이 들은 이야기지요?

○증인 강신준 예.

○위원장 전재수 들은 이야기고 했다라고 하는 분이 김종민이다라고 지금……

○증인 강신준 김종민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위원장 전재수 그러니까 강신준 증인은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 거지요?

○증인 강신준 예, 수원지방법원의 최연소 판사도 친분이……

○위원장 전재수 그러니까 이 부분은 증인께서 임오경 위원에게 사과를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증인 강신준 예.

○위원장 전재수 그렇지 않습니까? 직접 들은 것도 아니고 남에게 들은 이야기를 마치 임오경 위원이 그리고 다니는 것처럼 이렇게 곤해가 됐다라고 증인께서도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과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증인 강신준 저는 절대 임오경 위원께서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얘기한 적이 없고요. 저는 임오경 위원한테서 직접 그런 얘기를 들은 적도 없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예, 됐습니다.

계속 진행하시지요.

○김윤덕 위원 위원장님, 이것 사과로 끝낼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위원장 전재수 예.

○임오경 위원 강신준 증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서 저를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했으며 여기 계신 문체위원 모두를 기망했습니다, 이를 전에. 증인이 선서를 거부했기 때문에 국회증감법 13조에 따라서 국회모욕죄로 고발 조치를 저는 하겠습니다. 또한 본 위원 또한 법으로 응대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저는 추가질의를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선서를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추가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준 증인, 아직도 본인이 킥복싱연맹 회장이라고 생각하세요?

○증인 강신준 아니오.

○임오경 위원 아니에요?

○증인 강신준 저는 지난 4월 13일 날 사임을 했습니다. 다만 2021년 1월 29일 김종민이 회장으로 선출됐다는 것은 모두 위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선거 자체를 시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다 선거를 통해서 국회의원 되셨지요? 그런데 선거 자체를 치르지 않았습니다.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 배경에는 대한체육회가 있었습니다. 대한체육회가 인준을 받으려고 단순히……

○임오경 위원 증인, 잠깐만요. 묻는 말에만 답변하시고, 오늘 선서를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킥복싱연맹과 관련된 사안은 가셔서 하세요. 제가 오늘 묻는 말에만 좀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틀간에 걸쳐서 상황을 한번 파악해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오늘 나온 강신준 증인도 억울한 부분도 상당히 있을 것 같아요. 공선택이라는 전 사무총장이 한 비위행위들에 관련해서 다시 한번 꼼꼼히 검토를 하셔서 공선택을 고발하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이런 생각도 제 개인적으로 들어요, 제가 이틀간 지켜보니까. 이것은 공선택이 사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 벌인 비위행위들에 이 두 사람이 이용당한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받고요.

킥복싱 발전을 위해서 두 사람은 더 이상, 싸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법으로 반드시 해결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킥복싱하고 관련돼서 여기 나와서 콩 놔라 팔 놔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위원들 앞에서 변명을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틀 전에 증인이 23년 국감을 틀어 줬음에도 불구하고 ‘저 아닙니다’라고 하는 이 허위사실에 있어서, 그리고 저에게 직접적으로 듣지도 않은 육성을, 누가 들으면 진짜 임오경 위원이 그렇게 한 것처럼 본인은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 말은 그렇게 함부로 하고 다니는 것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좀 짚고 가고 싶었던 부분이고요. 이것은 제가 법적으로 대응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장관님, 지금 전국에서 불법으로 발급한 단증의 진위 여부 문의가 쇄도하고 있어요. 그러나 대한체육회는 대한킥복싱협회가 정회원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1년 동안이나 감사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체부가 나서야 할 일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글쎄요, 대한체육회가 감사를 못 하는 단체 같으면 그건 지금 제도권 밖에 있는 단체잖아요?

○임오경 위원 그러니까 준회원이라 그래서 감사를 못 한다고 하면 문체부라도 나서

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또한 이를 전에는 서로가 회장이라 그래서 현장에 혼란을 줬어요. 이런 일들이 우리 국회 국감장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체부가 종목단체 감사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일들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종목단체들의 부정부패에 대해 발본색원하셔서 더 이상 이런 일로 국회가 혼란스럽지 않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기회에 정말 잘하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저는 강신준 증인에게는 더 이상 질의하지 않습니다. 일단 제가 듣고 싶은 말은 들었으니까 가서 앉아 주시고요.

김종민 전 회장, 증인 나와 주세요.

킥복싱협회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아니, 한번 물어볼게요. 저를 언제 알았습니까?

○증인 김종민 예?

○임오경 위원 저를 언제 알았어요?

○증인 김종민 저는 개인적으로 알고 있었지만 위원님하고……

○임오경 위원 저를 만난 적이 언제입니까?

○증인 김종민 한 작년, 재작년 같습니다.

○임오경 위원 작년 2월쯤 토론회에서 제가 만난 걸로 알고 있어요.

○증인 김종민 예, 맞습니다, 토론회.

○임오경 위원 저하고 바깥에서 사적으로 식사라도 해 본 적 있습니까?

○증인 김종민 없습니다.

○임오경 위원 그런 오해를 사지 않도록, 지금 강신준 증인이 김종민 증인한테 들었다고 하면서 말을 하고 다니는데 남의 이름을 함부로 그렇게 팔고 다니시면 안 됩니다.

○증인 김종민 예, 절대 그런 일 없었습니다.

○임오경 위원 그리고 킥복싱협회 회장을 맡고 있을 때 뭐가 그렇게 힘들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까?

○증인 김종민 회장 되고 나서 전 집행부들이 협회를 뺏겼다는 느낌에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3년 동안 힘들게 왔습니다, 이때까지.

○임오경 위원 법원에서는 모든 판결이 나왔지요?

○증인 김종민 예, 다 저희가 승소가 됐습니다.

○임오경 위원 승소가 되어서 누가 회장으로 나왔습니까?

○증인 김종민 제가 나왔습니다.

○임오경 위원 그런데 이를 전에는 왜 회장이 2명이었습니까?

○증인 김종민 저희가 3년 동안 계속 다툼을 했고 저희가 이겼는데 강신준이 재판에서 지면 그날 가서 등기를 말소시키고 그다음 날 다시 등기를 해 가지고 계속 이렇게 질질, 엄청 끌어왔었습니다. 끌어오다가 채무가 많이 잡히면서 이제 빚이 많아지니까 저희한테 유혹을 해 가지고 서류를 준다고 그러면서 와 가지고 주고 나니까 채무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다시 협회를 가져가려고 그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임오경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킥복싱협회의 발전을 위해서 두 분이 잘 화합하셔서, 진짜 킸복싱 발전을 사랑하시는 두 분이라면 더 이상의 이런 불법 단증이 횡행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김종민 사장도 제가 보니까 지금 3년간 어려움에 거쳐서 온 것 같아요. 마무리 잘해 주시고 앞으로도 체육 발전에 이바지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말씀 드립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증인 김종민 예.

○임오경 위원 그리고 강신준 증인하고도 잘 해결해 주십시오.

○증인 김종민 예.

○임오경 위원 이상입니다.

○증인 김종민 혹시 발언 한번 해 주실 수……

○임오경 위원 예.

○증인 김종민 저희가 지금 자료를 진종오 의원님실에도 보내고 임오경 의원님실에도 보냈는데요. 지금 강신준이 21년 한 다음에 다시 또 불법 단증이 4000장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한국체육대학교 합격한 학생들이 불합격이 됐고요. 이런 상황들이 있고 또 경찰시험에 응한 사람들이 탈락된 환경이 됐습니다.

제가 진짜 존경하는 국회의원님들께 킸복싱에 대해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 아쉬운 점은 사실이 정확하게 인식되지 않은 채 국정감사에 서게 돼서 아쉽습니다.

체육회 종목단체 회장 자리는 급여를 받는 자리가 아닌 봉사와 희생의 자리입니다. 저 또한 바이애슬론 종목과 연이 되어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개인 사정으로 종목단체장을 그만두고 싶었으나 킸복싱 전 쳐장 공선택의 간절한 부탁으로 하게 되어 비록 힘든 시기지만 기부금을 내며 할 도리를 다하고, 협회 자금을 개인적으로 건드린 적 없고 협회 카드 한 번 사용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현재 과거의 집행부원들은, 강신준이 아주 지저분하게 킸복싱을 더럽혀 전국의 킸복싱 체육관이 70%가 사라졌습니다. 강신준과 공선택 일행은 저를 그만두게 하기 위해서 없는 사실을 유포하고 킸복싱인들을 기망하였으며 저의 명예를 더럽혀 저를 그만두게 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 또한 그만두고 싶었으나……

○위원장 전재수 김종민 증인, 짧게 간략하게……

○증인 김종민 예, 1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가 뭐라고 제가 계속 하고 싶었겠습니까. 돈 내고 명예 실추되고 매번 재판에 열 번 넘는 경찰조사까지, 그러나 전국의 수많은 킸복싱인들이 회장님 관두시면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간곡히 부탁해 지금까지 끌고 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가 이 자리에서 계속 있을 것 아니냐 하셨지만 저는 이 자리에서 선언합니다. 엊그제 진종오 위원님께서 계속 하시려고 나오는 것 아니냐고 여쭤보셨는데 정상적으로 제가 회장에 당선되어 일을 했음에도 부정선거로, 비리 의혹으로 낙하산처럼 됐다는 게 제 명예에 너무 좌절되고 방송까지 나가 너무 한탄스럽습니다. 이런 말과 모욕을 들으면서 저는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전국의 킸복싱인들이 서운해할 수 있지만

위원님께서 저를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내놓겠습니다. 단 칙복싱인들을 위해 다시는 강신준, 공선택 같은 악의 무리가 이곳에 들어와 부패를 저지르지 못하게 마무리는 잘 하고 가겠습니다.

기부하고 지원하고 봉사하고 시간 쪼개어 악의 무리를 없애기 위해 재판을 하고 이런 자리에 선 제가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혹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오는 것을 대비해서 전국에 있는 칙복싱협회 회장 그다음에 사무국장들이 저에게 입장서를 전국의 열네 군데 시도에서 보내 줬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라는, 원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김종민이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제발 강신준과 공선택만 사라져 달라는 정말 그런, 전국에 있는 협회장들이 다 저한테 보내왔습니다. 혹시 받아 주신다면 문체위에 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 끝났습니까?

○증인 김종민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재수 이상 증인 및 참고인 신청을 하신……

○김윤덕 위원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전재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김윤덕 위원 예.

○위원장 전재수 예.

○김윤덕 위원 위원장님, 현재 저희 국회에 증인 신청을 해서 나오셨는데 증인 선서 안하시고 저렇게 막가는 식으로 말을 계속 해도…… 이게 해당 위원하고 증인 관계로만 가는 건 절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와서 증인 선서 안 했으니까 막 막가는 말하고, 제가 볼 때는 똑똑하신 분 같아요. 굉장히 유능하신 분 같아요. 아마도 증인 선서하면 큰일 날 거다 이렇게 법적 검토 다 받고, 또 여야 대결을 적절히 이용해서, 굉장히 유능한 분으로 보여서 저런 분 상대하는 건 저는 국회가 힘을 모아서 강력하게 대응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나중에 말 돌려서, 저도 어제 들었는데 임오경 위원이 한 것처럼 얘기를 분명히 했거든요. 와서 그게 아니라고 그리고 이미 언론에는 다 나가 있고. 그래서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유능한 분 같아서 우리 국회가 힘을 모아서 또 위원장님이 분명하게 우리 문체위원회에서 대응을 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강력한 유감과 최고 수준의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힘을 좀 모아서 해 주시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예, 다시 한번……

○임오경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한 번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임오경 위원 예.

○위원장 전재수 예.

○임오경 위원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질의에 앞서 지난해 국정감사 영상을 그대로 보여 드린 겁니다. 그 안에는 짜깁기, 위조 하나도 없습니다. 유튜브 안에 들어가거나 국회방송 들어가서 다시 보기 를 하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난해 국감 때 하지 않았다라고, 오늘 나온 강신준 증인에 대해서 이것을 다시 한번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국감 때 저 임오경 위원이 했던 영상 그대로 오늘 시작과 함께 보여 드린 겁니다.

○위원장 전재수 속기록에 다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지만 많은 위원님들께서 채택된 증인의 불출석 문제, 위증의 문제 또는 모욕의 문제와 관련해서 고소고발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가 끝이 나게 되면 여야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위원회 차원에서 엄정하게 대처할 것은 엄정하게 대처하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증인 및 참고인 신청을 하신 위원님들의 신문은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증인 및 참고인 신청을 하지 않았지만 오늘 출석하신 증인, 참고인들께 신문을 희망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조계원 위원님, 강유정 위원님, 박수현 위원님, 양문석 위원님 이렇게 네 분이 있는데요. 네 분이 계시는데 이 순서대로, 신청하지 않았지만 신문을 희망하시는 위원님 질의를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기현 위원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전재수 이기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이기현 위원 이기현입니다.

정몽규 회장님께서 아까 제 질의에 대해서 마지막 발언할 시간을 달라고 하셔서 드렸더니 본인께서 현대가가 연 1500억 이상의 금액을 대한축구의 발전을 위해서 투자하고 있다, 4개의 남녀 프로 구단을 비롯해서 정확하게는 10개 이상의 연령별 대표팀도 운영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시면서 1500억을 투자하고 계시다 그러는데 저는 오늘 대한축구협회에 1500억이 어떻게 투자되는지에 대한 자료를 좀 요청드립니다.

제가 지금까지 확인한 것으로는 정몽규 회장님께서는 11년 재임하시는 동안 약 3000만 원의 개인 사재를 출연하셨다라는 지난번 질의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현대산업개발이 축구협회의 스폰서 기업 중 하나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현대산업개발이라는 회사가 투자한 것이지, 정확하게 말하면 회사가 후원한 것이지 개인이 후원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대가가 1500억을 투자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할 것을 제가 요청드리고요. 이 문제와 관련돼서 축구협회에 자료제출을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전재수 정몽규 회장님 들으셨지요?

○증인 정몽규 예.

○위원장 전재수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정몽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국내 축구계에 매년 1500억 이상 투자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여기 글에도 그렇게 써 있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그러니까 그 말씀을 서면으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정몽규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다음은 순서에 따라서 조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원 위원 정몽규 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먼저 아까 이임생 기술이사 아직도 입원 중인가요?
- 증인 정몽규 지난주에 퇴원했다고 들었습니다.
- 조계원 위원 지난주에요? 사임처리는 아직 안 됐고요?
- 증인 정몽규 곧 사임처리 토의해 가지고 사직처리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 조계원 위원 지난번에 제 질의 과정에서 회장님께서 이렇게 답을 하셨어요. ‘클린스만 감독 위약금 문제가 본인의 불공정한 감독 임명에 의해서 빚어진 것이라면 본인이 책임지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확인되었을 때 책임지겠냐’는 물음에 대해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책임지겠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게 답을 하셨거든요.
- 증인 정몽규 예.
- 조계원 위원 그러면 지금 문체부 감사결과는 확인하셨지요?
- 증인 정몽규 불공정한 임명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 조계원 위원 클린스만 감독 선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발표된 문체부의 감사결과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까?
- 증인 정몽규 불공정한 임명이라고 인정을 안 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 조계원 위원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요?
- 증인 정몽규 전력강화위원회에서 클린스만을 1순위로 추천을 했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계약 협의를 해 가지고 계약을 했습니다.
- 조계원 위원 이미 전력강화위원회에서는 정몽규 회장님의 지시에 의해서인지 몰라도 관련 팀장이 모든 전권을 당시 마이클……
- 증인 정몽규 마이클 뮐러.
- 조계원 위원 마이클 뮐러 전력강화위원장에게 위임을 받아냈지요.
- 증인 정몽규 예?
- 조계원 위원 마이클 뮐러 위원장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을 했다고요.
- 증인 정몽규 위원장이 모든 권한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조계원 위원 원래는 모든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 증인 정몽규 위원회를 통해서든……
- 조계원 위원 전력강화위원회 위원들에게서부터 모든 권한을, 임명권한을 위임받게 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마이클 뮐러가 전체 후보자 중에 5명을 추리고 면접을 했지요?
- 증인 정몽규 예.
- 조계원 위원 그다음에 축구협회에서는 그때 이것을 언론에 대해서, 보도자료를 통해서 2차에 걸쳐서 면접을 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증인 정몽규 예.
- 조계원 위원 그 2차에 면접한 사람은 누굽니까?
- 증인 정몽규 면접이라기보다 같이 좀 인터뷰를 했는데……
- 조계원 위원 그러니까 누가 했습니까?
- 증인 정몽규 제가 했습니다.
- 조계원 위원 그러면 2차에 걸쳐 면접한…… 2차 면접 당사자는 회장님 아니에요?

○증인 정몽규 그러니까 면접이든 간에 인터뷰…… 그리고 추천은 다 했고요.

○조계원 위원 아니, 축구협회에서 그렇게 보도자료를 냈어요. 2차에 걸쳐서 면접을 했다고요. 그런데 마이크 뮬러 전력강화위원장이 면접을 한 것이 아니고 정몽규 회장이 직접 면접을 했고, 최종적으로 클린스만 감독을 임명한 것은 정몽규 회장 아닙니까? 이사회 승인도 안 받았지요? 승인받으셨습니까?

○증인 정몽규 그때 이사회 하는지 몰라서 협회에서 제가 그걸 승인을 못 했습니다.

○조계원 위원 아니, 이사회 승인을 안 받고 감독을 선임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증인 정몽규 그전에 모르고 승인 안 한 케이스가 여러 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조계원 위원 그렇게 모든 절차가, 진행 과정이 전력강화위원회를 무력화하고 감독의 추천권한이 없는 회장이 2차 면접을, 최종 면접이지요, 이걸 진행했고 최종 면접 과정도 불투명하고 그다음에 이사회 선임 절차도 누락하고 그리고 보도자료도 거짓말로 배포하고. 이 정도면 클린스만 감독 선임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본인이 책임진다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증인 정몽규 불공정한 추천, 자료에 ‘불공정한 과정’이라고 아까 적혀 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전력강화위원회에서 1번으로 추천을 했고 그리고 협상을 했고 그래서 계약을 했습니다.

○조계원 위원 그러니까 사실상 본인이 최종 면접하고 본인이 결정하고 이사회 승인 절차 없이 클린스만 감독을 임명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클린스만 감독이 뭐라 그랬습니까. 농담으로 제안했는데, 내가 농담으로 감독 제의를 했는데 정몽규 회장이 진지하게 받아들였다, 그건 알고 계시지요?

○증인 정몽규 절대로 농담으로 하지 않고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저에게 대한민국 국가 대표를 맡고 싶다고 표명을 했었습니다, 여러 번이오.

○조계원 위원 아니요, 적극적으로 표명했으면 더 문제가 되는 거지요. 회장에게 적극적으로 로비를 해서 그러면 됐다는 거네요?

○증인 정몽규 아니, 로비가 아니라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조계원 위원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선임한 것은 정몽규 회장님께서잖아요. 최종 면접도 하고……

○증인 정몽규 전력강화위원회에서 최종으로 1순위로 추천을 했고, 제가 계약을 했으니까 제가 선임한 것 맞습니다.

○조계원 위원 그러니까 이건……

○증인 정몽규 계약을 다 진행하고서 선임이 됐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계원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잘못 선임했으면 그 잘못에 대한, 불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선임했고 모든 과정이 전력강화위원회의 아무런 관여도 참여도 없이 마이클 뮬러 위원장에게 권한을 맡긴 다음에 마이클 뮬러 전력강화위원장도 사실상 식물화시키고 본인이 최종 2차 면접까지 진행하고 본인이 선호하는 클린스만 감독을 임명한 거 아닙니까?

○증인 정몽규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계원 위원 그리고 그러면서 언론 보도자료에서는 2차 면접까지 진행해서 뽑은 것

처럼 했는데 실제 2차 면접은 마이클 뮐러 전력강화위원장이 한 게 아니고.

○증인 정몽규 추천한 사람을 협상 과정에서 제가 면담을 했습니다.

○조계원 위원 면담이 아니고 면접이잖아요. 축구협회에서 그렇게 보도자료를 냈어요.

○증인 정몽규 면담이랑 면접이랑 뭐가 다르지요?

○조계원 위원 면접 절차를 거쳐야지요. 국가대표 감독을 뽑는 과정이……

○증인 정몽규 면접은 마이클 뮐러……

○조계원 위원 뽑고 나서 면담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뽑는 절차는 면접이지요.

○증인 정몽규 아니, 마이클 뮐러가 면접을 했고요, 저는 면담을 했습니다.

○조계원 위원 축구협회에서는 2차에 걸쳐서…… 그러면 2차 면접도 마이클 뮐러가 했습니까? 2차 면접을 정몽규 회장이 하셨잖아요?

○증인 정몽규 사실상 추천을 다 했고요. 강력하게 했고요, 마이클 뮐러가.

○조계원 위원 2차 면접을 했는데 그 결과 내용은 또 아무것도 밝히지도 않았어요. 자료도 없어요, 제출하라 했더니 자료도 제출 않고. 그래 놓고 보도자료를 통해서는 2차 면접까지 다 진행해서 클린스만 감독을 공정하게 선임한 것처럼 했다……

○증인 정몽규 그 배경을 약간 설명드리자면 마이클 뮐러가 독일 사람이고……

○조계원 위원 아니, 아직도 그러니까 공정한 절차를 통해서 마이클 뮐러 감독을 선임했다 이겁니까?

○증인 정몽규 마이클 뮐러가 추천을 했고……

○조계원 위원 마이클 뮐러가 아니라 클린스만 감독을 추천했다 이겁니까?

○증인 정몽규 예, 1순위로 추천했습니다.

○조계원 위원 1순위로 추천한 사람이 본인이 아니고 누굽니까?

○증인 정몽규 마이클 뮐러가 클린스만을 1순위로 추천했습니다.

○조계원 위원 아니, 2차 면접을 본 사람이 최종적으로 추천했겠지요. 그것 상식 아니겠습니까?

○증인 정몽규 저는 제일 걱정했던 부분은 마이크 뮐러가 독일 사람이고 클린스만이 독일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또 커뮤니케이션을 해 가지고 연봉 계약이 앞으로도 남아 있는데 그게 제일 걱정이 됐었습니다.

○조계원 위원 문체부장관님, 지난번에 감사 진행하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조계원 위원 클린스만 감독 선임 절차에 대해서 문체부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때 전반적으로 다 감사해서 발표를 했지요.

○조계원 위원 그러니까요, 그 절차 공정하다고 했습니까 아니면 불공정하다고 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발표에서는 공정하지 않다고 발표가 됐습니다.

○조계원 위원 왜 그런데 자꾸 지금 정몽규 회장은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선임했다고 하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글쎄요, 그건 본인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 어쨌든 감사관이 전체적으로 감사한 결과는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조계원 위원 최종 감사결과 발표도 지금 정몽규 회장하고 최종적인 면담 절차가 진행되지 못해서 안 나오고 있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마지막 면담이 안 돼서, 거기까지만 하면 결과 발표 할 수 있다고……

○조계원 위원 그런데 지금 저렇게 주장하는데 제대로 나오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글쎄요, 이제 해 봐야 되겠지요, 그것도.

○조계원 위원 그리고 축구협회의 FIFA 공문 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조계원 위원 지난번에 장관님께 어떤 내막으로 공문을 보낸 건지 확인해 봐 달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확인해 보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그렇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조계원 위원 혹시라도 대한축구협회에서 요청해서 발송된 공문은 아니었던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거기까지는 저희 판단은 안 했고요. 그냥 의례적인 절차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조계원 위원 그러면 그 공문의 내용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면)

FIFA 공문의 내용을 번역해 보니까 저렇게 나오는데요. 한국 대한축구……

○위원장 전재수 정몽규 회장님 앉으셔도 됩니다.

○조계원 위원 ‘대한축구협회에게 자율적으로 업무를 관리하고 외부의 부당한 영향으로부터 자율성을 지켜야 할 법적 의무가 있음을 상기’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지금의 조사, 축구협회에 대한 조사가 혹시라도 부당한 영향으로 FIFA가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지금 조사하는 과정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정부가 법을 바꿔서 협회를 없앤다든지 아니면 대표 감독을 강제로 해임한다든지 이런 일이 생기면 그건 자율성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공정성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거기 때문에 FIFA에서 그렇게까지 할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조계원 위원 다시 정몽규 회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홍명보 감독의 임명 절차도 공정한 절차가 아니고 문제가 있었다는 게 지난 현안 질의에서 확인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클린스만 감독의 경우도 절차상의 문제가 확인이 됐어요. 그러면 클리스만 감독에 대해서 제가 물었을 때 분명히 본인이 책임을 지겠다고 했습니다.

○증인 정몽규 불공정한 절차로 했다면 제가 책임지겠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조계원 위원 분명히 책임지시겠지요?

○증인 정몽규 예.

○조계원 위원 클린스만 감독의 연봉이 얼마였습니까?

○증인 정몽규 그거는 계약상 말씀 못 드리게 돼 있습니다.

○조계원 위원 그러면 그걸 누가 나중에 책임을 지게 되면 거기까지 책임을 지시는 겁니까, 대한축구협회가 지는 겁니까?

○증인 정몽규 그 연봉을 책임진다는 게 무슨 말씀이시지요?

○조계원 위원 위약금 문제지요. 클린스만 감독을 해약하면서 위약금 문제가 발생했잖

아요. 70억~100억으로 얘기되고 있는 위약금이 발생했는데 그건 누가 책임지느냐고요.

○**증인 정몽규** 그 70억, 100억도 틀린 정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정확한 거는 모르지만 그것보다 훨씬 적다고 생각이 되고. 제가 여러 가지 클린스만의 비난을 알기 때문에 상당히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상당히 협회에 기여한다고 제가 약속을 드린 바 있습니다.

○**조계원 위원** 지금 축구협회노조에서도 정 회장 주위에는 더 이상 제대로 된 사람이 없다, 다 본인이 자처한 것이고 리더십 붕괴의 반증이라면서 정 회장의 4선 연임을 포기하고 불출마할 것을 촉구했는데 이 사실 알고 있습니까?

○**증인 정몽규** 예.

○**조계원 위원** 본인이 관리하고 있는 축구협회의 노조까지도 4선 연임을 반대하고 나섰는데 도대체 무슨 명분으로 4선에 도전할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증인 정몽규** 제가 언제 4선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까?

○**조계원 위원** 지금까지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증인 정몽규**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거랑 제가 생각하는 것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조계원 위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4선 연임을 하겠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다 우회적으로 표시하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증인 정몽규** 저는 제가 축구협회장의 마지막 날까지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조계원 위원** 그러면 지금 당장이라도 사퇴하겠다, 아니 4선 연임 도전은 포기하고 잘 마무리하겠다 이런 말 왜 못 합니까?

○**증인 정몽규** 그거는 제가 잘 알아서 판단하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김풍년 행정팀장님, 지금 축구협회에서 급여 받고 있습니까?

○**증인 김풍년** 저는 현산에서 파견 나올 때 기본급을 현산에서 지원받고 있고요.

○**조계원 위원** 축구협회에서는요?

○**증인 김풍년** 축구협회와는 제가 개별 자문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기본급 외에 직책이나 성과에 대해서 별도로 계약을 했습니다.

○**조계원 위원** 축구협회에서도 받고 있다 이거지요?

○**증인 김풍년** 예.

○**조계원 위원** 두 군데서 다 받고 있네요.

○**증인 김풍년** 그거는 말씀드렸듯이 그 성격이 좀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협회에 지원 나올 때 현산에서 지원할 수 있는……

○**조계원 위원** 축구협회는 공공기관이에요. 다른 직업을 가지면 안 돼요. 명백한 배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김풍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미처 고려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계원 위원** 잘못을 시인하는 겁니까?

○**증인 김풍년** 제가 파견 나온……

○**조계원 위원** 아까 배현진 위원님이 지적했던 횡령·배임의 건으로 명백히 해당이 된다 생각하는데 본인도 인정하시는 겁니까?

○**증인 김풍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없고요. 또 말씀드리는 게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계원 위원** 이 부분은 분명히 존경하는 배현진 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횡령·배임에 해당하고요. 당장 어느 한쪽은 정리하고 법적 판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증인 김풍년** 예, 잘 알겠습니다.

○**증인 정몽규** 제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전재수** 예.

○**증인 정몽규** SK그룹에서는 핸드볼협회도 있고, 축구협회보다 훨씬 규모가 작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서도 임원 1명, 직원 1명 이렇게 나가 있고 다른 협회의 경우도 이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평창올림픽조직위원회에는 대한항공 직원 100명이 나갔었습니다. 그 100명이 나갔다고 그것을 사유화했다 이렇게 이야기는 안 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조계원 위원** 그러니까 일시적인 수당이나 이런 것과 다르게 지금 정기적인 급여를 받고 있다고 인정하시잖아요, 본인이. 축구협회에서 급여가 나갔잖아요. 그리고 현대산업개발을 통해서 상무직으로 또 급여도 받았잖아요?

○**증인 정몽규** 현대산업에서 지급하는 거는 축구협회의 부담을 적게 하기 위해서.....

○**조계원 위원** 부담을 적게 했든 안 했든 두 군데서 받았잖아요. 왜 그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으세요?

○**증인 정몽규**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법적.....

○**조계원 위원** 두 군데서 받으면 안 되는 게 현행법이라는 거예요, 공공기관에 종사하시는 분이.

○**증인 정몽규** 하여튼 여러 가지 다른 예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경총이나 전경련 같은 경우에도 회장사에서 나가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계원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홍명보 감독에 대해서 본인이 ‘성적만 잘 나오면 다 무마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나 본데 국민들은 자신이 기쁜 마음으로 대한민국 축구가 승리하기를 응원하지 불공정하게 선임된 감독이 운영하는 팀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적극적인 응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정몽규** 홍명보 감독의 경우에는 중간에 전력강화위원장께서 갑자기 관두셔 가지고 그런 일이 생겼다고 생각되고, 크게 봐서는 불공정한 선임 절차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조계원 위원** 홍명보 감독 본인도 불공정한 절차로 인정을 했어요. 그랬으면 장관님, 감독 선임 절차 다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다시 국민이 사랑하는 감독, 실력 있는 감독을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서 뽑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지난번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유정 위원 무능은 불법은 아니지만 부적격 사유는 됩니다. 그리고 불공정은 죄가 됩니다. 지금 축구협회는 공사 구분이 불가하고 공공의식도 부재하고 도덕적 불감증 그리고 사유화, 독점 기간과 비례해서 특권의식까지 생긴 듯합니다.

정몽규 회장님, 저랑 원래 22일 날 만났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안 나오셨지요? 불출석 하셨지요?

○증인 정몽규 그때 못 나가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강유정 위원 김정배 부회장이 그렇게 조언하던가요?

○증인 정몽규 그런 적 없습니다.

○강유정 위원 안 나오는 게 낫겠다, 화요일 날은 제가 질의를 훨씬 더 빨리 하는 순서가 되고 더 집중 질의가 있을 거니까 오늘처럼 여러 기관이 나오는 종합감사에 나오는 게 좋다라고 조언합니까?

○증인 정몽규 그러지 않았고요. 오늘 성실히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유정 위원 않았습니까? 알겠습니다. 안 하셨으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말한 공사 구분이 불가하고 공공의식이 부재하고 도덕적 불감증에 사유화 그리고 특권의식까지 있다는 부분에 하나 더 꼭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아까 ‘이임생 이사가 현안질의 이후 쇼크를 받아서 입원했다’라는 말을 이 공공의 시간을 빌려서 한 저의가 됩니까?

그게 지금 이 시간에, 국정감사라는 이 엄중한 시간에 와서…… 이임생 이사가 사표를 냈느냐라고 물어봤지 그 부분에 대해서 쇼크를 받아서 입원했다라는 그 사적인 상황에 대해서 여기서 알아야 될 필요가 있나요? 지금 공적인, 공공의식에 대한 인식이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그것 알 필요 없지요? 그렇지요?

축협이 클린스만 감독 선임한 이후부터, 2023년 이후부터 온 국민이 받은 스트레스와 쇼크에 대해서는 도대체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이임생 이사라는 팔이 안으로 굽는 자기 식구의 쇼크에 대해서 이 자리에, 국정감사 시간에 와서, 16명의 국회의원과 이 수많은 기관의 종합감사 날 오셔서 그렇게 두둔하시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 공사 구분이 불가능하고 도덕적 불감증 여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문체위에서 여야가 상당히 날선 공방 가운데서도 딱 두 가지만큼은 모두가 합의가 됐습니다. 한강 작가의 노벨상 축하였고요. 그다음이 축구협회 불공정 문제가 여야의 이의가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공공의 감각이 있었다면, 공공의식이 있었다면 아까 이임생 이사의 사표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쇼크니 입원이라는 말은 사사로워서 할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분명히 정몽규 회장님, 그때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라는 유감 표명했지만 그 유감 표명도 거짓이었음이 드러나는 상황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제가 다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최영일 부회장 많이 아끼십니까?

○증인 정몽규 부회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강유정 위원 아니, 많이 아끼시냐고 물어봤습니다.

○증인 정몽규 전 협회 직원들은 다 열심히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유정 위원 다 아끼는데 불공정한 일들 혹은 부적합한 일들이 있을 때도 이임생 이사를 아끼듯이 최영일 부회장 너무 아끼는 것 같은데요.

축구협회 사무실 어디 있나요? 어느 구.....

○증인 정몽규 신문로에 있습니다.

○강유정 위원 종로구에 있지요?

○증인 정몽규 예.

○강유정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벌써 눈치채셨을 텐데 법인카드 내역을 제가 좀 조사해 봤더니 축구협회 임원들이 한 일식집에서 2021년 247만 원, 22년 618만 8000원 그리고 3년간 해서 1230만 3000원을 결제한 특정 식당이 있더라고요. 여기 식당 주인 알고 계시지요?

○증인 정몽규 저는 모릅니다. 가 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강유정 위원 아끼는 최영일 부회장의 아내가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회사라고 하기에는, 일식집이라고 하는 게 정확하겠지요. 이 최영일 부회장, 굉장히 여러 가지로 논쟁이 있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이 문제만 가지고 보지요.

제가 해명을 요구했더니 2024년 2월에 혼인신고를 해서 이때는 연인이었다라고 해서 가족이 아니었다고 부인하시는게 여기서 조금 재미있게 로맨스 카드라고 붙여 드렸어요. 법인카드를 로맨스에 활용하신 게 아닌가.

더 문제는 뭐냐 하면 제가 법인카드 내역을 공시해 달라고 몇 번을 요구했는데 처음에는 개인정보라고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거부했고요. 그다음에는 어떻게 했느냐면 사용 내역이 없다라고 허위 자료를 보내 주셨습니다. 그러다가 들통이 난 거예요, 바로 이렇게 자신이 사적으로 연이 있는 분에게 쓴 것에 대해서.

그런데 이 최영일 부회장 같은 경우는 사실상 선수들 복권 문제에 있어서도 한번 논쟁이 됐었지요?

○증인 정몽규 그때 사면위원회에 있었는지 지금 그건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강유정 위원 맞습니다. 그때도 그냥 넘어왔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입니까?

○증인 정몽규 법인카드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유정 위원 법인카드를 자신이 사적으로, 이것을 작지만 크게 보자면 일감 몰아주기 랑 뭐가 달라요. 도덕적인 불감증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법인카드를 1시간 넘게 걸리는 곳에 스무 번 넘게씩 가시면서, 1년에, 그렇게 자신의 사적인 로맨스에 이 법인카드..... 저는 너무 시시합니다. 개인카드 이용하시면 되잖아요, 로맨스에. 왜 거기에 법인카드를 이용합니까?

○증인 정몽규 거기 정확한 내역은 잘 모르지만.....

○강유정 위원 아니, 정확한 내역은 나와 있어요. 오늘.....

○증인 정몽규 그 한 분이 다 쓰신 건지 그것까지는 모르겠고, 그 일식당.....

○강유정 위원 아니, 법인카드 명의에, 부회장 명의로 된 카드를 쓴 내역이 나왔습니까요. 오늘 보도도 나왔습니다.

○증인 정몽규 예전부터 축구인들이 많이 가던 가성비 높은 축구계의 단골집이라고 얘

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에……

○**강유정 위원** 1시간이나 걸려서요? 그래서 자신의 아내 가게를 일부러 가는……

○**증인 정몽규** 그리고 올 초……

○**강유정 위원** 제가 다시 여쭤볼게요. 도덕적……

○**증인 정몽규** 올 봄에 결혼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법인카드 사용규정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전에는……

○**강유정 위원** 그전에 로맨스에, 제 말은 만나는 것은 문제없다니까요. 자기 개인카드 쓰시면 되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여성의 가게에 영업을 해 주고 싶다면, 왜 거기에서 법인카드를 쓰냐는 겁니다.

○**증인 정몽규** 거기서 어떤 일을 했느냐가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떤 일을 했느냐가 문제……

○**강유정 위원** 이 말이 어떻게 들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금 공적인 영역의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회장님, 제시 마시 감독이 언제 캐나다 감독으로 선임됐나요? 기억하시지요?

○**증인 정몽규** 저희랑 네고하고 있는 도중에 한 일주일 있다가 그쪽 발표가 됐습니다.

○**강유정 위원** 홍명보 감독 선임 해명자료에서 보자면 5월 10일까지는 제시 마시 감독과 계속 협상을 벌였다고 얘기를 했고 5월 13일 날 발표가 났는데 그런데 왜 제시 마시 감독 못 모셨습니까?

○**증인 정몽규** 제시 마시 감독은 국내 거주여건을, 180일이 넘을 경우에는 50%의 세금을 내고 그 이하로 있을 때는 22% 세금을 내게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에요. 그런데 그분께서 세금 문제 때문에 자기가 검토를 해 봐야겠다, 22% 내도 되는데, 그래서 저희 축구협회에서……

○**강유정 위원** 아니아니요, 어쨌든 그것은 나중에, 지금 변명처럼 말씀하시는 거고 축구협회 재정상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못 모신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증인 정몽규** 축구협회에서 22%든지 50%든지 저희가 전액 다 내 준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렇게 판단할 그건 아니고요.

○**강유정 위원** 아니요, 제시 마시 감독이 나중에도 계속 우리나라 축구팀을 맡고 싶었는데 못 맡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되게 아쉬움을 많이 표현했고, 우리나라 축구팬들이 굉장히 공분했던 이유 중의 하나도 제시 마시 같은 훌륭한 감독을 놓쳤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움을 표하고 있는데 사실 대한축구협회 1년 예산 규모가 캐나다 축구협회보다 훨씬 더 커요. 아시지요?

○**증인 정몽규** 저희가 22%든지 50%든지 세후로 다 내 준다고 그랬었습니다.

○**강유정 위원** 딴 얘기 하는데, 딴 얘기 하고 있습니다. 대한축구협회……

○**증인 정몽규** 어떻게 그게 딴 얘기입니까? 22% 내면 예를 들어서 100만 불 주면, 200만 불을 저희가 내야 되고……

○**강유정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증인 정몽규** 저희가 그걸 다 해 주겠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분의 가장 큰 걸림돌은 거주조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거절 레터에서도……

○**강유정 위원** 이게 왜 말이 안 되냐면 세금 문제도 캐나다랑 좀 따져 보면요 우리나라는

비거주자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할 경우에 소득의 20% 원천징수 그 얘기 하고 있는 거잖아요, 원천징수까지 해 주겠다?

○증인 정동규 예.

○강유정 위원 그런데 캐나다도 상황이 별다르지 않아요. 비거주자 소득세 25%고 우리나라보다 더 높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런 문제들을 다 해결했는데 분명히 제시 마시 감독은 우리 축에서의 협상 과정이 매우 미진했다라는 표현을 했고……

○증인 정동규 그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강유정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를 하고 있는 축구팬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캐나다 축구협회에서는 제시 마시 감독 영입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북미축구 프로리그인 메이저리그 그 시기에 소속된 캐나다팀 세 팀의 후원까지 받았어요. 이렇게 전국적인 그리고 프로리그의 그런 지원까지 받아서 감독을 모셨는데 제 말은 만약에 정 그랬다면, 해결이 안 돼서가 아니라면 흥명보 감독을 염두에 두고 오히려 훌륭한 감독을 놓쳤다라는 축구팬들의 의심을 더 높여 가는 문제밖에 안 되는 겁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임생……

○증인 정동규 제시 마시는 제가 간단히 한 30초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유정 위원 제가 질의시간이 별로 길지 않고요.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때 이임생 이사께서 우리나라 축구장 잔디에 대해서……

○증인 정동규 제시 마시 부분은 나중에 설명 기회를 한 30초만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전재수 예,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정동규 감사합니다.

○강유정 위원 제 질의시간은 흘러가고요 회장님의 답변시간은 매우 깁니다. 그러니까 좀 제 질의를 잘 듣고 대답을 해 주시고요.

○증인 정동규 말씀하십시오. 죄송합니다.

○강유정 위원 그리고 저는 축구팬들의 매우 합리적인 의심과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분노를 그대로 전달하는데, 확인되지 않은 말이 아니라 저한테 서류로 입증을 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제 잔디 문제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임생 이사가 그때 뭐라고 그랬나요? 대표선수들이 한국에 와서 잔디 상태가 정말 뛰기 힘들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한국 축구를 위해 우리 선수들에게 좋은 잔디에서 경기를 뛸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얘기를 했지요?

○증인 정동규 예, 모든 축구인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유정 위원 그러면 축구협회는 이 잔디 문제에 대해서는 신경을 쓸 수 있는, 그런 말을 부탁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책임 주체가 아닌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프로축구연맹으로부터 확보를 한 자료예요. 2023년 K-리그 축구장 컨설팅 리뷰를 봤더니 K-리그 24개 구장 잔디 중에 열세 곳이 잔디 돌림병에 시달리고 있고요. 목동과 춘천에서 는 해충도 있고 그리고 열한 곳은 배수 이상 그리고 잡초 등의 문제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프로축구연맹 차원에서는 그래도 노하우도 있고 한편으로는 구단 혹은 잔디 관리 주체들과 설명회도 하고 있더라고요. 축구협회가 뭐 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잔디 관리에 대해서 축구협회가 하고 있는 게 없는데 왜 이임생 이사가 여기 와서 거꾸로 잔디 관리를 잘해 달라고 저희한테 읍소하는지 모르겠고요. 없습니다, 그것. 없잖아요, 제가 알아봤습니다.

○**증인 정몽규** 모든 운동장은 축구협회의 소속이 아니라 각 지자체의 소속입니다. 그 지자체에서 관리……

○**강유정 위원** 아니요, 제가 말하는 건 잔디 관리 주체들과 해마다 설명회를 갖는다거나 노하우 공유는 축구협회도 할 수 있잖아요. 축구협회 아닙니까, 대한축구협회? 그걸 안하고 있어요. 없는데 왜 자꾸 그걸 변명하세요? 없잖아요.

○**증인 정몽규** 그 부분은 프로연맹에서 잘하고 계시고요. 인조잔디뿐만이 아니라……

○**강유정 위원** 아니요, 제가 다시 시작할게요.

○**증인 정몽규** 인조잔디도 상당히 지금 상태가 안 좋습니다. 딱딱하게 돼 가지고 그게 굉장히 안 좋아서 모든 축구인들이 인조잔디의 질과 잔디의 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강유정 위원** 제가 다시 질문할게요.

이임생 이사가, 그걸 축구협회에서 해결하시면 되지 왜 여기 와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잔디를 저희한테 부탁했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맞지 않고요.

잔디 관리 예산을 좀 봤어요. 봤는데 어떤 데는 6000만 원도 되고 어떤 데는 4억 1800만 원까지도 되고, 굉장히 편차가 커요. 이임생 이사가 눈물로 호소했는데 이 편차를 좀 줄이기 위해서 축구협회가 예산상으로 지원해 준 적 있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축구협회는 상당히 흑자기관인데 그러면 이임생 이사 울고 있는데, 아까 많이 아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눈물을 거두기 위해서 축구협회가 예산상의 지원이나 홍보를 위해서 노력한 것 있습니까?

○**증인 정몽규** 프로연맹에서 항상 잔디를……

○**강유정 위원** 다시 물어볼게요.

축구협회가 한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

○**증인 정몽규** 뭐 열심히……

○**강유정 위원** 없습니다. 없습니다.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 중에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자꾸 말로만 하지 말고……

○**증인 정몽규** 저희가 관리 주체가 아닙니다.

○**강유정 위원** 제가 다시 얘기할게요.

설명회를 하거나 노하우를 공유하거나 지금 흑자가 나고 있는 예산을, 이임생 이사가 눈물로 호소하면서 위원들에게 얘기할 게 아니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축구협회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하면 된다고 저는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증인 정몽규** 그러면 서울시 상암운동장에다가 저희가 축구협회의 예산으로 10억, 20억을 제공해야 된다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유정 위원** 축구협회가 경기장 잔디 관리에 대한 규정을 가지고 있으면 되지요. 규정이

없잖아요, 규정을 자기가 만들면 되는 건데.

○**증인 정몽규** 모든 잔디구장 관리는 다 시도에서 하고요, 프로연맹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이제 정리해 주시지요.

○**강유정 위원** 조금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프로축구연맹 자체가 이런 부분에서 FIFA의 가이드라인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더 강조하자면 이임생 이사가 눈물을 흘리면서 위원들에게 잔디 관리를 부탁했지만…… 제가 말하는 요약은 뭐냐 하면 축구협회가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를 왜 여기 와서 호소하느냐, 그리고 상위기관, 하위기관도 다 할 수 있는 문제를 여기 와서 하는 말 자체가 문제라는 거고요.

○**증인 정몽규** 잘 안 들려서 대답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강유정 위원** 그래서 여러 부분에서 굉장히, 공공의 영역에서 해야 될 일이 많은 축구 협회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공성에 대한 인식도 그리고 대중의 분노 혹은 의혹에 대해서 해명할 여지가 아니라 계속 변명만 하고 계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시 마시 부분도 그러면 저한테 말로만 하지 말고 주고받은 공문이라든가 이메일 같은 걸 보내 주시면 제가 납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정몽규** 제시 마시랑 협상을 마치면서, 제시 마시가 거주조건과 세금 문제로 한국 국가대표직을 관두겠다 이렇게 편지가 왔습니다.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저의 주장이 아니고.

○**강유정 위원** 그러면 그 편지를 보내 주세요, 말로 하시지 말고. 그 편지에 대한 복사본을 보내 주시면 됩니다.

○**증인 정몽규** 복사본을 보내 줄 수 있는지 검토를 해 가지고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없으면요.

.....

○**위원장 전재수** 다음은 박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현 위원** 하종대 증인 잠깐 발언대로 나오시겠습니까?

정말 황제공연 이 문제, 답변하시는 증인도 힘드시겠지만 이걸 질문하는 위원들도 너무너무 힘들고 괴롭습니다, 지치고.

(전재수 위원장, 임오경 간사와 사회교대)

그런데 KTV가 애초에 이 문제 단초를 이렇게 제공한 거예요. 처음에 이 언론 보도가 나갔을 때 KTV에서 뭐라고 해명했습니까? ‘별도의 청중은 없었다. 무관중 공연이다’, 그 무관중 공연이라는 것을 성립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당일 김건희 여사가 한 출연자와 인사를 나누기 위해 공연 중간에 들른 것이다’ 이렇게 최초 해명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국감 기간 중에 계속 밝혀졌지만 위원님들의 질의를 보면 어떻게 돼 있느냐면 KTV가 이 공연을…… 좋습니다. 목적 부산엑스포 성공 기원, 그다음에 대사, 대사부인 이렇게 죽 기획을 했고 그것을 대통령실과 협의했고 보고했고, 그렇지요?

그리고 어제 보도된 한 언론의 보도를 보면 드디어 ‘26일 대통령 부부께서 귀국을 하시면 여사께 컨펌을 받아야 되니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애초에 이것이 무관중 공연이다, 여사가 한 국악인을 만나기 위해서 중간에 들렸다…… 왜 이렇게 해명을

해서 의혹을 키웁니까?

○**증인 하종대** 저도 그 부분이 아쉽습니다. 저한테 물어봤더라면 처음부터 제대로 답변이 나왔을 겁니다.

○**박수현 위원** 증인께서 대통령 내외가 참석을 안 하신다는 것을 언제 알았다고 그러셨지요?

○**증인 하종대** 아마도 공연 거의 하루 전날 정도에……

○**박수현 위원** 30일 날쯤 아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증인, 대통령 내외가 안 오신다면 내빈용 테이블, 꽃장식 그리고 리플릿 이런 것들 배치를 안 해도 될 텐데 왜 그냥 그대로 배치를 했지요?

○**증인 하종대** 맞습니다. 나중에 물어봤는데요. 원래 안 오시기로 하니까 그런 것도 안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미리 조금씩 조금씩 준비가 됐었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에 꽃 장식 같은 것도, 안 가져오게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 굳이 가져올 필요 있겠느냐 했는데 또 돈을 내야 된다고 그래서 그러면 이미 시킨 거 가져오지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좀 조정이 됐던 겁니다.

○**박수현 위원** 증인, 그 문제와 관련해서 다른 부분은 인정하시지 않겠지만 오늘 이것 하나는 확실하게 인정하고 가셔야 돼요.

한 출연자와 인사를 나누기 위해 공연 중간에 잠깐 들렸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그러면서 한 말이 뭐냐하면 ‘국악인 선생님이 무대에 서신다는 것을 김건희 여사에게 알리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그 국악인께서 뭐라고 그랬느냐면 ‘김건희 여사와 따로 연락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그날 부인을 하셨어요.

○**증인 하종대** 저도 그런 보고도 받은 적도 없고요. 무슨……

○**박수현 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그래서 적어도 당일 김 여사께서 한 출연자와 인사를 나누기 위해 공연 중간에 들른 것이다라고 하는 KTV의 해명은, 이것은 황제관람이라고 하는 것을 숨기기 위해서 최초에 국민께 거짓말을 한 거짓 해명인 거예요.

이것 거짓 해명 맞지요? 적어도 이 부분은 맞지 않습니까, 잘못한 것?

○**증인 하종대** 사실을 잘 몰랐기 때문에……

○**박수현 위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김건희 여사 이렇게 육 먹이고 있는 거예요. 왜 처음에 그것을, 지금 드러난 대로 처음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결과적으로 대통령 내외께서 참석을 못 하게 됐으므로 이렇게 됐다라고 했으면 그걸 이해 안 할 국민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왜 국악인을 만나러 왔다고 거짓말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증인 하종대** 저도 그 부분은 아쉽고요.

○**박수현 위원** 그래서 이 귀한 시간을 이 부분에 할애하도록 국정감사 방해행위를 KTV가 한 거예요, 거짓 해명으로.

그래서 저는 오늘 증인께 분명하게 정중하게 요청드립니다.

이 최초 해명 이것이 황제관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KTV가 최초에 이것은 거짓 해명을 했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오늘 사과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증인,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사과하세요.

○증인 하종대 그 부분은 제가……

○박수현 위원 아니, 증인께서 그랬잖아요. 왜 그렇게 해명했는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증인 하종대 제가 전 원장이지 않습니까?

○박수현 위원 아니, 어쨌든.

○증인 하종대 해명한 것은 지금 현 원장이……

○박수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현 따지지 마시고.

이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어쨌든 그 자리에 계셨었잖아요?

○증인 하종대 예.

○박수현 위원 KTV를 사랑하실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 원장님으면 어떻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KTV가 국민께 이렇게 처음 해명을 잘못해서, 저는 거짓 해명이라고 주장합니다만,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가 커지고 국정감사를 방해하게 된 이런 행위에 대해서 이 부분만큼은 사과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과하셔도 돼요.

○증인 하종대 사실 저하고 미리 통화가 됐더라면 그런 해명은 나가지 않았을 텐데 제대로 사실관계가 파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해명이 나가게 된 것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한편으로 이번 국감을 통해서 이것이 대통령실 지시에 의한, 그것도 김건희 여사 개인 일인을 위한 황제공연 의혹이라고 당초 제기된 의혹이 사실이 아니었다는 것이 드러난 것에 대해서 저는 야당 위원들께도 상당히 감사를 드립니다.

○박수현 위원 그만하세요.

어쨌든 이 문제는 지금 사과를 제가 요청드렸잖아요. 요구한 것도 아니고 요청드린다고 말씀드렸어요. 진심으로 사과하시면 그걸로 끝입니다. 거기까지 하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관람 내빈 이 문제는 기획 단계의 아이디어였지 진짜 섭외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해명도 또 했어요. 이것도 거짓 해명입니다. 그 뒤에……

○증인 하종대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박수현 위원 ‘관람 내빈은 그냥 기획 단계의 아이디어일 뿐이지 진짜 섭외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이것도 거짓 해명이지요. 별씨 다 드러났잖아요. 대통령실과 협의하고 보고하고 김건희 여사 컨펌까지 받아야 한다라고 했고, 그리고 실제 증언한 사람들이 초청은 받았지만 거절했다는 사람도 있고요. 그다음에 참석하려고 그랬으나 행사가 취소됐다고 연락받아서 안 갔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므로 이것은 기획 단계의 아이디어일 뿐이지 진짜 섭외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한 이 해명 역시 거짓 해명입니다. 맞지요, 이것도?

하여튼 적어도 오늘 하종대 증인은 KTV를 대표해서 최초에 이렇게 이루어진 잘못된 거짓 해명에 대해서는 인정하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정몽규 회장님 잠깐 일어나십시오.

증인, 13억 인구를 가진 중국 축구가 왜 그렇게 약하지요?

○**증인 정몽규** 여러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많이 이야기되는 부분은 거기서 불법도박이나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좋은 선수들이 제대로 뽑히지 않고 또 열심히 안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

○**박수현 위원** 불법도박의 문제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선수 선발 이 과정이 불공정했기 때문에, 특정한 라인을 타고 됐기 때문에 13억의 인구를 가진 중국 축구가 그렇게 약하다고 하는 것이…… 이미 다 처벌도 되고 하는 뉴스를 우리가 보고 있지 않아요?

○**증인 정몽규** 불법도박이나 위원님이 말씀하는 것이나 어느 정도 맥락은 통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박수현 위원** FIFA에서 공문을 받았다고 하는데, 증인께서 FIFA에 혹시 이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설명하고 해명한 것 있습니까?

○**증인 정몽규** 아직 설명 안 했습니다.

○**박수현 위원**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증인 정몽규** 아직 설명을…… 거기서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계속 모니터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그 편지에서도—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진행된 상황을 보고해 달라 이렇게 했는데 아직 정리가 안 돼서 보고를 못 했습니다.

○**박수현 위원** 제가 증인 같은 축구협회 회장이라면 FIFA에 ‘오해다. 우리 협회의 불공정성과 이런 문제 때문에 이걸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 국내의 절차가 행해지고 있는 것인지 FIFA가 이야기하는 정치적 제삼자의 개입이나 이런 것이 아니다’라고 적극 해명을 해야 축구협회장 같은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자세 아닐까요?

○**증인 정몽규** 내일모레, 다음 주 초에 FIFA 회장이 오니까 그런 요지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박수현 위원** 혹시 FIFA의 이름을 빌려서 문체부의 감사나 이런 것들을 피해 가려고 하는 그런 의도 아닙니까?

○**증인 정몽규** 제가요?

○**박수현 위원** 축구협회가 지금 그런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고 말씀드려요.

○**증인 정몽규** FIFA 편지에서 보듯이 FIFA는 국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나오는 축구 관련 보도 사항을 항상 모니터하는 회사도 있고요. 그래서 항상 모니터해 가지고 대충 무슨 일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수현 위원**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불안하시게 FIFA가 이런 공문을 보내 왔는데, 각종 국제대회의 출전이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등 이러한 것들을 흘려서 국민 불안하게 하지 마시고 회장이 충분하게 선제적으로 FIFA에 대해서 해명할 건 해명하고 설명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정몽규** 그렇다면 그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박수현 위원** 생각해 보시는 게 아니라 당장 해야 되는 일 아닌가요? 여태까지 안 했다는 게 이해가 안 가요.

○**증인 정몽규** 오늘 어떤 질문이 올지 모르고 또 앞으로 문체부에서 어떤 요구하는 걸 지금 하고서 또 보내고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다 한 다음에, 또 FIFA 회장이 다음 주 초에 오기 때문에 국내 여론을 직접 많이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수현 위원** 혹시 월드컵 예선에서 요르단과 이라크전 승리를 계기로 축구협회 문제에 대해서 국민께서 더 이상 질책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 갖고 계십니까?

○**증인 정몽규** 전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대리 임오경**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현 위원** 1분만 하겠습니다.

박지성 씨가 이렇게 말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과거에는 협회에 무슨 문제가 있을 때 국제대회나 각종 대회에서 성적만 우수하면, 승리하면 바로 잊는 경향이 있었지만 이제는 시대가 달라진 같다. 국민들께서, 팬들께서 지금 현재 이 문제를 결코 그대로 보지 않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저도 공감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축구협회노동조합이 발표한 성명서를 읽어 보면서 평소 기업인으로 그렇게 존경을 받으시는 증인께서 참 부끄럽지 않겠나, 뭐 하러 이런 자리에 연연해할까, 기업 경영에만 전념하셔서 중대재해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기업, 대한민국의 일류기업으로, 세계 속의 기업으로 키우는 일에 전념하시는 것이 훨씬 나을 텐데 이게 뭐라고 왜 여기에서 그렇게 비난과 질책을 받으시면서 계신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정몽규** 저도 축구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축구협회장으로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말씀대로 회사도 잘 경영해서 세금도 많이 내 가지고 국가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수현 위원** 하여튼 국민께서 걱정하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심사숙고하시기 바랍니다.

○**증인 정몽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임오경** 그러면 다음은 양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석 위원** 정몽규 증인 앞으로 좀 나와 주세요. 잘 안 보입니다.

물의를 빚어서 죄송하다…… 어떤 물의를 빚어서 죄송한 겁니까?

○**증인 정몽규** 어느 맥락에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양문석 위원** 국민들 앞에 물의를 빚어서 죄송하다 이야기했잖아요?

○**증인 정몽규** 감독 선임 건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시고 불공정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걱정스럽게 만든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오경 간사, 전재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양문석 위원** 우리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국민들이 잘 몰라서, 모르면서 우리를 공격하고 정몽규 나가, 홍명보 나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 아니에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게?

○**증인 정몽규** 저희가 100% 잘한다고 그러지 않고요. 우리 사회나 우리나라 조직의 하는 정도로 한다고 생각을 하고, 다른 체육단체보다는 조금 더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문석 위원** 체육계가 온통 썩었다고 계속해서 체육협회장들이, 횡제적 협회장들이

수두룩 빽빽하다 이런 비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그런데 자꾸 다른 데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축구협회만 이야기하세요.

○**증인 정몽규** 예, 말씀하시지요.

○**양문석 위원** 국민의 눈높이에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증인 정몽규** 그건 개인의 가치 판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양문석 위원** 개인의 가치 판단이 아니고 대부분의 국민들이 축구협회에 분노하는 이유잖아요. 아니에요?

○**증인 정몽규** 사람마다 다 가치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문석 위원** 절대다수의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잖아요, 축구협회에 대해서. 정몽규 나가라고 이야기하고 흥명보 나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소수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증인 정몽규** 소수가 얘기하는지 다수가 얘기하는지 그건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양문석 위원** 여론조사도 나왔는데요?

○**증인 정몽규** 여론조사는 항상 바뀐다고 생각이 됩니다. 야당이 많이 지지받을 때도 있고 여당이 지지받을 때가 있고, 그게 꼭 절대선이나 절대 기준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양문석 위원** 그런 태도로 국민을 바라보고 있구나, 그렇지요?

축구협회가 잘못해서 화가 나신 거예요, 국민들은.

○**증인 정몽규** 잘못한 것, 100% 잘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양문석 위원** 뭐를 잘못했는데요, 그러면?

○**증인 정몽규**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중간에 사퇴하시고 또 급하게 정해야 되고 이런 과정에서 규정에 약간 미비한 점이나 아니면 규정이 다 안 되어 있는 점에서 잘 지키지 못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문석 위원** 규정이 미비하거나 규정을 다 지키지 못했다, 이것은 지난번의 이야기하고 완전 달라요. 절차에 따라서 규정에 어긋남이 없이 우리는 했다고……

○**증인 정몽규** 크게 봐서는 절차나 규정에 크게 벗어난 것은 없다고 그러는데 규정이다……

○**양문석 위원** 어떤 규정을 어긴 거예요?

○**증인 정몽규** 예?

○**양문석 위원** 어떤 규정을 어긴 거예요?

○**증인 정몽규** 규정, 아까 말씀하셨듯이 클린스만 저것 하는데 이사회, 클린스만뿐만이 아니라 각 17세, 20세, 23세 감독도 다 이사회 통과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놓치거나 이런 것들은 잘못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양문석 위원** 처음 한 게…… 아까는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규정에 맞춰서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오늘 그렇게 이야기했고요.

○**증인 정몽규**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잘하려고요. 그런데……

○**양문석 위원** 지난번에는 규정에 어긋난 것 없이 우리는 절차에 따라서 철저하게 합법적으로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잘못한 게 있긴 있네, 그렇지요? 잘못한 게 있긴 있지요?

○**증인 정몽규** 누구나 다 잘하면서만 살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양문석 위원 그렇지요, 그렇지요. 예, 그럼요. 그렇게 그 잘못한 것들에 국민들이 엄청나게 분노합니다.

○증인 정몽규 그걸 더 인지하고 고쳐 나가고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양문석 위원 그러면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11차 전력강화위원회 회의록을 축구협회에서 우리 방에 쳤어요. 그런데 끝까지 정 회장은 11차 전력강화위원회 없었다?

○증인 정몽규 11차 전력강화위원회가 열리려고 그러면 일단 위원장이 있어야 되고요, 정족수도 맞춰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성립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양문석 위원 그렇지요?

○증인 정몽규 예.

○양문석 위원 그러면 우리 방에 보냈던 11차 전력강화위원회 회의록 작성자 징계해야 되겠지요? 했어요?

○증인 정몽규 징계까지 해야 될…… 충분히 그렇게 오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양문석 위원 축구협회에서 의원실에 보내는 자료는 공문서지요?

○증인 정몽규 예.

○양문석 위원 그게 허위 문서를 보낸 거잖아요?

○증인 정몽규 그러니까 모든 공문서가 다 맞고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됩니다. 실무자들이 실수할 수도 있고 잘 몰라서 보낼 수도 있고 그런 거지 뭐 허위 문서다, 의도적으로 그랬다고는 생각 안 듭니다.

○양문석 위원 그게 위증이고 공문서 위조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감에서 나중에 고소 대상입니다. 고소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요?

○증인 정몽규 예, 알겠습니다.

○양문석 위원 그런데 결재하셨어요?

○증인 정몽규 11차 보낸 거요?

○양문석 위원 예, 축구협회의 문서는 회장이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증인 정몽규 그건 결재는 안 했는데 실무진이 잘 상의해서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양문석 위원 실무자 문제예요? 회장 책임은 없고?

○증인 정몽규 총괄적인 책임은 제게 있지요.

○양문석 위원 그래서 고소할 겁니다. 주특기예요, 주특기.

면접하고 면담은 어떻게 달라요?

○증인 정몽규 정확히 잘 모릅니다. 설명해 주시지요.

○양문석 위원 아니, 아까……

○증인 정몽규 만나서 이야기하는 걸 면접이라고 할 수도 있고 면담이라고 할 수도 있고……

○양문석 위원 아니, 내 말이 아니고 ‘면접이 뭐가 다르지요’라고 해 놓고……

○증인 정몽규 전 잘 몰라서 물어봤습니다.

○양문석 위원 ‘저는 면접이 아니고 면담을 했어요’라고 이야기했어요, 아까. 그렇지요?

○증인 정몽규 아까 면접이라고 한 것은 인사 채용, 안 채용 이런 뉘앙스로 말씀하셔서

그게 아니고 협상 과정이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양문석 위원** 정확하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저는 면접이 아니고 면담했어요’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증인 정몽규** 저는 정확한 사전적 의미는 잘 모르지만 뉘앙스로……

○**양문석 위원** 그러면 면접했다 하면 되지 왜 굳이 면접은 아니고 면담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증인 정몽규** 아까 계속 여러 위원님께서 그것은 면접이니까 추천을 제가 한 것 아니냐, 제가 결정한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렇게 말씀드렸었습니다.

○**양문석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달라요, 그게? 그러면 면담이라고 하면 비켜 가나요? 그러면 우리 조계원 위원이 질문 잘못했네, 그렇지요? 그런 거지요?

○**증인 정몽규** 제가 국어 실력이 양 위원님만큼 좋지가 않아서 죄송합니다.

○**양문석 위원** 면접과 면담을 갖다가 지금 그렇게 정확하게 구분하고 있으면서 굳이 면접이 아니며……

○**증인 정몽규** 아니, 그냥 제가 느끼는 뉘앙스로만 설명드렸습니다. 정확한 사전적 의미는 잘 모르겠습니다.

○**양문석 위원** 정 회장의 주특기가 뭐인지 아세요? 다 아랫사람 탓이야.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축구협회 뮤러 위원장, 복수 후보자 상대로 1차·2차 화상면접을 진행했다’ 이게 축구협회가 내놓은 자료입니다. 그렇지요? 아시지요? 그러면 이 사람 징계해야지요. 회장이 면담했는데 어디 면접이래?

○**증인 정몽규** 저도 면접, 면담 모르는데 실무자들도 면접, 면담을……

○**양문석 위원** 모르는 사람이 왜 면담을 끝까지 우기고 면접 안 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개념도 모르면서?

○**증인 정몽규** 죄송합니다.

○**양문석 위원** 그리고 조계원 위원이 지금 이 자료 가지고 질문한 것 아니에요? 끝까지 아니라며, 면접이 아니고 면담이라면서요.

○**증인 정몽규** 죄송합니다.

○**양문석 위원** 보세요. 11차를 잘라 내야 불법성이 없고 이임생에 합법성이 생겨요. 그러니까 만들어 놓은 11차 회의록을 조직적으로 부인해요. 그리고 실무자의 단순 실수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의원실에 허위 공문서를 보내고 가짜뉴스를 살포해요. 회장은 여기에 대해서 단순 실수라고 이야기하고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축구협회에서 낸 자료가 1·2차 면접을 진행했다는데 ‘나는 면접 아니야, 면담했을 뿐이야’라고 이야기를 해요.

○**증인 정몽규** 면접, 면담이라기보다는 제가……

○**양문석 위원** 앞에 그것 이야기하세요, 11차도. 여기 와서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꼬리 자르고 실무진 탓하면 그 사람들 징계해야 될 것 아니에요.

○**증인 정몽규** 꼬리 자르고 그럴 생각은 전혀 없고요. 제가 느끼는 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양문석 위원** 그것 참 못된 느낌이네. 허위 공문서 보내고 허위 증언시켜 놓고 ‘내 느낌이 그래요, 단순 실수라고’ 그리고 ‘저는 면접, 면담 잘 몰라요. 느낌상 그냥 면담이라고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아,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증언 태도예요? 정 회장 주로 그렇게 사시나 봐요?

잘못했으면 엄벌을 내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축구협회가 자료를 잘못 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따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징계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증인 정동규** 저는 꼭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위원님께서도 보좌관님 다 있으실 텐데 분명히 자료 잘못 만들 때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마다 징계 안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가르쳐서, 또 잘못한 것도 모르면 알게 하고 그래야 되는 게 과정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문석 위원** 참 세상 편하게 사시네.

또 한 가지 물어봅시다. 현대가가 1500억 투자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지요? 협박입니까, 대국민 협박입니까?

○**증인 정동규** 아니, 사실을 이야기한 겁니다.

○**양문석 위원**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라고 했는데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1500억을 현대가가……

○**증인 정동규** 1500억인지 2000억인지 정확한 액수는 잘 모르겠는데요.

○**양문석 위원** 아까 1500억이라면서요.

○**증인 정동규** 상당히 많은 액수입니다.

○**양문석 위원** 참 세상 쉽게 삽니다. 아까는 1500억이라 했다가 이제는 1500억인지 2000억인지도 모르고, 모르면서 왜 구체적인 숫자를 대놓고 이야기를 해요? 대충 이야기하면 돼요? 아까는 '난 그냥 1500억이야' 그래 놓고 이번에는 '2000억인지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서 우리 없으면 대한민국 축구 될까…… 아까 그 이야기잖아요.

○**증인 정동규** 제가 언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까?

○**양문석 위원** 그 내용이 해석을 하면……

○**증인 정동규** 그건 위원님이 그렇게 해석하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문석 위원** 거의 협박이라고요, 협박. 나는 그렇게 느꼈어요. 정 회장님도 자꾸 그런 느낌 있잖아요, 공문서도 잘못 보낼 수도 있고 실수할 수 있는데 뭐. 나도 그렇게 느껴요.

○**증인 정동규** 모든 사람은 실수한다고요, 저도 실수하고 저도 실수 많이 합니다.

○**양문석 위원** 그다음에 전력강화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안 뽑은 적이 없다, 그렇지요? 안 뽑은 적이 없지요?

○**증인 정동규** 예.

○**양문석 위원** 그리고 절차대로 했다, 그렇지요?

○**증인 정동규** 예.

○**양문석 위원** 그러면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된다니까. 아까는 11차도 거짓말을 했고 1·2 차 면접했는데 면담이라고 거짓말했고 그다음에 여기서도 클린스만 뽑을 때 일방적으로 전력강화위원회의 권한을 1차 회의에서 뭘러한테 다 위임시켰잖아요, 축구협회가. 그러면 전력강화위원회 뭐 하려고 만들어요? 1차 회의에서 다 강제로 위임시켰잖아요, 그래서 뭘러가 1차 면접했고.

○증인 정몽규 전 두 번 회의했다고 이렇게 얘기 들었습니다.

○양문석 위원 두 번째는 통보했고 1차 때는 위임시켰고요. 그리고 심지어 전장위 꾸려지기도 전에 후보자들하고 접촉했고요, 축구협회는. 이것도 그냥 살짝 규정 어길 수 있지, 좋은 감독 데리고 오려고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 그렇지요?

○증인 정몽규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양문석 위원 그런데 그렇게 했잖아요, 실상은. 이것도 약간 잘못한 거네. 그렇지요? 약간 잘못했어요. 예, 약간 잘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조계원 위원한테 되게 큰소리를 치면서, 내가 언제 연임한다 그랬느냐 하면서 큰소리 빵빵 치는데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이것저것 다 따져 보고 제가 판단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지요?

○증인 정몽규 예.

○양문석 위원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이번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하고, ‘이것저것 따져 보고 깊게 생각해서 판단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연임 의지도 있네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렇게 생각하는 저나 조계원 위원의 잘못인가요?

○증인 정몽규 사람마다 다 다르게 해석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양문석 위원 만약에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정 회장은 어떻게 해석하실 거예요?

○증인 정몽규 그건 제가 양 위원님 속에 들어가 보지를 않아서 알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양문석 위원 저도 지금 정 회장 속에 안 들어가 보고 정 회장이 뱉은 이야기를 갖고 지금 설명한 저게 연임 의지도 좀 있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역으로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정 회장님은 어떻게 해석할 것 같아요?

○증인 정몽규 저는 해석…… 판단을 보류하겠습니다.

○양문석 위원 보류?

○증인 정몽규 예.

○양문석 위원 그렇지요.

지금 회장 연임하려고 하면 스포츠공정위원회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지요?

○증인 정몽규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양문석 위원 아는 게 뭐예요, 그러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축구협회의 전력강화위원회 11차 회의도 몰라, 축구협회에서 내놓은 반박 자료의 1·2 차 면접했다는 것도 몰라, 그다음에 양문석이 이야기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라니까 보류.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정관 고치는 것하고 또는 스포츠 공정위원회에서 공적 인증해 가지고 연임시켜 주는 것하고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그런데 정관은 문화부에서 막혀 가지고 안 됐어요. 종신 회장 하려고 하다가 안 됐어요. 이제 남아 있는 게 스포츠공정위원회인데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장이 정 회장이 접대

골프를 했던 그 대상이네?

○**증인 정몽규** 제가 4연임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절차를 잘 따져 보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양문석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석 위원** 제발 잘못된 문서, 허위 문서, 허위 회의록을 보낼 수도 있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런 행정의 무능력이 드러났으면 거기에 대해서 제때 제대로 조치하시는 게 회장이 하는 일이에요.

두 번째, 협회에서 잘못된 반박 자료가 나갔으면, 1·2차 면접이라고 반박 자료가 나갔으면 나는 면담이라고 끝까지 생각하니 그러면 그 협회 반박 자료를 냈던 사람들을 징계하거나 실수하지 못하도록 뭔가 공적인 조치를 취하는 게 회장이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본인의 거취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제1연임밖에 없는데 2연임을 시도할 수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상한 뉘앙스를 질질 흘리면서, 내가 너 속에 안 들어가 봤는데 너가 나를 어떻게 알아라고 말장난하는 것……

○**위원장 전재수** 양문석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석 위원** 이거 회장이 하는 게 아닙니다. 어디서 여기 와 가지고 계속해서 허위 증언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말장난하고…… 평생 그렇게 살았어요?

○**위원장 전재수** 양문석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재수** 이기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이기현 위원** 예, 의사진행발언.

박정하 위원님 발언이신데 제가 잠깐 의사진행발언, 한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질의가 진행되는 중에 JTBC 뉴스룸에서 또 새로운 보도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23년, 작년 10월 31일 행사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는데, 그리고 24일 날, 그로부터 일주일 전에 사전답사를 한 것으로, 그동안 새로운 사실이라고 밝혀져서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무려 한 달 전인 9월 26일 날 여기에 최재혁 당시 방송기획관 그리고 정용석 선임행정관이 이 관저를 처음으로 가서, 이것 또 처음이 아닌지도 모르지요. 도대체 나오는 만큼이, 어디까지 나올지 모르겠는데 사전답사를 한 달 전에 실시한 내용이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정용석 선임행정관, 지금 이제 사장은 뭐라고 지난번 저에게 얘기를 했냐면 15일 국감에서 ‘10월 24일 날 청와대 관저 사전답사 때 최재혁 증인을 처음으로 봤다’라고 한 번만났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9월 26일 두 분이 다정하게 관저를 사전답사, 한 달 전 답사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정용석 증인에 대해서 위증의 혐의로 고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또 제가 질의시간이 다 지났기 때문에 질의는 할 수 없습니다만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해 주신다면 하종대 당시 원장에게 도대체 언제부터 이 행사를 준비했었던 것인지 한번 재차 질의를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양문석 위원** 저도 의사진행……

○**위원장 전재수** 잠시만요.

김승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수 위원** 저도 위증과 관련해서 고발 요청을 위해서 의사진행발언드립니다.

지난 22일 체육단체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제가 대한수영연맹 정창훈 중인을 상대로 한 질문에서 정창훈 중인이 위증을 한 정황이 있어서 고발 요청을 드립니다.

이번 파리올림픽 계영 800m 선수 선발에 있어 가지고 선발전 1·2·3·4순위 선발자 이외에 갑자기 6위를 한 선수가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날 정창훈 중인에게 왜 6위를 한 선수가 갑자기 들어왔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니까 당시 정창훈 중인은 ‘총감독이 요청을 해서 경기력향상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한 자료와 또 중언에 따르면 당시 수영 국가대표 총감독은 5번 주자, 그러니까 예선 선발전에서 5위를 한 선수까지는 선발을 더 추가로 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때 경기력향상위원회에 이렇게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도 6위 선수까지 포함시켜 달라는 그런 요청을 한 적이 없었고, 이렇게 요청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수영연맹에서 6위 선수를 포함시킴에 따라서, 그날 중언한 바와 같이 엔트리에 포함된 선수는 무조건 예선 또는 결선에서 다 한 번씩은 이렇게 선수로 출전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6위 선수가 결선에서 4번 주자로 나섰었고 다른 선수들에 비해 가지고 무려 5초 이상 뒤진 성적을 냈에 따라 가지고 실질적으로 메달까지 기대했던 그런 종목에서 메달을 못 따게 만든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국민이 큰 희망을 걸었던 종목에서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국정감사까지 나와서 이렇게 명백히 위증을 한 정창훈 중인에 대해서 반드시 고발조치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전재수** 잘 알겠습니다.

양문석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양문석 위원** 예.

○**위원장 전재수** 조금 전에 발언 많이 하셨는데 시간 가지고, 또 하셔야 되겠습니까?

○**양문석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전재수** 예.

○**양문석 위원** 중인들 중에 하종대 중인하고 정몽규 중인은 저녁식사 이후에도 남게 해 주세요. 아직까지 질문이 다 안 끝났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간사 위원 간에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오경 간사님, 박정하 간사님, 협의를 좀 진행해 주시고요.

중인·참고인 질의 순서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정된 순서대로 진행을 하고요. 그 사이에 여야 간사 위원님 간 협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형배 위원** 김태호 중인께 여쭐게요. 좀 나와 주시겠어요?

여기 국감장이고 중인 선서 하셨습니다. 위증하시면 안 됩니다.

○**증인 김태호** 예, 알겠습니다.

○**민형배 위원** 아까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내가 이것 일부를 가지고 와 봤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그 보고서인데, 그냥 긁어모은 거고 내부의 공식적인 문건이 아니다…… 그런데

올해요 의견을 제안하는 내부용 문서라고 공식 발표를 하셨대요. 제가 이거 공개할까요?

○**증인 김태호** 제가 국감장에 있는 동안 회사에서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있었는지 확인하지 못해서요. 지금 혹시……

○**민형배 위원** 오늘 제가 이거 일부만 복사해 왔는데 이거 공개할까요, 그냥 그대로? 그래도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우리하고는 관계없고 밖에 돌아다니는 얘기 짚어 모은 거다, 내부 문건 아니다? 의견이 들어가는……

○**증인 김태호** 제가 아까 내부 문건 아니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았고요. 저희 내부에서 작성하고 공유한 문서는 맞지만 그 문서의 목적은 저희 케이팝 팬들이 하이브의 아티스트들과 업계에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를 모아서……

○**민형배 위원** 그런데 왜 거기다가 그렇게 그런 언어를 써 가면서 하냐고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딴소리를 하십니까?

○**증인 김태호** 아까 말씀하셨던, 보여 주셨던 그 문서에 있는 내용들은 저희 내부에서 직접 작성한 내용이 아니고요 실제 돌아다니는……

○**민형배 위원** 아니, 지금 내부에서 작성한 문건이라고 그래 놓고, 여기가 의견 천지예요.

그러면 한번 여쭐게요. 이거 작성한 곳이 위버스 매거진이지요?

○**증인 김태호** 위버스 매거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돌아가면서 작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형배 위원** 방시혁 회장이 이거 편집장한테 작성해서 보고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증인 김태호** 제가 그 부분을 담당하고 있지 않아서 정확한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러니까 방시혁 회장을 나오라고 그랬더니 대신 나와서 하겠다고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다시 여쭐게요.

여기에 나와 있는 10대 청소년들에 대한, 이게 문화산업법의 기본 취지에 어긋나는 부적절한 것이 수두룩하게 있었다, 인정하십니까?

○**증인 김태호** 죄송하지만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문서를 제가 지금 보지를 못한 상태여 가지고요.

○**민형배 위원** 아니, 여러분이 날마다 받아 보는, 주마다 받아 보는 그 보고서라니까요, 제가 여기서 발췌해서 아까 말씀드린 거고.

그러니까 제가 이걸 공개를 해요? 하이브가 온갖 케이팝 콘텐츠를 생산하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공개를 할까요?

○**증인 김태호**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매주 공유받고 있는 자료들이 사실적지 않습니다. 저도 빌리프랩 대표로서 빌리프랩 내부에서 작성한 모니터링 문서들을 보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문서가 그중에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계신 건지 제가 알수가 없어서 그 문서가 공개해도 되는 문서인지 아니면 공개하면 안 되는 문서인지 지금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은 좀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형배 위원** 걸그룹들이나 아티스트들에 대한 정보가 정말 저희가 보기에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 만큼 한 내용들이 있어서 공개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자꾸 우리는 이런 거 그냥 돌아다니는 의견만 주워 모았다…… 아니고 하이브의 의견이 여기에 다수 들어 있어서, 그런데 그 의견 개진이 매우 부적절한 언어들이 구사되고 있어서 제가 지금 이것 들고 온 거 아닙니까, 아니라고 그러셔서?

○증인 김태호 제가 확인했었던 문서들의 기억을 더듬어 보면 세간의 평가와 팬들의 입장들을 정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민형배 위원 그러니까 그 평가와 의견의 표현이 매우 부적절해서, 제가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그런 게 들어 있어서, 앞으로 이런 거 계속하실 거예요? 케이팝 콘텐츠 세계적인 문화 상품이 돼 있는데 이거 문화산업에 매우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거냐고 물은 거예요.

○증인 김태호 아까 위원님께 제가 답변드렸지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제가 오늘 정확하게 이해했기 때문에 오늘 이 국감이 끝나고 회사에 돌아가면 지금 지적하셨던 그런 문제들의 문제점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실제 문제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준비하는 노력은 제가 충실히 다하겠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런데 이게 자기 자신들의 공식 문건이 아니라고 그러면, 우리 의견이 아니라고 그러면요?

○증인 김태호 아까 제가 저희 문서가 아니라고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저희 문서라고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모니터에 띄워서 보여 주셨었던 그 내용이 저희가 저희의 입장이나 하이브의 견해를 적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민형배 위원 김태호 증인께서 참 어렵게 만드시네. 거기서 나온 내부 문건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자꾸 그것이 우리 문건이 아니라고 그리고 우리 문건은 맞는데 그게 우리 의견은 아니라고 그러시네요.

○증인 김태호 저는 계속 같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성한 문서 맞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질문하시자마자 바로 제가 저희가 내부에서 봤었던 문서 맞다라고 말씀드렸고요. 하지만 아까 보여 주셨던 그 자료에 언급되어 있었던 내용들은 저희가……

○민형배 위원 그 내부 문서에 들어 있는 표현들을 제가 보여 드린 거라고요.

○증인 김태호 그런데 저희가 해당 아티스트나 혹은 익명처리돼서 그 문서를 저도 지금 다시 기억은 못 하지만 저희가 그런 식의 견해를 내부에서 공식적인 문서로……

○민형배 위원 이 술한 아티스트들에 대한 평가를, 하이브의 평가를 그대로 한번 적나라하게 드러내 볼까요? 공개해도 되겠습니까?

○증인 김태호 제가 어떤 문서를 가지고 계신지 알 수가 없어서……

○민형배 위원 하이브 문건이요, 지금 말씀드리는데 그러네.

위클리 음악산업리포트, 주간보고, 동향보고…… 업계 동향을 이렇게 계속하시는 건 할 수 있는 일인데 그 안에 사용된 언어와 접근 방식과 평가 이런 것들이 매우 부적절하게 돼 있다, 내가 공개할 거냐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증인 김태호 그 부분은 제가 좀 말씀드리기 어렵다라는 점 다시 한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민형배 위원 공개할 수 없어서, 하지 않는 게 바람직해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이브에서 그런 걸 해 왔으니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 잘못했다 사과하고 앞으로

이것 개선하겠다 그러시면 될 일인데 자꾸 이걸 돌리려고 하세요?

○**증인 김태호**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지점을 오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게 실제로 문제라면 저희는 당연히 해결을 해야 될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민형배 위원** 아까 밀어내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안에 그런 내용도, 제가 여기 밀줄 그은 것만 해도 술하게 있어요. 자꾸 안 했다고 그러시니까 제가 이걸 들고 온 거예요, 지금.

○**증인 김태호** 저희는 밀어내기를 한 바가 없습니다.

○**민형배 위원** 지금 온 언론이 이런 얘기한 바 없다고 공식 부인이라고 그러면요. 나중에 이것이 사실로 드러나면 하이브에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겠는데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제가 아까 주고받은 특이나 이런 걸 다 보여 드렸잖아요. 그런데도 그걸 아니라고 그러면요?

○**증인 김태호** 아까 저희한테 보여 주셨던 문서는 저희가 반품 조건부에 실무 협의를 하고 있는 때일을……

○**민형배 위원** 그게 그거잖아요. 그게 밀어내기 하는 거잖아요.

○**증인 김태호** 아까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그 상황에 대해서 이미 그 내용을 확인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시점에 이미 그런 형태의 업무 협의는 불가하다라는 입장을 명확하게 전체 구성원들에게 공지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공지됐었던 내용은 이미 올 연초에 저희가 한번 밝힌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 혹시라도 저희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우려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전수검사를 했었던 것이고요. 그중에 저희가 작년에 판매했던 4000만 장이 넘는 음반들 중에 1%가 채 되지 않는 물량이 반품 조건부로 거래가 됐었던 이력이 확인됐고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이것조차도 허용하면 안 된다라는 관점에서 불허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밀어내기 한 바가 없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민형배 위원** 1%는 아닌가요?

○**증인 김태호** 1%는 전체 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굉장히 제한적이긴 했으나 그것 조차도 저희가 옳지 않다고 생각해서 앞으로 불허하겠다라고 명확하게 결정하고 말씀드린 건입니다.

○**위원장 전재수** 다음은 김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위원** 황성운 기조실장, 하종대 증인과 KTV 국악공연 관련 처음 통화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 황성운** 정확한 기억은 없는데 아마 10월 중, 초 정도인 것 같습니다.

○**김재원 위원** 정확히 얘기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 황성운** 정확한 기억이 없습니다.

○**김재원 위원** 10월 중으로 기억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 황성운** 예, 제 기억에는 10월 중으로 기억합니다.

○**김재원 위원** 황성운 기조실장, 방금 보도가 나왔어요. 문체비서관으로서 당시 청와대

관리업무 맡고 있었던 것 맞지요?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 황성운 예, 그렇습니다.

○김재원 위원 관리업무도 있었지요?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 황성운 예.

○김재원 위원 한 달 전인 9월 26일 정용석과 최재혁, 청와대 답사한 것 알고 있었지요?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 황성운 그것은 방금 알았습니다.

○김재원 위원 방금 알았어요?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 황성운 예.

○김재원 위원 어떻게 방금 알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 황성운 기사 난 걸 보내 줘서……

○김재원 위원 정용석 행정관이 이것 보고도 안 하고 KTV 들어옵니까, 같아?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 황성운 예?

○김재원 위원 관리업무를 맡고 있었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 황성운 예, 제가 일일이……

○김재원 위원 그런데 관리업무 보고를 안 하고 정용석 행정관이 KTV 방송기획관하고 같이 들어오냐고요.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 황성운 아마 보고를 저한테는 했을 겁니다. 했는데 제가 일일이……

○김재원 위원 그러면 하종대 원장과 통화한 시점이랑 안 맞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 황성운 그것은 행사에 대해서 아마 9월, 제 생각에는 9월 26일 경에……

○김재원 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김성현 관장 나오십시오.

PPT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면)

사진 속에 관장과 함께 서 있는 여성의 신원과 소속 말씀해 주십시오.

○증인 김성현 이번 행사 준비기간 동안에 준비를 했었던, 이름을 이야기해야 됩니까?

○김재원 위원 예.

○증인 김성현 한 분은 박……

○김재원 위원 얼굴 보이는 분만 얘기하세요.

○증인 김성현 박우림 음악가고요. 한 분은……

○김재원 위원 됐습니다.

다음 PPT 주시지요.

저분은 김성현 관장이 취임 직전까지 근무했던 단국대 영미인문학과 조교 박우림 씨입니다. 박우림 씨가 맡고 있는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의 직위와 직급 말씀해 주십시오.

○증인 김성현 직급은 없습니다. 이번에 행사기간 동안에 음악적인 조언을 위해서 방문을 했습니다.

○김재원 위원 다음 PPT 주십시오.

박우림 씨 문자박물관 직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박물관 직원들 합창연습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PPT 주시지요.

박우림 씨 중심으로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의 약칭인 MoW 앙상블도 만들어집니다. 직원들만 착용하는 명찰을 박우림 씨한테 수여하고 수여식까지 업무시간에 열어서 했습니다. 업무 중인 직원들도 동원됐습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는 관장이 추천하고 멋대로 만든 이 악단에 1500만 원의 행사를 밀어 주는 특혜를 제공하려다가 내부 반발로 취소돼서 미수에 그쳤지요?

관장, 박물관 직원이 본 위원에게 보낸 투서를 그대로 읽겠습니다. ‘박물관장은 음악전시를 준비하며 그 업체 대표와 상의하라고 수차례 담당 학예사에게 지시하였으며 이에 담당 학예사는 박물관 내 아무런 직위도 없는 업체 대표와 상의하라는 관장의 지시로 수치심을 느꼈으며 황당해하였음’, 그 업체 대표 누구일 것 같습니까?

○증인 김성현 업체가 아닙니다. 박우림 대표고요. 그냥 와서 조언을 해 주었을 뿐입니다.

○김재원 위원 박우림 씨지요?

○증인 김성현 예.

○김재원 위원 김성현 교수의 논문 주제 iColor라는 개념을 사업화한 업체 대표지요?

○증인 김성현 예.

○김재원 위원 다음 PPT 주시지요.

장관, 본 위원이 요청해서 받은 자료들에 회의 참석자에 외부인 박우림 씨 이름이 사방에 등장합니다. 직원들 제보에 따르면 박우림 씨가 기획전시부터 유물 매입까지 관여한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직원들은 그분을 문자박물관 최순실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전횡을 일삼는 비선실세라는 뜻입니다.

관장 기행이 여기까지가 아닙니다.

○증인 김성현 위원님, 유물……

○김재원 위원 (책자를 들어 보이며)

문자박물관 기념품숍, 이런 물건 팔고 있습니다.

PPT 주시지요.

화면 보시면 관장 자신을 커피스터 김성현으로 소개한 커피제품입니다. 이것 회극인데요. 지인의 업체에 몰아주기 구매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제보에 따르면 관장은 구구빈스라는 업체 커피를 기획전시, 세미나 등 모든 행사 기념품으로 강요를 했다고 합니다. 자료를 받아 보니까 이 업체에서만 약 925만 원 커피 구매했습니다. 구구빈스 김태경 대표랑 관장 무슨 사이입니까?

○증인 김성현 제가 대학교에 근무할 때 세계 최초로 커피학과를 개설했습니다. 그때 알게 된 분입니다.

○김재원 위원 왜 특혜를 줬습니까?

○증인 김성현 특혜는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김재원 위원 다음 PPT 주시지요.

일선 부서와 계약 담당자들이 특정 업체 몰아주기를 부담스러워하니까 부서별 개별사

업비 할당량까지 강제했습니다. 이 정도면 내부 직원들이 제보하지 않을 수가 없겠지요? 장관, 문자박물관 관장 즉시 격리조치돼야 됩니다. 앞서 언급한 전횡은 아무것도 아니고, 성희롱과 갑질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관장, 위증하면 위증죄가 더해집니다. 사실대로 답변하십시오.

구구빈스 대표가 선물한 커피나무에서 자란 딱딱한 커피콩 직원들한테 썹으라고 그런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증인 김성현** 없습니다. 커피나무를 저희들이 기증을 받게 돼서 커피 맛을 한번 보라고……

○**김재원 위원** 직원들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한 여성 직원에게 결혼 못 할 것 같다는 말을 하고 나는 여우 같은 여자 좋다 이런 얘기한 사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증인 김성현**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맥락에서든지 제가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김재원 위원** 피해자가 다 있으니까 거짓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사실대로 답변하세요.

여성 직원한테 러닝복을 입으면 참 잘 어울리겠다, 같이 사진 찍고 싶다, 한 사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증인 김성현** 제가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상황이든 어떤 맥락이든 부적절한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제가 박물관에 가서도 이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장관, 한 사람한테만 제보가 들어온 게 아닙니다, 이게. 정말 많은 직원들이 저한테 제보를 해 왔고.

성범죄와 갑질 사건이 발생하면 당사자를 피해자와 즉시 격리하고 객관적인 기구에서 조사해야 하는 절차 잘 알고 계시지요, 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아, 저한테…… 예.

○**김재원 위원** 연말에 이사회가 열릴 것입니다. 그때까지 이사장 해임안 상정하도록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알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즉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문자박물관장님, 이것이 사실이라면 스스로 그만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증인 김성현** 사실이 아닙니다.

○**위원장 전재수**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그만두지는 않겠다?

○**증인 김성현** 예, 사실이 아닙니다.

○**위원장 전재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강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유정 위원** 정몽규 회장님, 어디 계신가요? 정몽규 회장님?

제가 법인카드 사용에 대해서도 사용 내역을 달랬더니 첫 번째는 개인정보라 안 된다, 두 번째는 사용 내역이 없다, 세 번째는 도둑공시를 했다가 오남용 사례가 드러나는, 정말 힘들게 하는 사례가 너무 많은데 아까 제시 마시 과정을 봤더니 2024년 7월 22일에

보도자료가 나왔어요. 국내 거주 문제와 세금 문제로 감독직 제안을 포기한다는 회신이 왔다라고 축구협회에서 공식 보도자료를 썼는데, 둘 중 하나입니다. 이게 허위 자료였든가 아니면 회장님의 지금 위증하든가. 도대체 이런 식의 너무 헛갈리는 허위 자료…… 보도자료를 허위로 내신 거예요, 만약에 맞다면. 아니면 위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지요? 이메일 받은 게 있다고 했으니까 그 이메일을 말로 말고 자료로 저한테 보내 달라고요. 그러면 제가 확인할게요. 둘 중 하나, 지금 보도자료가 허위거나 위증하신 겁니다.

앉으세요.

○**증인 정몽규** 그 보도자료랑 제가 말씀드린 거랑 똑같습니다.

○**강유정 위원** 아니, 저는 자료를 요구하는 거고 이제 자료로 보내 주세요. 말이 몇 번씩 바뀌는지, 도대체 말을 따라잡기가 힘들 정도니까 자료 보내 주세요.

○**증인 정몽규** 그 보도자료랑, 거주조건이랑 세금 문제 보도자료랑 똑같았습니다.

○**강유정 위원** 아니요, 보내 주십시오. 이메일 둘 다, 이때 받은 메일과 지금 말하는 세금 문제 해결했다라는 그 메일은 다른 메일이어야 돼요. 그렇지요? 그 메일을 저한테 보내 주시면, 하나만 있으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장관님, 축구협회는 2023년에만도 스포츠토토에서 215억 그리고 체육진흥기금에서 110억, 325억이나 받아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맞습니다.

○**강유정 위원** 개인의 사유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법인카드 오남용 문제에 대한 감사 있었나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지금 아마 다 감사를 하고 있을 겁니다.

○**강유정 위원** 그러면 이것은 감사결과에 포함될까요, 법인카드 오남용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그렇습니다.

○**강유정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왜냐하면 2017년에 아시지요? 축협이 한번 골프장, 유흥주점, 노래방 등에서 잘못 이용한 법인카드 때문에 이 부분이 입건된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또다시 재발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감사결과 분명하게 하셔서 만약에 빠져 있다면 특정감사라도 하셔 가지고 법인카드 사용 내역에 대한 감사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다시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신동욱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 위원** 너무 오랜만에 마이크를 잡아서 발음이 잘 안 될 것 같은데, 좀 질의 기회를 균등하게 주시는 지혜로운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모두에 드리는 말씀이고.

오늘 사실 이기홍 회장님이 오시면 직접 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안 오셔서 그냥 바로 위증에 대한 고발 보고를 좀 드리려고 그립니다. 지난 22일 감사에서 저도 대한체육회가 체육회 운영보다는, 이기홍 회장께서 지나치게 정치행보 때문에 우리 체육회가 좀 뭔가 문제가 많다라는 지적을 했고 또 1월 16일 날 치러진 체육인 대회의 성격에 대해서 저와 함께 존경하는 민형배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뭐라고 질의를 하셨냐 하면 ‘왜 갑자기 1만 5000명이 모입니까?’ 그랬더니 ‘동계올림픽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동계올림픽 홍

보도하고 IOC 위원장이 오시니까 같이 동반해서……’, 그러자 민 위원님께서 ‘뭔가 정치적 의미를 담은 행사를 해 보려고 하셨는데 실패한 거네요?’ 이렇게 하니까 단호하게 ‘아닙니다’라고 부인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행사 이후에 발간된 대한체육회의 공식 문건을 보면 뭐라고 표현이 돼 있느냐면, 일부를 발췌해서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온 체육인의 뜻을 모은 대한민국 체육 발전을 위한 대정부 건의서 및 문화체육관광부의 위법 부당한 체육업무 행태에 대한 공익감사청구안 등을 장상윤 사회수석에게 전달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잠시 화면 하나만 좀 주시겠어요?

공익감사와 관련된 청구라는 것이 그 내용을 보면요 굉장히 정치적입니다. 이런 겁니다. 제가 예를 들자면 대한체육회 자율성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위법한 침해, 대한체육회 정관 변경에 대한 근거 없는 불허가 및 허가 지연, 대한체육회 사업 추진 방해 등 권한 남용, 또 하나 예를 들면 스포츠혁신위 권고안 강압 추진으로 체육인의 피해 및 국가스포츠 경쟁력 저하, 체육계 의사를 배제한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구성·운영 이런 내용들을 담은, 말하자면 서명을 받습니다, 이 행사에서.

그렇다면 이것이 이기홍 회장님이 얘기한 순수 체육인 행사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이기홍 회장이 주장하고 있는 스포츠위원회 구성을 위해서, 우리 문화체육부가 거기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에 대한 공개적인 압박이고 이것은 정치적 행사입니다. 그래서 1만 5000명의 체육인들을 모아 놓고 이런 행사를 벌인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단 한 치의 주저함도 없이 이기홍 회장께서는 정치적 의미는 없다라고 주장을 계속계속 반복하셨는데 실제로 본인들이 작성한 서류에도 보면 이런 정치적 맥락을 담은 행사가 그날 있었다는 게 분명한데 이렇게 거짓 진술을 한 데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의 이름으로 위증 혐의로 고발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전재수 잘 알겠습니다.

배현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진 위원 중인·참고인 신문 다 끝난 거지요, 위원장님?

○위원장 전재수 예.

○배현진 위원 그러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인으로 출석한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은 지난 9월 24일 국회 문체위 현안질의에서 국회 중언·감정법에 따라 중인 선서를 하였고 현대산업개발이 축구협회와 관련돼 이득 본 게 절대 없다고 맹세한다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몽규 회장은 오늘 저희 국감에서도 밝혔지만 사실상 본인 소유 기업인 현대산업개발로부터 축구협회의 최고 중요 보직에 직원들을 파견하는 계약을 직접 체결하였고 인건비, 각종 수당, 제반 시설부터 천안축구종합센터 건립 관련 등 모든, 축구협회의 건설에 관한 민감정보까지 현대산업개발이 주도적으로 제공받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함을 오늘 국감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민간기업인 현대산업개발이 공적 조직인 연 300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대한축구협회로부터 유무형의 이득을 계속해서 취해 오고 있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확인한 시점이고요. 기회를 분명히 주었으나 정몽규 회장은 이 사실을 인지한 것인지 아니면 일부러 회피하는 것인지 이 발언에 대해서 시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본 위원은 오늘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을 국회증언·감정법 제14조 위증의 죄를 물어서 감사원 감사나 문체부 감사와는 별도로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엄중 고발조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전재수 임오경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오경 위원 추가질의가 없어서 의사진행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오랫동안 스포츠 현장에서 몸담았던 종사자의 한 사람으로서 스포츠 종목단체들이, 대기업 후원이 현장에서는 절실합니다.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기 위해서 핸드볼이 ‘한대볼’이라는 소리를 들어 가면서 2008년 SK 기업이 핸드볼을 후원하면서 지금의 리그 까지 만들어 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간 여러 기업들이 수많은 팀을 창단하고 비인기 종목들을 후원해서 우리나라 스포츠가 세계 10대 강국으로 올라서는 데 우리 기업들이 기여를 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022년, 2023년 기업의 스포츠단 지원 현황을 잠깐 한번 보시면 삼성, 현대, LG, KT, SK 등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오늘 정몽규 중인이 나와 계시니……

잘못된 불법을, 편법을 잘했다고 제가 칭찬을 해 주는 건 절대 아닙니다. 현대가 지금 까지 기여한 부분만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현대 계열사 운영으로 프로 성인팀 만 4개, 울산·전북·부산아이파크·인천현대제철이 있으며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18개의 남녀 축구팀이 있습니다. 그간 이를 팀들의 운영비로 투입된 금액만 연간 1000억 원이 넘습니다. 타이틀 스폰서로 낸 후원금만 300억 원이 넘고 FIFA, 아시아축구연맹 후원도 상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위원장님에게 의사진행발언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문체위에서 잘못된 부분은 반드시 지적을 해야 되고 잘된 부분은 반드시 우리 문체위원들이 잘했다라고 칭찬도 아끼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 문체위에서는 잘한 부분은 부각되지 않고 잘못된 부분만 계속해서 부각되는 것 같아서 현장에서 오랫동안 종사한 위원으로서 제가 한 말씀 의사진행발언으로 드렸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의 많은 질의를 통해서 저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것을 제가 부정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문체부가 직접 나서서 현장에서 스포츠인들이 기업과 함께 더 잘할 수 있도록 우리 문체위원님들 그러한 아량도 베풀어 주셨으면 하기에 제가 현장에 오래 종사한 사람으로서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재수 많은 위원님들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셨는데, 누누이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지만 위증이라든지 중인 불출석 문제 등등과 관련해서는 이번 국정감사가 끝나고 난 뒤에 여야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를 통해서 엄중하게 조치하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신동욱 위원님과 박정하 위원님께서 중인 신문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보충질의를 하셔야 될 시간에, 오늘 중인·참고인분들이 워낙 많았고 또 많은 위원님들께서 중인 신문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보충시간, 추가시간까지 할애를 해서 쓰는 바람에 신동욱 위원님, 박정하 위원님이 장시간 동안 보충질의도 못 하고 앉아 계셨는데 위

원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증인과 참고인분들이 저희 위원회에 출석을 해 주셨는데 보충질의 이것까지 해 버리면 이분들이 너무 오랫동안 앉아 계셔야 되는 문제를 위원장으로서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이기현 위원님께서 하종대 원장님께 하종대 증인의 이전 발언 그리고 이 발언이 위증의 정황이 있으니까 혹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발언해 보실 생각이 있는지 위원장이 대신 좀 질문을 해 달라는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하종대 증인에게도 기회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전 발언하고 이기현 위원님 질의응답 시에 있었던 발언과 위증으로 보여질 만한 정황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정리해서 다시 한번 발언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증인 하종대** 예.

○**위원장 전재수** 그러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생각을 정리해서 짧게 발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증인 하종대** 위원님 질문하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이기현 위원님 짧게……

○**이기현 위원** 지난 15일 출석 시 하종대 증인은 국악공연은 KTV의 단순 아이디어 차원이라고 발언하신 바 있습니다. 맞지요?

○**증인 하종대** 예.

○**이기현 위원** 그런데 오늘 언론 보도에서 KTV가 한 달 전부터 대통령실 정용석 선임행정관과 최재혁 방송기획관까지 만나서 회의한 증거가 나타납니다. 회의 날짜는 저희가 10월 18일을 얘기했는데 그 앞에 9월 26일 날도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KTV 내부 공문을 살펴보면 국악공연 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위해 제작비 예산심의회를 열니다. 이것을 통과시킨 날짜가 9월 26일입니다. 그러니까 행사 한 달하고도 일주일 전에 이미 예산을 통과시켜 놨어요. 이는 처음부터 KTV가 대통령실하고 함께 협의하면서 내부 예산까지 배정한 정황이 드러난 것입니다.

KTV의 단순 아이디어로 대통령 내외를 초청해서, 말도 안 되는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한 국악공연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 내외,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의 영부인 김건희를 초청하기 위해서 답사도 진행하고 예산까지 미리 다 한 달하고 일주일 전에 통과시켜 놓은 것입니다.

하종대 증인이 단순 KTV의 아이디어로 그냥 이렇게 던져 놨다는 행사였는데 지금 보면 KTV는 이미 행사 한 달 일주일 전에 예산까지 다 심의를 거쳐 통과시켜 놓고 대통령실과 9월 26일 날 현장 답사까지 다 마쳤습니다. 이게 단순 아이디어였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아까 얘기하신 것하고 내용이 다릅니다. 사전에, 오래전서부터 대통령실하고 준비됐던 행사예요, 예산도 통과시켜 놓고.

○**증인 하종대**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KTV의 단순 기획행사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먼저 시작을 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대통령실의 지시에 의해서, 무슨 김건희 여사 일인 황제관람을 위해서 그렇게 만들려고 한, 거기 지시에 의해서 한 게 아니라는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 행사는 우리가 평소에 하지 않는 행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 기간 제가……

9월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 전부터 많이, 과연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인지도 좀 얘기가 있었고요. 저하고 최재혁 기획관은 그 전부터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게 문체부에서, 2030부산세계박람회 거기 전체 유치를 위한 뭔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는데, 저희가 사실은 그 전에 하나 만든 게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아리랑TV에서는 또 여러 가지 한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뭐 하나 더 만들까 하면서 그러면 뭘 만들어 볼까 하면서 아이디어를 짜낸 겁니다. 절대 그 시간 때문에 뭐를 다르게 얘기한 게 아닙니다.

○위원장 전재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나머지는, 추후에 고발과 관련해서는 간사 위원님들 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형배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꼭 하셔야 됩니까?

○민형배 위원 예, 왜냐하면 가시면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지금 하이브에서 입장문이 나왔는데 이것 때문예요.

○위원장 전재수 예.

○민형배 위원 위원장님, 제가 조금 전에 질의를 하고 난 다음에 하이브에서 이런 입장문을 내놨어요.

‘해당 보고서에는 어찌고저찌고’ 해 놓고 ‘마치 하이브가 아티스트를 비판한 자료를 만든 것처럼 보이도록 외부에 유출한 세력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이런 입장문이 나왔는데 지금 김태호 증인에게 이게 무슨 뜻인지 좀 묻고 싶거든요. 기회를 좀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전재수 김태호 증인 발언대로 잠시 나와 주십시오.

장시간 증인, 참고인분들께서 불편한 자리에 앉아 계셔서 저도 끝내려고 했는데 돌아가시면 이제 물어볼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발언대로 나오시게 한 것이니까……

민형배 위원님, 짧게 질의응답하십시오.

○민형배 위원 다시 여쭐게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자료, 하이브 내부 문건 스스로 만든 거 맞지요? 여기에는 하이브의 의견도 들어 있고 다른 많은 내용도 들어 있지요? 제가 읽어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맞지요?

○증인 김태호 혹시 지금 말씀하신 그 자료가 아까 저한테 보여 주셨었던, 산업리포트라고 지칭하셨던 그 문서를 가지고 계신 건지 제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민형배 위원 말씀드렸잖아요.

○증인 김태호 그 문서라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케이팝 팬들이 하이브 아티스트와 업계……

○민형배 위원 다시 질문드릴게요.

하이브의 의견이, 평가가 여기 안에 들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증인 김태호 당연히 그 문서에는……

○민형배 위원 들어 있지요?

○증인 김태호 어떤 의견들이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다 혹은 이런 의견들을 제시했다……

○민형배 위원 아니 간접적으로 전언이 아니고, 인용이 아니고……

하이브가 여기 평가한 거 읽어 드려요? 읽어 드릴까요?

○위원장 전재수 민형배 위원님, 좀 정리해서……

○민형배 위원 그런데 지금 국감을 하고 있는 도중에 하이브가 이런 입장을 냈어요. ‘외부에 유출한 세력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이건 무슨 뜻이지요?

○증인 김태호 제가 국감 현장에 출석해 있는 동안 회사와 소통하지 않아서 잘……

○민형배 위원 이것 모르세요? 지금 이 입장문 모르세요?

○증인 김태호 제가 입장을 내라거나 뭐 한 적이 전혀…… 계속 저는 여기 지금 증인석에 앉아……

○민형배 위원 ‘해당 보고서에는 엔터테인먼트 회사로서 귀담아들어야 할 내용들, 팬들의 긍정적인 평가도 포함돼 있습니다. 보고서 중 일부 자극적인 내용들로만 짜깁기해’, 제가 일부 자극적인 내용들을 추려 낸 건 맞는데, ‘마치 하이브가 아티스트를 비판한 자료를 만든 것처럼 보이도록’…… 제가 오늘 이렇게 질문했습니까? 하이브가 비판한 자료라고 그랬어요?

하이브의 내부 문건에 아티스트들에 대한 표현이 매우 부적절한 것들이 포함돼 있다…… 여기 보면 긍정적인 내용도 많이 있어요.

○위원장 전재수 민형배 위원님, 잠시만요.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위원장인 제가 잠시 끼어들어서 정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지금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국정감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나오셨고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감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 국정감사 위원이 증인께 질의하고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회사에서 저런 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위원장으로서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과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지금 국정감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런 식으로 입장문을 내실 수가 있습니까? 저런 식으로 입장문을 내는 것은 이 국정감사를 혼란화시키는 것입니다.

○증인 김태호 정말 죄송하지만 제가 사실 지금 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저희 하이브의 입장문이라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입장문 지금 민형배 위원님께서 읽어 줬지 않습니까?

○증인 김태호 그게 전부 읽으신 건지 아니면 부분을 발췌하신 건지도 제가 정보가 전혀 없어서 판단하기가 좀……

○위원장 전재수 국정감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국감 위원이, 문체위원이, 우리 위원회가 증인으로 채택을 해서 나오셔 가지고 질의응답이 진행되고 있는 마당에 회사에서 어떤 식이든 입장문을 내 가지고 마치 이 국정감사를 무의미하게 만든다든지, 국회의 권위를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더더구나 하이브가 대한민국의 K-콘텐츠를 이끌어 가는 대표기업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하게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합니까? 국회가 그렇게 만만해요?

○증인 김태호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위원장 전재수 그러면 이 입장문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서 다시 한번 민형배 위원과 우리 위원회에 하이브의 공식적인 입장문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저희들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또 다른 방법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위원장으로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욱 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식사 이후에 계속 질의를 해야 될 문제입니다.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지요. 저 입장문을 그냥 그대로 공표하게 하고 저희가 사과받고 끝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위원장 전재수** 양당 간사 위원님들 잠시 좀……

○**신동욱 위원** 그 사이에 경위 파악도 좀 해 보라고 그려세요.

○**김재원 위원** 국회 모독입니다.

○**위원장 전재수** 증인과 관련해서 계속 진행할 건지 잠시 협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증인은 들어가셔도 됩니다.

○**증인 김태호** 예, 저도 빠르게 좀 상황을 파악해 보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기사 검색해 보세요.

○**증인 김태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위원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저희들이 간사 위원 간 협의를 거쳐서 추후 진행 상황과 관련해서 공지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이 여야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하이브는 증인으로서 계속해서 이 국정감사장에 남아 주시고요. 그리고 잠시 국정감사를 중지한 시간에 이 일과 관련된 상황을 파악해서 국정감사가 속개되면 입장을 정리해서 우리 위원회에 설명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증인 및 참고인 신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배현진 위원** 위원장님, 아까 양문석 위원님께서 정몽규 증인에 대해서도 논의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위원장 전재수** 그건 여야 간사 위원 간에 협의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증인 및 참고인 신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출석해서 위원님들의 신문에 응해 주신 증인 및 참고인께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증인 및 참고인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국정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22시 정각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27분 감사중지)

(22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전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증인·참고인분들이 다 퇴장을 하셨는데 하이브 증인께서는 아직 자리에 계시지요?

○**증인 김태호** 예, 여기 있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그러면 김태호 증인 나오셔서……

입장을 어떻게, 정리를 했습니까?

○**증인 김태호** 예, 확인했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상황 파악은 했습니까?

○**증인 김태호** 예, 상황 파악했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그러면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김태호** 존경하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재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특히 오늘 여러 좋은 말씀 해 주셨던 민형배 위원님!

제가 국감장에 있는 동안 본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게시된 입장문이 부적절했다라는 지적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깊은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본 입장문을 게재하게 된 사유는 금일 국정감사 중 당사와 관련된 언급에 대해서 저희의 입장을 묻는 언론 문의가 빗발쳤고 일일이 입장을 전달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문의가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국정감사에서 다뤄지지 않은 내용과 국정감사에서 모자이크 처리된 내용이 그대로 노출되는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왜곡 및 확산되는 속도가 상당하다고 판단됐습니다. 이에 입장문 게재를 통해 언론 문의에 신속히 답변하고 올바르지 않은 정보가 확대·재생산되는 것을 막고자 긴급히 올리게 된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결코 국회를 경시하고자 한 것은 아닙니다.

이에 대해 국정감사 진행 중 입장문을 낸 것은 당사의 명백한 불찰입니다. 국정감사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고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위원장님과 민형배 위원님을 비롯한 문체위 모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민형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음악산업리포트와 관련된 문제도 앞으로 꼭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소속 아티스트는 물론 모든 이의 인권을 더욱더 소중히 여기고 대한민국 문화예술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리딩 컴퍼니로서 앞으로 더욱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분명히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전재수** 오늘 출석하신 김태호 증인께서는 하이브의 최고운영책임자 자격으로 출석을 하신 것 아닙니까?

○**증인 김태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대한민국의 한류를 이끌고 있는 일등 기업의 최고운영책임자로서 오늘 국정감사에 출석을 하셨는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국정감사는 헌법 61조, 국회법 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국정감사에서 우리 국정감사 위원이 질의 응답을 하고 있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한류가 세계적인 한류로서 지속성을 가지고서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일부 문제가 있다거나 이런 것을 지적하는 와중에 이런 입장문을 내는 것은 국회의 권위를 심대하게 훼손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한류를 이끄는 일등 기업이 국회와 국정감사를 대하는 자세와 태도로써는 온당치 못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들과 위원회의 입장입니다.

추후에는 대한민국 한류를 이끄는 일등 기업답게 처신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민형배 위원님을 비롯해 가지고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제대로 반영해 가지고 지속가능한 한류의 전 세계적 확산을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김태호 예, 꼭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이기현 위원님, 혹시 하이브와 관련한……

○이기현 위원 아니요, 하이브 말고. 끝나시면……

○위원장 전재수 그러면 조계원 위원님, 하이브와 관련된 겁니까?

○조계원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 전재수 그러면……

○박정하 위원 하이브와 관련해서……

○위원장 전재수 하이브와 관련해서, 예.

○박정하 위원 지금 증인께서 상황을 파악해서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정리를 하신 거라고 이해를 합니다마는 앞서 나왔던 회사의 입장문 중에 이런 대목이 있어요. ‘일부 자극적인 내용들만 짜깁기해서 마치 하이브가 아티스트를 비판한 자료를 만든 것처럼’, 이다음 문장이 중요한데요, ‘외부에 유출한 세력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이런 대목이 있거든요. 이 대목에 대한 증인의 그리고 하이브 측의 입장에 대해서는 앞서 읽어 주신 부분에서 나오지 않아요.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사실은 회사 내에서 여러 의견들이 있을 수도 있고, 좀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언론의 문의가 많아서 입장을 냈다고는 하지만 이 부분은 자유로운 얘기나 혹은 회사 내에서 비판이 있을 수 있는 내용을 외부로 나가는 세력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물을 거라는 것은 굉장히 위협적인 표현이고, 회사 내에서의 자유로운 토론이나 내부 논의를 막아 버리는 듯한 느낌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지금 증인은 전혀 입장을 밝히지 않았어요.

이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희들이 납득할 수 있게 좀 설명을 주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관한 입장을 위원장님께서 물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증인 김태호 제가 답변……

○위원장 전재수 예.

○증인 김태호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 당연히 필요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내용 이후에 바로 확인해서 적절하지 못한 표현 혹은 적절하지 않은 반응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지고 해당 부분들에 대한 수정을 하고 이런 것들을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하 위원 제 말씀을 잘……

○민형배 위원 내부자 색출을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증인 김태호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지금 제가 확인한 바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실제 상황과 맞지 않는 내용들이 온라인상에서 왜곡·유포되고 있는 부분들을 언급하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입장문이 나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지적 겹히 받아서 저희가 이 부분들 반영·수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하 위원** 지금 증인께서는 제가 여쭙는 것에 대해서 조금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외부에 유출한 세력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라는 표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증인께서는 여기 국감장에 계시니까 미처 못 봤다고 하는데 어떤 의도로 누가 이런 것을 컨펌해서 자료를 냈는지에 대해서 그 부분을 확인해서 이게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향후 설령 안에서 어떤 조사가 있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 차원에서 뒤 내부자 색출을 한다거나 이런 문제들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것을 제가 물어본 거거든요.

그리고 앞서 상황 파악을 했다면서 주신 말씀 중에 이 부분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증인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여쭤봤던 겁니다.

○**증인 김태호** 내부에서 건전한 비판을 하고 회사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분들이 보호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이미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것인데 제가 말씀이 좀 부족해서 제 뜻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면 그 부분은 좀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들이 저희 회사가 조금 더 나은 회사가 되는 데 기여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다라는 말씀도 꼭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김태호 증인, 그러니까 색출하겠다는 겁니까 안 하겠다는 겁니까?

○**증인 김태호** 내부자 색출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전재수** 하이브와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오늘 증인으로 출석해 주셔서 위원회를 대표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증인 김태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재수** 다음은 위원님들 추가질의 들어가기 전에 보충질의를 못 하신 두 분 위원님이 계십니다. 신동욱 위원님과 박정하 위원님 계신데요, 순서에 따라서 신동욱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원 위원** 의사진행발언.....

○**이기현 위원** 의사진행발언 아까 신청.....

○**위원장 전재수** 조계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조계원 위원** 오전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병국 위원장님의 위증 건과 관련해서 말씀드린 사항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정병국 위원장에게 이 위증 건에 대해서 사과할 의향이 있는지 한번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재수** 정병국 위원장님.

○**한국문화예술위원장 정병국** 나가서 답변.....

○**위원장 전재수** 예.

○**한국문화예술위원장 정병국** 지난 국정감사 때, 지난 18일 국정감사 때 질의하신, 조계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정리된 답변을 못 드리고 혼란을 일으킨 부분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뉴서울CC의 기금 조성과 관련된 사안,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2010년 이후 뉴서울CC 대표이사의 경력과 관련된 사안 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정정하고 반영해서 개선책을 마련하고 뉴서울CC가 명문 골프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기금 조성 목표 금액, 입장객 수, 고객만족도 등 이상철 대표와 체결하였던 경영 계약서상의 성과 목표를 지속 점검하고 관련 법령에 근거해서 한국문화진흥주식회사와의 계약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견될 경우 그에 상응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조계원 위원님……

○조계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정병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현 위원 제가 오전 질의 중에 존경하는 신동욱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유 장관님께 문다혜 씨의 디자인을 포함한 전체 프로젝트 참여 비용에 대해서 과다했는지를 좀 점검해 달라고 했고, 그 문제에 대해서 장관께서 문체부의 자체 조사에 의하면 너무 과다한 측면이 있다라는 질의를 해 주셔서 제가 이것과 관련돼서 출판물 디자인, 단행본 디자인 및 프로젝트 비용 관련해서 어떤 조사결과가 있었는지 제가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말씀드렸더니 한 다섯 줄짜리가 하나 왔는데요. 어떤 것이 왔느냐면 일반적인 출판사의 단행본 연간 편집 디자인 관련 총지출 금액은 한 회사당 1억 5480만 원 정도 그리고 출판 분야에서 프리랜서로 연간 일하는 직원들의 평균 보수는 1835만 원 이렇게 해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 자료는 대단히 부적절한 자료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 분명히 국정감사장에서 2억 5000이 본인의 개인 부채 그리고 앞으로 몇 권이 출간될지 모르는 문재인 대통령의 책에 대한 인세 그리고 본인이 참여하는, 문다혜 씨가 참여해서 기여할 것에 대한 디자인 프로젝트 참여비들이 다 포함돼 있는 비용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어느 것이 열마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도 모르거든요. 그렇게 본인이 주장했고 수사기관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출판사 단행본 연간 편집 디자인 비용이 1억 5400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지 않았던, 어떤 금액이 과다하다고 이렇게 평가를 해서 장관님께서 발언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제가 장관님께 묻는 것은 아니고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비교할 수 없는 데이터를 가지고 비교를 해서 국감장에서 혼란을 야기한 장관님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경고가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하이브 사건이 잠깐 있었는데 지난번 저희가 10월 7일 날 국감에서 처음으로 KTV의 황제관람에 대한 의혹 제기가 있었고 그때부터 저희가 국감 내내 이 문제를 질의해 왔는데, 그리고 새로운 사실들이 많이 발견이 되고 국민적 의혹이 사실로 증명되어 가는 과정에 있는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KTV 이은우 사장은 그 당시에 무슨 일을 했냐면 저희가 질의를 시작해서 기사화가 되자마자 그 국감이 열리는 첫 국감장에서 KTV의 생방송을 통해서 이 의혹 제기는 사실과 다르다, 허위だ라고 하는 방송을 내보냈어요. 성급하게 자기들 확인도 안 하고, 자기들이 김건희 여사가 언제 왔는지도

확인도 못 한다는 KTV가 이러한 허위의 보도를 낸 것에 대해서 저는 이은우 사장의 사과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전재수 유인촌 장관님, 이기현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아마 그 부분은 지금 자료 드린 부분하고 비슷할 것 같은데요. 그냥 디자인, 단순한 디자인의 전반적인 거를 비교해서 말씀드린 거라고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기현 위원 그러니까 문다혜 씨가 받았다는 금액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지금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과도하다고 얘기하시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러니까 일반적인 다른 책의 디자인 비용과……

○이기현 위원 이게 한 권이 아니고 출판사 하나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렇지요.

○이기현 위원 이분이 지금 책을 몇 권을 낼지를 아직 정한 바가 없어요, 전직 대통령의 관련 책들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아니, 이것은 그 한 권으로 비교가 된 거지요, 말하자면.

○이기현 위원 그러니까 한 권하고 비교했다는 얘기를 안 하셔 놓고 이런 자료를 내시면 어떻게 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렇게 된 거라서……

○위원장 전재수 장관님, 이 부분은 이기현 위원님께 별도로 오해가 없도록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KTV 원장님, 하이브하고 비슷한 상황인데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국정감사에 대해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방송을 하신 것은 사실인가요?

○한국정책방송원장 이은우 맞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무슨 의도입니까?

○한국정책방송원장 이은우 기관장으로서, 저희 KTV가 일종의 언론으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뢰도가……

○위원장 전재수 국가 기간통신사처럼 무슨 속보로 그렇게 즉각적으로 해야 되거나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한국정책방송원장 이은우 아니, 속보로 처리……

아닙니다. 저희가 신뢰도가 굉장히 중요한 기관인데 일단은 그러한 어떤 종편 매체에서 의혹을 제기함에 따라 저희의 신뢰도에 상당히 훼손이 있을 것 같은 그런 판단하에 저희가 저희의 입장을 객관적으로……

○위원장 전재수 원장님,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국정감사를 하고 있는 와중에 그렇게 하는 것은 그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못한 것입니다.

○**한국정책방송원장 이은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위원장 전재수**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끝이 나고 난 뒤에 얼마든지 이렇게 소명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무슨 큰일이 있을 것처럼……

그런 사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주의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정책방송원장 이은우** 예, 잘 새기겠습니다.

○**이기현 위원** 사과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적어도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 국회와 국정감사를 대하는 태도가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한국정책방송원장 이은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그런 측면에서 이기현 위원님 사과를 요구하시는 데 사과하실 수 있겠지요, 내용을 떠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국정책방송원장 이은우** 사과를 하는 이런 시간을 주시기에 제가 한 말씀을 좀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예, 그렇게 하시지요.

○**한국정책방송원장 이은우** 지금 저희가 초기에 이 사안에 대응을 하는 과정에서 KTV가 허위 자료로 대응을 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들을 지금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고의적으로 허위 자료를 낼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의 입장에서 전임의……

○**이기현 위원** 저희 방에 와서 김건희 여사 참석 안 했다고 그렇게 허위 보고 하다가 나중에 20일 날 사진 나오니까 그때부터 인정했잖아요. 왜 또 거짓말하세요!

○**한국정책방송원장 이은우** 아니요, 그거는 약간 위원님이 사실상……

○**위원장 전재수** 원장님, KTV 관련해서는 많은 위원님들 사이에 질의응답이 왔다 갔다 했고 또 언론의 많은 조명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질의응답을 통해 가지고 충분히 나올 만큼 나왔기 때문에. 국정감사장에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고 국정감사 위원이 질의하는 그 와중에 KTV를 통해서 속보성으로 그렇게 바로 반박하는 이 자세와 태도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께서 이기현 위원님에게 명확하게 사과를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이기현 위원** 제가 아니라 저희 위원회에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전재수** 그래서 원장님, 이기현 위원님과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이 부분은 명확하게 사과 표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정책방송원장 이은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국정감사 기간에 저희 채널을 통해서 국정감사에서 논의되고 있는 부분을, 저희는 해명이라고 했지만 일종의 반박처럼 보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사과드립니다.

○**위원장 전재수** 좋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진종오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오 위원** 오늘 이기홍 대한체육회장은 국회 국정감사 기관증인임에도 불구하고 말도 안 되는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잠적했습니다. 이에 우리 문체위는 이기홍 회장

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지만 국회사무처 직원과 하루종일 숨바꼭질을 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 회장은 지난 장원일보 인터뷰를 통해서 문화체육관광부와 박정하 위원님 그리고 본 위원에 대한 막말에 대해 사과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자를 통해서 알아보니 일방적으로 전화 통화하고 끊었다고 합니다.

본 위원은 이 회장의 이와 같은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는 또다시 국회를 무시하는 행동이자 기만하는 행위로 절대 이대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기홍 회장은 즉각 공식적인 자리에서 제대로 사과하고 자신의 발언과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대한체육회는 신뢰가 더욱 추락할 것이며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체육계와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야 위원님들께 강력하게 호소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여야를 떠나서 우리 위원회가 한목소리로 이기홍 회장의 이와 같은 행동에 대해서 강력히 규탄해 주시고 위원장님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위상을 찾을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강유정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유정 위원 오전에 영진위, 숨기고 있는 법률검토보고서 그리고 법무법인별로 의뢰한 상세내역과 비용 지급현황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그나마 이게 쪼개기로 오기 시작했는데요. 비용 지급현황을 받아 봤는데 제가 알고 있는 2개만 있고 달라고 했던 하나는 안 와서 고발조치할 수 있다라고 경고했더니 3시 넘어서 제출을 하긴 했어요.

그런데 국정감사 피감기관 중에 이렇게 체계 절차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자료를 보내는 기관은 처음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요청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법률자문을 요청하긴 했는데 우연이 몇 번이나 등장해요. 하필이면 내부에 기록이 없답니다 또 하필이면 늘 보내던 법률자문 요청서도 없답니다 또 하필이면 그 변호사가 퇴사를 해서, 다른 보고서는 다 있는데 하필이면 영진위의 주장과 다른 주장이 담겨 있는 법률검토의견서만 사라졌다라고, 이 하필이면이 네 번이나 등장하면 이런 걸 보고 우연이라고 하긴 어렵지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고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영진위에, 이것 자료 은폐 시도라고 봅니다. 그리고 국정감사를 방해하려는 행위가 아닐까 싶어요. 엄중 경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문체부에도 부실하고 허술한 영진위의 자료관리시스템에 대해서 특별감사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재수 영진위원장님, 어찌 된 일입니까?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오늘 전달된 자료는 저희 위원회에서 보유하고 있던 자료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도적으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그 경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개인이 보유하고 있었던 자료를 저희는 알고 있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그걸 알게 된 겁니다.

○위원장 전재수 위원장님, 강유정 위원님께서 오늘 자료제출 요구를 한 것이 아니고 아마 의원실에서 오랫동안 준비를 해서 국회법 절차에 맞춰 가지고 충분히 자료를, 피감기관에서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히 드렸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감에서 이런 자료제출 요구를 가지고서 또 우리 위원들의 지적을 받는다는 것은 영진 위로서는 참 이게 좀 그렇지 않습니까? 추후에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해 주시고.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출받으신 자료가 여전히 납득하기 어렵다라는 것이 강유정 위원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종합국감이 끝나더라도 강유정 위원께 자료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자료도 충분히 성실하게 제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예,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제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김재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 질의 때 제가 황성운 기조실장에게 정용석 행정관에게 물어 사진 속의 인물을 오늘 국감 종료 전까지 알려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묵묵부답입니다. 이에 위원장님께서 자료를 즉시 제출하도록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종대 전 KTV 원장과 이은우 현 KTV 원장은 모두 국감 기간 내내 김건희 여사 황제관람 관련 위증을 일삼았습니다. 국감 기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공개된 자료들 그리고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들이 계속 주장했던 주요 사실인 김건희 여사의 참석 관련해서 몰랐다, 격려차 잠시 들른 것이라는 주장들이 모두 거짓이었음이 명백해졌습니다.

또한 황성운 기조실장, 당시 대통령실 문체비서관은 정용석 행정관에게 한 KTV 행사 최초 지시시점이 18일 만나고 그 일주일 전쯤이라고 했는데 정용석 행정관이 KTV 최재혁 방송기획관과 청와대 답사한 것이 9월 26일이었음이 보도를 통해서 밝혀졌으므로 진술한 최초 지시시점이 거짓이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규정된 위증의 죄로 고발조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전재수 잘 알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종감이 끝나고 난 뒤에 여야 간사 위원들과 위원장이 함께 협의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를 아직까지 못 하고 계시는 신동욱 위원님과 박정하 위원님 질의를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신동욱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이 계속 그 말씀 하시니까 이게 세비받고 일 안 하는 사람처럼 자꾸 국민들에게 알려질 수가 있으니까 이제 그 말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오래 기다렸습니다만 하여튼 내실 있게 하겠습니다.

장관님, 남북 문화교류나 협력사업할 때 남북문화교류협의회 이것 두게 돼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신동욱 위원 지금도 그게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지금……

○**신동욱 위원** 잘 기억 안 나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그렇습니다.

○**신동욱 위원** 이게 법을 보면 반드시, 그러니까 의무조항입니다. 예산요구서 작성할 때 그리고 문화교류협력사업 시행할 때 남북문화교류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의무사항인데 저희가 질의를 해 봤더니 2017년도 이후에 협의회를 별도로 개최하지 않았다 이런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아무 사업도 안 했어야 되는데 2018년 이후에 221억 규모의 51건 사업을 계획하고 시행을 하셨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어쨌든 교류심의 위원회를 개최한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이것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사실 저는 이 부분에 대한 파악은 잘 안 돼 있고요. 남북 문화교류협력사업에 대한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든가 이런 점은 확실히 뭔가……

○**신동욱 위원** 그래서 이게 단순히 행정적으로 안 했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을 심의하는 것은 그 나름대로, 특히 북한과의 교류협력 문제는 여러 가지 예민한 사안들이 있어서 반드시 사전 예산이라든지 심의를 거치게 하는 것은 법의 취지가 있을 텐데 전혀 하지 않은 것은 참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긴 합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어쨌든 행정 이렇게 제대로 하지 않고 남북교류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이 176억 그리고 국가유산청도 65억인데 역시, 지금 최근에는 사실은 남북관계가 경색돼서 잘 못하긴 합니다만 집행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문체부의 남북교류사업 집행률은 21%, 국가유산청은 44%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예산은 잡고, 사업 예산은 잡혀 있는데 이게 어떻게 관리가 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일단은 아무래도 남북관계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집행률은 좀 많이 떨어진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래는 뭐 거의 이런 교류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이 부분은 정치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문체부 입장에서는 남북교류를 할 수 있도록…… 사실 작년도 남북교류를 문체부가 나서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 보자는 의논은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으로 잘 안 됐는데 적어도 내년 정도부터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욱 위원** 특히 심의위원회 문제는 반드시 쟁여서 이게 왜 회의가 전혀 열리지 않는지도 좀 쟁여 봐 주시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알겠습니다.

○**신동욱 위원**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부적절한 예산 지원 사례도 발견됩니다.

지금 사진 한 장 좀 보여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면)

이 단체가 2021년도, 2022년도 2년 동안 5549만 원을 지원받은 단체인데 상당히 부적절합니다. 이 단체 회원이 보시면 티셔츠에 김일성 사진을 프린트해서 입고 있고, 그 책들이 저희가 알아봤더니 무슨 주사파 주체사상 에세이 책을 들고 회의를 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무슨 비밀리에 찍힌 사진이 아니고 이 사진을 활동, 말하자면 본인들의 활동 실적이라고 문체부에 제출한 사진이라고 그래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렇습니다.

○**신동욱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예산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을 보면서 그냥 신청만 하면 주는 것인지, 그리고 그냥 보기에도 이 사진에 보이는 이 장면만 보면

도대체 무슨 활동을 하는 건지도 전혀 모르겠는데, 5500만 원이면 큰돈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그렇습니다.

○신동욱 위원 어떻게 해서 이런 게 지원이 되는지 혹시 파악해 보셨습니까? 오늘 보도도 났습니다마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사실 특히나 청소년들이고, 이런 문제는 조금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배려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 조금 더 확인을 하고 저희들이 실태 파악을 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욱 위원 저희가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지원을 이를테면 너무 정치적 문제로 재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적어도 이 부분은 보면 우리 남북관계가 가지고 있는 예민함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이렇게 버젓이 김일성 초상화가 그려진 티셔츠를 입고 주체사상 애세이 책을 들고 회의하는 모습이 사업 실적으로 보고된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또 예산이 지원되고 이런 부분들은 집행하는 부서가 대체 무슨 생각으로 하는지 저로서는 사실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들 좀, 특히 제가 처음에 지적한 것처럼 남북교류 문제가 지금 상당히 경색돼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좀 점검하셔서 필요한 부분의 문화교류는 하실 수 있는 방법 좀 찾아 주시고 또 이런 부분들도 철저하게 좀 챙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저희 부처 입장에서는 주로 문화예술 아니면 종무적인 그런 쪽에 지원을, 아니면 교류를 하는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진에 보여지는 것하고는 조금 의미가 다른 것 같습니다. 교류협력사업에 대한 위원회를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욱 위원 짧막하게, 시간이 좀 남아서……

지난번 한글박물관 관장님 오셨을 때 제가 김정숙 여사님 샤텔 재킷이 입었던 것이 아닌 세 벌이 만들어졌고 이 세 벌 가운데 두 벌은 그 옷을 디자인한 국제적인 디자이너의 사망 2년 후에 어떤 경위를 거쳐서 우리 한글박물관으로 오게 된 정황에 대해서 질의를 한 바가 있는데 제 결론은 김정숙 여사의 옷에 대한 논란이 생기니까 부랴부랴 당시 청와대가 개입을 해서 이 옷을 기증을 받는 과정에 좀 의문이 있다, 그래서 이 두 벌의 옷이 과연 우리 박물관에 보관할 만한 그런 옷인지도 좀 한번 알아봐 주십사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한 보고는 받으셨나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아마 기증은 입었던 옷으로 알고 처음에 받았던 것으로 저는 얘기를 들었고요. 지금 현재 한글박물관에 그대로 보관돼……

○신동욱 위원 제가 질문하는 것은 입으신 옷이 아니고 2년 후에 새로운 옷이 들어왔는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다른 옷이 온 거지요.

○신동욱 위원 다른 옷인데 그 다른 옷조차도 그 디자이너가 사망한 지 2년 뒤의 옷이니까 그게 과연 그 디자이너의 옷이라고 볼 수 있는지, 우리가 박물관에 보관할 가치가 있는 옷인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십사, 과정을 좀 들여다봐 주십사 하는 취지의 질의였으니까 꼭 한번 들여다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알겠습니다.

○**신동욱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하 위원**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질의에 앞서서 간단하게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예, 그렇게 하십시오.

○**박정하 위원** 오늘 앞서 진종오 위원이 죽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아침 10시부터 지금 국감이 진행 중인데 처음 했던 게 이기홍 대한체육회장의 동행명령 의결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시간까지 아무런 답이 없고 이런 상황인데, 확인할 것은 많고…… 국회, 저희 문체위를 굉장히 경시하는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라 다음에 저희가 법안 처리하는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잖아요? 그때 대한체육회에 대해서는 현안질의를 좀 하고 기관증인으로 이기홍 회장을 출석시킬 것을 저희 국감 종료되기 전에 의결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전재수** 두 분 간사 위원님께서 협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하 위원** 그러면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양문석 위원** 협의하기 전에, 그러면 저도요.

○**위원장 전재수** 끝나고, 박정하 위원님 끝나고 해 주십시오.

○**양문석 위원** 협의 지금 하실 거지요? 협의하기 전에……

○**위원장 전재수** 박정하 위원님께서 보충질의를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셨기 때문에……

○**박정하 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주질의가 정리가 안 돼요, 이기홍 회장님이 안 계셔서.

윤성욱 총장님 계시지요?

장시간 고생이 많으신데요. 회장님 안 계시면 안의 살림살이나 전체적인 건 총장님이다 대행을 하시는 게 맞는 거지요?

○**대한체육회사무총장 윤성욱** 예.

○**박정하 위원** 진종오 위원이 얘기하셨던 이기홍 회장님, 아마 제가 그저께 체육회 관련해서 국감 할 때 얘기했던 것 기사 같은데 강원일보 기사 혹시 보셨나요?

○**대한체육회사무총장 윤성욱** 오늘 것은 제가 아직 못 봤습니다.

○**박정하 위원** 오늘 것 못 보셨어요?

○**대한체육회사무총장 윤성욱** 예.

○**박정하 위원** 그러면, 이게 제법 오래전에 기사가 떴어요. 7시 43분발인데 대한체육회사무처 직원분들은 총장님 여기 나와서 국감받고 있는데 아무런 보고나 이런 게 없었나 봐요?

○**대한체육회사무총장 윤성욱** 예, 못 받았습니다.

○**박정하 위원** 왜 그렇게 됐지? 그러면 이게……

○**대한체육회사무총장 윤성욱** 아마 회장님하고 직접 관계되는 일이라서……

○**박정하 위원** 회장하고 직접 관계되는 일은 총장님이 안 하시나요? 총장님은 그러면 또 어떤 일을 하세요?

○ **대한체육회사무총장 윤성욱**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여기 주로 들어와 있는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 **박정하 위원** 그래도 쪽지라도 주고, 지금 저녁 하느라고 우리가 정회도 있었고 그랬는데 그 사이에 그런 보고 안 받으셨어요?

○ **대한체육회사무총장 윤성욱** 예, 강원일보 것은 제가 못 받았습니다. 회장님께서 강원일보하고 인터뷰를 할 계획이다라는 말까지만 제가……

○ **박정하 위원** 그 말씀은 들으셨어요? 들으셨어요?

○ **대한체육회사무총장 윤성욱** 예, 어저께 들었던 것 같습니다.

○ **박정하 위원** 그러니까 그걸 하는지……

○ **대한체육회사무총장 윤성욱** 그것을 할지 안 할지도 몰랐고, 어저께 들은 것 같습니다.

○ **박정하 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것들은 일부 상의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강원일보 기사 좀 한번 보시고.

제가 애초에 언론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말씀을 주십사 했던 취지는, 총장님 아마 현장에 계셨으니까 이해하실 텐데 저와 진종오 위원과 관련된 건이 어떤 취지로 그렇게 말씀을 했고 그러면 그게 어떤 오해가 있는지를 설명을 해 달라고 그랬는데 이 기사는 저와 진종오 위원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고 그냥 김진태 강원지사에 관한 얘기만 사과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맥이 다른 그런 거니까 한번 보시고 이따가라도 말씀을 한번 주세요.

거기에 ‘문체부가 괴물이다’, ‘유인촌 장관이 괴물이다’ 이런 표현도 전혀 없어요. 과연 이게 마음에 있는 인터뷰인지 잘 모르겠어요. 한번 확인해 주시고,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인터뷰하겠다는 계획을 상의할 정도로 얘기가 되니까 꼭 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 **대한체육회사무총장 윤성욱** 예.

○ **박정하 위원** 이 인터뷰를 상의할 정도면 오늘 이기홍 회장님이 국감장에 출석 안 하겠다는 얘기 상의하셨나요?

○ **대한체육회사무총장 윤성욱** 건의는 드렸었지요.

○ **박정하 위원** 뭐라고 건의하셨어요?

○ **대한체육회사무총장 윤성욱** 증인이시니까 오시는 게 좋겠다.

○ **박정하 위원** 그에 대해서 회장님께서는 답변 어떻게 하셨어요?

○ **대한체육회사무총장 윤성욱** 알아서 판단하시겠다.

○ **박정하 위원** 알아서 판단하시겠다?

○ **대한체육회사무총장 윤성욱** 예.

○ **박정하 위원** 그러면 여기에 애초부터 오늘 출석 안 하려고 마음을 먹고 계셨던 거네, 지금 총장님 말씀하시는 취지로 이해를 한다면?

○ **대한체육회사무총장 윤성욱**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박정하 위원** 보통 출석을 하겠다 그러면, 그렇게 건의하시면 ‘알았어요, 내가 갈게요’라고 답하는 게 통상의 경우 아닌가요? ‘내가 알아서 판단하겠다’ 그러면 안 나오겠다는 취지 아니에요?

○ **대한체육회사무총장 윤성욱**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 **박정하 위원** 그래요, 거기까지만 할게요. 그런데 답변이 석연치 않은 것 같아요.

오늘 하루 종일 출석 안 하시고 죽 돌아다녔는데 그 사이에도 총장님께서는 회장님의 움직임이나 어디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전혀 보고받거나 아니면 상의하지 않았으셨나요?

○ **대한체육회사무총장 윤성욱** 남원 행사에 대해서만 들었습니다.

○ **박정하 위원** 남원 행사 끝나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된다는 말씀은 없었고요?

○ **대한체육회사무총장 윤성욱** 예, 그 이후는 모르겠습니다.

○ **박정하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여기 출석하면 좋겠다라고 건의를 드렸잖아요, 며칠 전에. 그러셨다고 그랬잖아요?

○ **대한체육회사무총장 윤성욱** 예.

○ **박정하 위원** 그러면 오늘 안 나오시고 이렇게 동행명령장까지 의결돼서 발부가 되고 행정실에서는 직원이 직접 가서 회장님 소재를 찾고 있는데 그 건에 대해서 빨리 오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회장님께도 전달 안 하세요?

○ **대한체육회사무총장 윤성욱** 제가 직접은 안 했습니다.

○ **박정하 위원** 그러면 어떤 루트를 통해서 하기는 했어요?

○ **대한체육회사무총장 윤성욱** 직원들이 연락은 하는 것 같은데 연락이 잘 안 된다고만 들었습니다.

○ **박정하 위원** 전혀 연락이 안 된다?

○ **대한체육회사무총장 윤성욱** 예.

○ **박정하 위원** 아니, 이렇게 중요한 대한체육회를 맡고 계시는 분의 소재가 파악이 안 된다는 게 말이 되나요, 상식적으로? 하루 이를 삼일씩 막 이렇게 유보 상태가 있어도 대한체육회는 잘 굴러가나요?

총장님의 입장으로서 한번 말씀 주세요,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 **대한체육회사무총장 윤성욱** 글쎄요,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통상적인 일은 제가 처리할 수 있으니까 제가 처리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위급한 일이면 어떤 식으로든지 연락을 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은 어쨌든 연락이 안 됐습니다.

○ **박정하 위원** 지금은 위급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세요?

○ **대한체육회사무총장 윤성욱** 좀 중요하다라고는 생각합니다.

○ **박정하 위원** 그렇지요?

○ **대한체육회사무총장 윤성욱** 예.

○ **박정하 위원** 그러면 해 보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대한체육회사무총장 윤성욱** 그런데 제가 지금 얘기한다고 해서…… 연락이 일단 안 됐으니까, 뭐 연락이 닿아야 말씀을 해 볼 수가 있는데.

○ **박정하 위원** 아니, 회장님이 안 계실 때 전체를 총괄하고 있는 총장님이 연락이 안 된다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게 조직이 건전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 **대한체육회사무총장 윤성욱**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연락이 잘 안 됐습니다.

○ **박정하 위원** 총장님, 부임해 오신 게 작년 5월인가요?

○ **대한체육회사무총장 윤성욱** 예, 그렇습니다.

○**박정하 위원** 그러면 엊그제 제가 여쭤던 것처럼 테니스협회장선거와 관련해서 총장님도 똑같이 스포츠윤리위원회에 가셔야 되는 상황인 거지요?

○**대한체육회사무총장 윤성욱** 예, 그저께 국감 하실 때 말씀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하 위원**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체육회사무총장 윤성욱** 예.

○**박정하 위원** 시간 약속은 잡았나요?

○**대한체육회사무총장 윤성욱** 아니요, 아직 연락이 없었습니다.

○**박정하 위원** 아니 여러 번, 세 번이나 오라고 얘기하셨으면 이후에는…… 그날도 제가 취지는 연락을 해 갖고 시간 잡아서 대면조사를 좀 받아라라는 취지로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이해 안 하셨나 봐요? 연락이 오면 가겠다라는 것 같은데요.

○**대한체육회사무총장 윤성욱** 연락이 오면 일정을 조율해서 가겠다 이런……

○**박정하 위원** 제가 그러면 잘못 말씀드린 거라고 치고.

그날 제가 끝내 이기홍 회장님한테 답변을 못 들었는데, 대한테니스협회장선거와 관련한 맥락은 다 알고 계시지요?

○**대한체육회사무총장 윤성욱** 예.

○**박정하 위원** 요는 뭐냐 하면 이기홍 회장이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면서, 세 사람이 스포츠윤리센터에 고발이 되었다라는 취지로 작년 10월 24일 국감장에서 얘기했고, 이후에 11월 그다음에 금년 2월 테니스협회 간담회를 하면서 또 계속 사실과 다르게 입후보했던 세 사람의 후보가 고발돼 있다라는 의혹 때문에 지금 두 분이 고발돼 있고 조사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맞아요?

○**대한체육회사무총장 윤성욱** 예.

○**박정하 위원** 총장님은 이 세 분의 후보가 고발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걸 언제 인지하셨어요?

○**대한체육회사무총장 윤성욱** 저도 정확하게는 그날 같이 알았던 것 같습니다.

○**박정하 위원** 그러면 그 사이에 회장님도 그렇고 총장님도 그렇고 직원들로부터 고발돼 있는 게 사실과 다르다라는 보고를 전혀 못 받았다 그런 말씀인 거지요, 확실해요?

○**대한체육회사무총장 윤성욱** 정희균 전 회장님을 스포츠센터에 고발했다 이것은 들은 기억이 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전 회장이 고발이 됐기 때문에 세 분이 같이 엮여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박정하 위원** 아니 그렇게 중요한 것을, 그러니까 종목단체가 중요한 협회장선거를 하는데 잘못된 부분, 혹여나 회장이 억지로 선거를 못 하게 했으면 그게 직권남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 부분을 우리가 찾아가고 있는 건데 그에 대해서도 총장께서는 전혀 확인을 안 했다는 거예요?

○**대한체육회사무총장 윤성욱** 저는……

○**박정하 위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회장이 안 계시는데 어디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하루 종일 찾아보지도 않고 그다음에 이것도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총장께서도 확인 안 해 보고 있고, 체육회가 지금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대한체육회사무총장 윤성욱** 저희가 그때 중지 요청을 했던 것 원인이 세 가지 정도

로……

○**박정하 위원** 아니, 세 가지 다 아는데…… 그날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앞의 두 가지는 놔두고 마지막, 입후보한 세 후보가 스포츠윤리센터에 고발돼 있다는 건만 제가 말씀드려요. 그것만 확인하면 모든 게 다 나와요.

○**대한체육회사무총장 윤성욱** 그 세 번째 사항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디테일하게 확인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박정하 위원** 총장님, 제가 총장님한테 자꾸 이렇게 압박하듯이 질문하는 게 죄송하긴 한데 정말 몰랐다는 거지요?

○**대한체육회사무총장 윤성욱** 예.

○**박정하 위원** 아무도 그 사이에 총장님이나 회장님한테 체육회에 있는 직원분들이 그런 얘기를 얘기하지 않았다, 그렇지요? 그게 사실관계가 다르다, 얘기 안 했다는 거지요?

○**대한체육회사무총장 윤성욱** 기억은 안 납니다.

○**박정하 위원** 기억 안 나오요?

○**대한체육회사무총장 윤성욱** 얘기는 했을 수도 있겠으나 기억은 안 납니다.

○**박정하 위원**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야 합의가 되면 체육회장님 오셔야 되니까 그때 한번 제대로 따져 볼게요.

지금까지는 유감스럽게도 총장님은 별로 체육회에 관심이 없거나 혹은 그냥 별도로 유리돼서 계시는 것 같아요, 느낌이. 체육회 직원들하고 잘 융화하고 안의 조직을 잘 관장해야 되는데 모르시고, 아니면 그냥 넘어가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좀 유감스럽습니다. 잘 좀 챙겨 주세요.

○**대한체육회사무총장 윤성욱** 예, 알겠습니다.

○**박정하 위원** 그러면 실질적인 것 한번 물어볼게요.

체육대통령은 그렇다 쳐도 혹시 체육회 내에서 전기범 왕국이라는 얘기는 들어 보셨어요?

○**대한체육회사무총장 윤성욱** 예?

○**박정하 위원** 전기범 왕국, 그런 얘기 못 들어 보셨어요?

○**대한체육회사무총장 윤성욱** 예, 못 들어 봤습니다.

○**박정하 위원** 전기범이라는 직원이 있는 건 아세요?

○**대한체육회사무총장 윤성욱** 예, 선수촌의……

○**박정하 위원** 훈련부장?

○**대한체육회사무총장 윤성욱** 예.

○**박정하 위원** 훈련부장이면 어떤 일을 해요?

○**대한체육회사무총장 윤성욱** 국가대표 훈련하는 것을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하 위원** 지원하고, 예산과 금전 관련한 것도 많이 하지요? 종목단체 선수와 지도자 수당 지급하는 역할을 거기서 하지요?

○**대한체육회사무총장 윤성욱**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하 위원** 이 전기범이라는 직원이 이기홍 회장님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돈인 것 같아요.

○**대한체육회사무총장 윤성욱** 예.

○박정하 위원 그래서 전기범 왕국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체육회사무처라고 표현하나요? 일반 직원들은 6급부터 해서 죽 승급을 하게 되나요?

○대한체육회사무총장 윤성욱 들어오면 7급입니다.

○박정하 위원 들어오면 7급?

○대한체육회사무총장 윤성욱 예.

○박정하 위원 7급부터 해서 죽 올라가시는 거고?

○대한체육회사무총장 윤성욱 예.

○박정하 위원 그게 한 단위 한 단위 이렇게 승진을 할 때 보통 승진연한이 얼마나 돼요?

○대한체육회사무총장 윤성욱 그것까지는 제가 계산을 안 해 봤는데 최저연수는 있습니다.

○박정하 위원 대충 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총장님의 그런 일 다 하시는데? 이것마저도 모르실 건 아닐 거고.

○대한체육회사무총장 윤성욱 보통 사오 년 걸리는 경우도 있고 빠를 경우에는 이삼 년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정하 위원 사오 년 정도 걸리고, 직급별로 보통 그렇게……

○대한체육회사무총장 윤성욱 물론 다릅니다.

○박정하 위원 (영상자료를 보면)

그런데 전기범이라는 분은 어떻게 되냐면 6급에서 5급 진급하는 데, 전체 20개 부서 부서장들이 보통 4년 정도 걸리는데 이분은 1년 반도 안 돼서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해요. 그리고 4급에서 3급 승진하는 데 또 한 4~6년 정도 걸리는데 이분은 2년 10개월 만에 승진을 해요. 이것도 다 이기홍 회장님께서 취임하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일이에요.

좀 특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안 따져 보셨나요?

○대한체육회사무총장 윤성욱 예.

○박정하 위원 전기범이라는 분은 알지만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모른다고 하니까, 모른다고 하시겠지요.

○대한체육회사무총장 윤성욱 그분이 어떻게 어떻게 승진했는 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정하 위원 좀 챙겨보셨으면 좋겠어요. 안의 직원들이 좀 허탈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또 하나, 수당도 거의 이 전기범 부장한테 모든 권한이 있어서 막 지급이 된다는 거예요. 수당이 어떤 식으로 지급이 되는지 결재해 보셨나요? 전결권이 어디까지 있는지 아세요?

○대한체육회사무총장 윤성욱 선수촌에서의 일은 보통 저한테는 잘 안 옵니다.

○박정하 위원 아, 그래요? 그건 또 어떤 분이 관장하시나요?

○대한체육회사무총장 윤성욱 선수촌장께서 하십니다.

○박정하 위원 선수촌장. 그러면 선수촌장은 총장님께도 보고 안 해요?

○대한체육회사무총장 윤성욱 중요한 일만 상의하고 그렇습니다. 결재 라인에 있지는 않습니다.

○박정하 위원 예산, 결재 라인에 전혀 있지 않고요.

1분만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한번 쟁겨봐 주세요.

○대한체육회사무총장 윤성욱 예.

○박정하 위원 그리고 이 전기범 부장이라는 분이 그 자리에,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각종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그 자리에 지금까지 한 4년 2개월간 계속 근무하고 있어요. 그런 것도 전례가 있나요?

○대한체육회사무총장 윤성욱 보통 4년을 안 넘기려고 저희가 조정은 많이 해 줍니다.

그런데 가끔 4년 이상 하는 경우도 제가 종종 봤습니다.

○박정하 위원 그런 경우도 더러 있어요?

○대한체육회사무총장 윤성욱 많지는 않습니다.

○박정하 위원 많지는 않고, 조금 특이한 경우는 맞네요?

○대한체육회사무총장 윤성욱 예, 통상적인 경우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정하 위원 잘 쟁겨봐 주시고.

여기가 부장이면 몇 급이에요?

○대한체육회사무총장 윤성욱 부장이면 3급, 4급입니다.

○박정하 위원 3·4급?

○대한체육회사무총장 윤성욱 예.

○박정하 위원 그러면 자기가 재량껏 쓸 수 있는 소위 말하는 법인카드 금액 한도가 연간 한 팔구천 정도 되면 합리적인가요, 아니면 좀 과도한가요?

○대한체육회사무총장 윤성욱 연간 팔구천이오?

○박정하 위원 예.

○대한체육회사무총장 윤성욱 그렇게……

○박정하 위원 되지 않아요?

한번 쟁겨봐 주세요.

○대한체육회사무총장 윤성욱 예.

○박정하 위원 쟁겨봐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전체회의에 회장님 오시고 총장님 또 오시게 되면 그때는 정확히 파악해서 말씀 주세요.

○대한체육회사무총장 윤성욱 예, 파악해 보겠습니다.

○박정하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위원님들의 보충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추가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진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오 위원 유인촌 장관님께 안타까운 사망사고 관련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지난 8월 21일—뉴질랜드 현지 시간입니다—한국 스키 국가대표 상비군 선수들 사망사고 관련 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보고받았습니다.

○진종오 위원 어느 정도까지 받았습니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전체적으로 다 보고는 받았습니다.
- 진종오 위원 다 받으셨습니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 진종오 위원 혹시 유관 부처인 외교부랑은 협의하고 있는 거 있으십니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그렇습니다. 협의도……
- 진종오 위원 살짝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 당시에 바로 연락해서 협의도 했고요. 또 뉴질랜드 주재 한국문화원에도 연락해서 경위 파악도 시켰고 그랬습니다.
- 진종오 위원 바쁘시겠지만 유족들하고 접촉은 혹시 해 보셨습니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저는 직접 못 만났고요. 우리 2차관도 만나셨고 체육국장과 우리 실국에서 네 차례 정도 만나서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진종오 위원 이 사건을 보면, 저 또한 제보를 받았기 때문에 여쭙는 건데 현재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이창우 감독에 대해서 대한스키협회에서 특별한 조치가 없어서 윤리센터로 제소한 상황인데, 이것 또한 알고 계십니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알고 있는데 현재 신고하신 부모님들 대면조사하고 대한스키협회에 대한 조사는 하고 있는데……
- 진종오 위원 진행 중이고요?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그런데 이 감독이 지금 현재 연락이 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 진종오 위원 연락이 안 된다, 감독 지금 현재 보니까 새로운 스키선수 교육강좌 추진 중이라는 데 이 부분은 좀 철저히 조사를 부탁드리겠고요.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 진종오 위원 이 사고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분명히 유족들이 장비를 제발 많이 신지 말아 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은 심지어 오버해서 짐 과적을 했고요. 사고 당시 상황을 보니 그 짐만 없었더라도 소중한 생명들을 살릴 수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 맞으십니까, 장미란 차관님?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아마……
- 진종오 위원 예, 장관님.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유족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고 당하고서 아마……
- 진종오 위원 사고 직후에 구급대……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짐에 다 깔려서……
- 진종오 위원 짐에 깔려서 못 구했다고 하는데……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차 밖으로 나오는 데 굉장히……
- 진종오 위원 다시 한번 문체부랑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이런 부분을 좀 강력하게 조치를 확실히 해 줬으면 좋겠고요. 또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진상조사를 좀 확실하게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 그리고 유족들을 이미 만나고 계신다고 하지만 정말로 스포츠를 사랑하는 꿈나무들인

데 우리 문체부에서는 좀 더 많은 독려도 필요하고 철저하게 좀 잘 부탁드리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장관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사실은 감독이나 지도자가 다 관리 책임이 있는데 결국 사고 난 이후에 또 혹시 뭔가 다른 활동을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자중하고……

○진종오 위원 활동을 한다고 지금 현재 밝혀져 있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유족들을 좀 위로했으면 좋겠는데, 하여간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사가 다 정리되는 대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종오 위원 예, 조치도 부탁드리고 본 의원실로도 함께 공유 부탁,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알겠습니다.

○진종오 위원 그리고 좀 짧게 또……

사무총장님, 대한체육회 짧게 질문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박정하 간사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좀 추가질문으로……

이기홍 회장의 비서는 몇 명이지요, 현재? 총장님 사무실 바로 옆에 있지 않습니까?

○대한체육회사무총장 윤성욱 IOC 지원실……

○진종오 위원 IOC 직원 말고요.

○대한체육회사무총장 윤성욱 해 가지고 남자 두 분, 여자 한 분.

○진종오 위원 그렇지요? 회장실 바로 앞에, 맞지요?

○대한체육회사무총장 윤성욱 예.

○진종오 위원 그리고 수행기사도 연락이 안 됐습니까, 혹시?

○대한체육회사무총장 윤성욱 저는 수행기사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진종오 위원 아니, 비서실을 통해서든 수행기사한테든 연락하면 이기홍 회장의 위치를 분명히 파악할 수 있는데, 제가 이 말을 총장님께 여쭤보는 것은 저도 대한체육회에서 오래 있었다 보니까 어떤 구조는 제가 총장님보다 더 많이 알 수 있는 상황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사무총장님이 여기 계시고 이기홍 회장은 동행명령장이 발부된 상황인데 사무총장님은 연락 시도도 안 하셨는지, 아니면 그냥 안 하신 건지, 아니면 하지 말랬는지라는 것에 대해서 답변하실 것 있으십니까?

○대한체육회사무총장 윤성욱 오늘은 제가 안 했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진종오 위원 오늘은 안 하신 거고요?

○대한체육회사무총장 윤성욱 예.

○진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까지만 알고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원 위원 장관님, 작년에 김건희 여사와 공식적인 행사 몇 차례나 가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제가요?

○조계원 위원 예.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글쎄요, 저는 그런 공식적인 행사…… 아마 장애인 아이들

그럼 전시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한 것 같고요, 그때 개막식에.

○조계원 위원 화면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면)

국가유산청장님, 국가유산청은 김건희 여사하고 공식행사를, 지금 화면에서도 보이듯이 공식행사만 세 차례 가셨고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기능 보유자들 격려 간담회 그리고 예능 보유자 한 번, 한산모시는 국가무형문화재로 되어 있으니까 거기 지역 축제에 저희가 같이 참여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주관은 아니고 한산모시는 지역 축제입니다, 한산모시문화제 해서.

○조계원 위원 앞서도 얘기했지만 김건희 여사의 공식적인 신분은 정책에 관련해서는 정책의 결정권자가 아닌 민간인 신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민원도 해결하고, 장애인 관련해서 장애인들 문화예술 공연장 건립 약속을 하더니 약속한지 6개월 안에, 5개월 정도 지나서 모두 예술극장 개관이 되고 그다음에 사리·사리구 반환 문제에 직접 나서고 국립현대미술관의 보스턴 미술관 교류에 관여하고, 지금 현재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국정농단 의혹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공천 개입 관련 의혹이나.

그런데 국가유산청이 왜 유독 김건희 여사와 이렇게 많은 활동을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답변드릴까요?

○조계원 위원 예.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원래 기능·예능 보유자 전승 격려 간담회 이런 것은 어느 정부나 다 있었다고 저는 파악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제가 첫 번 10월 10일 국감에서 그것 제대로 파악 못 하고 약간의 시간적인 오차라든가 이런 걸 말씀 못 드린 것은 제 불찰이었습니다만 그게 같이 식사하면서 뭐라 그럴까요, 여러 가지의 격려도 있습니다만 애로사항도 듣고. 그런데 그분들이 국가유산청, 저조차도 같이 잘 만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같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계원 위원 지금 국민 여론이 김건희 여사의 국정관여나 개입, 심지어는 국정농단 이런 의혹들이 솟구치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국가유산청에서 특별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정책적인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듯한 그런 행보는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신중하게 잘 판단하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다음으로 장관님, 지난 질의에서 예술강좌 지원 예산 24년에 287억 원이었는데 25년 예산이 지금 80억 원대인데 이것도 장관님이 노력해서 겨우 지켜 낸 거다, 선방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그렇습니다.

○조계원 위원 그런데 장관님은 문화예술교육강사 지원사업을 교육청으로 이관해 나가야 된다 그러면 스포츠강사 지원사업도 이관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이것 오래전에……

○조계원 위원 그래서 제가 살펴보니까 체육강사 지원사업은 지금 예술강사 지원사업처럼 한꺼번에 떠넘기는 것이 아니고 5 대 5, 3 대 7, 2 대 8, 1 대 9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관을 해서 내년에 완전 이관하더라고요. 이렇게 이관을 진행하면 될 텐데 왜 이렇게 한꺼번에, 기재부의 강압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어쨌든 이 부분은 교육청에, 기재부의 입장은 교육청에 예산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쓰면 된다라는 쪽이고요. 또 교육청은 이미 국고에서 20%씩 인가 늘 자동으로 항상 배정이 되기 때문에……

○조계원 위원 그러면 교육사업은 전부 교육부로 이관할 겁니까, 교육청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러니까 학교와 관련된 이런 사업은 이것밖에 없지요, 지금 다른 부분은 없고요.

○조계원 위원 저희 의원실에서 확인해 보니까 문체부에서 새로 시작한 뉴스미디어 저널리즘 신뢰성 제고사업 있지요? 총사업비가 57억 6500만 원이라 그래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저희 부처에요?

○조계원 위원 예, 이 사업 안에 학교 미디어교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청소년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미디어교육을 하는 것인데요. 올해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것 54억……

○조계원 위원 25억 8500만 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조계원 위원 내년 예산은 얼마로 계획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아, 올해요? 예.

○조계원 위원 예, 내년에는 35억 200만 원으로 10억을 늘립니다. 이것도 교육사업인데 청소년 대상 미디어교육사업은 이렇게 예산을 늘려 주고 있는데 그러면 아까 말씀한 것 하자는,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하고는 좀 상치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아니, 그 예산의 문제도 있고요. 일단은 지금 전국에 되어 있고, 또 실제로 예술강사를 서울에서 다 관리하기가 힘드니 특히 교육청에서 자기 지역에 맞는 예술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이건 벌써 이미 몇 년 전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계원 위원 몇 년 전부터 얘기가 나왔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순차적으로 이관이 되지 않고 한꺼번에 끊어 버리고 교육청에, 지난번에 확인했다시피 4개 교육청만 하겠다고 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아니, 지금 열심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조계원 위원 그러면 전 지역의 교육청에 가능하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조계원 위원 그러면 관련해서 그 진행 상황을 저희 의원실에도 보고를 해 주시고요. 얘기해 주시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협의가 좀 되면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가능하면 예술강사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사실 이것 장관님이 시작한 사업인 것 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렇습니다.

○조계원 위원 이것 잘 좀 신경 써서 모든 교육청이 참여해서 5000여 문화예술 강사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지금 여러 가지 안을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이번 국감

끝나도 이런 문제는 계속 협의가, 아마 연말까지 정리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계원 위원 알겠습니다. 지방교육청별로 예산 상황과 매칭 계획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의원실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알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유정 위원 장관님, 그제 대한체육회 감사에서 이기홍 회장 그리고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접대 골프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날 하시는 건 못 봤습니다.

○강유정 위원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체육회 공식행사였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돈을 어떻게 지불했느냐라고 했더니 정몽규 회장이 초청을 해서 친 거다, 워크숍 외 비용은 지불하지 않았다라고 접대 골프를 인정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라고 제가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순수하게 인식하지 못했다라는, 순수한 골프 접대라는 신조어도 만들었습니다, 이기홍 회장이. 그런데 대한체육회는 축구협회뿐만 아니라 종목단체에 대한 관리감독도 있고 감사 기능도 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강유정 위원 징계권한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확실히 청탁금지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겁니다.

김병철 스포츠공정위원장은 돈을 냈냐고 제가 물었어요. 아시다시피 감사원 출신이시거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렇습니다.

○강유정 위원 그런데 안 냈다도 아니고 못 냈다라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못 냈다. 그러면 문체위가 지금 감사 중이시잖아요. 권익위에 신고할 의향 있으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것 조사해 봐서 신고도 하고……

○강유정 위원 이것은 권익위에 신고를 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싶은데, 문체부가 자체 감사뿐만 아니라 이 부분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왜냐하면 김영란법은요 준 사람, 받은 사람 모두 쌍별죄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그렇습니다.

○강유정 위원 그러니까 접대 골프를 제공한 정몽규 축구협회장도 처벌받고 골프 친 이기홍 체육회장 모두 처벌받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 들으셨지만 정몽규 회장도 4선 연임 하지 않겠다는 말 절대 하지 않고요, 이기홍 회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단 권익위에 신고하실 의향 제가 확인했고요. 또 하나만 더 확인할게요.

김병철 스포츠공정위원장 같은 경우는 사실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찾아봤어요. 하지만 심사의 일반 원칙을 보면 제척·기피·회피 조항에 분명히 저촉이 됩니다. 저촉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이, 김병철이라는 이분이 스포츠공정위원장의 자격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척·기피·회피 사유가 없는지에 대해서 철저하

게 조사하셔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을 주셔야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지금 아마 체육회는 저희들 감사가 아니고요 감사원 감사 되어 있고, 또 아마 공직기강팀도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아마 분명하게 이런 부분들이 다 짚어져서……

○강유정 위원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감사 과정에 처음 나온 얘기거든요. 그 부분도 좀 쟁겨 주시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 그걸 보고 있기 때문에 조사가 끝나면 하여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 위원 밤늦게 고생 많으십니다.

장관님, 몇 가지 당부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조금 전에 하이브 문제, 사과는 저희가 받았습니다만 저희가 사과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미성년자들도 아이돌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신동욱 위원 그런 인격 비하적인 표현들이, 아무리 내부보고서라고 하지만 그것 절대 정밀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으로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좀 지속적으로 모니터를 하셔서 그런 것들은 좀 균절될 수 있게 계속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축구협회가 FIFA로부터 우리가 이렇게 정치적으로 개입이 되면 불이익이 될 수 있다 이런 공문이 왔다고 공개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신동욱 위원 또 대한체육회도 IOC의 우려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하시는데, 그래서 FIFA에 저희가 질의서를 보내 봤습니다. 실제로 당신네들이 한국 스포츠계에 정치 개입 문제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지 또 이런 것들을 우리 쪽에서 무슨 요청을 받고 보낸 것인지 했는데 답을 못 받았어요, 실제로. 그런데 저희는 의원실이니까 그렇다 치고 실제로 혹시 그 부분은 대해서 얼마나 이걸 심각하게 보고 있는지 확인을 해 보시는 노력을 하신 게 있을까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지금 일단은 뭐 심각하게는 생각은 합니다, 저희들이. 왜냐하면 물론 외국에도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부가 뭔가 개입하는 의미보다는 자체적으로 불공정한 부분을 짚는다는 거를 그들한테 알려 주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현 단계에서는 아직 뭐 그렇게까지 나갈 저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신동욱 위원 그래서 존경하는 박수현 위원님이 국제올림픽위원회가 과거에, 이런 정치적 문제로 제재를 받았을 경우를 그저께 소개를 했는데 보면 굉장히 엄중한 경우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그렇습니다.

○신동욱 위원 대량 학살이 있었다든지 전범이라든지 이런 것이기 때문에 너무 외부로부터 이런 것에 좀 위축되실 필요 없다, 저희가 보기에는. 국내적, 우리 국민적 감정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좀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알겠습니다.

○신동욱 위원 마지막으로 혹시 준비된 소리 잠깐만 좀 들어 보시겠어요? 두 개 들려드릴게요.

(영상자료 상영)

우리 예술의전당 오케스트라 소리고요.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의도적으로 소리를 키운 것이 아니고 파이프오르간이 필요한 부분에, 연주회 차이를 이렇게 저희가 좀 비교했는데 지난번에 제가 질의는 드렸습니다만 우리 예술의전당에 파이프오르간이 없고, 당초 설계할 때 넣을 수 있게 설계했는데 그 당시에 못 만든 게 지금까지 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렇습니다.

○신동욱 위원 그래서 공간도 있고 다 있는데, 예술의전당 쪽의 얘기를 들어 보면 이게 6개월 정도 걸리는 설치 시간의 문제 때문에 계속 공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고충을 얘기를 하는데, 비용은 제가 보기에는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이제 어느 순간에는 결단을 좀 내리셔서 방법을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고.

또 예산 문제도 계속 한 해, 한 해 가다 보면 잡기 어렵지 않습니까,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술의전당이 이제 한 30년 됐습니다, 건물 자체가. 그래서 아마 본격적으로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결단을 내려서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당장은 아마 6개월 정도 거기를 비워 놓는다면 아마 엄청난 혼란이 올 겁니다, 그걸 쓰려는 사람들한테요. 그래서 그거는 적당한 시기에 조금 더 의논해서 들어가도록 하든가 아니면 제2의 예술의전당을 새로 만드는 게 낫습니다.

○신동욱 위원 글쎄요, 제가 이번 국정감사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아서, 우리 예술에 대해서 관심과 애정이 크신 유인촌 장관님 계실 때 이 문제는 꼭 계획이라도 매듭을 좀 지어 주고 가시면 우리 대한민국 음악을 사랑하는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알겠습니다. 한번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신동욱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현 위원 장관님과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장관님, 중국 시안에 가무극 '장한가'라는 게 있는데 혹시 들어 보신 적 있나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들어는 봤습니다.

○박수현 위원 그렇지요. '장한가'는 중국 당나라 시대 시인 백거이가 당 현종과 양귀비의 사랑을 소재로 쓴 시 이것을 바탕으로 총 9막으로 구성된 대형 연극을 2002년에 제작했는데 실제로 하루에 세 차례 또 하루에 1시간 정도 공연을, 연극을 하는데 매화 매진

될 뿐 아니라 실제로 ‘장한가’를 보기 위해서 시안성을 방문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인기가 대단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도 지역별 고유문화와 관광을 결합한 독창적인 콘텐츠를 개발한다면 대한민국 관광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뿐만이 아니라 지금 가장 중요한 지역소멸의 대응방안으로, 문화적 대응방안으로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보니까 장미란 차관께서도 올해 3월 28일 날 지방소멸 대응 관광산업 진흥협의체 제1차 회의인가요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더라고요. ‘관광객 62명이 정주인구 1명의 소비를 대체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 정도나 되는가. 그래서 점점 더 가속화되고 있는 인구소멸·지방소멸 시대에 바로 이러한 문화예술적 접근방안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렇습니다.

○박수현 위원 그리고 실제로 지역에 가 보면 왜 우리 지역은 머무는 관광지, 체류형 관광지가 아니라 지나쳐 가는 관광지가 되냐 이런 말들을 많이들 하지 않습니까? 그 문제점을 알고 있는데 해결책을 정작 제시하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들은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백제문화권이다, 신라문화권이다 그러면 백제문화권은 공주·부여·익산 이렇게 된다면 이 권역에 그것을 특색으로 한 명품 공연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 지역에 관광객을 유입시켜서 정주인구, 등록인구는 좀 부족하더라도 생활인구를 늘려서 그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활력을 불어넣는 이러한 중요한 정책을 문체부가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야 낮에 예를 들어서 공주 백제문화를 기준으로 본다면 박물관을 보고 또 오후에 지금 조성 중인 금강 국가정원을 보고, 그러면 저녁에 야간에 무엇인가 볼 것이 있어야 저녁을 먹고 머무르고 잠자게 되고 다음 날 아침에 또 뭘가를 하고 떠나게 될 거 아니겠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렇습니다.

○박수현 위원 그래서 백제문화, 신라문화 이렇게 권역별로 특색 있는 자산을 활용해서 그렇게 야간 명품 공연을 우리가 좀 만들 수 있다면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관광객들을 불러 모을 수 있고 문체부가 굉장히 큰 국가적 위기에 대응하는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장관님, 공주에는 마침 스타케이션이라고 하는 전문 공연장을 지금 건립하고 있더라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박수현 위원 아주 딱 맞는 곳이지요. 그런데 큰 국비를 들여서 만드는 그 공연장에 주민자치 프로그램 정도를 올려서 공연을 하게 된다면 그 공연장도 쉽게 얘기하면 제대로 잘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되지요. 그래서 기왕에 그런 공연장도 마련되고 있으니 이런 백제문화를 스토리로 하는 그런 아주 명품 공연을 좀 만들어서 공연장도 활용하고 그렇게 소멸지역에 어떤 대응, 문화적 대응을 하는 방법이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장관님, 동의하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동의하고요. 아주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지금 시동은 걸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미 작년에 정해진 예산이었지만 어떻게 어떻게 하여간 좀 이렇게 모아서 올해 전국에 41개 정도의 지역대표 예술단체를 뽑았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민간단체입니다. 그런데 충북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도립극단을 창단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일단 목표는 올해는 시범으로 한번 해 보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각 지역에서 상설할 수 있는 그런 공연들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수현 위원** 좋아요. 제가 다른 데를 잘 몰라서 제 지역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서 마치 지역 민원사업같이 그렇게 느끼시지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아니, 충분히 그건 가치가 있는 지역이니까요.

○**박수현 위원** 그런 스테이지를 활용하자는 것이니까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거기는 사실은……

○**박수현 위원** 장관님 잠깐만요.

용호성 차관님, 그것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에 업무보고를 하거나 하는 내용들에 이런 방향성이 포함이 된 게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용호성** 지금 이번에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TF를 지난주에 저희가 구성하기로 안에서 보고를 다 완료를 했고요. 이번 주 화요일부터 TF를 시작을 해서 연말 전까지 지역문화 진흥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마무리해서 발표를 할 계획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지역의 문제는요 내년 한번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격적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박수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석 위원** 장관님, 제가 원래 소리를 지르고 그러는 사람이 아닌데 목소리가 좀 커서, 또 다들 졸리고 이러니까 큰소리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AP 통신, 프랑스의 AFP, 영국의 로이터 그다음에 일본의 교도 그다음에 중국의 신화 이게 대표적인 국가 기간통신사, 뉴스통신사잖아요?

우리나라는 어디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연합이지요.

○**양문석 위원** 필요 없습니까, 연합뉴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필요 없어요?

○**양문석 위원** 우리나라 연합뉴스는 이제 필요 없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아니요? 왜요?

○**양문석 위원**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연합뉴스가 현재 어쨌든 기간통신으로 돼 있지요.

○**양문석 위원** 그렇지요. 국가 기간 뉴스통신사, 법에서 정해 놓은 우리나라의 기간 뉴스통신사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양문석 위원** 앞서 제가 설명했던.

그리고 뉴스통신 진흥법 10조에 보면요 지위와 업무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연합뉴스사는 국가 기간 뉴스통신사로서 정보주권을 수호하고 정보격차 해소 및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 기능을 수행한다’. 두 번째가 ‘연합뉴스사는 국가 기간 뉴스통신사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인적·물적 기반을 갖추어야 한다’. 개인적으로는 이 법이 통과될 시에 제가 기초를 잡고 통과를 시키는 데 있어서 상당히 일익을 담당했던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연합뉴스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 연합뉴스의 공적 기능이 6가지가 있습니다. 해외뉴스 서비스, 외국어뉴스 서비스, 통일·북한뉴스 서비스, 지역뉴스 서비스, 재해·재난뉴스 서비스, 뉴스통신산업 진흥 및 언론 발전, 이 부분이 연합뉴스의 공적 기능이에요. 그래서 정부가 지원비가 아니고 정부구독료라고 그 당시에 이름을 명명을 했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양문석 위원 PPT 하나 올려 줘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정말 그림 충격적이지 않아요? 319억, 328억, 328억, 278억, 뚝 떨어져서 50억, 50억. 세상에 85%를 삭감하면 죽으라는 소리지요. 연합뉴스 필요 없다는 소리잖아요. 이런 공적 기능, 해외뉴스 서비스나 외국어뉴스 서비스 이런 거 필요 없다라는 거잖아요. 문화부가 이라고 있습니다, 요새. 좀 이해를 시켜 줘 보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연합뉴스, 그러니까 이런 것은 그동안에 환경이 많이 변했고, 아마 지금은 해외에 주재원이나 이런 경우가 그렇게 많이 안 나가도 되지 않나 그런 여러 가지 판단이 있었을 거라고 보고요.

○양문석 위원 장관님, 우리나라와 인구가 거의 유사한 프랑스 AFP 같은 경우에 정부가 1760억 정도를 지원을 합니다. 우리나라 인구와 유사한 프랑스가 1760억 정도 지원을 하는데 대한민국은 달랑 50억을 지원을 합니다. 법에서 분명하게 정보주권 수호라는 핵심적 가치를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인지 갑자기 연합에 85%를 삭감하고 올해도 달랑 50억 지금 지원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러니까 정부안으로 50억이 올라가 있는데요, 아마 이 부분은 국회에서 조금 예산 증액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문석 위원 아니, 이게 설명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누가 어떤 이유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누가 어떤 이유라기보다는요 이것은,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언론사에 그렇게…… 지금 50억이 구독료입니다, 정부구독료가 딱 50억이고요.

○양문석 위원 장관님, 제가 언론학 박사잖아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양문석 위원 그리고 신문·방송·통신 이쪽에서 정무직 차관을 4년을 한 사람이지요. 이해할 수 없는, 우리나라에 모든 언론사가 사라지고 딱 2개만 남기라고 하면 KBS하고 연합뉴스 남겨야 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번에……

○양문석 위원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뉴스통신사들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어떻게 85%를 한 해에 날려 버립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글쎄요, 그건 뭐 하여간……

○**양문석 위원** 아니, 글쎄 그건 뭐가 아니고요.

장관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러니까 제일 큰 이유는 환경의 변화……

○**양문석 위원** 아니, 장관님……

담당국장 누구세요, 연합뉴스 담당국장 설명을 해 보세요. 왜 삭감시켰어요?

○**문화체육관광부미디어정책국장 김용섭** 장관님 설명하신 대로 미디어 환경이 변화되고,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보주권하고 국민의 알권리, 최소한의 공적 기능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전한다는 차원에서 50억이 작년에 반영됐고 편성되었습니다.

○**양문석 위원** 보세요. 설명 가능한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 식으로 설명하면, 세상에 법이 정해져 있고 그 법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정부구독료를 지원하게 돼 있는데 85%를 일방적으로 삭감시켜 놓고 그렇게 멋밋하고 하나 마나 한 이야기로 설명이 가능하겠어요? 연합뉴스 구성원들뿐만 아니고 국가 기간통신사를 가지고 있는, 전 세계에서도 정말 부끄러울 정도로 아예 연합뉴스 없어도 된다, 국가 기간통신사 없어도 된다 지금 이 이야기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미디어정책국장 김용섭**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양문석 위원** 그렇지 않으면 300억 정도를 지원하다가 50억을 지원해요? 그리고 한 해에 일방적으로 85%를 삭감해요? 제가 화가 나서, 흥분해서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출릴까 봐 크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설명 가능하게, 설득 가능하게 이야기를 해 보세요.

○**문화체육관광부미디어정책국장 김용섭**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위원님.

○**양문석 위원** 그 이야기를 믿을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아마 더 큰 이유는, 존경하는 양 위원님……

○**양문석 위원** 저 존경하지 마세요, 장관님, 이 문제에 한해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존경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언론사에 정부가 돈 지원하는 문제를 이제부터는 좀 하지 말자 이런 의견이 전체적으로 많았을 거예요. 제가 작년에 왔을 때도 연합이 너무 많이 잘린 것 아니냐 하고 의논을 하니까 또 재무 당국에서는 이제는 전반적으로 언론사는 정부가 지원하는 것을 좀 줄이자, 하여간 그런 의도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양문석 위원** 장관님,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그러면 뉴스통신 진흥법 자체를 없애 버리든가요. 기본적으로 예산을 삭감하기 전에 뉴스통신 진흥법의 존폐 여부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고 뉴스통신 진흥법이 지금은 시대에 맞지 않아, 없애야 돼라고 하든지, 세계적 조류가 AP나 로이터나 AFP나 교도나 신화, 애들 아무 필요 없어라고 하든지.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우리나라 해외뉴스 필요 없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아니, 제가 왔을 때는 이미 올해 예산이 그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양문석 위원** 그래서 장관님 빠지시라고, 지금 국장하고 이야기하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래서 위원님이 주도해 주셔서 이런 문제를 논의하는 장을 한번 열어 주세요. 그러면, 사실은 내년 예산 정한 것도 정부안은 그냥 갔지만 국회에서 아마 예산이 증액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양문석 위원** 장관님 작년 10월에 오셨으니까 잠시 빠지시고.

정치적 의도가 있어요, 없어요?

○**문화체육관광부미디어정책국장 김용섭** 없습니다, 위원님.

○**양문석 위원** 있으면? 있으면?

○**문화체육관광부미디어정책국장 김용섭** 없습니다, 위원님.

○**양문석 위원**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문화부가 자체적으로 판단했다고요? 이 삭감을 문화부가 자체적으로 판단했냐고요. 안 그러면 대통령실 오더예요?

○**문화체육관광부미디어정책국장 김용섭** 아닙니다.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위원님.

○**양문석 위원** 우리 상당 부분 다 취재가 돼 있는 상황에서 지금 제가 질문을 합니다. 책임지셔야 합니다, 그 말.

정말로요?

○**문화체육관광부미디어정책국장 김용섭** 예, 책임지겠습니다.

○**양문석 위원**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고 서로가 말을 아껴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더 깊게 들어가면 문화부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전형적으로 언론 탄압의 대표적인 사건이거든요, 이 사건은.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법으로 정해져 있는…… 뉴스 진흥이라는 뜻 잘 몰라요?

○**위원장 전재수** 양문석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양문석 위원** 이 뉴스 진흥법 자체를 없애든지, 그래서 저렇게 삭감해서 연합뉴스를 반병신 만들어 놓든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 연합뉴스가 국가 기간 뉴스통신사로서 여전히 필요가 있고 로이터처럼, AP처럼, AFP처럼 경쟁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국가 유수의 기간 뉴스통신사 필요하면 정상으로 돌려놓으세요.

○**위원장 전재수** 양문석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위원님, 올해 잘 의논해서요 내년도 예산에 그래도 좀 증액될 수 있고 연합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양문석 위원** 장관님, 증액이 문제가 아니고요 일단은 정상화시켜 놓고 그다음부터가 증액 여부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글쎄요, 그러니까 내년 예산이 아직 결정된 게 아니니까 국회에서 좀 많이 의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문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님들의 추가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재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과약된 바에 의하면 일곱 분의 위원님들의 재추가질의 요청이 있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3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이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현 위원** 장관님, 아까 위원들 질의 중에 체육회에 대한 감사와 관련해서 감사원 감사뿐만 아니라 공직기강도 들여다보고 있다라고 표현하셨는데 대통령비서실에서 지금 체육회를 공직감찰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대통령비서실이 아니고요 총리실 산하에서 아마 하는 것 같습니다.

○**이기현 위원** 요새는 총리실에서도 공직기강이라는 표현을 쓰나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그런 것 같은데요.

○**이기현 위원** 공직복무담당관실 아닌가요? 명칭이 바뀌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명칭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기현 위원** 총리실에서도 보고 있다 이 말씀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이기현 위원** 알겠습니다.

황성운 실장님 잠깐만 일어나 주실래요.

아까 보고하시는 중에 KTV와 관련된 황제관람을 일정회의에 보고하셨다라고 얘기하셨지요? 그렇게 공유했다고……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 황성운** 예, 10월 31일 행사……

○**이기현 위원** 일정회의에 보고하셨다고 그러셨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 황성운** 예, 일정기획회의에 올린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기현 위원** 대통령비서실에 대통령을 제외한 여사님의 일정기획회의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 황성운** 같이, 정식으로 논의되지는 않지만 여사님 행사도 검토회의는 거칩니다.

○**이기현 위원** 요새는…… 제가 청와대 5년 근무할 때 여사님에 대한 일정회의는 없었어요.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 황성운** 절차가 조금……

○**이기현 위원** 그러면 이 정부는 지금 대통령과 여사님의 일정회의를 같이 한다 이 얘기시네요?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 황성운** 조금 절차는 다른데 간략하게 그냥 검토를 하기는 합니다.

○**이기현 위원** 일어서신 김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청와대에서, 요새는 대통령비서실이라고 하지요? 대통령비서실에서 총무를 제외한 어느 비서관실에 사업 예산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 황성운** 대부분 총무에 있고요.

○**이기현 위원** 총무가 시설 관리하니까 있는 것이고 어느 비서관실도 사업 예산이 없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 황성운** 비서관실은 사업 예산은 거의 없습니다.

○**이기현 위원** 사업 예산이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사업 예산이 없어요. 왜냐하면 비서들은 사업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을 모시는 게 일이어서. 계속 제가 질의를 할 때 ‘청와대를 관리하고 있어서’, ‘청와대를 관리하고 있어서’ 이 표현이 귀에 거슬렸는데 제가

하려다 참았는데 청와대 관리하는 건 문예실장이 하는 거지 문화비서관 소관이 아니지요?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 황성운 예, 소관이 저희라고……

○이기현 위원 소관은 문화부가 소관인 것이지 문화비서관님이 청와대를 관리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 황성운 그것 위탁을 맡긴 부서가……

○이기현 위원 무슨 위탁을 해요? 아닌 얘기에 대해서 아니라고 얘기하시면 되잖아요. 말실수하신 거지요? 위증은 아니지만 허위 보고를 계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국감장에서.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 황성운 취지는 청와대 업무도 저희 소관에 포함된다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이기현 위원 정확하게 얘기하셔야지요. 비서가 무슨 사업을 합니까, 뭘 관리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 황성운 예.

○이기현 위원 비서실장이든 수석이든 비서관이든 비서일 뿐이에요. 예산도 없어요. 비서관이 청와대를 어떻게 관리합니까, 문예실장이 관리하는 거지.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 황성운 예, 소관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기현 위원 앉으세요.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제가 청와대 얘기했는데 청와대관리재단에서, 이번 10월 24일 날 있었던 사전답사 제가 다시 한번 훑어 봤더니 KTV가 문 열어 달라니까 열어 줬다는 거예요, 청와대관리재단에서. 말이 됩니까? 누가 들어갔는지, 무엇을 가져다 놨는지 일체의 기록이 없습니다.

장관님, 이 사람들이 가서 도청장치를 심건 화기를 가지고 들어가건 누구도 몰라, 기록도 없어요. 문체부가 청와대 이렇게 관리해도 되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확인하겠습니다.

○이기현 위원 알겠습니다.

유산청장님, 동두천 성병관리소 철거 문제 점검하고 계시지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하고 있습니다.

○이기현 위원 철거가 눈앞에 와 있습니다. 신속하게 임시지정이라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그래서 저희가 임시지정에 대한 얘기를 동두천시에 강력하게 얘기를 드렸고요. 그쪽에서는 약간 움찔해서 지금 멈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빨리 지정을 하는 것보다는……

○이기현 위원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1차 사업 하는 게 오히려 나중까지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이기현 위원 알겠습니다.

산양 문제 제가 질의드렸는데, 추워졌어요. 강원도에 아마 눈 올 겁니다. 지난번에 보고해 주셨던 그 정도로 절대 산양의 집단 폐사 또 못 막습니다. 어떻게 책임지시겠습니까? 짧게 말씀해 주세요.

○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이번에는 환경부하고 관할구역을 나눠서, 민간이 협의하는 협의체는 당연히 추진하고요. 피난소 설치, 순찰관, 거기다가 구조차량, 장비, 인력, 모든 구조기반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공조를 통해서 그쪽의 홍보활동을 강화해서 우리만이 아닌, 산양에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 **이기현 위원**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질의드렸던 중앙문화유산연구소장의 건, 불법유출 의혹 및 그리고 불법수뢰 문제가 있었지요?

○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 **이기현 위원** 이 문제에 관해서 어떻게 절차 밟고 계신지 서면으로 바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알겠습니다.

○ **이기현 위원** 그리고 영진위원회장님, 영진위원회장님 오시기 전에 박덕호 사무국장이 한 행위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을 했냐면 영진위원회는 임금피크제가 있습니다. 주요 보직자들은, 임금피크제에 들어가신 분들은 주요 보직을 맡을 수 없게 돼 있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박덕호 영진위 사무국장님이 위원장님 오시기 전에 사무국장대행으로 있으면서 본인이 규정을 고쳐요. 그래서 사무국장은 임금피크제에 들어간 사람도…… 사무국장은 임금피크제에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규정을 고쳐서 위원장님 오신 다음에 본인이 사무국장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그 2개는 별개 프로세스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금체계하고 사무국장 발령과는 별도 체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이기현 위원** 박덕호 사무국장은 임금피크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서 셀프로 규정을 본인이 개정을 한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어서 위원장님께서 신속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조사하고 결과 저희 방으로 좀 보고해 주십시오.

○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예, 알겠습니다.

○ **이기현 위원** 저도 첫 국감이었는데 질의하는 과정에서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충분히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못 드린 점 대단히 죄송하고요. 국감에 응해 주신 여기 계신 장관님 이하 모든 관계자 또 기관장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전재수** 국가유산청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지금요?

○ **위원장 전재수** 예.

○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제가 사실은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그런데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 10월 10일 날 국가유산청 감사에서 지적된 무형유산 전승 간담회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무형유산 전승 환경은 전승사 부족과 전통에 대한 관심 저하, 국가지원 미흡 등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이런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개선하여 안정적인 전승활동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저와 국가유산청이 해야 될 임무와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실시된 무형유산 전승 간담회는 그러한 어려운 환경에서 소중한 우리의 무형유산 보전에 최선을 다하는 무형유산 전승자분들의 노고에 감사하고 그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자리였습니다만 행사를 진행하거나 준비하는 과정에 지난번 지적하신 공연사례비 미지급이라든가 또 세심하게 챙기지 못한 점이 있어서 국감에서 본의 아니게 많은 여러 가지 언쟁을 저희가 초래하게 된 걸 정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다시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직접 보다 잘 챙기고, 이번 국감을 통해서 전승사분들의 허심탄회한 목소리를 계속 귀 기울여서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이 잘 전승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재수 국가유산청장님 발언과 관련한……

민형배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민형배 위원 예, 잠깐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청장께 지금 저희가 국감 과정에서 제기했던 주체가 어디냐, 왜 유산청의 사업을 대통령실이 나서서 이렇게 한 거냐, 장소 신청이며 진행이며, 그리고 거기에 왜 20분이나 되는 공연이 있었던 거냐 이런 문제 제기를 했던 건데 거기에 대한 말씀을 정확하게 안 하세요, 계획서도 없고 주최를 했는지도 확인할 수가 없고. 그 문제 하나하고, 그다음에 보스턴 미술관 관련해서 제가 아침에 문제 제기를 했더니 답변을 보내왔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정리를 좀 하라고 말씀을 해 주시지요.

○위원장 전재수 국가유산청장님.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여러 가지 상황 중에 추진 과정은 대통령실 협조가 있었던 건 당연한 거고요. 저희하고 같이 협의를 했는데 주관·주최를 저희가 명시하지 못한 것은 저희 불찰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예산을……

○민형배 위원 계획서가 없었잖아요, 계획서가. 국가기관이 계획서 없이 이런 일을 합니까?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 전재수 청장님, 민형배 위원님,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청장님, 서면으로 제출하십시오. 자꾸 말이 왔다 갔다 하니까 계속해서 지금 정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장님이 하실 말씀 많으실 텐데 그것을 서면으로 정리를 해서 민형배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형배 위원 사리구하고 사리 부분은 사과를 하셔야 돼요.

○위원장 전재수 마찬가지입니다. 보스턴 미술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시 우리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추가질의를 하셔야 될 위원님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기 때문에 잠시 안내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정이 다 되어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정된 국정감사를 다 마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과 특히 유인촌 문체부장관님을 비롯한 여러 피감기관 기관장님들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께 먼저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61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계속 진행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2시 이후까지 질의를 계속하는 것으로 양해를 얻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괜찮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저희들도 대답할 수 있습니까?

저희는 뭐 피감 대상자가.....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사실은 장관님과 피감기관장님들께서 동의를 안 하시고 그냥 나가셔도 됩니다. 되는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그래서 특별히 양해를 구했습니다.

오늘 불편한 자리에서 장시간 동안 국정감사에 임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위원회를 대표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의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원 위원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으십니다.

마지막 종감이라서 좀 늦게 끝나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장관님께 묻겠습니다.

전체 이용가 등급인 FC온라인 게임 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온라인 게임이오?

○조계원 위원 예, FC온라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저는 들어 본 적은 없습니다.

○조계원 위원 옛날 EA코리아가 개발하고 넥슨이 배급했었던 FIFA온라인 이 게임이 FC온라인으로 바뀌었는데요. 이 게임에서 진행하고 있는 승부 예측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게 토토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전 연령대가 사용할 수 있는 게임인데, 어린아이들도 이 게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화면에 보이시지요?

그런데 이벤트를 보면 스포츠토토와 비슷한 방식의 승부 예측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프로구단.....

○조계원 위원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느낌이 오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확률 때문에 그러신 거지요?

○조계원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이게 사실상 온라인도박의 방식이라는 거지요. 전 연

령대가 사용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이벤트를 하더라도 얼마든지 목표를 달성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를테면 승부차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이벤트를 해도 되는데 스포츠토토 방식의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온라인도박의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은 계속해서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12~14세 어린이들까지 온라인 불법도박 사용자가 늘고 있다는 거고 이게 중독이 되면 추가적인 2차 범죄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문체부 차원에서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온라인게임인데 사실은 베팅도 하고 도박의 개념을 갖게 돼서 이게 더 진전이 되면 파급력이 굉장히 클 것 같거든요. 사실은 전부들 이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조금 더 철저히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저희도 제보를 받기로는…… 이게 단순 이벤트 아니냐, 베팅하고 또 실패해도 감점도 없고 별점도 없는 건데 이렇게 쉽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저연령대 청소년들이 진입장벽 없이 이 게임에 노출될 수 있고 그만큼 나중에 자라나면서 도박에 대한 인식의 벽이 낮춰진다는 거지요. 이 부분도 감안해서 문체부에서 조치를 좀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알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제보자들에 따르면 가급적이면 게임 등급 심의 이런 것을 결정하는 문제의 차원이 아니라 철저하게 강제성 있는 시정조치 이런 것까지도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알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그리고 청년문화예술패스 아시지요, 장관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압니다.

○조계원 위원 저는 상당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되는데, 안타깝게도 그 이용률을 보면 고작 14.3%밖에 안 되더라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지금 집행률이 좀 저조했습니다.

○조계원 위원 왜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아마 제가 볼 때는 사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즌이라고 보거든요, 연말부터요. 그래서 이 기간을 조금 더 한번 지켜보고요.

이게 올해 다 안 쓰더라도 내년으로 또 이월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 안 쓴 돈을.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들이 좋아하는 영화나 콘서트가 좀 빠져서 그런 거 아닌가 싶어서……

○조계원 위원 통합문화이용권의 경우에는 청년문화예술패스에 비해서 이용률이 4배가 넘습니다, 지금 현재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그렇습니다.

○조계원 위원 그게 영화 그리고 대중음악 이런 데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용률이 대폭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기왕에 청년들에게 문화예술 경험을 넓혀 주고 하려면 영화나 대중음악까지도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애초의 목적은 순수예술 쪽으로, 그쪽이 너무 힘드니까 그런 쪽을 도와주자 해서 범위를 조금 좁힌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올해 연말까지 좀 보고요. 그런 다음에 더 넓히든가 아니면 내년으로 이월시켜서 소진될 수 있도록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그러니까 지금 순수예술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방에는 오히려 즐길 수 있는 인프라가 태부족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맞습니다.

○조계원 위원 그러면 더 문제가 되는 거지요.

그리고 문체부가 실시한 2023년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 국민이 가장 많이 즐기는 문화예술 행사는 영화가 52.4%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이 대중음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계적으로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건 하여간 저희들이 체크해서 한번 범위를 넓히든가 좀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그리고 작은영화관 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조계원 위원 그 작은영화관에도 아까 얘기했던 청년문화예술패스, 오히려 청년의 경험을 확장하는 데는 작은영화관이 더 효율적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작은영화관에 대해서도 청년문화예술패스를 좀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알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국정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밤 12시 정각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3시47분 감사중지)

(10월25일 00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전재수 국정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서 강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유정 위원 저희가 FIFA한테 보낸 메일이 왔습니다. 답변이 와서 질의 내용과 답을 좀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시간이 오후 10시나 돼서 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 내용과 답을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했던 부분은 대한민국 축구팬들의 강력한 요구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현안질의와 감사결과를 통해 축구협회가 자체 정관을 위반해 온 사실을 여럿 확인했습니다. FIFA는 한국 국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축구협회의 자체 규정 위반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게 FIFA 규정에 위배되느냐고 판단하는지 물어봤더니 그렇지 않다라는 요지의 답이 왔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FIFA는 한국 정부가 한국 축구의 좋은 거버넌스를 보장하기 위해 감사를 진행하는 것을 인지하고 있고 투명성을 장려하면서, 정부가 구체적인 사항을 가지고 있다면 축구

협회와 공유한 후 FIFA를 통해서도 알려 달라'라고 답을 줬고요.

하나 더 물어봤거든요. FIFA 정관 제19조제2항은 협회 정관이 선거, 그러니까 회장선거 그리고 임명에 완전한 독립성을 보장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축구협회가 FIFA 정관에 부합하느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의미 있는 답을 줬어요. 귀하의 서신에서 언급된 선거 절차, 회장선거 절차와 관련해서 FIFA와 아시아축구연맹(AFC)은 2023년 12월부터—다다음 달부터지요—KFA와 관련 조항을 검토하고—우리 기준이라는 것은 FIFA 기준입니다—FIFA 기준에 맞추기 위해 논의를 시작했다, 잘 안 맞는다는 얘기겠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원본이 있고요. 제가 원본을 지금 띄워 놨습니다. 축구협회 회장이 FIFA가 정치적 개입을 하지 말라는 식의 공문을 보내왔다고 얘기했지만 저희가 질의한 결과 전혀 문제없다라는 걸 확인시켜 드렸고요.

다른 후속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감사합니다.

○강유정 위원 17일 영진위를 대상으로 영화 티켓 구입 가격, 혹시 보셨나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강유정 위원 보셨지요? 워낙 좀 화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영진위는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독자적인 행정 제재 권한도 없고 조치에 한계가 있다, 한마디로 해 보기는 해 보겠는데 할 게 없다 이런 식의 답을 줬어요, 영진위가.

그리고 또 영비법 위반한 의결사항, 2024년 1월 의결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했더니 이 부분에는 아예 답을 보고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는 문체부가 사실관계도 파악하고 조치도 할 수 있는 권한 있지요? 그것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강유정 위원 마지막 질의를 제가 그냥 이어서 하겠습니다.

장관께서 임명 전 인터뷰에서 자본과 권력에서 독립하는 영화까지 정부가 왜 돈을 줘야 하나라고 인터뷰하신 적 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강유정 위원 그리고 올해 뉴욕에서는 이미 성장한 사람들은 해엄치게 두고 막 시작하는 청년이나 독립영화 등 자립할 수 없는 분야를 뒷바라지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맞습니다.

○강유정 위원 과거에 얘기했던 독립영화와 여기서 얘기하는 독립영화는 다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같은 영화입니다.

○강유정 위원 같은데 조금……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제가 생각이 바뀐 거지요.

○강유정 위원 생각이 바뀌셨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과거에는 독립영화는 말 그대로 정말 자본과 권력에서 독립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었는데요. 지금은 기본적으로 독립영화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또 그들도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밑받침은 좀 해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요즘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강유정 위원** 제가 조금 더 질의를 할게요.

블랙리스트 문제에 자유롭지는 않으시잖아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저요?

○**강유정 위원** 조심하셔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과거에 아무래도 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렇게 만든 거지요. 제가 직접 블랙리스트를 만든 적은 없습니다.

○**강유정 위원** 그러면 제가…… 아니, 문체부장관이시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그렇습니다.

○**강유정 위원** PPT 봐 주세요.

너무 많이 보셨지요?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연도별 예산인데요. 윤석열차 너무 많이 보셔서, 그리고 너무 많은 질문 받으셨을 텐데 지금 만화·웹툰산업 발전 방향을 발표하면서 칸영화제 같은 국제 시상식 만들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2024년 월드 웹툰 페스티벌 만드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그렇습니다.

○**강유정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부천국제만화축제 예산은 대폭 줄이면서 이걸 키우기로 했는데 칸영화제같이 만들려면……

해외에서 몇 개국 참여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올해는 시범입니다. 올해 첫 해외……

○**강유정 위원** 해외 참여 국가 없다는 말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강유정 위원** 수상 경우도 공모 참여한 104개 작품 중에 해외 작품 딱 하나였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반대로 지금 예산을 깎은 부천국제만화축제에는 미국, 중국, 일본, 인도 등 21개국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잘하고 있는 쪽을 좀 더 격려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만진원에서 하는 사업과 축제 모두 콘진원으로 이관할 계획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그렇습니다. 콘진원으로 이미 다 이관이 됐습니다.

○**강유정 위원** 왜 그런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것은 웹툰이나 만화 쪽을 정부가 직접, 문화부가 직접 나서서 시장을 더 키우자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강유정 위원** 집중 육성하신다는 건데 그러면 영화제는 왜 지역으로 맡기셨습니까, 거꾸로? 그러면 영화제는 집중 육성 안 하실 건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어떤 영화제요?

○**강유정 위원** 영화제 예산들을 말하는 겁니다. 지역으로 많이 돌리셨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지역영화요? 영화제가 아니고 지역영화, 지역영화는 그 지역의 특성에 맞도록 해야 되니까 그것도 지역이관사업으로 넘어간 거고요. 영화제는 저희가 그냥 하지요.

○**강유정 위원** 영화제 지원 예산은 전년 대비 반토막 났고, 이것 문제 여러 번 말했으니까 넘어갈게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전년 대비 반토막은 아닌데요. 내년에 다시 원복을 시켰는데, 저희.

○강유정 위원 그 원복이라는 게 이미 반토막 난 데서 원복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별로 따지고 싶지 않습니다, 이미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내후년에는 좀 더 올라가게 하겠습니다.

○강유정 위원 삭감 사례 혹은 블랙리스트로 오해받을 수 있는 사례가 하나 더 있는데요. 김건희 여사 참여했던 서울국제도서전에서 대통령경호처에 의해서 입틀막 사건도 있었고요. 출판 예산이 상당히 줄어들었다는 것, 그래서 문학나눔사업과 세종도서사업이 이게 좀 합쳐지면서 상당히 줄어서 문학나눔사업에 대한 볼멘소리가 상당히 많은 것 알고 있지요?

53년간 대한출판문화협회가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운영해 왔습니다. 한국출판문화산업 진흥원이 올해 하기로 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강유정 위원 제가 아까 말했던 만진원하고 비슷한 사례인데요.

PPT 한번 봐 주세요.

미국 출판 전문 잡지인 퍼블리셔스 위클리 기사인데 2024년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소개하는 기사에서 출협의 부스 사진만 본문에 소개했습니다, 왜 한국에서 2개의 부스가 나왔는지 오히려 의아했다라는 말도 있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월드 웹툰 페스티벌도 그렇고 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서 한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의 한국관이 상당히 미흡했다는 거예요.

더 심각한 건 국가 예산 지원을 받아 나온 진흥원 부스에 노벨문학상 수상한 한강 작가의 특별전이 없었고 플래카드조차 없었습니다. 플래카드 만드는 것 후딱 하잖아요, 사실. 그런데 플래카드조차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많은 분들이 마음을 못 놓고 있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것 걱정……

○강유정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연결고리를 좀 말씀드렸지요, 입틀막 사건도 있었고. 그래서 지금까지 해 왔던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에 지금 문체부에서 내보낸 데에는 한강 작가에 대한 특별전을 해야 마땅하지만 그것도 없고 플래카드조차 없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상당히 더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 부분에 혹시라도 의심과, 그리고 많은 부분들이 실제로 조금 억압받고 있다고 느끼는 분들도 계세요. 그 부분에 대한 의혹을 해소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될까요?

○강유정 위원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지금 출판 쪽도 사실은 출판문화, 그러니까 출판문화협회의 문제이기는 해요. 그런데……

○강유정 위원 그 내용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아시지요? 전반적으로 지금 문제 있는 협회는……

○강유정 위원 그런데 진흥원 부스에 지금 이렇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 부분은요……

○**강유정 위원** 제 말은 사업을 가져가시면 잘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러니까 아마 시간이 너무 겹쳐서 출판문화진흥원이 그 준비를 못 한 것 같아요.

○**강유정 위원** 그냥 플래카드 정도도 준비 못 했다는 건 제가 보기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데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글쎄요,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강유정 위원** 이것을 뺏어가시면 잘하셔야지요. 부천국제만화축제에 21개국의 외국이 왔는데 하나도 초청을 못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것은 올해 처음이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어쨌든 웹툰계와 약속을 한 걸 제가 지켜 준 거고요.

○**강유정 위원** 그럴 거면 그렇게 급작스럽게 뺏어가시면 안 됩니다. 뺏었다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아니아니, 그걸 그렇게 보지 마시고요. 좀 더 크게, 그러니까 내년 정도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도서전 같은 경우는 협회를 통해서 하던 것을 지금 전부 출판사로 직접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전 자체가 위축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강유정 위원** 도서전 내용이 좀 많이 형편없이 줄어든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글쎄요, 저는……

○**강유정 위원** 이것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퍼블리셔스 위클리에서 한 얘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하여간 제가 다시 한번 도서전 결과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유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수 위원** 질의에 앞서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고 가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예.

○**김승수 위원** 이번 국감 과정에서 정몽규 축구협회 회장이 본인 소유의 오크밸리에서 체육계 인사들에 대해서 한 접대 골프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접대 골프가 두 차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0년 10월 정몽규 회장의 3선 선임이 스포츠공정위를 통해서 되었었는데 바로 그 이후 2021년 1월에 정몽규 회장이 김병철 스포츠공정위원장과 축구협회 임원 그리고 정치권 인사들 이렇게 해서 한 세 팀 정도 해서 접대 골프 한 사실이 있고.

그리고 작년 4월에 또 정몽규 회장이 체육협회, 대한체육회 회장과 임원진 그리고 종목별 일부 체육회장들, 시도 체육회장들을 불러서 1박 2일 동안 숙박까지 하면서 골프 접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작년 4월 골프에는 이기홍 회장은 골프를 치지 않았고 김병철 스포츠공정위원장도 21년도의 그때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증언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 일단은 김병철 위원장은 본인이 골프 비용을 내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 그 골프 비용을 누가 냈느냐.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정몽규 회장이 낸 것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3선 연임이 결정

된 직후에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염연히 보면 이게 사후 대가성 뇌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지난 4월에 있었던 것들은 이기홍 회장은 직접 골프는 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1박 2일 숙박을 하면서 이루어진 상황인데……

그러면 이게 누구의 제안으로 이루어졌느냐. 이기홍 회장은 정몽규 회장의 제안으로 이루어졌다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국감에서 정몽규 회장은 또 대한체육회에서 먼저 제안해서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둘 중 하나는 위증을 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하고.

그리고 강유정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기홍 회장이 골프를 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1박 2일을 하는 과정에서 골프 피나 또 숙박비를 다 회원가로 적용해서 혜택을 받았습니다. 이게 염연히 판례상으로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이미 판례가 나온 게 있기 때문에 그런 혜택을 제공한 정몽규 회장이나 혜택을 받은 이기홍 회장이나 다 청탁금지법 위반입니다.

이것은 명확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체부에서 어떤 식으로 형사조치를 비롯한 책임 있는 조치를 할 것인지를 우리 다음 문체위 전체회의 이전까지 정확히 사실관계를 조사할 수 있는 부분은 조사해서 어떻게 조치하겠다는 그 부분을 저희한테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김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수 위원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작년 국감에서 ‘그대가 조국’이라는 영화의 박스오피스 조작 사례를 제가 지적한 바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그런데 이런 영화계뿐만 아니고 음악계에서도 여러 가지 음원 사재기, 차트 조작 이런 문제들이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2015년에 JYP 박진영 대표가 한 방송에서 ‘음원 사재기는 존재한다고 본다’ 이렇게 확언을 했고 또 가수 이승환 씨도 ‘음원 사재기는 공공연한 비밀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원 사재기 방법을 보면 김경수 전 지사의 드루킹 댓글 조작과 매우 유사합니다. 보면 매크로라는 그런 수단을 이용해 가지고 포털사이트 인기 검색어나 이런 쪽에 여러 가지, 음원을 반복 재생할 수 있는 그런 자동화 프로그램을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이 매크로라는 것이. 그러면 그걸 통해서 마치 개인 여러 명이 들어와 가지고 트는 것처럼 특정 음원을 반복 실행하기 때문에 그 음원의 순위가 급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순위 집계 시스템에 반영하도록 해 가지고 말 그대로 음원 차트의 순위 산정 업무에 방해를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22년 가수 영탁의 음원 사재기, 공소장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멜론, 지니뮤직 등에 접속해서 음원 반복 재생을 실행할 자동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가상 PC를 설치하였고 또 의뢰받은 특정 음원 등을 반복 실행해서 순위 집계 시스템에 반영하도록 했다, 이것 사실로 밝혀진 내용이고 또 가수 영탁의 소속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9년도에도 가수 널로, 손 등의 음원 사재기 의혹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음원 사재기에 있어서 문체부의 대응이 너무 소극적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가수 널로, 손의 음원 사재기 의혹에 대해서도 문체부가 판단하기 어렵다고 그냥 소속사에 회신을 한 바가 있습니다.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음원 사재기하고 관련된 신고를 확인해 보니까 한 14건이 들어왔는데 그중에 수사 의뢰는 3건에 불과하고 그 수사 의뢰 3건 중에서도 2건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됐고 1건만 겨우 수사 중에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했던 BTS 소속사에 대해 가지고 음원 사재기 브로커가 협박한 적이 있었습니다. 2017년인데, 이때 법원의 판결을 보면 사재기 마케팅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의 양형 이유에서도 피해자가 편법으로 마케팅 작업을 해서 협박 할 빌미를 준 잘못도 있다 이렇게 해서 음원 사재기가 있었음을 판결문에서 인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협박범에 대한 처벌만 했기 때문에 음원 사재기 여부에 대한 더 명확한 규명과 처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올해 콘진원에서 민원을 제기해서, 문체부에서 한번 상황을 좀 파악을 해 달라 이렇게 민원이 접수가 됐습니다마는 결론은 증거 불충분으로 그대로 종결처리됐습니다.

장관님은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음원 사재기가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장관님께서도 생각하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승수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문체부가 이에 대해서 근절할 의지가 없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렇다기보다는 우선 존경하는 김승수 위원님께 드리고 싶은 건 관에서 너무 민간에, 특히 이런 분야에 과도하게 개입을 하면 또 상당히 위축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콘텐츠진흥원에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이런 음악사들의 자료제출 요청 아니면 수사 의뢰까지 지금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런 게 좀 미비하면 하위법령을 개정해서라도 공정한 음악 유통환경을 만들어야 되는데, 저희가 이 부분은 좀 밝혀지거나 드러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수사를하고 또 고쳐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승수 위원 BTS야말로 진짜 우리 케이팝의 간판스타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그렇습니다.

○김승수 위원 그런 가수의 소속사까지도 협박을 받는 그런 상황이고, 실제 또 음원 사재기와 관련돼 있다는 것들이 정황상 거의 이렇게 추정이 되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의지를 가지고 근절이 될 수 있도록 좀 나서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알겠습니다.

○김승수 위원 그리고 최근에 국감 과정에서 보면 대한체육회뿐만 아니고 축구협회 또 배트민턴협회…… 지금 체육협회장들, 임원들의 비리들이 줄줄이 드러나서 국민들의 공분을 자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몇 가지만 보더라도 축구협회는 말할 것도 업고 대한수영연맹 같은 경우에도 현 회장이 사원의 부당 채용에 직접 개입한 의혹이 있고, 특히 사무처장 같은 경우에는 직접 부당 채용을 했을 뿐만 아니고 또 스스로가 전무로 있다가 거기 사무처장으로, 어떻게 보면 그야말로 셀프 채용을 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지금 검찰에서 조사까지 수사 중인 상황이 있고요.

야구소프트볼협회 같은 경우에는 회장이 성추행 의혹이 있고 족구협회 같은 경우에는 후원사 기부금 대납 비리, 대한수상스키 웨이크스포츠협회 같은 경우에는 사무처장이 자기 자녀한테 장학금을 3회 연속 특혜 줬다든지 또 선수 지원비 갈취, 그리고 사격연맹 회장 같은 경우에는 자기 병원의 직원들 월급도 안 줘 가지고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조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배드민턴협회 회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페이퍼컴퍼니 같은 그런 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면서도 회장이 당선됐단 말이지요. 그래서 체육계의 회장이나 임원진들이 체육계에 들어와서 비리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 이전에도 보면 범죄경력이나 비위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드러나지 않은 채 체육회장 또 임원진에 지금 계속 임용이 되고 있다는 것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회장들이 지금 선임되는 여러 가지 그런 과정을 보니 결격사유, 그러니까 범죄 사실 여부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본인들이 스스로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약서에 서약만 하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드러내기 싫은 범죄 사실 이런 것들을 드러내지 않으면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위가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회장이 된 거란 말이지요.

대한체육회에서 지금 이걸 개선해 보겠다고 하는 그런 방법 또한 보면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당선인들에 대해서 사후에 대국민 사전공개 검증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도 벌써 1월부터 시행한다고 해 놓고 제대로 시행도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대국민 사전공개 검증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 비위 사실을 어떻게 일반인들이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사전에 적어도 종목별 전국 단위의 회장에 나설 정도의 그런 사람 같으면, 우리 선출직들 전부 다 보면 개인 범죄경력 다 이렇게 제출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준할 정도로 그런 본인의 범죄경력에 대해서는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그에 따라서 선임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체육계 비리를 근원적으로 사전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제도적인 개선 의지를 장관께서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지금 체육계 협회뿐만 아니라 예술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협회들이 자기들끼리 정한 게 보통 두 번까지만 할 수 있는 걸로 해 놓고는 결국은 또 3연임, 4연임하면서 이 문제가 다 생기고요. 또 오래 하면서 사유화되고, 예산 쓰는 용도나 이런 게 전부 다 자기의 어떤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용도로 예산이 쓰여지고 이런 일이 많아서요 저희들이 부처에서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앞으로 이런 문제가 되는 모든 협회는 예산을 가능하면 다 배분하지 않는 쪽으로 지금 시행을 하려고 하고요.

회장 입후보자는 앞으로 납세증명이나 범죄경력 조회는 철저하게 할 수 있어서 후보로 등록하는 것 자체부터 좀 걸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수 위원 어찌 됐든 범죄경력과 납세경력은 반드시 확인이 될 수 있도록 꼭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진 위원** 장관님, 대한민국의 국무위원으로서 ‘나랏돈이 가장 눈면 돈이 많다’ 시중에 이런 말씀들 하시잖아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야지요.

○**배현진 위원** 절대 그러면 안 되겠지요.

제가 지난주에 한국관광공사 국정감사에서 수의계약을 90건, 총 26억 원을 특히 여성 기업 특혜를 이용해서 관광공사에서 잠시 일했던 이력이 있는 사람이 그 내부자와 함께 수의계약 비리를 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을 제기했고 여기에 대해서 문체부가 직접 관광공사 안에 검은 커넥션이 있는지 전수조사하시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알겠습니다.

○**배현진 위원** 보고받으신 바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보고받았습니다.

○**배현진 위원** 관광공사는 연 5000억 원 예산이 배정되는 곳이고 문체부에서도 거의 두 번째로 손꼽히는 지원 부서입니다.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렇습니다.

○**배현진 위원** 그러니까 이 안에 검은 돈, 검은 돈이라기보다 수의계약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쌈짓돈 생태계를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그렇습니다.

(전재수 위원장, 임오경 간사와 사회교대)

○**배현진 위원** 이 복마전 좀 파헤쳐 달라고 그랬더니……

보여 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문체부에서 즉각 관광공사에 당신들이 직접 안에 감사하시오라고 공문을 내려보냈어요. 장관님 이거 지시하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아니요, 제가 지시까지는 한 것 같지는 않고요.

○**배현진 위원** 제가 지금 제보를 받았는데 이 해당, 그때 여기 위원님들 다 같이 들으셨잖아요. 한 모 씨, 빵집 하는 김 모 씨도 같이 보셨고요. 이 관련된 당사자들이 지금 카카오톡으로 단톡방을 만들어서 이 안에서 어떻게 응답을 할까를 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제가 이 점만은 문체부를 다시 믿고 그 카카오톡 내용을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장관님, 지금 이거 공문 내린 거 당장 회수하시고 문체부 감사의 능력이 안 된다 하면, 지금 이거 왜 이렇게 했냐 했더니 문체부가 다른 감사 수요가 너무 많고 예전에도 관광공사에서 자체 감사를 했기 때문에 믿을 만하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국민들 보시기에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도둑 잡으라고 그랬더니 도둑들한테 알아서 니들 죄 털어 봐라……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지 않았느냐라고 하시지 않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거 제가 보고를 받고요,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거니까 좀 강력하게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제가 이런 회의를 하기 전에 이 공문이 내려간 것 같습니다.

○**배현진 위원** 공문을 그러면 누가 내려보냈는지 파악을 해야겠지요. 차관님이 지시하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배현진 위원 그거 아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배현진 위원 장관님, 이 부분은 제가 지금 단편적으로 수의계약의 한 예를, 그것도 범죄혐의가 같은 한 예를 자세하게 팩트로 전해 드렸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관광공사 내에 복마전 비리가 있는지 전수조사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만약에 감사로 소화하기 힘들다 하면 감사원에 의뢰하거나 바로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방안을 고려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 건은 즉시 회수, 취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알겠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지적되는 위원님들 지적해 주시는 것들은 저희들이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수정하고 고쳐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현진 위원 넥스트스텝에 관한 것들은 향후 국정감사가 끝나더라도 본 위원이 계속해서 모니터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오경 다음은 순서에 의해서 민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형배 위원 조금 속도를 내겠습니다, 장관님.

밤늦게까지 고생 정말 많으십니다.

아까 존경하는 양문석 위원님 질의에 연합뉴스 예산 국회에서 좀 들려 보면 동의하시겠다고 하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민형배 위원 제가 예결소위원장이거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민형배 위원 늘릴 테니까 지금하신 말씀 그대로 하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그렇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러면 우선 콘진원의 유현석 원장님, 저거 한번 봐 보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면)

콘텐츠는 그 내용이 중요합니까, 만든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합니까?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리 유현석 내용이 중요합니다.

○민형배 위원 그렇지요. 이 영화 아세요, ‘베테랑’? 아시지요?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리 유현석 예, 알고 있습니다.

○민형배 위원 저분이 감독이 류승완 감독이지요. 혹시 어느 대학 나왔는지 아세요?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리 유현석 저는 개인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민형배 위원 모르지요? 그런데 왜 콘진원 공모사업하면서 신청서 보면 이렇게 참여하는 분들의 학력, 경력, 논문 실적, 정부지원사업 수행실적 다 쓰도록 했습니까? 게임 콘텐츠 제작하는데 출신 대학과 전공이 왜 필요합니까?

저것 봐 보세요.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리 유현석 잘 안 보이는데요, 그것 다시 한번……

○민형배 위원 뭐가 안 보여요, 저거 하셔 놓고.

올해 743개 심사가 다 이래요. 봐 보실래요? 저것 전부 다……

○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리 유현석** 그 내용을 파악해서, 저도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 **민형배 위원** 절대 안 되겠지요?

○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리 유현석** 예.

○ **민형배 위원** 바꾸세요, 바로.

○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리 유현석**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민형배 위원** 실행방안, 결과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가지고 저희 의원실로 좀 부탁드립니다.

○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리 유현석** 예, 알겠습니다.

○ **민형배 위원** 저런 거 안 됩니다. 지금 시대에 안 맞습니다.

○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리 유현석** 예.

○ **민형배 위원** 장관님, 버추얼 아이돌이라고 혹시 아세요?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 **민형배 위원** 플레이브 들어 보셨습니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아닙니다.

○ **민형배 위원** 잠깐 한번 봐 보겠습니다, 공연.

(영상자료 상영)

이거 가상 아이돌 그룹 플레이브거든요?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그렇습니다.

○ **민형배 위원** 앨범 초동 판매량이 50만 장입니다. 지상파 가요순위 프로그램도 1위, 콘서트 하면 1만 1000석이 10분 만에 매진이 됩니다. 이런 기술이 무엇 때문에 가능한지 아세요?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인공지능 때문에 가능한 거지요.

○ **민형배 위원** 모션캡처라는 기술입니다. 지금 모션캡처, AI 아바타 같은 문화기술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 중인데요. 문화산업이 굉장히 부가가치 높은 신성장 동력이다, 이것 아시는 거지요?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 **민형배 위원**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에 CT, 그러니까 문화기술을 전문적으로 연구개발할 기관이 없습니다.

지난 5월에 2024년 문화 디지털 혁신 시행 계획 확정하셨지요?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 **민형배 위원** 25년까지 이쪽에 1조 1000억 투자하겠다고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좋은 일인데요, 우리나라에는 문화기술 R&D 전담 기관이 없습니다.

저기 보시는 것처럼 IT, BT, NT, ET, ST, 다 있는데 이 CT만 원천기술을 제공할 국가 단위 기구가 없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원래 예전에는 전자통신연구원에서 그 역할을 했었……

○ **민형배 위원** 그걸 좀 했었는데 지금은…… 지난주 제가 국감에서 ACC, 콘진원 등에 확인하고 지스트나 카이스트에도 물어봤는데 모두 이게 좀 필요하다고 합니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현재 지스트가 그 역할을 좀 하고 있는 편이지요.

○민형배 위원 그런데 그거는 그냥, 그 연구소가 지금 열댓 명 있는데요. 원래 그 연구소는 당초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종합계획에, 제가 다시 그때 것 꺼내서 봤습니다마는 연간 운영예산 1500억, 스태프 500명 정도 되는 국책연구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아주, 축소가 아니라 이건 거의 존재 자체를 없애 가지고 지금 그 모양을 만들어 놨는데요.

콘진원이나 이런 데서 다 해 보고 전국…… 세계 주요 국가의 CT 연구기관을 보면 다 있거든요. 이거 그동안 여러 번…… 국회 때마다, 18대부터 계속 추진을 했었어요. 이번에 제가 이런 거 한번 만들어 놨거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한번 만들어 보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혼자서 한다고 되는 일은 아니니까요.

○민형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한 번 좀 관계……

○민형배 위원 지금까지 한 다섯 번 정도 이 연구원에 대한 용역을 했어요. 그리고 법안을 몇 번을 만들었는데 다 무산이 됐는데요. 이번에 장관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무산된 게 부처 간에 협의가 잘 안 돼서 그렇게 된 건가요?

○민형배 위원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또 그 벽을 넘어가야 되는 거네요.

○민형배 위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접근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걸 한번 해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조금 이상해요. 왜 우리나라에 CT연구원이 국책기관으로 없는지 정말 이상합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지금 프로야구 포스트시즌이 시작됐지요, 10월 2일부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민형배 위원 어제는 기아하고 코리안시리즈 1차전, 2차전이……

○위원장대리 임오경 마무리해 주시지요.

○민형배 위원 곧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이 됐는데 어제 경기 보셨나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어제는 못 봤습니다.

○민형배 위원 못 보셨지요?

제가 온라인 암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프로야구가 암도적으로 많습니다. 암표의 96.5%가 프로야구예요. 그런데 이게 놀랍게도 5년 전에 비해서 8배 이상 늘었어요. 어제 있었던 경기의, 저 암표 중고거래사이트 한번 봐 보세요. 저런 게 막 있는데 어제 있었던 경기, 포스트시즌에서는요 9710건이 신고가 됐는데 최고 판매금액이 495만 원까지 나왔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어제 것요?

○**민형배 위원** 어제 것은…… 아니, 포스트시즌에서요. 보통 10만~150만 원 가요, 티켓 가가. 그런데 어제는, 최근에는 495만 원까지 최고로 갔더라고요. 이것 단속을 해야 되는데 제가 직접 거래 시도 한번 해 봤거든요. 그런데 순식간에 저렇게 거래가 성사됩니다, 바로 순식간에. 그래 가지고 한 번 거래하면요 단골로 돼 가지고 바로 또 연락이 옵니다. 그런데 이게 스포츠 경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공연 암표도 많아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다 있지요.

○**민형배 위원** 여기는 심지어 사기 피해까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 아까 CT연구원 같은 게 있어야 이런 것 빨리빨리 잡아냅니다.

지금 스포츠 암표 근절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법안 검토를 해 볼 테니까요 장관님, 부처에서 한번 이걸 꼭 적극적으로 좀 살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알겠습니다.

○**민형배 위원** 할 게 많은데 다음에 다시 하지요.

○**위원장대리 임오경** 추가질의로 이어 주시고요.

순서에 의해서 다음은 박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현 위원** 유산청장님, 이미 언론에 단독 보도됐고 후속 보도도 이어진 문제인데, 물론 지금 우리 유산청에 제가 어떤 징계를 한다거나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랜 기간 동안 여러 정부에 걸쳐서 이 문제가 똑같이 대응을 잘못해 온 것이지요. 그래서 앞으로 더 정신을 차리고 잘해 보자라는 측면에서 한번 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일본의 제2 사도 광산 추진 사례로 거론되는 아시오 광산 그다음에 구로베 댐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요. 잘 아시다시피 아시오 광산은 일본 후생성 자료에 따르면 강제동원된 조선인 2416명 중에서 40명이 사망한 곳이고요. 구로베 댐은 일본 시민사회활동가의 조사에 의해서 1000명 이상 조선인이 동원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임오경 간사, 전재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런데 이 아시오 광산과 구로베 댐이 세계유산 예비잠정일람표 후보자산에 둘 다 2008년 9월, 지금부터 16년 전에 이게 등재가 되어 있어요. 유네스코 등재 3단계 중에 1 단계가 완료된 것이고 그동안 일본은 계속 홍보를 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엊그제 제가 유산청에 자료 요구를 하면서 그때 청장님께 말씀을 드렸던, 일본 문화청의 홈페이지를 참고하라고 하는 이 한 줄만 제출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적을 했더니 자료를 다시 주셔서 저희가 여러 번역도 해 보고 했는데 이제 아시오 광산과 구로베 댐이 있는 지자체가 우선 이것을 세계유산에 등재하자고 일본 문화청에 제안서를 낼 것 아니겠어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그렇습니다.

○**박수현 위원** 그 제안서를 번역해 보니까 그 제안서에 조선, 자기들 후생성도 이렇게 인정하고 있는 강제동원의 역사를 제안서에 아예 삭제해 놓고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 의도를 분명하게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박수현 위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청장께서 그동안에,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일본이 유네스코에 등재신청 3단계를 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대응을 하겠다거나 이런 답변을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제가 알기로 지금 세계유산 관계기

관 협의회라는 것이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유산청장 최용천** 예.

○**박수현 위원** 그래서 외교부 주관으로 문체부 그다음에 국가유산청이 이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물론 이것을 좀 넘어서는, 더 나아가서 상설기구를 만들자고까지는 제가 제안을 사실 못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적어도 이런 협의회를 상설화하는 수준의 움직임으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장관님께서 이 문제는 외교부와 대통령실 등등과 행안부, 좀 협의를 해 가지고 이 문제를 완전 상설기구화는 아니더라도 상설화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사도 광산 사례처럼 임박해서 대응하는 일이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되겠다, 국가유산청이 이제라도 내년 1월부터 연구용역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이미 늦은 점이 있다, 그러나 지금부터 빨리 속도를 내고 정신 차리자, 그래서 유네스코 등재를 이용한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응해서 우리가 연구결과들을 지속적으로 축적해 나가는 것이 대응의 첫 단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에 대해서 청장님과 장관님 의견을 좀 짧게라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산청장 최용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지난번 사도 광산부터 우리가 많은 시행착오가 있어 왔고요. 그것이 늘 항상 준비를 하는 과정 중에서 저쪽하고 대응을 못 했던 것이 저희 부족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사전에 대응이 우선적으로 급한 것 같고요. TF팀도 만드는 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가유산청에 많은 가용 인력은 없습니다만 세계유산정책과와 국제협력과 등이 중축이 돼서 또 유네스코 나가 있는 한국위원회, 거기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문체부와 또는 외교부하고 긴밀한 협작을 통해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고 1월부터는 바로 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수현 위원** 알겠습니다.

장관님께서 많이 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저희 입장을 분명하게 전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외교부든 관계된 부처하고의, 왜냐하면 각자 부처마다 자기들의 주 업무가 있고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부는 문화부로서의 확실한 입장을 표명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위원** 유산청장, 시간이 부족했었을 텐데도 본 위원한테 자체 감사계획은 물론 유물 매입 개선사항, 정관 개정에 대한 종합적인 노력과 의지를 보고해 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2018년, 2020년 두 차례 유산청 자체 감사와 2021년 국정감사 그리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유산청 지도감독 노력을 위한 시간은 이미 충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문화유산국민신탁 김종규 이사장이 여태껏 사과는커녕 대외적인 입장 표명 또한 분명히 하고 있지 않은 상황 그리고 본인이 김재원 위원을 만나면 한 방에 정리해 버리겠다 이런 소리를 하고 다닌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국회 문체위원장을 뭘로 알길래 이런 식으로 외부에서 겁박을 해댑니까? 도저히 묵과하기가 어렵습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은 국민 기부금으로 운영되는 문화유산국민선택이 거듭나기 위해서 위원회 차원에서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원 감사청구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장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PPT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9일 한글날 당일 국립국어원 홈페이지입니다. 임기만료 퇴직한 장소원 전 원장 명의로 인사말이 걸려 있어서 사진 내리지 않은 것, 실수로 넘어가겠습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는붉게 표시한 부분인데요. '세종대왕을 도와 한글 창제를 이뤄 낸 집현전'이라고 돼 있습니다. 집현전은 훈민정음 창제하지 않았고 창제를 돋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은 실록에 기록된 역사적 사실이고 해례본 서문에서도 세종대왕이 직접 한글을 창제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장관, 훈민정음에 대한 심각한 역사 왜곡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글쎄, 한글은 세종대왕께서 창제한 걸로 돼 있거든요.

○김재원 위원 그런데 국립국어원 태도는 더 가관입니다. 오류였겠지 하는 생각으로 서면으로 물었더니 11일에 장소원 전 원장 사진만 내리더니 같은 날 오후 4시에 홈페이지 인사말 화면을 닫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 자료에서 역사 왜곡의 의도성을 아예 드러냅니다.

PPT 또 주시지요.

학계에서는 대체로 세종 직접 창제로 보고 있다면서 여전히 사실이 아닐 가능성을 주장하고 이런 표현이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수정할 것을 검토하겠다 해 놓고 바로 잡지도 않고 홈페이지 닫아 버렸습니다. 단독 창제, 세종대왕 단독 창제 인정하지 않겠다 이런 의도가 보여집니다.

장관, 소속기관 관리 철저히 해 주시고 재발방지방안 만들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17일 날 한국콘텐츠진흥원 유현석 부원장의 행태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보고받으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제가요?

○김재원 위원 예, 국가 예산으로 동생 책을 사 주는가 하면 필요성을 증명하지 못하는 출장으로 올해 8개월 동안 나주 본원에서 단 35일만 근무했습니다. 공공기관 임원으로서 부적합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 답변에 따르면 원장에 공모하지는 않았지만 연임설도 나오고 있고 서울 소재한 또 다른 기관에 임명될 수 있다는 의혹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부원장으로서 사용한 비용, 출장의 적절성, 근태와 실적 등에 대해서 문체부 감사를 실시해서 이런 문제가 콘진원에서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알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감사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알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장관, 한 가지 더 지적하겠습니다. 지난 17일 영화진흥위원회 국정감사

에서 영진위와 문체부에 질의했는데 그중에 독립예술영화제 예산 문제 질의했는데 보고 받으셨습니까?

PPT 주시지요.

화면은 당시 본 위원의 질의에 문체부가 답변하는 모습입니다. 독립예술영화제 예산이 사실상 삭감이 되어서 충격에 빠진 영화인들을 대변한 국정감사 질의에서 정부를 대표해 출석한 책임자는 웃으면서 질의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있지요, 자료 보느라. 웃음이 많은 분이라고 생각하고 당일은 그렇다 치고 넘어갔는데 이후 보인 수감 태도 극도로 불량해서 언급하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최대 규모 독립영화제인 서울독립영화제 사업 3억 원을 내년에는 전액 삭감하고 대신 국내·국제 독립영화제 포괄해서 예산 총액을 5억 원 증액했다는 입장인데 마음대로 줄일 수도 늘릴 수도 있는 구조로 바뀐 것입니다. 국회 예산 통제를 피하자는 꼼수인 거지요.

그런데 이런 질의에 대해서 웃고 있더니 본 위원에게 종감까지 별도 설명도 없고 의원실에서 연락했더니 답변 몇 줄 보내왔는데 당연히 불수용입니다. 질의에 대해서 수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유라도 써서 보냈어야지요.

장관, 고위공무원의 불량한 수감 태도에 대해 엄중히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하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알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아울러 국내·국제 독립영화제로 구분하는 개선방안 마련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것 설명을 좀 드릴까요?

○김재원 위원 예.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지금 국내·국제로 예산을 배분해 달라는 것은 독립영화인들의 요청이고요. 그다음에 서울독립영화제는 그동안에는 아마 여기를 따로 예산 편성을 해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잘해 온 것 같은데 결국은 여기도 이해충돌 소지로, 사실은 여기에 심의를 한 분이 여기에 지원을 하고 또 거기서 개런티를 받았다고 이런 게 감사에 지적이 되는 바람에 일단 여기도 다른 영화제와 똑같이 공모로 하도록 전환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없어진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다른 독립영화제와 똑같이 공모심사로 전환이 됐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공모심사로 하되 국내·국제 독립영화제로 구분하는 개선방안을 하시라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건 이미 다 그렇게 돼 있고요. 우리 현장에 있는 영화인들하고 다 약속이 된 사항입니다.

○김재원 위원 하시겠다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그렇습니다.

○김재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석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고 했으면 좋겠는데요.

○위원장 전재수 예, 그렇게 하십시오.

○**양문석 위원** 지난 기관 국감 할 때 국립중앙박물관하고 그다음에 영화진흥위원회가 대국민 사과를 하기로 했거든요. 어떻게 됐는지 확인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전재수** 국립중앙박물관장님 계십니까?

○**국립중앙박물관장 김재홍** 예, 국립중앙박물관장 김재홍입니다.

양문석 위원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이 자리에서 즉시 사과드리겠습니다.

먼저 잠깐 경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 저희들이 국감을 마치고 돌아간 즉시 제가 직접 주재해서 TF팀을 구성해서 개선 방안을 지금도 연구하고 있고 조만간 의원실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대국민 사과를 간단하지만 드리겠습니다.

양문석 위원님이 지적하신 금번 수장고 누수와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께 제 가슴 깊이 사과드립니다.

○**위원장 전재수**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님.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저희는 어제 23일 사과문을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완료를 했습니다.

○**양문석 위원** 읽어 주세요.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예.

읽겠습니다.

차세대 미래관객 육성사업 관련 사과문.

‘영화진흥위원회가 2024년 차세대 미래관객 육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세심하지 못한 일 처리로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영화진흥위원회는 지난 3월 2024년 차세대 미래관객 육성사업의 용역업무 과정에서 제 안요청서에 ‘정치적 중립 소재와 특정 이념, 사상을 배제한 영화, 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진행’이란 문구를 넣어 물의를 빚은 바 있습니다.

차세대 미래관객 육성사업은 청소년들이 영화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해 전국의 영화관과 학교를 연계하여 영화교육을 운영하는 교육사업으로 교육기본법을 준용하여 위와 같은 문구를 넣었으나 이에 대한 오해와 우려가 발생할 수 있음을 깊이 해아리지 못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위원회는 지난 5월 말 해당 문구를 삭제하는 변경 계약을 용역사와 체결했습니다. 아울러 모든 관람 영화 선정은 처음부터 전적으로 학교의 선택으로 이루어졌으며 해당 문구로 인해 배제된 영화는 한 편도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는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임직원 교육과 내부 소통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당 건으로 우려를 끼쳐 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2024년 10월 23일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양문석 위원** 국립중앙박물관도 최소한 영진위처럼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짚고 갔으면 좋겠고요, 위원장님.

그다음에 제가 또 대한체육회의 테니스협회에 대해서 사고단체 해제와 신임 회장 인준을 확인국감 전까지 발표해 달라고 이야기했고 대한체육회 회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그날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확인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전재수 대한체육회 사무총장님, 아직 조치가 안 됐습니까?

○대한체육회사무총장 윤성욱 예, 아직 협의 중이고요. 조치가 지금 진행 중에……

○위원장 전재수 최대한……

○대한체육회사무총장 윤성욱 최대한 서둘러서 협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할 텐데 그 전까지는 양문석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체육회사무총장 윤성욱 예, 그때까지의 협의 경과를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양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석 위원 협의 경과가 아니고 분명히……

○대한체육회사무총장 윤성욱 그때까지의 협의결과.

○양문석 위원 조건 없이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확정된 것들을 보내 주셔야지요. 그렇게 알고요.

시작하겠습니다.

장관님, 노벨문학상 받았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번에 받았지요.

○양문석 위원 문화부의 공식입장이 뭡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공식입장이 대단히 축하한다고 말씀했지요.

○양문석 위원 아, 그랬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양문석 위원 제가 본 적이 없어 가지고.

일본 주요 언론 매체들을 간단하게 제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NHK는 ‘수상이 확정되자 도쿄 신보초 서점을 취재했다. 제일 먼저 달려왔다는 여성은 한국어를 공부해 왔기 때문에 굉장히 기쁘고 감개무량입니다. 역시 한국어로 읽고 싶다고 지금 주문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런 보도를 했고요.

아사히신문, ‘한국 작가 한강 씨가 노벨문학상 아시아 여성에서 첫 수상’이라는 제목으로 런던발로 보도를 했습니다. 내용 중에 ‘그녀는 육체와 정신의 연결,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자의 연결에 대해 독특한 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시적이고 실험적인 문체로 현대 산문의 혁신자가 되었다’고 칭찬했습니다.

도쿄신문, ‘여성 문학상 수상은 통산 열여덟 번째로 아시아인 여성으로는 최초다’라고 전했습니다.

요미우리신문, ‘2016년에는 육식을 피하는 여성을 통해 한국의 사회와 가족, 역사의 문제에 육박하는 ‘채식주의자’로 아시아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영국의 부커 국제상을 수상, 한 씨의 작품으로 처음 일본어로 번역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요미우리신문은 ‘제2차 세계대전 후 제주도에서 일어난 4·3사건을 다루며 환상적이면서도 무거운 역사에 다가섰다고 일본 내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일본에서도 이렇게 정말 감정 빼고 썼습니다.

산케이신문, 일본의 극우신문이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양문석 위원 산케이신문 내용을 보면요, 정말……

산케이신문이 어떻게 보도를 하느냐 하면—일본의 극우 신문입니다—‘한강 씨는 유력 후보로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서점에서 한강이라는 부스를 내고 사전에 특집 행사 준비를 시작했다. 수상이 정해지자 ‘축, 노벨문학상 한강 수상’이라고 게시 발표했다. 도쿄의 한 여성은 ‘무라카미 하루키 씨 등 일본인의 수상을 기대했지만 유감입니다. 또 내년이네요’ 하고 아쉬움을 전했다’ 이렇게 썼어요.

그런데요 조선일보 일본판은 어떻게 썼느냐 하면요, 좀 올려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조선일보 일본판, ‘노벨상은 가치를 잃었다. 중국인 작가 잔설 씨가 아닌 한국인 작가 한강 씨의 수상에 중국 넷(Net)에 원한절’, 원한에 맷힌 그런 내용을 썼다는 거예요.

‘중국 매체들은 대체적으로 평가가 아시아 최초의 여성 작가 수상이라고 환영한다는 분위기인데 극우 신문 조선일보는 부정적인 기사를 중국 네티즌 반응이라고 소개하면서 한국 작가의 노벨상 수상을 깎아내리려는 일본 우익 혐한 극우주의자들에게 맞장구라도 치겠다라는 듯이 클릭 장사를 의도한다. 조선일보는 기사 내내 한국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비난하고, 심지어 한국어를 펼쳐하는 중국 넷 유저들의 말도 소개하고 기사 끝에 가서야 겨우 한편으로 한강 씨는 노벨문학상 수상 전에 많은 국제상을 수상하고 있다. 그 실적을 높이 평가하는 중국의 넷 유저도 있다라고 썼다’고 시민의 신문 민들레에서 이렇게 보도합니다.

조선일보 일본판, 간단하게 핵심 내용을 소개해 드릴게요.

‘중국의 네티즌들은 노벨상은 가치를 잃었다, 납득할 수 없다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들은 한국어로도 문학작품을 쓸 수 있을까, 노벨상을 받은 작가에게 앞으로 남아 있는 것은 비판과 비난을 받을 뿐이다. 또 다른 네티즌들은 노벨상은 상품화되어 노벨상은 별씨 그 가치를 잃고 있다’

이렇게 중국의 언론을 인용한 게 아니고 중국 네티즌들의 댓글을 인용해서 조선일보가, 일본판 조선일보가 이렇게 썼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범죄집단 조선일보사의 일본에서의 노벨상을 바라보는 시각이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런데 한국의 조선일보에서는 1면에 대단히 축하한다고 아주 크게 기사를 낸 것 같았는데 일본판은 중국 유저들의 평을 냈다는 건가요?

○양문석 위원 예. 충격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글쎄요,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양문석 위원 충격이지요?

그래서 얼마나 시민언론 민들레가 화가 났으면요, 제목을 어떻게 달았느냐 하면 ‘일본 극우 산케이보다 더 악질인 조선일보 일본판’ 이렇게 제목을 달았어요. 이게 문화부가 정부광고 꽉꽉 밀어주는 조선일보의 실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글쎄요, 문화부가 꽉꽉 밀어주지는 않고요. 이건 다 똑같이 하는 거지 조선일보라고…… 조선일보가 별로 정부 도와주는 것 같지도 않던데요, 보니까.

○양문석 위원 그런 조선일보의 실상을 장관께서도 아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이렇게 아주 우아하고 품격 있게 읽어 드렸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알겠습니다.

○양문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오경 위원 장관님, 대한민국 최고의 축구경기장 상암월드컵경기장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임오경 위원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잔디 때문이에요?

○임오경 위원 예.

이것 챔버리 만회하려고 모든 과정, 절차를 정부에서 무시했을 때도, 저희 문체위원들도 그 부분에 있어서 위기가 왔을 때 기회로 잡아야 된다고 그래서 저희가 장관님의 의견, 문체부의 의견을 그나마 수렴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임오경 위원 지금 경기장의 잔디 심각하게 훼손되었어요. 당시 잔디 훼손 우려에 대해 문체부는 이후 축구 경기에 지장이 없도록 철저히 사후 조치하겠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약속했던 사후 조치는커녕 도저히 잔디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얼마 전, 15일 날이지요, 월드컵 예선 이라크전에서 3만 명밖에 입장할 수 없는 용인의 한 경기장에서 치렀습니다.

작년 챔버리 케이팝 콘서트 이후 문체부는 훼손된 상암구장 잔디에 대한 적절한 사후 조치를 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글쎄요, 그때는 제가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요. 아마 이 잔디 보수는 서울시가 했어야 될 건데 문체부가 그런 약속을 어떻게 했나 모르겠네요.

○임오경 위원 그러니까요, 작년에는 서울시에게 승인은 받았다고는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그랬지요.

○임오경 위원 정부가 위기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사용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절차 다 무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나서서 같이 복구를 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임오경 위원 그런데 현장의 선수들은 경기력 저하가 되고 그리고 부상 위험에 시달리고 팬들은 경기 품질 저하에 실망을 하고 있고요. 정부는 기후 탓, 예산 탓, 인력 탓만 할 뿐 과학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후 관리에 대한 노력은 하지 않고 경기 결과에 따라서 대한축구협회, 지도자, 선수,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잔디 문제 이대로 방치하실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우리 수준으로, 그런 콘서트를 했다고 해서 잔디를 금방 보수할 수 없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오경 위원 호언장담을 작년에는 했었거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아니, 앞으로는 좀……

○임오경 위원 그런데 서울시에다 맡겨 놓지 말고 문체부에서 적극 앞에 나서서 이것 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같이 보수할 수 있도록……

○임오경 위원 예, 사후 조치해 주셔야 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알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김효재 이사장님 나와 계시지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예.

○임오경 위원 지난 15일 날 저에게 2건을 약속하셨습니다. 종감 때 답변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답변을 하시라고 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예.

○임오경 위원 하나는 비상시국회의 기자회견이 정치적이어서 대관을 하루 전날 취소해 버렸고요. 또 하나는 정부광고지원센터 대강의실은, 운영관리지침상 대강의실을 사용할 수 있는 단체는 정부광고 관련 기관 및 단체, 학회 등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시민단체가 사용 반대 기자회견은 승인하셨어요.

답변해 주세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그것은 당시의 이사장이 한 게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 광고팀장이, 개인적인 알음으로 연락이 와서 의도가 괜찮은 행사라고 생각을 해서 했답니다. 그런데 그 절차상 3주 전에 대관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공간은 그런 단체……

○임오경 위원 잘못되셨지요? 잘못 절차 밟으셨지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아니, 그러니까 그 절차를……

○임오경 위원 저는 여기 정확하게 답변을 준비하셔서 오시라고, 15일 날 답변을 요청했는데 종감 때 답변을 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러한 답변을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다시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프레스센터 대관 내역 하나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면)

이거 정치적 행사 맞나요, 안 맞나요?

제가 이것을 보여 드렸을 때 이사장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거 우리 언론진흥재단에서 대관해 줬습니까? 이거 어디서 대관했습니까?’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지요, 이거 언론진흥재단에서 대관해 준 거라고. 그런데 기본적인 비상시국회의 기자회견은 하루 전날 취소하셨어요. 이것에 대해서 답변하라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은 관련 기관 및 단체, 학회 등 한정되어 있는 운영지침에 의해 정부광고지원센터 대강의실 대관해 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시민단체 개 사용 반대 기자회견에 승낙을 해 주셨어요. 왜 승낙을 해 줬나, 김건희 여사가 온다니까 규정이고 뭐고 다 어려 가며 시민단체에 열어 줬습니다. 도대체 언론진흥재단에 규정이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장관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대관 실태 내역을 전반적으로 점검하셔서 제 의원실로 진짜 보고해 주셔야 됩니다. 언론진흥재단의 이 말도 안 되는 자기들 입맛에 맞는, 취소와 대관에 있어서 이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장관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저희가 조사를 해서 보고드릴까요?

○임오경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러니까 대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내용을……

○**임오경 위원** 예, 지금은 언론진홍재단에서 입맛에 맞게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도 않고 논리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체부에서 직접적으로 이것 관련돼서 저희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알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장관님, 요즘 무용계에 흥흉한 소문이 돌고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아니요, 모르겠는데요.

○**임오경 위원** 장관님 눈에 들지 않으면 정부사업을 전혀 땔 수 없다라고 말들을 해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기사 한번 보시지요.

유인촌 장관 지명 당시 무용단체에서 이례적으로 두 차례나 지지성명을 냈습니다. 대통령선거도 아니고 장관 지명됐다고 지지성명서 내는 것 처음 봤습니다. 보이시지요?

그런데 지금 이 장관 지지성명을 하셨던 분들이 정부사업의 심의위원으로 다수 포진해 계십니다. 저희가 받은 제보에 따르면 실제적으로 저 심사위원들이 민간예술단체 우수공연 프로그램을 선정하면서 자신들끼리 짐짜미를 해 정부사업을 밀어주기까지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를 했습니다. 한 예술단체는 심사 1위로 올라갔지만 2차 심사에서 빠지게 됐고 예비로 들어 있던 팀이 올라가 지원 사업비를 수령했다는 겁니다.

장관님, 이게 있을 수 있는 일 아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건 아마 의혹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임오경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임오경 위원** 또 물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장관님도 말씀은 하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리고 지금 제가 와서 이런 행사를, 요즘 하고 있는 ‘대한민국은 공연중’이라는 걸 한 번 한 거고요. 내년에 할 일들을 이제부터 아마 심사하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아직 하나도 정리가 안 되어 있으니까요, 아마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 미리 걱정하는 겁니다, 미리.

○**임오경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무용계에서 지속적으로 민원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각종 지원사업들을 심사하는 과정을 장관님께서 좀 더 투명하게 해 주셔야 될 책무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아니, 그것은…… 예, 알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왜 그러면 이게 과거에도 블랙리스트 얘기가 있었지만 지금은 화이트리스트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런 얘기는 저는 더 이상 나와서는 안 된다고 봐요. 처음에 저희가 청문회 할 때도 제가 장관님에게 부탁한 말이 있었습니다, 다시, 두 번 연임을하시는 장관님이시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현장에서 이런 말들이 나오지 않도록 진짜 장관님은 조심해 주셔야 된다고.

그래서 최근에 우리 위원님들도 계속해서 질의를 하고 있지만 독립영화부터 시작해서 진짜 현장에서 차별 없는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심도 있는 절차를 밟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알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아마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거고요. 적어도 내년 지원되는 사업들 경우를 보시면, 내년에도 어차피 다 보실 거니까 보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임오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위원님들의 재추가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5차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세 분의 5차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신데요. 순서에 따라서 강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유정 위원 의사진행발언 먼저 하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질의시간에 넣지 말아 주세요.

아까 제가 영진위원장에게 자료 고의 누락 혹은 자료 은폐 시도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했고 존경하는 위원장께서 해명의 기회도 줬습니다. 그런데 또 거짓 해명을 했고요. 뭐라고 했냐면 공식적 문서가 아니다라고 대답하셨거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수신에 영화진흥위원회라고, 제가 갖고 있어요, 실제를.

이 문제, 위증으로 고발을 의뢰합니다. 위원장께서, 제가 아까 기회까지 드렸고 엄중 경고를 했지만…… 이건 저는 의도적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고발 의뢰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셔도 됩니다.

영진위원장님 말씀 잠시 들어 보도록 합시다.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위원님, 오늘 전달된 그 문서는 저희가, 영화위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도……

○강유정 위원 아니, 아까 공식적…… 지금 위증을 하시고 계시네요. 공식적 문서가 아니라고 속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발언하셨고.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아니요, 저희가……

○강유정 위원 수신처에 영화진흥위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목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비상임위원에 대한 징계 권한 관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제가 그것은 다 확인을 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오늘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냥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이러이러한 게 오늘 발견됐다고.

○강유정 위원 위증으로 고발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전재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말씀이 그렇다면 최대한 빨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장관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위원장님 제가 조금……

제가 아까 그것 보고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오전에 존경하는 강유정 위원님 지적한 것에 대해서 왜 자료를 안 드리느냐, 빨리 드렸으면 좋겠다, 그게 안 드릴 자료가 뭐가 있는 데 안 드리느냐 했는데…… 아까 오후에 저한테 보고하기로는 그 마지막 간 자료는 영화진흥위원회에 있던 그 변호사분이, 진흥위원회의 공식적인 의뢰가 아니고 본인이 개인적으

로 부산의 어디 법무법인에 의뢰해서 그걸 받은 거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분이 지금은 퇴사해서 영화인연대에 가서 일을 하신다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진홍위원회 입장에서는 저한테 보고하기에는 그건 공식적으로는 자기네 문건이 아니고 거기 있던 분이 개인적으로 의뢰해서 받은 문서라고 얘기를 하네요. 저는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강유정 위원** 저는 일단 서류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서류에 대해서 지금 일치하지 않는 설명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전에 어떻든 제가 갖고 있는 서류에 수신이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것 없다고 숨기셨다가 결국 나왔어요. 그 과정 전체를 묻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공식 문서가 아니다라고 말하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보이는 것과 듣는 게 다르기 때문에 물어본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제가 고발조치는 하도록 하겠고, 그것은 간사 간의 협의에 의해서 되는 부분들이니까요.

알겠습니다. 해명도 잘 들었습니다.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위원님, 한 가지만……

제가 아까 드릴 때 제 기억에 공식 그것보다 보유하지 않고 있는 문서라고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문서.

○**강유정 위원** 제가 또 속기록까지 뒤져서 다시 보여 드려야 되겠습니까?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아니요……

○**위원장 전재수** 위원장님, 최대한 빠른 시간에 납득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유정 위원**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무인 헬스장 합법이에요, 불법이에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무인 헬스장이오?

○**강유정 위원** 예.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저는.

○**강유정 위원** 모르시면 어떡합니까?

일단 불법입니다. 저희 직원들이 예약을 하고 방문했는데, 화면 한번 보실 게요.

(영상자료를 보면)

네이버에 검색을 해 보면 국회 인근 무인 헬스장만 하더라도 이렇게 많이 떠서 저희가 직접 가 봤습니다. 무인 헬스장 내부를 좀 볼게요. 내부를 보면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도 없고 사업자등록증도 없고 기계 사용 안내문도 없고 안전주의문도 없습니다. 비상상황 대비해서 전화기도 없고요. 심지어 비치된 구급함에도 봉대나 소독약, 정말 마트에서 파는 정도밖에 없어요, 소방설비도 없고. 탈의실도 한번 들어다볼게요. 위생관리 전혀 안되어 있고……

보셔도 좀 무섭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강유정 위원** 게다가 이것 모르시면 안 되는 게 혼자서 무거운 중량 역기를 들다가 깔려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17년에. 90kg의 역기를 들다가 목에 떨어트려서 사망한 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무인 헬스장이 헬스장이라고 등록이 된다면 무인이면 안 되는 겁니다. 관리자가 있어야만 되는 건데……

장관님, 그러면 헬스장은 자유체육시설입니까, 신고체육시설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신고해야 됩니다.

○**강유정 위원** 그렇지요? 신고하는 이유가 체육지도자 1명이 무조건 있어야 하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있어야 되지요.

○**강유정 위원** 그렇기 때문에 무인 헬스장이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관리자가 없으면.

사망사고 전수조사하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저는 못 해 봤는데요?

○**강유정 위원** 문체부에서 전수조사 했었는데요?

2차관님, 맞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제가 와서 이런 지시를 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강유정 위원** 무인 헬스장이 전국에 몇 군데인지는 혹시 아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모르겠습니다.

○**강유정 위원** 이것 모르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우후죽순으로 계속 생겨나고 있고, 네이버에서 24시간 무인 헬스장 검색해서 보여 준 결과 이거입니다. 지금 조사 결과 하고 225곳이라고 나오는데 저희가 조사한 것만 해도 321곳이 넘어요. 그러면 전국 단위로 하면 훨씬 넘지요?

지난 2월에, 사망사고가 있었던 곳이 부산이라고 했잖아요. 이 부산은 여기 조사결과에 포함도 안 되어 있습니다, 사망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문체부에서 부산에 10개가 있다라고 조사를 했는데 저희가 조사해 봤더니 80곳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도 안 맞는 상황이고. 대구도 그래요. 대구도 무인 헬스장 한 곳이 적발됐어요. 그런데 상호명이 ‘나 홀로’, ‘솔로’ 이런 곳도 많아서 오히려 더 유도를 하고 있는 상황도 많습니다.

무인 헬스장이 두 가지 형태예요. 하나는 예약제로 장소를 대여하는 방식이 있고, 일과 시간에 직원을 배치하고 저녁시간, 새벽시간에는 무인으로 활용을 하는데 문체부에서 갈 때는 낮에 가니까 잘 모르시는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 사고 위험이라든가 2차 범죄의 다양한 의혹들은, 위험들은 밤에 일어나거든요.

그렇게 손 놓고 있는 새 이게 체인화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 모델이 되고 있고 상호명도 우후죽순이고, 24시간이 강조가 되고, 이러다가 또 누가 다칠 게 사실은 너무 명약관화합니다. 너무 위험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고 후에 또 소 잃고 외양간, 그때 돼서 또 장관님이 저는 몰랐습니다 하시면 안 되고 상당히 위험한 수준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 마련을 요구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알겠습니다.

오늘 알려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형배 위원 장관님, 밤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감사합니다.

○민형배 위원 하여튼 빠른 속도로 해 보겠습니다, 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인데요. 제가 지난달에 지금까지 추진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는 그런 기회를 한번 가졌습니다. 광주의 ACC에서 했는데요. 예산, 조직, 기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간단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면)

우선 국비 투입이 아직 멀었고 자자체 보조사업은 30%도 되지 않아서 이걸 좀 속도감 있게 진행할 필요가 있겠다, 특히 지방비 매칭이 지금 50%로 되어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자자체들 예산 상황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걸 국고보조금 비율을 좀 높이거나, 특별법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탄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의 지위를 격하하려는 노력을 광주 시민들이 되게 거세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게 지금 2년째 조성위가 구성이 안 되고 있거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아, 위원회가요?

○민형배 위원 예, 위원회가 지금 기능을 못 하고 있어요, 2년째. 이것 좀 살펴봐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민형배 위원 그리고 문체부에 아문단이 있는데 이게 소속이 좀, 저기 보시면 국가사업으로 보기에는 소속이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28년이면 특별법 일몰 연도, 그러니까 특별법이 끝나거든요, 적용기간이. 이 안에 아무리 봐도 안 될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한 대응조치도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 관련해서요, 지금 국립현대미술관 분관체계 조직정비 연구용역을 맡기셨는데 이게 1억 8200만 원짜리 용역인데요. 기초자료부터 좀 잘못됐습니다. 호남에는 국립미술관 분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ACC에 미술관 분관이 있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완성 전이라고 하니까 제대로 좀 봐 주시면 좋겠고요.

이 연구용역의 일부 내용을 보니까 분관 정책을 할 때 서울, 경기 및 인천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박물관 및 미술관법 개정안을 통해서 권역별로 이게 좀 균등하게 들어설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특히 지난번에 대통령 광주 방문 때 스물여덟 번째 민생 토론회가 있었는데 이때 광주시에 요청하고 토론회의 안건이 영, 그냥 빗나갔어요. 이것도 좀 챙겨 보셔서, 광주관 필요성을 제가 여섯 가지 정도 저렇게 정리를 한번 해 봤거든요. 이걸 보시고 현대미술관 광주관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알겠습니다.

○민형배 위원 하실 말씀 있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제가 지난번에 이미, 이 부분은 협의를 여러 번 했는데요. 일단은 이 아특회계 자체가 작년보다도 지금 집행이 잘 안 되고 있고, 내년이 한 170 억 정도 그리고 광주시 자체도 지금 자기들 부담으로는 너무 역량이 안 된다고 얘기도

하고 있고……

○민형배 위원 그래도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인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러니까 사업은 너무 지금 여러 가지로 벌려져 있고, 그래서 제가 제안하기는 우선 할 수 있는 걸 하자라는 쪽으로 제안을 했고요. 그래서 미술관도 그렇게 저거 하면, 저는 전국에 국립시설 들어서는 걸 지금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법인화해서 국립을 붙이자라는 쪽으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민형배 위원 아무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래서 아특회계로 미술관 먼저 지으면 더 좋겠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다음에 음악 저작권료 관련된 건데요. 아마 들으셨겠지만 가수 조용필씨가 11년 만에 정규직 20집을 발표를 하는데 웨이브, 왓챠 같은 OTT에서 조용필 곡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런데요 방송사나 IPTV는 저렇게 보시는 것처럼 연간 한 오류백억 씩 음원 사용료를 내거든요, 저작권료를 내거든요. 그런데 OTT는 이런 거 안 냅니다. 그런데 그동안 저작권법을 보면 이 OTT들이 납부를 안 하면 저작권료 강제 징수가 불가능하게 돼 있어요. 이거 그대로 되서는 안 될 것 같거든요. 조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지금 아마 대부분 다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민형배 위원 지금 진행 중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음악저작권협회하고만 아직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민형배 위원 얼른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요.

외국인 카지노가 국내에 여러 개 있는데 여기서 보면 사고가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2022년에 440건이었는데 올해 8월 말까지만 해도 벌써 1195건이에요. 사고가 음주 소란, 기물 파손, 폭력, 절도, 마약, 성범죄 이런 게 나는데 임직원 사고까지 더해 가지고 지금 이 카지노들이 무법천지가 됐습니다. 이걸 꼭 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민형배 위원 특히요 이게 사회공헌사업을 많이 한다고 돼 있는데요,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사회공헌사업이 한 해에 48억인데 98%가 도로 파라다이스재단으로 돌아갑니다. 이것 좀 부조리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민형배 위원 이것 가족으로 이렇게 막 해 가지고 재단들 해 가지고 거기다 사회공헌 사업한다고, 이건 사실은 거의 대국민 사기에 가까운 건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알겠습니다.

○민형배 위원 특히 사건이 벌어지면 지금 외국인 카지노에서는……

(「정리 좀 하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만하겠습니다.

은폐가 아주…… 심란합니다. 행정처분 안 되고 있고요.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밤늦게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알겠습니다.

○김승수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전재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승수 위원 예.

벌써 1시도 훌쩍 넘었습니다. 사실 저도 이번 국정감사 기간 중에 초과 발언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다음부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원칙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 두 번 1분씩 더 주는 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계속 이렇게 한도 끝도 없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들 간의 형평성도 있고……

사실은 제가 5년 동안 문체위에 있습니다만 국정감사 기간 중에 12시를 넘어서까지 이렇게, 또 사전에 예정에도 없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오늘 12시에 끝나야 되는 걸 지금 1시 이상 끌고 있는데 앞으로는 추가발언시간을 주더라도 마이크를 넣느냐 안 넣느냐까지 이렇게 해서 원칙을 정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또 참고인·증인을 불렀을 때도 참고인·증인한테 충분한 발언 기회 주는 것에 대해서 저도 찬성을 합니다만 그것도 너무 무제한으로 이렇게 주다 보면 증인 간에, 참고인 간에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오늘 준비한 질의의 절반도 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위원님들의 발언 기회 제공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어떻게 보면 양보한 측면이 있는데 그런 양보에도 불구하고 한 분께서 너무 많은 것들을, 본인 거 질문 계속 다 하려고 하다 보면 서로 간에 이게 또 경쟁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한도 끝도 없이 회의가 길어지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는 더 원칙을 정해서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전재수 김승수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사실은 제가 시간을 1분 단위로 계속해서 더 넣어 드리면서 넣어 드리고 있는 걸 아시겠지, 아시겠지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정감사가 너무 이렇게 장시간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직접 질의를 할 것들을 서면질의로 넣어 주시는 분들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감안을 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실 때 참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 입장에서는 기왕에 국정감사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다 못 하고 넘어가면 그것도 또 위원장이 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고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때때로 상당히 난처한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시간을 잘 배분해서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분 남았습니다.

김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위원 3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장관, 본 위원이 지난 15일 출판문화진흥원 국감에서 한강 작가도 블랙리스트 피해를 입었고 진흥원이 문체부 추천도서에서 한강 작가 작품을 배제했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국감 당일 진흥원장은 한강 작가를 포함해 블랙리스트 피해자에게 다시 한번 사과를 했지만 말뿐인 사과였습니다. 사과에는 피해 구제와 명예 회복을 위한 노력이 뒤따라야 진정한 사과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라도 문체부 추천도서에 포함해야 한다는 질의에 대해서 심사위원회 심의 사항이다라며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사업계획 변경을 문체부와

협의해 보겠다고 하면 되는 문제인데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식으로 치부를 해 버렸습니다. 진홍원 원장의 답변이 보편적인 국민의 상식과는 맞지 않습니다.

장관은 이제라도 한강 작가 작품 및 블랙리스트 피해 작품 재심사하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어디…… 출판 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재원 위원 예.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원래 세종도서라는 건 그 해에 새로 출간된 것만 심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전 거를 다시 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리고 한강 작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세종도서에 들어갈 수 있는 그레이드가 아닙니다.

○김재원 위원 블랙리스트 명단에 들어 있어서 작품들이 다 배제가 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거의 9800명인지 1만 명의 리스트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요……

○김재원 위원 이제라도 작품을 복권을 시켜 달라는 말씀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건 여러 가지로 지금 다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실제로 그분이……

○김재원 위원 그래도 검토를 다시 해 봐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김재원 위원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불교 선명상센터 건립사업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김재원 위원 선명상센터 건립함으로써 문체부가 국민 정신건강 증진과 치유 효과 그리고 종교문화시설 확대 및 관광자원으로서의 기능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예산안에 설계비 3억 원이 반영이 되지 않아서 내년 사업이 곤란해졌습니다. 향후 예산 심사에서 중액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통사찰 관련 사업 2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문화유산이기 때문에 보수·정비할 때 문체부지침에 따라서 전문 문화유산 수리업자가 설계 및 시행하고 있고 일반 건축물 보수·정비에 비해서 사업비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자부담을 일부 완화하기 위해서 대략 28억 정도 국비 증액하면 보수·정비사업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서 전통사찰 보수된 것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안들을 검토를 하기 위해서 연구도 필요한데 한 5억 정도면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수·정비와 연구비 증액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자부담이 20%에서 작년에 10%로 더 내려준 것 같은데 그러면 거기서 더 내리면 자부담을 없애……

○김재원 위원 지금 20% 비율로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아니요, 10%로 내렸습니다.

○김재원 위원 예.

그다음에 지난 국정감사에서 남산 공연예술벨트 조성 방안 질의했는데 문체부가 자유총

연맹에 리모델링비와 임차료 등 683억 원을 지원을 하고 주변 부지 개발이익이 1500여 원 발생된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문체부에서는 대체할 수 있는 임차 공간 없고 자총 건물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종감 전에 설명하셨는데 제가 얘기한 본질은 그게 아닙니다. 중립성을 포기한 극우단체, 선거 개입 논란을 일으킨 단체에게 국비를 지원하는 것은 시정을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향후 예산심사에서 이 사업, 공연예술창제작공간 조성사업 예산은 전액砍감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에 당부드립니다.

남산 공연예술벨트 조성방안에서 자총을 제외하고 공연예술인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계획 변경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5차 질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임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오경 위원 장관님, OTT 콘텐츠 대중문화예술산업에 포함될까요, 안 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세액 공제요?

○임오경 위원 OTT 콘텐츠 대중문화예술산업에 포함되나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그렇지요.

○임오경 위원 포함이 안 돼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왜 포함이 안 되지요?

○임오경 위원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에 온라인 비디오물이 없습니다.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영상자료를 보면)

그런데 6월에 보니까 미국 배우노조 만났을 때 미국 배우들이 OTT 상영에도 정당한 보상을 받는 사례를 듣고 우리나라에서도 재방송료를 받는다고 소개하셨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임오경 위원 이 두 사례가 유사한 사례입니다. 미국에서는 미국 배우노조와 미국 영화·TV 제작자연대의 단체협약의 결과로 정당한 보상을 지급받고 있어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그렇습니다.

○임오경 위원 그런데 우리나라는 저작권법상 포괄적 양도조항 때문에 특약을 체결해야 재방송료 같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만나야지 모든 게 해결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우, 감독, 작가, 스태프 등 유관단체들과 넷플릭스와 만나는 자리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정당한 보상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에도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물론이지요.

○임오경 위원 넷플릭스도 자신들의 콘텐츠가 영화라는 것을 인정하고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넷플릭스가 우리 영화 생태계의 구성원으로서 영발기금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저는 장관님이 나서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임오경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영상 하나 보여 주시지요.

장관님, 웹툰산업 시장 규모 얼마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우리 시장인가요?

○임오경 위원 2조가 넘고 있습니다. 2조 6000을 넘고 있어요.

이 영화들이 공통점들이 있어요. 이 모든 공통점들은 웹툰 원작의 영화, 드라마라는 점입니다, 지금 보여지는 이 4개가.

웹툰은 단순히 온라인으로 보는 만화가 아니고 K-콘텐츠로 웹툰이 중요한 이유는 웹툰 그 자체의 가치도 있지만 웹툰의 IP를 드라마, 게임 등에 적용하여 새로운 파생 콘텐츠들을 만들어 낼 수 있다라는 데 있습니다. 특히 주 1회 이상 웹툰을 보는 분들까지 포함하면 60대 중 95.7%가 분기당 1회 이상 웹툰을 접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거를 보면서, 지역에서 느낀 겁니다. 최근 우리 경로당에 스마트경로당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의 관광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관광 코스부터 시작해서 이 웹툰 드라마를 만들어서 우리의 스마트경로당 어르신들에게, 우리가 모여서 식사하고 그냥 노래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 어르신들에게 이 웹툰 프로그램을 깔아 준다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콘진원과 함께 이 프로그램을 장관님이 다양하게 콘텐츠를 만들어 주시는 데 기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웹툰은 하여간 지금 저희들이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고 있고요. 어차피 웹툰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니까요, 지금 말씀처럼 그것이 영화, 드라마, 게임 모든 것으로 파생되기 때문에 하여간 열심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그리고 최근에 국민의힘 한동훈 당대표가 대통령 독대를 하는 걸 보고 제가 갑자기 생각난 거예요.

장관님은 대통령을 개인적으로 독대를 해 보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독대는 한 적 없습니다. 업무보고는 여러 차례 했습니다.

○임오경 위원 저는 독대를 권유합니다. 계속해서 이번 국감만 보시더라도 김건희 여사에 사유화된 문체부가, 진짜 문체부가 김건희 여사에 사유화된 것 그런 느낌을 받고 있어요. 그렇다면 관심이 많을 거 아닙니까? 장관님께서 직접 독대하셔서 진짜 우리 문화, 예술, 체육인, 관광 쪽에 관련돼서 진짜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좀 더 관심을 가져서 진짜 현장의 지원을 더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알겠습니다. 그런 의견 교환은 충분히 하고 있고요. 사실 우리 문화부의 정책은 저희들이 직접 다 잘 하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제가 보고를 다 드리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마지막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마무리를 하면서 영화 ‘명량’의 이 대사를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충은 백성을 향해야 한다’, ‘임금이 아니고 말입니까?’, ‘백성이 있어야 나라가 있고 나라가 있어야 임금이 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명량’의 대사 중 이 대사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고.

22대 국감 긴 시간 동안 치르시느라고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진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현장에 있는 분들을 위한 종사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 여기 있는 모든

위원님들과 함께 손잡고 현장을 위해서 저희 또한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재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민형배 위원 예,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죄송합니다. 특히 배현진 위원님 송구합니다.

제가 아까 증인 신문하면서 추가질의를 당겨쓰는 바람에 그냥 못 한 게 있어서 욕심이 좀 지나쳐서 그랬습니다. 다음부터 좀 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도 제가 잘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위원장님, 제가 아까 질의한 것 중에 완전히 이게, 제가 하도 급하게 하다 보니까 잘못된 게 있어서 바로잡고자 합니다.

장관님, 아까 말씀하실 때 보니까 현대미술관 광주관을 만약에 한다면 아특회계로라도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 하셨는데 사실은 이게 전혀 다른 회계인데 제가 그냥 순간적으로 지나가 버렸거든요. 그건 일반회계이기 때문에 아특회계하고 연결되는 게 아니라는 점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저는 빨리 진도를 나가려면 그렇게라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민형배 위원 아니, 그래도 제가 거기에 동의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하여간 시하고 의논을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임오경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시겠다고 하는 것을 제가 허락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했는데, 아까 증인으로 채택을 했던 강신준 증인에 대해서 위원회 차원에서 고발을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는 내용의 의사진행발언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종합적으로 여야 간사 위원님들과 함께 협의를 거쳐서 위원회 차원에서 대응하겠다라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님들의 5차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님을 비롯한 피감기관 관계자들께서는 국정감사 기간 동안 제기된 지적사항 가운데 시정이나 개선이 필요한 점은 즉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정책 대안은 앞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주시고 후속조치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는 추후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초안을 마련한 후에 각 의원실로 보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한 다음 의결하여 채택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원 감사 요구, 증인에 대한 고발 및 징계 요구 등에 관해서는 향후 간사 위원님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에서 김재원 위원님, 김윤덕 위원님, 강유정 위원님, 김승수 위원님, 양문석 위원님, 임오경 위원님, 민형배 위원님, 박정하 위원님, 박수현 위원님, 배현진

위원님, 진종오 위원님, 신동욱 위원님, 이기현 위원님, 조계원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해당 기관은 답변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일주일 이내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에서 임오경 위원님, 강유정 위원님, 박수현 위원님, 양문석 위원님, 이기현 위원님, 김승수 위원님, 민형배 위원님께서 정책자료집을 배포하셨습니다. 자료집을 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와 박수를 보냅니다.

해당 기관들은 자료집 내용을 잘 살펴 주시고 향후 정책 수립 과정에 적극 활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3주 동안 한결같이 성실하고 열정적으로 국정감사에 임하시고 원만한 국정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효율적이고 원활한 국정감사 운영을 위하여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박정하 간사님, 임오경 간사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님, 최용천 국가유산청장님 그리고 산하기관장님들과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국정감사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주신 정책연구위원과 보좌진 여러분, 수석전문위원과 위원회 직원 여러분, 속기, 경위 및 국회방송 직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24년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0월25일 01시39분 감사종료)

○ 출석 감사위원(16인)

강유정 김승수 김윤덕 김재원 민형배 박수현 박정하 배현진 신동욱 양문석
이기현 임오경 전재수 정연옥 조계원 진종오

○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김월모
전문위원 전완희
입법심의관 김충섭

○ 피감사기관 참석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인촌
제1차관 용호성
제2차관 장미란
차관보 이진석
기획조정실장 황성운
국제문화홍보정책실장 최보근
총무실장 정용욱

국민소통실장 유병채
대변인 강수상
감사관 최현준
정책기획관 이정미
문화정책관 이해돈
예술정책관 신은향
지역문화정책관 강대금
국제문화정책관 김재현
해외홍보정책관 채수희
소통정책관 김도형
소통지원관 이준호
디지털소통관 이정은
콘텐츠정책국장 윤양수
저작권국장 정향미
미디어정책국장 김용섭
체육국장 이정우
체육협력관 송윤석
관광정책국장 김정훈
관광산업정책관 김근호
운영지원과장 남찬우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 김대진
사무국장 권수진
국립중앙박물관
관장 김재홍
행정운영단장 김영수
국립국어원
원장직무대리 정희원
국립중앙도서관
관장 김희섭
국립국악원
원장직무대리 김명석
기획운영단장직무대리 조현나
국립민속박물관
관장 장상훈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관장 한수
국립한글박물관
관장 김일환

국립장애인도서관

관장 황금숙

국립중앙극장

극장장 박인건

국립현대미술관

관장 김성희

기획운영단장 박승범

한국정책방송원

원장 이은우

방송기획관 이성구

방송보도부 조대익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전당장 이강현

대한민국예술원사무국

사무국장 박위진

한국문화정보원

원장 정운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원장 김세원

세종학당재단

이사장직무대리 배종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정병국

사무처장 송시경

예술의전당

사장 장형준

경영본부장 이재석

(재)예술경영지원센터

대표 김장호

기획경영본부장 김범훈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이사직무대리 정철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직무대리 유현석

글로벌혁신부문장 김락균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한상준

사무국장 박덕호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 김병재

사무국장 이의준

한국영상자료원

원장 김홍준

사무국장 박노민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서태건

사무국장 권혁우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 강석원

기획혁신본부장 강성태

한국저작권보호원

원장 박정렬

경영기획실장 최종철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 김효재

경영본부장 유병철

미디어본부장 남정호

미디어센터장 김선호

국제방송교류재단

사장 김태정

경영본부장 김중식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원장 김준희

사무처장 김일희

한국문학번역원

원장 전수용

경영기획본부장 이정근

한국관광공사

사장직무대리 서영충

그랜드코리아레저(주)

사장 김영산

경영본부장 김현기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조현재

전무이사 박용철

대한체육회

사무총장 윤성욱

사무부총장 김종수

종목육성부장 양우영
대한장애인체육회
사무총장 양충연
한국체육산업개발(주)
대표이사 신치용
스포츠윤리센터
이사장 박지영
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 김중현
사무총장 이종갑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원장 신미경
국립극단
단장겸예술감독 박정희
국립발레단
단장겸예술감독 강수진
국립오페라단
단장겸예술감독 최상호
국립현대무용단
단장겸예술감독 김성용
서울예술단
단장겸예술감독직무대리 류상록
(재)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대표이사 최정숙
한국문화원연합회
회장 김대진
사무총장 전병화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직무대리 김성수
사무총장 김윤정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장 심오택
사무처장 이진식
국립정동극장
대표이사 정성숙
(재)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이사장 김형희
국가유산청
청장 최용천

차장 이경훈
 기획조정관 황권순
 유산정책국장 임영아
 문화유산국장 이종희
 자연유산국장직무대리 여성희
 무형유산국장 윤순호
 운영지원과장 박정섭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장 강경환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원장 임종덕
 국립고궁박물관
 관장 정용재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소장 김성배
 궁능유적본부
 본부장 이재필
 국가유산진흥원
 원장 최영창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
 이사장 김정희
 사무총장 곽창용

○출석 증인

김성현(국립세계문자박물관 관장)
 김풍년(대한축구협회 행정지원팀장)
 김태호(하이브 최고운영책임자(COO))
 정몽규(대한축구협회 회장)
 조연상(한국프로축구연맹 사무총장)
 하종대(전)한국정책방송원 원장)
 곽영진(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이사장)
 김종민(대한키복싱협회 회장)
 강신준(전)대한키복싱협회 회장)

○출석 참고인

박기태(반크 대표)
 김성희(유튜버(김성희의 G식백과))
 전성준(Ehoo LTS 여행사 대표)